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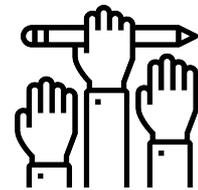
Gyeongnam
Education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연구기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주관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연구기간	2017.9.7. ~ 2017.12.20.
연구과제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연구책임자	세상모든소통연구소 1 소 장 1 석종득
공동연구진	1 책임연구원 1 손성학
	1 주임연구원 1 이아실
	1 연구원 1 문지원
	1 연구원 1 박효경
	1 연구원 1 성동하
	1 연구원 1 박은주

진행 경과

9월 20일	· 1단계 교육현장 수요조사 실행계획서(안) 논의
9월 25일	· 연구계획서 제출 · 1단계 교육현장 수요조사 실행계획서 제출
9월 26일	· 1단계 교육현장 수요조사 실행계획서 및 질문지 확정
9월 29일	·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 1차 논의
9월 29일 ~ 10월 11일	· 지역교육청·학교 사전 의견조사 실시
9월 29일	· 2단계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안) 제출
10월 13일	·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안) 제출
10월 17일	·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 심의
10월 19일	·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 수정안 제출
10월 26일 ~ 10월 28일	· 예비조사 진행
10월 30일	·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 심의회
10월 30일 ~ 11월 3일	· 교육정책 수요조사 퀘셔너리 내부전문가 검토
11월 6일 ~ 11월 14일	· 본조사 진행
11월 21일	·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 제출
11월 24일	· 중간보고서 수정안 제출
11월 27일	· F.G.I.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의
11월 27일	· 중간보고서 제출
11월 29일	· F.G.I. 실행계획 및 집단 간 문항별 결과(빈도분석) · 부록 검토 및 협의
12월4일 ~ 12월5일	· F.G.I. 실행
12월13일	· 결론 방향 논의
12월18일	· 정책연구심의위원회(검수) 및 연구결과 발표회
12월20일	· 최종 보고서 제출

연구 요약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남교육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책 읽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배움 중심으로의 수업전환도 학부모들의 우호적 반응 속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사업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가방 안전덮개, 미세먼지진단, 부정부패 근절 등 많은 부분에서 경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교육주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 또한 많이 늘어나 학부모들이 교육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경남교육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모든 공적부문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정책이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육정책은 직접수요자인 학생들이 아직 독립적인 가치판단을 함에 부족함이 있어 그 부모가 수요자 역할을 대신(또는 보완)해 주고 있는 다른 정책들과는 다른 특별한 정책수요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연유로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립과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을 직접 실행하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또한 교육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어 수요자 인식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남교육 3주체 즉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경남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연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인식단면을 조사해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교육 3주체 간은 물론 지역별, 학교급별, 연령대별 등 세부적인 수요자 분류기준에 의거해 인식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요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경남교육정책의 현재를 파악하여 평가기준점을 세워보고자

한다. 향후 전개될 다양한 조사연구에서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세우고자 함이 본 조사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연구의 중요도-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융합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수요자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경남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경남교육현장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은 경남교육혁신의 하나이다. 잘 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경남교육 혁신에 꼭 필요한 절차이며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문헌조사는 본 연구에서 진행될 조사단계별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경남교육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진연도, 예산, 대상별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방향별 정책의지의 추이와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① 1단계 : 정책실행담당자 대상 사전의견조사

사전의견조사는 경남교육청 소속 18개 교육지원청의 6급 장학사, 지역별 10% 내외의 초·중·고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의 3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책실행담당자들의 관점과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이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들로 구성하였다.

② 2단계 : 교육수요자 대상 교육정책 수요조사

경남 전역의 학생(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 7,218명, 학부모 10,907명, 교직원 4,258명 총 22,383명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다. 경남의 교육인식, 경남교육의 현주소, 경남 교육정책의 평가,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까지 총 4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경남 교육수요자들의 교육관련 인식을 확보하고 경남 교육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③ 3단계 : 표적집단면접조사(F.G.I.)

3단계 표적집단면접조사는 1단계, 2단계 정량조사 결과에 관한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학부모, 교사, 정책실행담당자(장학사, 교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집단별로 수요조사 결과의 유의미성을 도출하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경남교육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 시사점

① 대체로 긍정적인 학생의 인식

경남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생인식의 특징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보통이다’와 부정적 답변의 합을 넘었고 의사표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며,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만들기라는 실리적 선택도 했다. 특히 행복학교 확대와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변화 및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변화 등에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학생의 목표와 경남교육 혁신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②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학부모의 인식

학생인 자녀와 연관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전반적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연구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주체로 연관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하고 있지만 그 외 정책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방과후학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행복학교 확대 등 교육 전반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의 확대,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의 현실적 정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경험과 수혜가 인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남교육이 좋은 정책을 내 놓고 잘 실천하고 있어도 내 아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거나 가치중립적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학부모의 인식을 감안하면 32개 정책과제 중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인성교육 및 행복학교의 확대와 배움이 즐거운 교실이 조속히 경남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교직원의 당연한 이중적 인식

교육수요자로서, 교육실행담당자로서의 인식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교직원들의 경남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실현담당자로서 경남교육 혁신과 교육현장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와 교직원 복지에 대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아쉬움도 읽을 수 있었다. 그 결과가 행복학교 운영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서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중요도와는 다른 결과의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 정책과제 재분류를 통한 교육복지의 대상별 분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전략적 교육협력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중심수업으로의 변화에 대한 교직원의 실천의지와 인식은 경남교육 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육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의 출발점이 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④ 이해도-만족도간 상관관계 유의성 확인

본 조사 연구 수행과정 중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핵심 결론은 이해도와 만족도간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개별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만족도나 성공가능성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이해도와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BCG 매트릭스를 통한 정책재분류 시도

본 연구 IV장 본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한 BCG 매트릭스를 활용한 재분류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 32개 정책과제를 간단하게 재분류해 본다면 <표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제언 ②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재분류의 결과 중 만족도와 중요도가 2%~12%에 머물러 있던 조사결과 극히 미미한 수준의 수요자 응답을 얻어 론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을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으로 통합해 조사결과를 적용해보면 <표 1>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물론, 중요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단순 합산한 결과이지만 재분류를 통한 통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경남교육 32개 정책과제 재분류 전 후 비교표

*()안은 전체 순위

재분류 전			재분류 후		
정책과제	만족도	중요도	정책과제	만족도	중요도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3.40%(26)	2.70%(30)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과 예체능교육	23.4% (9순위)	20.5% (8순위)
맞춤형 특수교육	2.50%(30)	3.90%(28)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8.60%(21)	6.00%(22)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8.90%(18)	7.90%(19)			

① 오늘 없는 미래는 없다

금번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경남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경남미래교육방향은 '혁신'과 '인성' 그리고 '준비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을 통해 수업, 소통체계, 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변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학생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순종적 획일적 학생이 아닌 다양한 인간적 매력을 갖춘 사람으로 커가길 바라며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 수요자들은 미래교육이 주는 환상이나 기대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인기를 얻고자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생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교육정책 수요자들에게 미래교육이란 당장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바로 그 과정이다. 아울러 다가 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매력 넘치는 사람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② 교육협력공동체 활성화로 교육자치·분권 선도해야

지방자치와 분권확대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에 대한 논의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12월 교육감 일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은 ‘국가에서 지방 중심으로, 행정에서 교육 중심으로’라는 원칙에 맞도록 규제폐지와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재정립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제 경남교육 또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시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경남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과의 교육협력공동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복교육지구의 필요성에 학부모(78.4%)와 교직원(62.5%) 동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교육협력공동체 수준으로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및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등의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 정책제언

① 이해도와 만족도의 유의성을 활용하는 정책홍보 방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그럼 수요자의 이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방적이고 단순한 소통으로는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이해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사전 연수를 실시(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하거나 사랑방 좌담회 형식의 소규모 설명회(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 소통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복잡한 정책과제(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는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각 정책과제의 특성별로 맞춤형 홍보를 전개해야 이해도 제고를 통한 수요자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재분류 방안

앞에서 살펴 본 5대 정책방향별 32개 정책과제의 만족도-중요도 연구결과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대응(재분류) 방안을 적시하였다. 이 방안은 경남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한 일종의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정책재분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에 기반한 정책방향별 정책과제 재분류(안)

구분	대응(재분류) 방안		대상정책
만족도 ↑ 중요도 ↑	(만족도=중요도) → 이해도 제고 ; 만족도 제고 경남교육 대표 브랜드로 육성 → 각 정책별 스토리텔링 전개		생활속에 실천하는 인성교육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 만족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만족도>중요도) → 정책안정화 만족도의 안정적인관리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확대 : 지속적 수요자 반응 확인 - 정책 추진 경과 및 성과 취합 홍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안전한 건강 급식 방과후학교 운영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만족도<중요도) → 확대재생산 ; 만족도 제고 - 중요도 검증 완료 정책 →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 확산시킬 시기		행복학교 운영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만족도 ↓ 중요도 ↓	→ 존속가치 평가 후 재분류 추진	타 분류 이관	나라 사랑 교육 → 인성교육 따뜻한 보건교육 → 교육복지
		맞춤형 특기교육 확대 재생산 →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	체육교육 과학영재교육 문화예술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대상별 정책	→ 대상자별 교육복지 및 행정정책 이원화 : 수요자간 무관심 및 경쟁구도 극복	교직원 행정 & 복지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학생 학부모 행정 & 복지	소통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시대상 반영정책	→ 지역사회와 교육협력네트워크 확대 운영 - 통합 확대 핵심정책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③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남교육정책 공모전 개최

FGI 조사를 위해 만나 본 경남교육 수요자들은 하나같이 경남교육방향과 정책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거의 전문가 수준의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참여와 의견에 감사를 드린다. 경남 교육가족 중 참여하신 분들만 그렇겠는가? 더 많은 분들이 경남교육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본다. 공모전을 년 2차례 진행한다면 매년 수백건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실천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면 교육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내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혹 대상자가 없더라도 많은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남교육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④ 교육자치 교육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경남교육협력공동체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또한 일선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16년 결산기준 약 45억원이 기초교육경비보조금수익으로 결산집계 되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적은 지원규모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결국 기초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교육수요자 특히 지역 학부모와 연계해 지자체의 교육책임성 제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해당지역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 교육협력공동체를 협약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학교, 행복학교,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등의 정책과제를 공동 추진한다면 기초단체들의 교육책임성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교육행정지원사업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자체에 대한 인식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I.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03
.....	
2.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005
.....	
3. 연구 대상	013
.....	

II. 문헌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1. 경남교육청의 정책과제별 추진사업	027
.....	
2.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동향분석	044
3.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 개발	049

III. 조사연구 1단계 :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1. 빈도 분석 결과	053
.....	
2.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078
3. 정책실행담당자의 중요도-시급도 교차 매트릭스	080
4. 소결론	087

IV. 조사연구 2단계 : 교육정책 수요조사

1. 예비조사(Pilot test) 분석 결과	091
---------------------------------	-----

.....	
2. 본조사 분석 결과	098
.....	
3. 교육 3주체의 만족도-중요도 교차 매트릭스	201
4. 소결론	209

V. 조사연구 3단계 : F.G.I.

1 F.G.I. 주제별 키워드 분석결과	241
2. 소결론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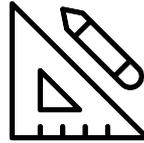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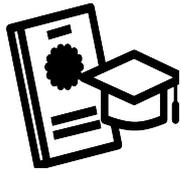
VI. 결과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78
.....	
2. 정책제언	282
.....	

참고문헌 287

권내부록

1. 설문지	289
.....	
2. 경남 정책방향별 예산 동향	331
.....	
3. 공통문항 교차 비교분석	358



■ 표 목차

[표 1]	경남교육 32개 정책과제 재분류 전 후 비교표	x
[표 2]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에 기반한 정책방향별 정책과제 재분류(안)	xii
[표 3]	교육정책 수요조사 '1단계의 조사 개요'	005
[표 4]	교육정책 수요조사 '1단계의 조사 내용'	006
[표 5]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의 예비조사 개요'	006
[표 6]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의 본조사 개요'	007
[표 7]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의 조사 내용'	008
[표 8]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개요'	010
[표 9]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진행 시나리오'	011
[표 10]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질문 세부내용'	011
[표 11]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질문 세부내용'	013
[표 12]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참가자 지역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014
[표 13]	교육정책 수요조사 '1단계 조사의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015
[표 14]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예비조사의 배경변인별 교직원 응답자 분포'	015
[표 15]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예비조사의 배경변인별 학부모 응답자 분포'	017
[표 16]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예비조사의 배경변인별 학생 응답자 분포'	018
[표 17]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본조사의 배경변인별 교직원 응답자 분포'	019

[표 18]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본조사의 배경변인별 학부모 응답자 분포’	020
[표 19]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본조사의 배경변인별 학생 응답자 분포’	021
[표 20]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그룹별 참석자’	022
[표 21]	2012년 이후 경남교육의 정책방향	027
[표 22]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주요 내용	029
[표 23]	(정책방향 1)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030
[표 24]	‘경남교육 중점과제 ① : 행복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	031
[표 25]	‘경남교육 중점과제 ② :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사업’의 성과	032
[표 26]	(정책방향 1)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033
[표 27]	(정책방향 2)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033
[표 28]	(정책방향 2)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034
[표 29]	(정책방향 3)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035
[표 30]	‘경남교육 중점과제 ③ :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의 성과	036
[표 31]	(정책방향 3)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037
[표 32]	(정책방향 4)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038
[표 33]	(정책방향 4)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039
[표 34]	(정책방향 5) 정책과제의 추진사업 수 비교	040
[표 35]	‘경남교육 중점과제 ④ :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단축’의 성과	041
[표 36]	(정책방향 5)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041
[표 37]	정책의 영역을 중심으로 본 2015년 전·후 경남교육의 정책방향 비교	042
[표 38]	2015~2017년 정책방향별로 예산이 집중된 경남의 정책과제	042
[표 39]	‘11차 교육여론조사(KEID POOL 2016)’의 설문 구성	044
[표 40]	강원도교육청 ‘2016년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 연구’의 설문 구성	046
[표 41]	부산교육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한 정책설문조사’의 설문 구성	047
[표 42]	조사도구, 조사영역 및 내용	049
[표 43]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54
[표 44]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55

[표 45]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56
[표 46]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57
[표 47]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58
[표 48]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59
[표 49]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60
[표 50]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61
[표 51]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62
[표 52]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63
[표 53]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64
[표 54]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65
[표 55]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66
[표 56]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67
[표 57]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68
[표 58]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69
[표 59]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70
[표 60]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71
[표 6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72
[표 62]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73
[표 63]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 설문결과	074
[표 64]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 설문결과	075
[표 65]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순위분석	000
[표 66]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결과	078
[표 67]	예비조사 데이터 클리닝 결과 불량 및 유효데이터 수	092
[표 68]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교직원, N=190)	093
[표 69]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학부모, N=213)	094
[표 70]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학생, N=540)	094

[표 71]	예비조사의 기타 의견	097
[표 72]	본조사 데이터 클리닝 결과 불량 및 유효데이터 수	099
[표 73]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교직원, N=4,050)	100
[표 74]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학부모, N=10,499)	100
[표 75]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결과(학생, N=7,050)	101
[표 76]	‘회복적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환’에 관한 설문결과	105
[표 77]	‘행복학교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07
[표 78]	‘자유학년제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08
[표 79]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0
[표 80]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2
[표 81]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4
[표 82]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6
[표 83]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결과	120
[표 84]	‘배움중심수업 확산’에 관한 설문결과	122
[표 8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124
[표 86]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에 관한 설문결과	126
[표 87]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설문결과	128
[표 88]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130
[표 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설문결과	132
[표 9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34
[표 91]	‘교직원복지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35
[표 92]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에 관한 설문결과	136
[표 9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관한 설문결과	138
[표 94]	‘경남의 교육혁신 만족도’에 관한 설문결과	140
[표 95]	‘교육혁신 만족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	141
[표 96]	‘교육혁신 만족 이유’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41

[표 97]	‘교육혁신 불만족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	142
[표 98]	‘교육혁신 불만족 이유’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42
[표 99]	‘4대 역점과제 추진성과 만족도’에 관한 설문결과	146
[표 100]	‘타 시도 교육청의 역점과제 중 경남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설문결과	148
[표 101]	‘타 시도 교육청의 역점과제 중 경남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48
[표 102]	‘경남 5대 정책방향 추진성과’에 관한 설문결과	150
[표 103]	‘경남 5대 정책방향 추진성과’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50
[표 104]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52
[표 105]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54
[표 106]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56
[표 107]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58
[표 108]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60
[표 109]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62
[표 110]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64
[표 11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66
[표 112]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68
[표 113]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70
[표 114]	‘미래사회 대비 가장 필요한 교육’ 설문결과	174
[표 115]	‘미래사회 대비 가장 필요한 교육’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74
[표 116]	‘미래사회 대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관한 설문결과	177
[표 117]	‘미래사회 대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77
[표 118]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78
[표 119]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78
[표 120]	‘과정 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에 관한 설문결과	179
[표 121]	‘과정 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79
[표 122]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1

[표 123]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81
[표 124]	‘경남학생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3
[표 125]	‘경남학생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83
[표 126]	‘경남학생의 인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5
[표 127]	‘경남학생의 인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85
[표 128]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7
[표 12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87
[표 130]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9
[표 131]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89
[표 13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1
[표 13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91
[표 134]	‘폭력 없는 공감학교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3
[표 135]	‘폭력 없는 공감학교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93
[표 136]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에 관한 설문결과	195
[표 137]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95
[표 137]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6
[표 13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96
[표 140]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7
[표 141]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97
[표 142]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8
[표 143]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198
[표 144]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자유의견’	199
[표 145]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202
[표 146]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203
[표 147]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205
[표 148]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206

[표 149]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208
[표 150]	경남 교육인식에 대한 3주체 긍정 응답률 비교	210
[표 151]	경남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3주체 긍정 응답률 비교	210
[표 152]	4가지 분류로 재구성하여 비교해 본 긍정 응답률 합계	212
[표 153]	4대 역점 사업 중 잘하는 정책 비교	213
[표 154]	‘행복학교 운영’ 관련 설문 결과	214
[표 155]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관련 설문 결과	214
[표 156]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관련 설문 결과	215
[표 15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관련 설문 결과	215
[표 158]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216
[표 159]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216
[표 160]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217
[표 161]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217
[표 162]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218
[표 163]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218
[표 164]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인식조사 비율표	219
[표 165]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순위표	220
[표 166]	정책방향 1 :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221
[표 167]	정책방향 2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222
[표 168]	정책방향 3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223
[표 169]	정책방향 4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224
[표 170]	정책방향 5 :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225
[표 171]	미래교육, 교육환경 두 분야의 관련 키워드	231
[표 172]	‘미래교육’에 관한 설문결과 중 각 주체별 상위 3가지 답변 비교	231
[표 173]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중 각 주체별 상위 3가지 답변 비교	232
[표 174]	경남교육 추진 정책에 관한 긍정답변 비교	234

[표 175] ‘경남교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룹별 비교	241
[표 176] 경남교육 정책방향 추진과제에 대한 그룹별 평가	260
[표 177] 정책과제 재분류 전·후 비교 표	281
[표 178]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에 기반한 5대방향별 32개 정책과제 재분류(안)	282

■ 그림 목차

[그림 1]	교육정책 수요조사의 연구 목적	004
[그림 2]	현재와 미래의 교육 모델	028
[그림 3]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54
[그림 4]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55
[그림 5]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56
[그림 6]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57
[그림 7]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58
[그림 8]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59
[그림 9]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60
[그림 10]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61
[그림 11]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62
[그림 12]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63
[그림 13]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64
[그림 14]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65
[그림 15]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66
[그림 16]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67
[그림 17]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68
[그림 18]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69
[그림 19]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 설문결과	070
[그림 20]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2순위’ 설문결과	071
[그림 2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3순위’ 설문결과	072
[그림 22]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073
[그림 23]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 설문결과	074

[그림 24]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 설문결과	075
[그림 25]	경남교육정책 관련 정책실행담당자의 중요도·시급도 교차 매트릭스(종합)	080
[그림 26]	‘배움이 즐거운 교실’의 매트릭스	081
[그림 27]	‘행복학교 운영’의 매트릭스	081
[그림 28]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의 매트릭스	082
[그림 29]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의 매트릭스	082
[그림 30]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매트릭스	082
[그림 3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매트릭스	082
[그림 3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의 매트릭스	083
[그림 33]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의 매트릭스	083
[그림 34]	‘안전한 건강급식’의 매트릭스	084
[그림 35]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의 매트릭스	084
[그림 36]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매트릭스	084
[그림 3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의 매트릭스	084
[그림 38]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의 매트릭스	085
[그림 3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의 매트릭스	085
[그림 40]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의 매트릭스	086
[그림 41]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의 매트릭스	086
[그림 42]	‘회복적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환’에 관한 설문결과	105
[그림 43]	‘행복학교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07
[그림 44]	‘자유학년제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08
[그림 45]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0
[그림 46]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2
[그림 47]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4
[그림 48]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116
[그림 49]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결과	120

[그림 50]	‘배움중심수업 확산’에 관한 설문결과	122
[그림 5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124
[그림 52]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에 관한 설문결과	126
[그림 53]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설문결과	128
[그림 54]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130
[그림 5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설문결과	132
[그림 5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34
[그림 57]	‘교직원복지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135
[그림 58]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에 관한 설문결과	136
[그림 5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관한 설문결과	138
[그림 60]	‘경남의 교육혁신 만족도’에 관한 설문결과	140
[그림 61]	‘교육혁신 만족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	141
[그림 62]	‘교육혁신 불만족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	142
[그림 63]	‘4대 역점과제 추진성과 만족도’에 관한 설문결과	146
[그림 64]	‘타 시도 교육청의 역점과제 중 경남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설문결과	148
[그림 65]	‘경남 5대 정책방향 추진성과’에 관한 설문결과	150
[그림 66]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52
[그림 67]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54
[그림 68]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56
[그림 69]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58
[그림 70]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60
[그림 71]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62
[그림 72]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64
[그림 73]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66
[그림 74]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68
[그림 7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170

[그림 76]	‘미래사회 대비 가장 필요한 교육’ 설문결과	174
[그림 77]	‘미래사회 대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관한 설문결과	177
[그림 78]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78
[그림 79]	‘과정 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에 관한 설문결과	179
[그림 80]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1
[그림 81]	‘경남학생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3
[그림 82]	‘경남학생의 인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5
[그림 8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7
[그림 84]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89
[그림 8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1
[그림 86]	‘폭력 없는 공감학교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3
[그림 87]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에 관한 설문결과	195
[그림 88]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6
[그림 89]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7
[그림 90]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198
[그림 91]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201
[그림 92]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202
[그림 93]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203
[그림 94]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204
[그림 95]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206
[그림 96]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207
[그림 97]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그래프	221
[그림 98]	정책방향 1 :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222
[그림 99]	정책방향 2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223
[그림 100]	정책방향 3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223
[그림 101]	정책방향 4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224

[그림 102]	정책방향 5 :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225
[그림 103]	BCG 매트릭스 예시 및 32개 정책과제 재분류 기준	226
[그림 104]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 전체 응답자	228
[그림 105]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 학부모	229
[그림 106]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 교직원	230
[그림 107]	F.G.I. 그룹별 정책토너먼트 결과	256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3. 연구 대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넘어선 이후 교육의 양적 증가는 급속하게 진행되어왔다. 2019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졸졸업생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예상된다. 해방 이후 시작된 교육의 양적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대학입시’를 위한, ‘정답 맞히기’에 최적화된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보다 많은 지식을 기억하고, 남보다 빠르게 정답을 맞히는 ‘경쟁에 익숙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경쟁하는 교육이 아닌 ‘협력하는 교육’을, 기억하는 학습이 아닌 ‘생각하는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알파고 쇼크에 놀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교육개혁을 급속하게 강조하는 이유이다.

미래사회 전망과 함께 경직된 학교제도, 표준화된 교육과정, 경쟁적인 상대평가, 규격화된 학교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 활용하고, 기존의 지식을 조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더 이상 지식의 소유만으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집단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의해 학습활동을 기획하는 자기주도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에 맞추어 교육도 함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대응해 왔다. 급속한 시대의 변화 속에 경남교육 역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체득하고 미래의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그런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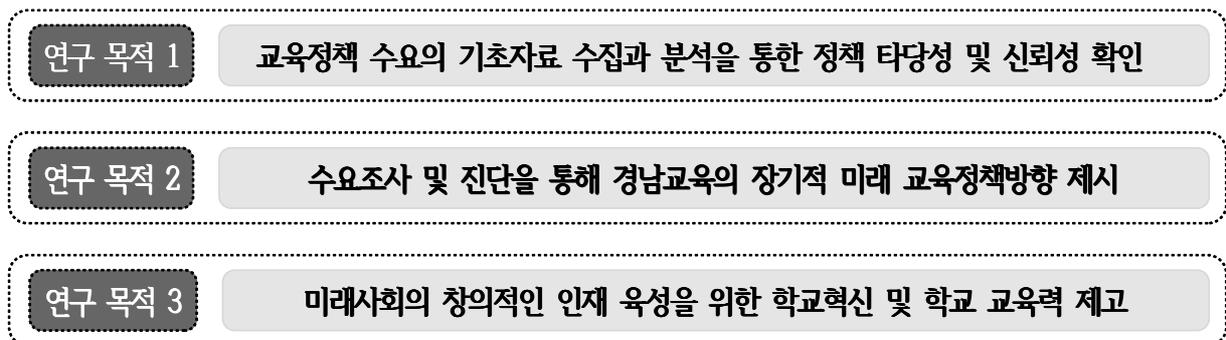
이에 경남교육은 ‘행복학교 운영’,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을 중점과제로 삼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질문과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 교육의 한계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함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교육혁신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명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남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이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본 연구의 목적일 것이다. 경남교육의 발전 방향은 무엇보다 경남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현장과 유리되지 않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의 정책 이해도, 정책 선호도 및 공감도에 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식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경남교육의 장기적 미래 교육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교육정책 수요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진다면, 경남교육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혁신 및 학교 교육력 제고방안 마련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림 1> 교육정책 수요조사의 연구 목적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가. 문헌분석

조사도구 개발을 위해 관련 문헌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 교육관련 7가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은 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교육현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현 교육감이 취임한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경남교육 정책 방향이 달라졌음에 현 교육감 취임 전·후로 구분하여 5대 정책방향별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사업의 수를 비교하고, 더불어 예산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였던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들의 조사 영역 및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인 본 조사연구를 위한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나. 1단계 : 정책실행담당자 대상 사전인식조사

1) 조사 설계

<표 3> 교육정책 수요조사 '1단계의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7.9.28. ~ 2017.10.12.
조사 대상	경남교육청 소속 18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지역별 10% 내외의 초·중·고교 학교장
표집 인원	308명
유효데이터	244개
조사 방법	URL 접근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문항	총 9문항(응답자 정보 문항 2개,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문항 7개)
데이터 클리닝 기준	① 각 문항별 보기에서 제시하지 않은 숫자를 기입한 경우 ② 정책과제 관련 1·2·3순위를 매기도록 한 질문1~5에 문항별로 1개 이상 무응답이 있는 경우 ③ 질문1~5 문항별로 1·2·3순위 내 동일 내용이 반복 기입된 경우 ④ 정책과제 성공·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6과 7에 동일 내용이 기입된 경우

2) 조사 내용

사전인식조사는 경남교육청 소속 18개 교육지원청의 6급 장학사, 지역별 10% 내외의 초·중·고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URL접근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남교육 5대 정책 방향의 3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책실행담당자들의 관점과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이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들로 구성하였다.

<표 4> 교육정책 수요조사 '1단계의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응답자 분류	소속기관	경남교육 정책실행담당자
	소속기관 소재지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세부 정책과제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정책수요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책	
	정책수요자가 가장 만족하는 정책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		

3) 분석방법

경남 5대 정책방향에 따른 32개의 정책과제(2017 경남교육 준함)를 명목적으로 제시하여 얻어진 결과에 관하여 각 문항의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분야별 정책 순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빈도 및 순위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인식수준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로써 Pearson 상관계수와 매트릭스를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 2단계 : 교육수요자 대상 교육정책 수요조사

1) 예비조사(Pilot test)

① 조사 설계

<표 5>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의 예비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를 위한 예비조사
설문조사 기간	2017.10.25.(수) ~ 2017.10.27.(금) 오후7시
조사 대상	경남교육청 소속 30개 초·중·고교의 교직원·학부모·학생(단순무작위표본추출)
표집 인원	교직원 259명, 학부모 406명, 학생 580명

유효데이터	교직원 190개, 학부모 213개, 학생 540개
조사 방법	URL 접근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문항	교직원 66개 문항, 학부모 60 문항, 학생 23 문항

② 조사 내용

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비조사 결과를 통하여 조사 진행 방법의 적절성과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남의 교육인식, 경남교육의 현주소, 경남 교육정책의 평가,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까지 총 4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경남 교육수요자들의 교육 관련 인식을 확보하고 경남 교육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3%(2,775명 추정)에 해당하는 경남교육청 소속 18개 시·군 초·중·고교별 3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하여 본조사(URL 접근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교육공무직 및 지방공무직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표본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에서 공통문항이 다수이나 필요에 따라 모집단(교육3주체)에 대해 각기 다른 문항을 제시해야 하므로 대상별로 구분하여 세 개의 URL을 개설하였으며,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① 조사 설계

<표 6>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의 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설문조사 기간	2017.11.6. ~ 2017.11.14.
조사 대상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교의 교직원·학부모·학생
표집 인원	교직원 259명, 학부모 406명, 학생 580명
유효데이터	교직원 190개, 학부모 213개, 학생 540개
조사 방법	URL 접근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문항	교직원 66개 문항, 학부모 60문항, 학생 23문항

② 조사내용 및 방법

본조사에서는 정책공급자의 의지와 추진성고가 수요자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려 하였다. 특히 각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간 연계성을 담보하고, 만족도 이외에도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 교육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대학입시제도, 미래교육 등 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제를 망라하여, 만족도·중요성·시급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등간척도를, 그 외 의견이나 요구, 교육 현안을 묻는 문항은 명목적도를 사용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③ 조사도구 개발

문헌분석단계에서 경남교육정책에 관하여 분석하고, 타 시·도 교육청 여론조사 등을 검토 및 분석하여 최근 경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을 검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표 7>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의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공통문항 (학생·학부모·교직원)	응답자 분류	성별
		지역
		소속 학교 및 기관
		소속 학교의 규모
		설립유형
	경남의 교육인식	학년·연령·교육경력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경남교육의 현주소	소속 학교 운영실태 평가
		배움중심수업 확산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경남교육의 발전방안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부분 공통문항 (학부모·교직원)	경남의 교육인식	교육복지 확대
		미래사회에 더욱 확대해야 할 교육
	경남교육의 현주소	미래사회에 더욱 우선해야 할 학교과제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필요성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 확산 여부
	경남교육 정책의 평가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활성화 여부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여부
		교육혁신 만족도
		경남교육 4대 역점과제 추진 평가
		타 시·도교육청의 역점과제에 대한 요구도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경남교육 5대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데이터클리닝)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
		진학지원 강화 정책
		인성교육 강화 정책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 확대 정책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책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 정책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정책
개별 문항 ① (학부모)	응답자 분류	맞벌이 여부
	경남교육의 현주소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
개별 문항 ② (교직원)	응답자 분류	직무
	경남교육의 현주소	교직원 복지 확대
	경남교육의 발전방안	배움중심수업 확산 정책
		과정 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정책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 정책	

3) 결과 분석방법

설문 응답 중 불량데이터로 설문 유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데이터 클리닝 후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단조사의 경우, 직전조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불량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나, 이 조사의 경우 최초 조사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워 내부지침에 따른 선별기준에 따르고자 하였다.

데이터클리닝 기준으로서 먼저 온라인조사의 경우, 같은 응답자의 반복제출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문항의 응답이 동일한 데이터가 연속하여 나타날 때는 같은 응답자로 간주하여 최초 이후에 것은 모두 삭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의 경우,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을 경우 불량데이터로 분류하고, 다른 문항 중 10%(4문항) 이상 무응답일 경우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과 교육부 교육개혁 6대 과제의 동일 정책 문항에 관한 응답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이 아니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였다.

개발된 문항 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일 차원성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으로 단일차원성을 검토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후 공통성(Communality)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 요인별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검토하여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데이터 클리닝과 타당도·신뢰도 검증을 마친 후, 응답결과분석단계에서는 전체문항에 관해 조사결과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5대 정책방향의 만족도·중요도 문항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적도인 종속변수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에 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등간척도인 종속변수에는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F값을 기준으로 교육 3주체 간의 인식차이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측정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Leven 통계량으로 등분산 여부를 확인하여 등분산 가정 위배 시에는 Welch값을 이용하였다. 사후 검정은 등분산 가정을 충족 시에는 Scheffe' test를, 위배 시에는 Dunnett T3를 실시하였다.

다. 3단계 : 표적집단면접조사(F.G.I.)

1) 조사 설계

<표 8>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연구를 위한 F.G.I.
조사 일정	2017.12.4. ~ 2017.12.5.
조사 대상	경상남도 소재 초·중·고 학부모 2그룹(16명), 초·중등 교사 2그룹(16명), 초·중등 장학사·교감 1그룹(8명) 총 40명
조사 장소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협의실
조사 방법	학부모, 교사, 장학사·교감으로 구분된 그룹별 면접조사 실시

2) 조사 내용

FGI 가이드라인은 사전의견조사 및 본조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원인과 대안 마련 방안 도출에 그 목적을 두고 제작되었다. 질문은 각 집단(학부모, 교사, 장학사·교감)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를 재확인하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해 17개 메인 질문과 각 질문별 3 ~ 4개의 서브 질문으로 구성했다.

세부 내용은 경남교육에 관한 인식과 연상이미지, 정부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상관관계 분석결과 검증, 경남교육 공급 주체들 간 신뢰를 분석하여 효과적

정책전달 주체 결정에 대한 방향 제공, 경남교육청의 핵심 추진 과업들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유를 통해 정책방향 검증, 진로교육 시작 시기에 대한 의견 수립 등으로 구성했다.

<표 9>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진행 시나리오'

구분	내용	진행(분)
안내 및 소개	F.G.I. 목적 및 진행방식 안내	2'
	참석자 소개	8'
경남 교육정책	경남교육 대표 키워드 조사	20'
	경남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20'
	경남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조사	20'
	경남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조사	20'
	경남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20'
마무리	마무리 인사 및 안내	5'

<표 10>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질문 세부내용'

구분	문항	대상		
		학부모	교사	장학사·교감
1	자기소개	○	○	○
2	경남 교육에 관한 인식	○	○	○
3	정부교육정책·경남교육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4	경남교육정책 관련 단위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5	배움 즐거운 교실 정책과제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6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7	경남교육혁신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8	교육비부담경감 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9	행복한 책읽기 문화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0	(정책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인성교육 확대에 관한 인식	○	○	○
11	경남교육 정책방향별 추진과제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2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3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4	진학지원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5	안전하고 학교환경 조성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6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이유	○	○	○
17	정책관련 민원 단위 및 기타 의견	○	○	○

3) 결과분석방법

결과 분석을 위해 FGI 가이드라인(설문지)을 토대로 진행한 모든 참석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전사과정을 거쳤으며, 전사 처리된 모든 내용은 주제별 분류하여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주제별 세부 결과를 도출했다. 정책과제별 평가 문제의 원인과 대안과 함께 기술하여 제시했다.

3

연구 대상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2016년 교육통계에 준하여 추정된 경남의 686개 유치원 소속의 교직원 4,348명, 500개 초등학교 소속의 교직원 15,625명, 265개 중학교 소속의 교직원 8,453명, 191개 고등학교 소속의 교직원 10,188명과 18개 교육지원청 및 21개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교원·지방공무원·공무직 전체의 경남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185,325명 중 설문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5·6학년 58,958명, 중학교 전학년 99,401명, 고등학교 전학년 4,02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질문 세부내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합계
학교 및 기관 수	500개	265개	191개	39개	995개
대상 학년	5·6학년	전 학년	전 학년	-	-
교직원	15,625명	8,453명	10,188명	4,486명	38,752명
학생	58,958명	99,401명	119,135명	-	277,494명
학부모	≒ 58,958명	≒ 99,401명	≒ 119,135명	-	≒ 277,494명

※ 산정 기준 : 2016년 경남교육통계에 준함

특히 예비조사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2,775명 추정)에 해당하는 경남교육청 소속 18개 시·군에서 초·중·고교별로 해당되는 지역과 학교급에 맞는 표본학교를 선정하여 30개교를 무작위확률표본추출하였다. 초등학교 총 9개교(창원, 진주, 양산, 거제 함안, 창녕, 남해, 거창, 산청), 중학교 12개교(김해, 진주, 거제, 사천, 밀양, 창녕,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합천, 산청), 고등학교 9개교(창원, 김해, 진주, 양산, 통영, 밀양, 의령, 함양, 합천)가 최종 선정되었다. 본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교육공무직 및 지방공무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의 참가자는 설문문항에 대한 선입견의 반영과 학습효과가 우려되므로, 본 조사에서는 배제하도록 하였다.

조사 3단계인 F.G.I.의 대상은 교사, 학부모, 장학사·교감이며 1, 2단계의 정량조사 결과에 대한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세 집단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반구조화 된 면접조사를 통해 경남교육정책 수요조사 결과의 유의미성 확인, 경남교육의 현주소 진단,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경남교육 발전방안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집단은 총 5그룹(교사 2그룹, 학부모 2그룹, 장학사·교감)으로 그룹별로 8명씩 구성하였다. 대상선정은 기본적으로 지역과 학교급을 기준으로 하되, 교사는 경력(10년 미만, 10

년 이상, 10 ~ 30년, 30년 이상) 기준을 추가하였다. 교육관리자 그룹의 경우, 장학사로만 이루어진 구성에서 2017. 11. 29. FGI 실행 방향에 관한 논의 후, 결정된 사안에 따라 장학사 집단에 교감을 포함하여, 교육관리자 그룹으로서 장학사·교감 그룹을 구성하였다. 지역선정은 교육주체인 교사·학부모 간 평가의 차이가 10%이상인 경남 주요정책 5가지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진 대상과 부정적 의견을 가진 대상을 편향으로써 선정하지 않도록 단순무작위추출법에 의하여 안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창원, 김해, 진주, 거제, 남해, 거창, 밀양, 함안을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거창 지역의 경우 참가자의 거리상 편의를 고려해 양산 지역으로 대체하였다.

2017. 11. 30. 1일간 경상남도 거제, 김해, 남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함안 각 8개 지역의 초·중등 학부모 2그룹(16명), 초·중등 교사 2그룹(16명), 초·중등 장학사·교감 1그룹(8명)에 대한 섭외를 진행하였으며. 섭외 결과 초등학부모 8명, 초등교사 7명, 중등학부모 5명, 중등교사 8명, 장학사·교감 8명이 조사에 최종 참가하였다.

<표 12>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참가자 지역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구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교사		학부모	
행복학교	합천, 거창, 남해, 밀양	거제, 의령, 창원, 함안	함안, 남해, 거창, 의령	함양, 하동, 거제, 김해
배움 중심 수업	함안, 남해, 사천, 거창	함양, 진주, 거제, 밀양	함안, 남해, 사천, 거창	거제, 김해, 창원, 합천
민주적 학교문화	남해, 거창, 밀양, 합천	거제, 함양, 진주, 창원	남해, 함안, 의령, 거창	고성, 거제, 김해, 창원, 하동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하동, 남해, 함양, 거창	거제, 진주, 창녕, 김해	남해, 함안, 의령, 거창	거제, 김해, 창원, 통영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합천, 함양, 거창, 함안	거제, 양산, 창원, 진주	(함안, 창녕, 거창, 남해, 사천)	(합천, 거제, 함양, 통영, 하동)
추천 지역	거창, 남해, 밀양	거제, 창원, 진주	함안, 남해, 거창	거제, 김해, 창원
	창원, 김해, 진주, 거제, 남해, 거창, 밀양, 함안			

가. 1단계 :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표 13> 교육정책 수요조사 '1단계 조사의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소속기관	초등학교	98명	40.2%
	중학교	52명	1.2%
	고등학교	42명	21.3%
	교육지원청	52명	21.3%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9명	3.7%
	거창군	-	-
	고성군	9명	3.7%
	김해시	22명	9.0%
	남해군	5명	2.0%
	밀양시	-	-
	사천시	1명	0.4%
	산청군	-	-
	양산시	5명	2.0%
	의령군	5명	2.0%
	진주시	25명	10.2%
	창녕군	4명	1.6%
	창원시	135명	55.3%
	통영시	11명	4.5%
	하동군	1명	0.4%
	함안군	1명	0.4%
	함양군	11명	4.5%
	합천군	-	-
	합계	244명	100%

나. 2단계 : 교육정책수요조사

1) 예비조사(Pilot test)

① 교직원

<표 14>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예비조사의 배경변인별 교직원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72명	37.9%
	여	118명	62.1%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20명	10.5%
	거창군	21명	11.1%

	고성군	10명	5.3%
	김해시	4명	2.1%
	남해군	18명	9.5%
	밀양시	18명	9.5%
	사천시	11명	5.8%
	산청군	2명	1.1%
	양산시	27명	14.2%
	의령군	9명	4.7%
	진주시	20명	10.5%
	창녕군	2명	1.1%
	창원시	3명	1.6%
	통영시	3명	1.6%
	하동군	-	-
	함안군	9명	4.7%
	함양군	10명	5.3%
	합천군	3명	1.6%
소속기관	초등학교	68명	35.8%
	중학교	53명	27.9%
	일반고등학교	44명	23.2%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	-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25명	13.2%
	교육행정기관	-	-
소속 학교 규모(초등학교)	6학급 이하	7명	10.3%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9명	13.2%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13명	19.1%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29명	42.6%
	37학급 이상	10명	14.7%
소속 학교 규모(중학교)	6학급 이하	22명	41.5%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21명	39.6%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10명	18.9%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	-
	31학급 이상	-	-
소속 학교 규모(고등학교)	12학급 이하	33명	47.8%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13명	18.8%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18명	26.1%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5명	7.2%
	37학급 이상	-	-
소속 학교 유형	국립·공립	190명	100.0%
	사립	-	-
경력	5년 미만	37명	19.5%
	5년 이상 ~ 10년 미만	30명	15.8%
	10년 이상 ~ 20년 미만	60명	31.6%
	20년 이상 ~ 30년 미만	34명	17.9%
	30년 이상	29명	15.3%
직무	교원	158명	83.2%
	교육전문직	6명	3.2%
	교육행정직	26명	13.7%
합계		190명	100.0%

② 학부모

<표 15>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예비조사의 배경변인별 학부모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12명	5.6%
	여	201명	94.4%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74명	34.7%
	거창군	33명	15.5%
	고성군	2명	0.9%
	김해시	5명	2.3%
	남해군	26명	12.2%
	밀양시	-	-
	사천시	-	-
	산청군	-	-
	양산시	17명	8.0%
	의령군	4명	1.9%
	진주시	18명	8.5%
	창녕군	-	-
	창원시	5명	2.3%
	통영시	13명	6.1%
	하동군	1명	0.5%
	합안군	4명	1.9%
	합양군	11명	5.2%
합천군	-	-	
소속기관	초등학교	160명	75.1%
	중학교	15명	7.0%
	일반고등학교	36명	16.9%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	-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	-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2명	0.9%
소속 학교 규모(초등학교)	6학급 이하	58명	36.3%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49명	30.6%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17명	10.6%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15명	9.4%
	37학급 이상	21명	13.1%
소속 학교 규모(중학교)	6학급 이하	6명	40.0%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5명	33.3%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3명	20.0%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	-
	31학급 이상	1명	6.7%
소속 학교 규모(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5명	65.8%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4명	10.5%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6명	15.8%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2명	5.3%
	37학급 이상	1명	2.6%
소속 학교 유형	국립·공립	199명	93.4%
	사립	14명	6.6%
맞벌이 가정	그렇다	135명	63.4%
	그렇지 않다	78명	36.6%
연령	30세 미만	2명	0.9%
	30세 이상~40세 미만	68명	31.9%
	40세 이상~50세 미만	137명	64.3%
	50세 이상	6명	2.8%
합계		213명	100.0%

③ 학생

<표 16>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예비조사의 배경변인별 학생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1,403명	34.6%
	여	2,467명	65.4%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295명	7.3%
	거창군	88명	2.2%
	고성군	113명	2.8%
	김해시	573명	14.1%
	남해군	124명	3.1%
	밀양시	130명	3.2%
	사천시	148명	3.7%
	산청군	69명	1.7%
	양산시	286명	7.1%
	의령군	135명	3.3%
	진주시	399명	9.9%
	장녕군	100명	2.5%
	창원시	994명	24.5%
	통영시	177명	4.4%
	하동군	137명	3.4%
	함안군	118명	2.9%
	함양군	68명	1.7%
	합천군	94명	2.4%
소속기관	초등학교	2,165명	53.5%
	중학교	1,094명	27.0%
	일반고등학교	624명	15.4%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8명	0.2%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4명	0.1%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111명	2.7%
	특수학교	22명	0.5%
	교육행정기관	22명	0.5%
소속 학교 규모(초등학교)	6학급 이하	520명	24.0%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268명	12.4%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519명	24.0%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553명	25.5%
	37학급 이상	305명	14.1%
소속 학교 규모(중학교)	6학급 이하	225명	20.6%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408명	37.3%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225명	20.6%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130명	11.9%
	31학급 이상	106명	9.7%
소속 학교 규모(고등학교)	12학급 이하	141명	18.9%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232명	31.1%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290명	38.8%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73명	9.8%
	37학급 이상	11명	1.5%
소속 학교 유형	국립·공립	3,532명	87.7%
	사립	496명	12.3%
합계		4,050명	100.0%

2) 본조사

① 교직원

<표 17>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본조사의 배경변인별 교직원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1,403명	34.6%
	여	2,467명	65.4%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295명	7.3%
	거창군	88명	2.2%
	고성군	113명	2.8%
	김해시	573명	14.1%
	남해군	124명	3.1%
	밀양시	130명	3.2%
	사천시	148명	3.7%
	산청군	69명	1.7%
	양산시	286명	7.1%
	의령군	135명	3.3%
	진주시	399명	9.9%
	장녕군	100명	2.5%
	창원시	994명	24.5%
	통영시	177명	4.4%
	하동군	137명	3.4%
	함안군	118명	2.9%
	함양군	68명	1.7%
	합천군	94명	2.4%
소속기관	초등학교	2,165명	53.5%
	중학교	1,094명	27.0%
	일반고등학교	624명	15.4%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8명	0.2%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4명	0.1%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111명	2.7%
	특수학교	22명	0.5%
	교육행정기관	22명	0.5%
소속 학교 규모(초등학교)	6학급 이하	520명	24.0%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268명	12.4%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519명	24.0%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553명	25.5%
	37학급 이상	305명	14.1%
소속 학교 규모(중학교)	6학급 이하	225명	20.6%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408명	37.3%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225명	20.6%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130명	11.9%
	31학급 이상	106명	9.7%
소속 학교 규모(고등학교)	12학급 이하	141명	18.9%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232명	31.1%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290명	38.8%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73명	9.8%
	37학급 이상	11명	1.5%
소속 학교 유형	국립·공립	3,532명	87.7%
	사립	496명	12.3%

경력	5년 미만	679명	16.8%
	5년 이상 ~ 10년 미만	609명	15%
	10년 이상 ~ 20년 미만	1,129명	27.9%
	20년 이상 ~ 30년 미만	1,031명	25.5%
	30년 이상	602명	14.9%
직무	교원	3,557명	87.8%
	교육전문직	100명	2.5%
	교육행정직	393명	9.7%
합계		4,050명	100.0%

② 학부모

<표 18>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본조사의 배경변인별 학부모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925명	8.8%
	여	9,574명	91.2%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697명	6.6%
	거창군	121명	1.2%
	고성군	112명	1.1%
	김해시	1,788명	17.0%
	남해군	101명	1.0%
	밀양시	185명	1.8%
	사천시	375명	3.6%
	산청군	37명	0.4%
	양산시	1,073명	10.2%
	의령군	98명	0.9%
	진주시	1,415명	13.5%
	창녕군	104명	1.0%
	창원시	3,338명	31.8%
	통영시	719명	6.8%
	하동군	69명	0.7%
	함안군	137명	1.3%
	함양군	39명	0.4%
합천군	91명	0.9%	
소속기관	초등학교	7,449명	70.9%
	중학교	2,085명	19.9%
	일반고등학교	857명	8.2%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19명	0.2%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12명	0.1%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65명	0.6%
	특수학교	12명	0.1%
소속 학교 규모(초등학교)	6학급 이하	3,369명	45.2%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1,525명	20.5%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739명	9.9%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1,068명	14.3%
	37학급 이상	748명	10.0%
소속 학교 규모(중학교)	6학급 이하	719명	34.5%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987명	47.3%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174명	8.3%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134명	6.4%
	31학급 이상	71명	3.4%
소속 학교 규모(고등학교)	12학급 이하	451명	47.3%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227명	23.8%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179명	18.8%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83명	8.7%
	37학급 이상	13명	1.4%
소속 학교 유형	국립·공립	8,891명	84.7%
	사립	1,608명	15.3%
맞벌이 가정	그렇다	6,195명	59.0%
	그렇지 않다	4,304명	41.0%
연령	30세 미만	48명	0.5%
	30세 이상~40세 미만	3,052명	29.1%
	40세 이상~50세 미만	6,858명	65.3%
	50세 이상	541명	5.2%
합계		10,499명	100.0%

③ 학생

<표 19> 교육정책 수요조사 '2단계 본조사의 배경변인별 학생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	3,214명	45.6%
	여	3,836명	54.4%
소속기관 소재지	거제시	1,191명	16.9%
	거창군	48명	0.7%
	고성군	52명	0.7%
	김해시	599명	8.5%
	남해군	206명	2.9%
	밀양시	80명	1.1%
	사천시	348명	4.9%
	산청군	95명	1.3%
	양산시	724명	10.3%
	의령군	227명	3.2%
	진주시	466명	6.6%
	창녕군	99명	1.4%
	창원시	2,094명	29.7%
	통영시	452명	6.4%
	하동군	165명	2.3%
	함안군	50명	0.7%
	함양군	43명	0.6%
	합천군	111명	1.6%
소속기관	초등학교	3,143명	44.6%
	중학교	3,188명	45.2%
	일반고등학교	636명	9.0%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4명	0.1%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19명	0.3%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42명	0.6%
	특수학교	18명	0.3%
소속 학교 규모(초등학교)	6학급 이하	687명	21.9%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259명	8.2%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727명	23.1%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945명	30.1%
	37학급 이상	525명	16.7%
소속 학교 규모(중학교)	6학급 이하	783명	24.6%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1,244명	39.0%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745명	23.4%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342명	10.7%
	31학급 이상	74명	2.3%
소속 학교 규모(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47명	35.2%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100명	14.3%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247명	35.2%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93명	13.3%
	37학급 이상	14명	2.0%
소속 학교 유형 (초등학생 제외 문항)	국립·공립	2,712명	69.2%
	사립	1,209명	30.8%
합계		7,050명	100.0%

다. F.G.I 그룹별 참가자 명단

<표 20> 교육정책 수요조사 '3단계 조사의 그룹별 참석자'

그룹1			
인원	이름	지역	대상구분
1	1 - a	거제, 김해, 거제, 밀양, 양산, 진주, 창원, 함안	초등학부모
2	1 - b		
3	1 - c		
4	1 - d		
5	1 - e		
6	1 - f		
7	1 - g		
8	1 - h		
그룹2			
인원	이름	지역	대상구분
1	2 - a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함안	초등교사
2	2 - b		
3	2 - c		
4	2 - d		
5	2 - e		
6	2 - f		
7	2 - g		
그룹3			
인원	이름	지역	대상구분
1	3 - a	거제, 김해, 양산, 진주, 함안	중등학부모
2	3 - b		
3	3 - c		
4	3 - d		
5	3 - e		

그룹4				
인원	이름	지역	경력	대상구분
1	4 - a	진주, 밀양, 양산, 함안, 김해, 남해, 창원, 거제	10년 이상	중등교사
2	4 - b		30년 이상	
3	4 - c		10 ~ 30년	
4	4 - d		10년 미만	
5	4 - e		10 ~ 30년	
6	4 - f		10년 미만	
7	4 - g		10년 ~ 30년	
8	4 - h		30년 이상	

그룹5			
인원	이름	지역	비고
1	5 - a	진주, 밀양, 양산, 함안, 김해, 남해, 창원, 거제	중등장학사
2	5 - b		초등교감
3	5 - c		중등교감
4	5 - d		중등교감
5	5 - e		초등장학사
6	5 - f		초등교감
7	5 - g		중등교감
8	5 - h		초등장학사

문헌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1. 경남교육청의 정책과제별 추진사업
2.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동향분석
3.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 개발

1

경남교육청의 정책과제별 추진사업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의 적용에 따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개인의 장래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교육적 전문성에 근거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신현석, 2014).

경남의 교육정책 역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남교육의 연도별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표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남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희망 주는 교육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경남교육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 교육감 취임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행정’의 방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철학 및 목표’에서는 ‘인재 양성’을 강조한 이전과는 달리 ‘배움 중심’으로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과정 및 내용’ 역시 과거에 ‘미래’, ‘창의’ 교육을 강조하였다면, 2015년 이후에는 ‘소통’, ‘공감’으로 교육공동체의 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표 21> 2012년 이후 경남교육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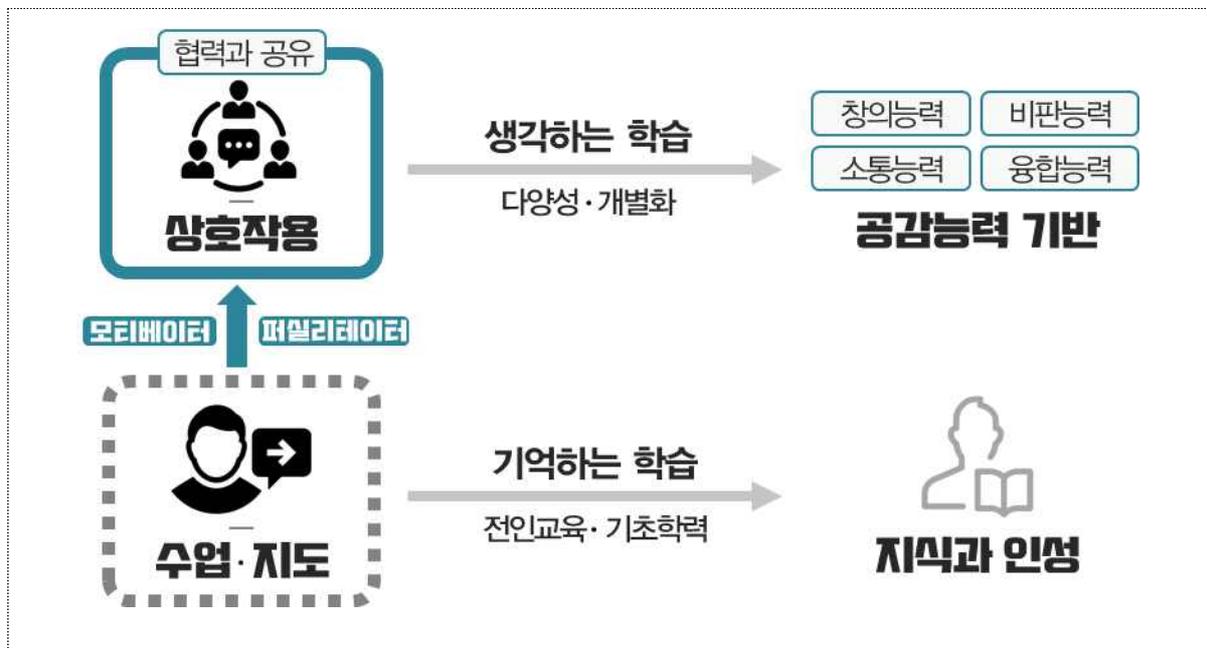
2012 ~ 2014		2015 ~ 2017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4	희망 주는 교육복지	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시대변화의 2가지 큰 축이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사회와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그것이다. 다양성의 인정과 개별화된 접근, 협력과 공유, 창의와 소통, 비판과 융합, 위로와 공감의 코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

아 ‘행복과 혁신’이 교육의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경쟁과 독점’, ‘장악하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경쟁과 독점보다 ‘협력과 공유’가 필요하며, 분업이 아닌 ‘협업의 능력’이 필요하다. 수업과 지도를 통해 기억하는 학습을 시키고 지식과 인성의 함양을 도모하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선생님은 모티베이터가 되어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가르치는 것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토론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기반 위에 창의, 비판, 소통, 융합 능력을 함양하여 협업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림 2> 현재와 미래의 교육 모델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속 교육관련 7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국정과제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국정과제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국정과제 54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 바로 그것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중 교육청의 영역은 ‘국정과제 50, 53, 54’가 있으며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22>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주요 내용

주요 사업	내용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 국가교육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기초학력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 20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혁신학교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 2018년부터 초·중학생 평가제도 개선 ·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 확산 ·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교원 전문성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공모제 확대,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 교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
대입제도 개선 및 공공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적용 ·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추진

배움중심, 소통과 공감,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등 경남교육청의 5대 정책방향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닿아 있다. 더불어 경남교육청의 5대 정책방향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경남의 전략이 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사회변화와 더불어 경남교육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상이 달라졌음에 현 교육감 취임 전·후로 구분하여, 5대 정책방향별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추진사업의 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철학 및 목표'를 담고 있는 정책방향 1에 관해 비교하였다. <표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이전과 이후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에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으로 변화된 정책방향을 통해 개인의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에서 '배움'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방향 1의 추진사업 수를 살펴보았다. 2013년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을 위한 추진사업 수는 136개로 전년 대비 38.7%가 증가하였다. 특히,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이 2012년 19개에서 27개로 늘어났고, '소질·적성계발 교육 강화'의 정책과제가 2013년, '미래지향적 직업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이라는 정책과제로 분화되면서 그중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추진사업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책방향 1의 정책과제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미래지향적 직업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정책과제는 2015년에 다시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으로 통합되었으며,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과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은 정책방향 1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의 국제화 교육'은 정책방향 1의 정책과제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난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기존에 없던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소멸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책방향의 정책과제로 이동하였거나 정책방향 1의 다른 정책과제 단위사업 혹은 추진사업으로 흡수·통합된 경우가 많았다. 2014년 까지 정책방향 1의 다른 정책과제 단위사업 중 하나였던 것이 2015년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이라는 별도의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사회 변화, 국민적 요구, 교육감의 철학 등에 따라 각각의 정책이 취급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3> (정책방향 1)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영역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 수	98	136	122	121	120	116
정책과제	맞춤형 학력 향상			배움이 즐거운 교실		
사업 수	19	27	25	24	23	25
정책과제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행복학교 운영		
사업 수	24	20	12	14	17	21
정책과제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 교육		
사업 수				19	20	21
정책과제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사업 수				11	10	12
정책과제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사업 수	12	18	16	17	13	14
정책과제	소질·적성 계발 교육 강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사업 수		12	12			
정책과제	14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23	22	23
사업 수		27	27			
정책과제	유아교육 선진화 정착			질 높은 유아교육		
사업 수	17	17	15	13	15	
정책과제	의사소통 중심의 국제화교육					
사업 수	12	15	15			

경남교육 중점과제는 행복학교 운영,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까지 총 4가지가 있으며 이중 2가지는 정책방향 1의 정책과

제에 속해있다. 먼저 ‘행복학교 운영’ 사업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이라는 4가지 추진 전략 아래,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표 2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학교 관련 추진사업의 수는 2015년 14개, 2016년 17개, 2017년 21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3년차를 맞은 행복학교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따르면 행복학교 21교, 행복맞이학교 85교가 지정·운영되고 있고, 행복학교 연구회는 30개 지정·운영되고 있다. 2015년 행복학교 11개교, 행복맞이학교 70개교, 행복학교 연구회 30개가 지정·운영된 것에 비해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경남교육 중점과제 ① : 행복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

	추진성과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학교 사업 공모 지정·운영(행복학교 11교, 행복맞이학교 70교, 행복학교 연구회 30개) · 배움중심수업 동아리 공모 지원(초·중·고 119팀) 및 학습코칭 전문가 양성(100명)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학교 지정·운영(행복학교 21교, 행복맞이학교 85교, 행복학교 연구회 30개) · 배움중심수업 동아리 공모 지원(초·중·고 236팀) 및 정책지원형 수업연구회 중등 5팀 · 행복학교 공모 설명회(18개 교육지원청, 3,000여명) · 찾아가는 행복학교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155개교, 3,000여명) · 창의인성연구회(초·중·고 19팀) 운영 · 초등 수업나눔의 날 운영(개인 단위 53명, 동아리 단위 210팀, 학교 단위 46교) · 초등 배움중심수업나눔 축제(12월 17개 강의실, 800명) · 배움중심수업 국외학교탐방연수(6월, 독일·프랑스, 중등교사 32명) · 중등 수업나눔의 날 운영(7월, 38교, 중·고 86명 공개, 798명 참관) · 제1회 배움이 즐거운 수업나눔축제(9월, 30개 강의실, 26개 부스, 1,200명) · 배움중심수업 나눔 중심학교 운영(연중, 18개교) · 상시 수업나눔 교사제 운영(연중, 초·중·고 100명)

경남교육의 2번째 중점과제는 정책방향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이다. 선진화된 독서문화 환경 조성, 독서교육 활성화, 도민과 함께하는 책 읽기의 3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독서를 통한 토론문화 조성, 책으로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한다. <표 2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의 추진사업은 2015년 11개, 2016년 10개, 2017년 12개로 추진사업 총 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매년 학교도서관 시설 선진화 사업에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다 수준인 20억 이상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16년에는 제1회 독서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각가지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다. 특히 비경쟁 독서토론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협력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전국 최

다 수준으로 조직 및 운영에서 타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25> '경남교육 중점과제 ② :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사업'의 성과

	추진성과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운동 캠페인 : 5개 방송(MBC경남, KNN, CJ경남방송, 서경방송, 경남CBS라디오) 진행 · 독서교육 실천사례 연구 지원(68명) · 책 읽는 경남 사업 지원(2개 기관) 및 지역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24개관) · 학교도서관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93교, 2,200,000천원) ·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2종)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19개) · 공공도서관 시설개선비 지원(7개관)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운동 캠페인 : 5개 방송(MBC경남, KNN, CJ경남방송, 서경방송, 경남CBS라디오) 진행 · 학생독서캠프(205개) 및 학부모독서캠프(178개) 운영. 교사독서연구회(17팀) 활동 · 학생 독서책 쓰기(111팀) 운영 및 e-NIE 운영학교 지원(333교) · 인문학 동아리(10팀) 및 선도학교(2교) 운영 · 고등학생 독서토론(30교) 및 초·중학생 독서토론회 운영(18개 교육지원청) · 독서교육발표회 운영 및 독서문화축제 운영 · 학교도서관 노후시설 선진화 지원(2,430,000천원) · 학교도서관 교수학습자료 구입 지원(1,140,000천원) · 공공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 사업(16개관, 1,645,752천원) · 별밤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 운영(24개관, 294,898천원) ·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2,322,000천원)

이어서 2015년 이후 정책과제별로 예산의 비중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책방향 1인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예산 변화는 <표 26>과 같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정책과제 대부분은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오는 사이 예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배움이 즐거운 교실'은 2016년에 예산이 상승한 이후 올해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정책과제 중에서는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이 2015년 이후 줄곧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해왔다.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의 추진사업 중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으로 할 줄 아는 인재 육성'과 '특성화고 장학금, 기자재 확충, 실험실습지 지원으로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이라는 2가지 사업에 2016년부터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이 2가지가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72.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6> (정책방향 1) 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 비교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정책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68,158,960천원 100.0%	132,930,557천원 100.0%	117,448,540천원 100.0%
배움이 즐거운 교실	14,407,006천원 21.1%	20,182,717천원 15.2%	13,325,681천원 11.3%
행복학교 운영	7,251,050천원 10.6%	8,616,049천원 6.5%	10,427,499천원 8.9%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6,464,049천원 9.5%	13,701,356천원 10.3%	13,116,471천원 11.2%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6,743,463천원 9.9%	13,493,488천원 10.2%	14,611,498천원 12.4%
맞춤형 특수교육	16,493,158천원 24.2%	28,540,951천원 21.5%	31,317,075천원 26.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16,551,034천원 24.3%	48,030,226천원 36.1%	34,650,316천원 29.5%
질 높은 유아교육	249,200천원 0.4%	365,770천원 0.3%	

(출처) 경남교육 2015, 경남교육 2016, 경남교육 2017

그리고 ‘교육과정 및 내용’과 관련한 정책방향 2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이전과 이후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로 변화된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의 경남교육은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7> (정책방향 2)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영역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	75	83	83	52	59	64
사업 수	75	83	83	52	59	64
정책과제	찾고 키워주는 창의인성 교육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사업 수	18	21	20		13	14
정책과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사업 수				10	8	10
정책과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				19	18	20
정책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사업 수				9	9	9
정책과제				상호문화 이해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사업 수				14	11	11
정책과제	나라사랑 교육			나라사랑 교육 강화		
사업 수	12	14	14	9	10	10
정책과제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사업 수	20	17	21			
정책과제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체험 중심의 감성교육				
사업 수	9	17	14			
정책과제	지능형 맞춤형 지식 정보화 교육	미래형 지식정보화 교육				
사업 수	16	14	14			

정책방향 2 역시 2015년이 되면서 정책방향 내, 정책방향 간의 많은 재분류가 이루어졌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 중에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몇몇 정책과제의 단위사업에서 정책방향 2의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현 교육감 체제 이후인 2015년 부터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도 정책방향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추진사업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 인성교육 진흥법이 공포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었고, ‘창의’와 ‘인성’을 결합하여 취급하던 이전과 달리 2016년을 기점으로 ‘인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화 되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8> (정책방향 2)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정책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22,588,299천원	23,363,540천원	24,272,052천원
	100.0%	100.0%	100.0%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51,000천원 0.2%	97,480천원 0.4%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64,055천원 0.3%	62,280천원 0.3%	120,980천원 0.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660,000천원 7.3%	2,048,655천원 8.8%	2,004,385천원 8.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2,549,966천원 11.3%	3,277,726천원 14.0%	2,942,022천원 12.1%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18,265,878천원 80.9%	17,742,019천원 75.9%	18,648,269천원 76.8%

나라사랑 교육 강화	48,400천원	181,860천원	458,916천원
	0.2%	0.8%	1.9%

(출처) 경남교육 2015, 경남교육 2016, 경남교육 2017

이어 예산 측면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가장 예산의 투입이 많은 정책과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었다. 2017년 기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예산 중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76.8%로 매우 높았으며, 2015년 이후 예산액의 상승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 2015~2017을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예산의 상당부분은 ‘영어 전문 인력 활용’의 추진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기준, 가장 예산 비중이 낮은 정책과제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 있었다. 두 가지 정책과제의 예산 비중이 특히나 낮았던 것은 비예산 추진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경남교육의 ‘교육환경’을 알 수 있는 정책방향 3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9>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이전과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되었다. 교육환경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힘쓰고자 한다’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정책과제와 추진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정책방향 3에서 추진된 사업 수를 살펴보았을 때, 2013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사업의 수는 72개로 전년 대비 58.3%가 증가하며, 2014년 75개로 이어졌다. 특히, ‘안전한 학교 문화’를 위한 추진사업이 크게 늘어났으며, ‘맞춤형 대안교육’ 역시 2013년 10개에서 17개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추진사업 수는 2015년 65개에서 2016년 59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69개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29> (정책방향 3)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영역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 수	42	72	75	65	59	69
정책과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 수				15	12	15
정책과제	안전한 학교문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사업 수	14	31	28	19	13	17
정책과제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사업 수	9	13	13	9	10	10
정책과제	건강한 삶을 위한 학교 보건 교육·보건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		포근한 보건교육		

사업 수	7	10	10	9	11	13
정책과제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 급식			안전한 건강 급식		
사업 수	6	8	7	8	8	9
정책과제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육환경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수	11	8	7	5	5	5
정책과제	맞춤형 대안교육					
사업 수	6	10	17			

경남교육의 3번째 중점과제는 정책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폭력 없는 공감 학교 만들기’이다.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지원,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의 공감학교 문화 조성 등 총 5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한다. <표 29>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의 추진사업은 2015년 19개, 2016년 13개, 2017년 17개로 추진사업 수가 2016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성과와 관련하여서는 꿈키움 멘토단, 보호관찰학생멘토링 등 2015년 대비 일부 축소된 사업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확장성을 보인 것이 확인되었다.

<표 30> ‘경남교육 중점과제 ③ :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의 성과

	추진성과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성교육(50교) 및 또래상담 운영비 지원(148교, 자율운영 199교) ·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초등 162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825교) ·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어깨동무학교’ 운영(초·중·고 224교) · 학급 단위 15차시 성교육(성폭력 3시간 포함) 및 흡연예방금연교육 실천학교(970교) 운영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꿈키움 멘토단 100교, 보호관찰학생멘토링 119교)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성교육(56교) 및 또래상담 운영비 지원(257교, 자율운영 156교) · 학급 단위 15차시 성교육(성폭력 3시간 포함) 진행 · 흡연예방금연교육 실천학교(971교) 및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직무연수 운영(986명, 30시간)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전 학교 및 교육(지원)청) · 교사 게이트 키퍼 양성(300명) 및 교원용 자살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전 교원)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꿈키움 멘토단 60교, 보호관찰학생멘토링 119교) ·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초·중·고·특수 500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총 831교) · 학교폭력예방 선도(어깨동무)학교 운영(초·중·고 296교) · 학교(U-)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전 초등학교, 특수 7교) ·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74교) · 경남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운영(6개 거점 교육지원청) · 경남 무지개센터 운영(홍보 15회, 워크숍 1회, 캠페인 2회)

이어서 정책방향 3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았다. 관련 내용은 <표 31>과 같다. 예산에 있어서는 줄곧 ‘안전한 건강 급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안전한 건강 급식’의 추진사업 중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94.3%로 매우 높았다. 2016년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하며 ‘안전한 건강 급식’의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적이 있었지만 2017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2015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31> (정책방향 3)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정책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302,232,229천원	202,063,238천원	332,091,226천원
100.0%	100.0%	100.0%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19,158,300천원 6.3%	11,040,697천원 5.5%	10,927,558천원 3.3%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22,418,241천원 7.4%	11,670,579천원 5.8%	28,939,554천원 8.7%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2,308,698천원 0.8%	13,735,879천원 6.8%	13,323,667천원 4.0%
포근한 보건의교육	527,672천원 0.2%	116,390천원 0.1%	140,394천원 0.0%
안전한 건강급식	256,619,318천원 84.9%	164,583,593천원 81.5%	270,483,753천원 81.4%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1,200,000천원 0.4%	916,100천원 0.5%	8,276,300천원 2.5%

(출처) 경남교육 2015, 경남교육 2016, 경남교육 2017

경남의 ‘교육복지’를 알 수 있는 정책방향 4를 살펴보았다. <표 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이전과 이후 ‘희망 주는 교육복지’에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로 정책방향이 변화하였다. 이는 교육복지를 통해 ‘모두’ 또는 ‘함께’ 누리는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방향 4에서 추진된 사업 수를 살펴보았을 때, 2012년에서부터 2014년까지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정책과제와 전체 추진사업 수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직원’을 위한 추진사업 수가 2012년 15개에서 2013년 19개로 증가하였고, ‘신바람 나는 교직원 근무 여건’을 위한 추진사업 수는 2012년 11개에서 7개로 감소하여, 교직원 대상 복지사업의 내용이 일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한 추진사업 수가 2015년 51개에서 2016년 62개, 2017년 73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 정책과제별 추진사업 수의 비교에서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이 2014년 5개에서 2015년 10개로 늘어났으며,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역시 2014년 5개에서 2015년 8개로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 이후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을 12개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15개로 증가하여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정책과제 중 추진사업의 개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정책방향 4)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수 비교

영역	희망 주는 교육복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 수	63	65	63	51	62	73
정책과제				농어촌지역 교육 살리기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사업 수				12	6	10
정책과제	함께 누리는 공정한 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수	9	9	11	13	9	12
정책과제	사교육비 경감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수	9	10	10		12	15
정책과제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사업 수				8	8	8
정책과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사업 수				5	10	10
정책과제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				8	9	9
정책과제	신바람 나는 교직원 근무 여건			교직원 복지 여건 조성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	
사업 수	11	7	6	5	8	9
정책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사업 수	19	20	19			
정책과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직원					
사업 수	15	19	17			

예산의 측면에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표 3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과 후 학교 운영’은 2017년 기준 추진사업 수는 가장 많지만 예산의 비중은 10.1%에 그쳤으며, 다음으로 추진사업 수가 많았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는 예산의 비중이 77.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추진사업 중에서는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83.3%에 달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 지원’이 6.0%, ‘초·중·고 학생 토·공휴일 중

식비 지원'이 3.0%로 누리과정 지원금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정책방향 4) 정책과제별 연도별 예산 비교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정책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330,213,889천원	306,429,113천원	438,373,029천원
	100.0%	100.0%	100.0%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8,729,300천원 2.6%	12,886,944천원 4.2%	13,220,353천원 3.0%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235,903,413천원 71.4%	213,984,118천원 69.8%	340,434,847천원 77.7%
방과 후 학교 운영	47,655,550천원 14.4%	44,862,771천원 14.6%	44,134,989천원 10.1%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7,806,076천원 2.4%	8,348,350천원 2.7%	4,814,360천원 1.1%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 -	- -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3,230,000천원 1.0%	2,799,840천원 0.9%	3,646,220천원 0.8%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	26,889,550천원 8.1%	23,547,090천원 7.7%	32,122,260천원 7.3%

(출처) 경남교육 2015, 경남교육 2016, 경남교육 2017

경남 '교육행정'의 지원방향을 알 수 있는 정책방향 5를 살펴보았다. <표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 이전과 이후 '신뢰받는 교육행정'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으로 정책 방향은 수정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지원에 힘쓰겠다는 정책방향은 크게 달라 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책과제와 추진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이후 '교직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업무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와 '맞춤형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를 거쳐 2015년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로 변화하며 교육행정 서비스에서도 상호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정책과제별 추진사업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2013년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한 사업 수는 75개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72개로 이어졌다. 특히,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이 2013년 17개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15개가 진행되었다. '맞춤형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사업은 2012년 17개에서 2013년 21개로 늘어났다가 2014년 17개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한 추진사업의 수는 2015년 81개, 2016년 79개에서 2017년 87개로 다소 증가하여왔다. 2014년 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조직·정원의 효율적 운영'은 2015년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면서 별도의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5개의 관련 추진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6년에는 2개, 2017년에는 3개로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은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과 관련한 추진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 3가지의 정책과제는 2017년에도 추진사업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정책방향 5) 정책과제의 추진사업 수 비교

영역	신뢰받는 교육행정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 수	56	75	72	81	79	87
정책과제				교직원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사업 수				15	15	17
정책과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사업 수				5	2	3
정책과제	14	15	15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사업 수				14	14	14
정책과제	깨끗한 교육행정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사업 수	15	12	13	13	13	16
정책과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맞춤형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사업 수	17	21	17	15	15	17
정책과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사업 수	10	10	12	12	14	14
정책과제		교육의 질 관리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사업 수		17	15	7	6	6

경남교육의 4번째 중점과제는 정책방향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단축’이다.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기반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공문서 감축, 현장 정착 및 환류의 4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수업전념 학교 문화 조성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2016년부터 매주 수요일은 행정업무 없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성·관례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학교로 발송한 공문서가 8.95% 감소하였고,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종합만족도는 2014년 3.00에서 2015년 3.16, 2016년 3.26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 '경남교육 중점과제 ④ :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단축'의 성과

추진성과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초·중고 99%) 및 교무행정원 906명 배치·운영 · 학교업무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본청 폐자·개선사업 185건) · 학교 발송 공문 모니터단(80명), 업무경감 컨설팅단(120명) 운영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행정지우너팀 구성(전 초·중고 97%) 및 교무행정원(917명) 배치·운영 · 학교업무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폐자·개선사업 201건) · 공문서 모니터단(88명),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컨설팅단(120명) 운영

이어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36>에서도 알 수 있듯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은 2015년 이후 줄곧 정책과제 중에서도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으며, 이외의 정책과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의 투입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의 추진사업 중에서는 '사학기관 여건 개선 및 지원'에 배정된 예산이 2017년 기준 9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6년과 2015년 역시 동일하였다.

<표 36> (정책방향 5) 정책과제별·연도별 예산 비교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정책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438,731,879천원	458,628,927천원	468,137,484천원
100.0%	100.0%	100.0%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7,235,401천원 3.9%	20,011,637천원 4.4%	25,605,821천원 5.5%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40,165천원 0.0%	85,450천원 0.0%	1,761,100천원 0.4%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115,446천원 0.0%	121,170천원 0.0%	116,420천원 0.0%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3,358,191천원 0.8%	9,626,306천원 2.1%	5,551,059천원 1.2%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416,203,345천원 94.9%	426,619,830천원 93.0%	432,611,060천원 92.4%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1,750,081천원 0.4%	1,974,147천원 0.4%	2,252,042천원 0.5%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29,250천원 0.0%	190,387천원 0.0%	239,982천원 0.1%

(출처) 경남교육 2015, 경남교육 2016, 경남교육 2017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경남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정책방향별 추진사업을 살펴보았다. 현 교육감 취임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행정'의 측면에서는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철학 및 목표'에서는 '인재교육'에서 '배움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의 과정 및 내용' 영역에

서도 과거 ‘미래’, ‘창의’ 교육을 강조하였다면, 2015년 이후에는 ‘소통’과 ‘공감’으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7> 정책의 영역을 중심으로 본 2015년 전·후 경남교육의 정책방향 비교

영역	2012 ~ 2014	2015 ~ 2017
교육철학 및 목표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교육의 과정 및 내용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교육환경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교육복지	희망 주는 교육복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교육행정	신뢰받는 교육행정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경남의 교육정책 분석과정 중에 발견된 한 가지 우려할 점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방향은 모두 특정 정책과제, 특정 정책과제 안에서도 특정 추진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38>과 같이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에 76.8%(2017년)의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그 안에서도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하는 ‘영어 전문 인력 활용’에 80.0%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은 ‘안전한 건강급식’에 예산의 81.4%(2017년)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94.3%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에 77.7%(2017년)의 예산이 집중되었고, 그 안에서도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83.3%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은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에 92.4%의 예산이 집중되었고, 그 안에서도 ‘사학기관 여건 개선 및 지원’에 99.9%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2015~2017년 정책방향별로 예산이 집중된 경남의 정책과제

	2015년	2016년	2017년
(방향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68,158,960천원	132,930,557천원	117,448,540천원
<과제6>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16,551,034천원 24.3%	48,030,226천원 36.1%	34,650,316천원 29.5%
(방향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22,588,299천원	23,363,540천원	24,272,052천원
<과제5>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18,265,878천원 80.9%	17,742,019천원 75.9%	18,648,269천원 76.8%
(방향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302,232,229천원	202,063,238천원	332,091,226천원
<과제5> 안전한 건강 급식	256,619,318천원 84.9%	164,583,593천원 81.5%	270,483,753천원 81.4%

(방향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330,213,889천원	306,429,113천원	438,373,029천원
<과제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235,903,413천원	213,984,118천원	340,434,847천원
	71.4%	69.8%	77.7%
(방향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438,731,879천원	458,628,927천원	468,137,484천원
<과제5>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416,203,345천원	426,619,830천원	432,611,060천원
	94.9%	93.0%	92.4%

추진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고 정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더불어 모든 사업이 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예산 집중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서 집행되어 온 예산은 없는지, 경남교육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하겠다.

2

교육정책 관련 여론조사 동향분석

정책 수립 및 운용 과정에서 국민이나 수요자의 생각을 묻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은 국민을 위해 개발되고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용적으로 완벽하다 한들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책으로서 성공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생각과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2013)은 1999년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교육여론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요자로서 국민들은 교육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떠한 교육정책들을 요구하는지, 미래교육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수립을 개선·보완하는 것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11차 교육여론조사(2016)’는 한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를 파악하고,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2016년 8월 5일부터 총 27일간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 성인 남·여 2,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법을 활용한 ‘11차 교육여론조사’ 9가지 주제 총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과 같다.

<표 39> ‘11차 교육여론조사(KEID POOL 2016)’의 설문 구성

영역	내용	유형	척도	대상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1	교육행정 권한 행사의 바람직한 기관	의견	명목	전체
	2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의견	명목	
	3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평가	등간	
	4	학교가 좋은 평가(A+B)를 받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	의견	명목	
	5	급별로 학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의견	명목	
	6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	의견	명목	
교사	7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평가	등간	
	8	초·중·고 교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의견	명목	
	9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교육과정 운영	10	초·중·고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과목	의견	명목	
	11	초·중·고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의견	명목	
	1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의견	명목	
학생 생활	13	IT관련 기기 중독의 심각성 수준	평가	등간	
	14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정도	평가	등간	
	15	초·중·고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	평가	등간	
	16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의견	명목	
	17	학교 폭력의 완화 여부	평가	등간	
	18	학교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의견	명목	

고교 정책 및 대입	19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학교의 역할	의견	명목
	20	학생 훈육을 위한 교육별 지도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21	과정중심평가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22	학생의 학업성취(성적)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의견	명목
	23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의견	명목
	24	EBS 수능 연계(70%) 정책 유지에 대한 의견	평가	등간
	25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26	고교다양화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27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28	일반고 내에서의 직업연계교육 확대 등 직업교육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29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의견	명목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30	대입에서의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 비율에 대한 의견	평가	등간
	31	대학 진학 경쟁에 대한 전망	평가	등간
	32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무상급식 지원 찬성 시 지원 범위)	평가	등간
	33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항목	의견	명목
	34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	의견	명목
대학교육	35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	의견	명목
	36	대학의 사회 필요 인재 양성 기능 평가	평가	등간
	37	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한 신뢰	평가	등간
	38	대학교수의 교육능력 평가	평가	등간
	39	지방대학 우선 지원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교육현안	40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의견	명목
	41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의견	명목
	42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	의견	명목
	43	정부 교육개혁 6대 과제 중 중점 추진과제	의견	명목
	44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교육관	45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46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의견	명목
	47	기업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채용 할당에 대한 찬반의견	평가	등간
	48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존재 정도	평가	등간
	49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존재 정도	평가	등간
	50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평가	등간
	51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평가	등간
	52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의미	의견	명목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하여 강원, 부산, 인천, 경기, 전남 등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세부 사안에 대한 평가, 교육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강원도교육청(2016)은 2016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지역 17개 교육지원청 내 학생(초 5~6학년, 중, 고), 학부모, 교원(유, 초, 중, 고, 특수), 직원(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 기입식 조사(OMR 카드 활용)를 진행하였다. 교·직원은 전수조사 하고 학생·학부모는 모집단의 약 16% 선으로 비례할당하여 총 60,869개의 유효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설문은 공통항목, 부분 공통항목, 개별항목으로 구성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분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 40> 강원도교육청 '2016년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 연구'의 설문 구성

영역	내용	유형	척도	대상
설문자발성	설문의 자발적 참여 여부	평가	등간	①
학생인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체적 체벌 또는 욕설 여부			②③④⑥
	성적, 가정형편에 따른 학교의 차별 여부			
학생자치활동	어린이회 의견에 대한 학교의 존중반영 여부			②③⑥
	학교 행사 시 학생의 의견반영 여부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발생 시 선생님, 부모님, 경찰 신고 여부			②③④⑥
	학교폭력, 따돌림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			
학교생활 안전	교실, 특별실, 체육시설, 실험도구 등의 안전 여부			②③⑤⑥
	등·하교 시 안전 여부			
수업 및 학습	학교 안전교육 이후, 사고 행동요령에 대한 인지 여부			②③④⑥
	수업에 대한 학생 흥미 유발을 위한 교사의 노력			
진로적성교육	학생의 자신감 함양을 위한 학교의 노력			②③④⑥
	관심분야, 진로적성 함양을 위한 학교의 기회 제공			
진로/진학/직업교육	학교 진로(직업)교육의 도움 여부			②③④⑥
체험활동	학교 체험학습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			②③④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반영 여부			
학생상담	고민에 대한 교사의 상담 여부			②③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 상담의 도움 여부			
교육환경	교실 냉·난방에 대한 평가			①
급식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을 위한 급식의 도움			①
	교내 식사 장소의 편안함에 대한 평가			
	급식 배식해주는 분들의 친절 여부			
학교생활/근무만족도	학교생활/근무 만족도			①
학생 동아리	동아리의 다양성 여부			③⑥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시간의 보장 여부			
학생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의 노력			③⑥
학교 청렴도	불법 찬조금 존치 근절 여부			④⑤⑥⑦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 부진, 교육결손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여부			④⑥
민주적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교사의 의견 반영 여부			⑤⑥
	실질적 참여와 소통에 의한 의사결정 여부			
전문성 향상	교내외 다양한 연수기회 보장 및 충분한 지원 여부			⑤⑥⑦
	교원학습공동체의 날 운영을 통한 전문성 신장 여부			
교원업무 정상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 여부	⑤⑥		
	공정하고 명확한 업무분장에 의한 갈등 축소 여부			
조직문화 개선	교원업무지원팀의 활발한 운영 여부	⑤⑥		
	교원업무 정상화의 효과성			
학교 운영	행사진행 시 과도한 의견의 근절 여부	⑤⑥⑦		
	개인용무 개인처리 여부			
교육공무직원 제도 및 근무환경	학교운영 전반에 직원들의 의견 반영 여부	⑦		
	교직원회의 정기적 개최 및 민주적 운영 여부			
자녀의 학교생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문화제도 개선 노력	⑦		
	교육공무직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노력			
학교교육 참여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④		
	자녀의 원활한 교우관계 유지 여부			
학교 참여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평가	④		
	학교 운영관련 학부모의 참여 기회 제공 여부			
지원청의 학교여건 배려 및 장학활동	학교·교육청을 통한 불편, 고충사항의 해결 경험	④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 인지 및 도움 경험			
지원청 장학활동	공문서나 교원대상 행사의 학교 여건 배려 여부	⑤⑥		
	지원청 장학활동에 대한 신뢰 및 기대 여부			

업무 분장/업무 경감	공정한 업무분장 여부			⑦
	전시성 행사의 감소로 인한 관련 업무의 경감 여부			

① 전체 ② 초등학생 ③ 중·고등학생 ④ 학부모 ⑤ 교원(유·특수) ⑥ 교원(초·중·고) ⑦ 직원

부산교육청(2016)은 2016년 6월 8일부터 총 10일간 소속학교 160곳의 교직원·교육공무원 2,080명, 학부모 6,7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순층화표집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교직원·공무원 그룹은 업무포털 내 내부메일을 통해, 학부모 그룹은 구글 포털사이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은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만족도와 평가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강원도교육청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설문 내용을 대상별(교직원·공무원, 학부모) 달리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부산교육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한 정책설문조사’의 설문 구성

영역	내용	유형	척도	대상
주요 교육정책 평가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 운영 평가	평가	등간	①
	토의·토론수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평가			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여부			①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부산다행복학교의 가능성			②
	부산다행복학교에 관한 평가			③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 여부			③
	학생의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정책 평가			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평가			①
	학교급별 진로교육 정책 평가			①
	교내 협의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 평가			②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만족도			②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평가			②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③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평가	①			
현 교육감 취임 이후의 변화 평가	학교 안전 평가			①
	학교급식 개선			③
	부산교육의 청렴도 향상 평가			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③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에 관한 평가			③
	교육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평가			②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행정·장학의 변화			②
주요 교육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의견 반영	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의견 (개방형)	-	①

① 전체 ② 교직원·공무원 ③ 학부모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범국가적 정책에 관한 만족도와 세부 정책에 관한 환경과 의견을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종단연구의 특성상 고정문항과 유동문항(현안문항)의 비중을 8대2 수준으로 조정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11차 교육여론조사(2016)’ 역시 고정문항은 42개 구성하고, 유동문항(현안문항)은 10문항 구성하여 현안문항은 20% 이내로 포함한다

는 원칙을 준수하였다.

질문에 따라 명목척도, 등간척도를 고루 활용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달리 부산교육청은 부산교육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만족도 문항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을 등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강원교육청 역시 정책의 세부 사안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중심으로, 모든 문항을 등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정책실행담당자의 정책방향에 의한 평가를 체계적 구조 속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현안과 사안을 중심으로 만족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 확인된 응답내용 역시 정책과 관련한 단편적 만족도에 불과하여 정책 간의 상대성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실행담당자의 의지와 추진성과가 교육 3주체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각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간의 연계성을 담보하고, 만족도 이외에도 중요도와 시급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 교육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대학입시제도, 미래교육 등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제를 망라하여 만족도·중요도·시급도를 평가하는 문항에는 등간척도를, 그 외 의견이나 요구를 묻는 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강원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공통질문, 부분 공통질문, 개별질문 등 설문 내용에 따라 대상을 분리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를 넓히고 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 개발

문헌분석단계에서 경남 교육정책 및 타 시·도 교육청의 교육여론조사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경남교육정책수요조사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 문항을 선정·개발하였다. 그리고 최근 경남에서 이슈 되고 있는 경남의 교육 현안을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교육 3주체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42> 조사도구, 조사영역 및 내용

구분	조사내용	학생	학부모	교직원	척도
응답자 분류	성별	◎	◎	◎	명목
	지역	◎	◎	◎	명목명목
	소속 학교 및 기관	◎	◎	◎	명목
	소속 학교 규모	◎	◎	◎	명목
	설립유형	◎	◎	◎	명목
	직무			◎	비율
	맞벌이 여부		◎		명목
	학년·연령·교육경력	◎	◎	◎	비율
경남의 교육인식	학업성취도 중요성	◎	◎	◎	5점 Likert
	자유학년제 실시	◎	◎	◎	5점 Likert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	◎	◎	5점 Likert
	과정 중심 수시평가 확대	◎	◎	◎	5점 Likert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	◎	◎	5점 Likert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	◎	◎	5점 Likert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	◎	◎	5점 Likert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평가	◎	◎	◎	5점 Likert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	◎	◎	5점 Likert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	◎	◎	5점 Likert
경남교육의 현주소	행복교육지구 사업 인지		◎	◎	5점 Likert
	배움중심수업 확산	◎	◎	◎	5점 Likert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	5점 Likert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장 마련		◎	◎	5점 Likert
	학부모 교육참여활동 활성화		◎	◎	5점 Likert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	◎	5점 Likert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	◎	◎	5점 Likert
	교육복지 확대	◎	◎	◎	5점 Likert
	교직원복지 확대			◎	5점 Likert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		◎		5점 Likert
	교사의 수업집중 여건 조성			◎	5점 Likert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	◎	5점 Likert
	교직원인사제도 개선			◎	5점 Likert
	교육혁신 만족도		◎	◎	5점 Likert
	교육혁신 만족·불만족 이유		◎	◎	명목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4대 역점과제 추진성과 만족도 순위		◎	◎

	타 시·도교육청의 역점과제에 대한 요구도 순위		●	●	명목
	현 5대 정책방향 추진성과 순위		●	●	명목
	향후 5대 정책방향 요구도 순위		●	●	명목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에 관한 정책과제 만족도·중요도·시급도 순위		●	●	명목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에 관한 정책과제 만족도·중요도·시급도 순위		●	●	명목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 관한 정책과제 만족도·중요도·시급도 순위		●	●	명목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과제 만족도·중요도·시급도 순위		●	●	명목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에 관한 정책과제 만족도·중요도·시급도 순위		●	●	명목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미래사회에 더욱 확대해야 할 교육	●	●	●	명목
	미래사회에 더욱 우선해야할 학교 과제	●	●	●	명목
	배움중심수업 확산 정책		●	●	명목
	배움중심수업 확산을 위한 교사 지원 정책			●	명목
	과정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			●	명목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이해			●	5점 Likert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		●	●	명목
	진학경쟁력 강화 정책		●	●	명목
	인성교육 강화 정책		●	●	명목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		●	●	명목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확대 정책		●	●	명목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책		●	●	명목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 정책		●	●	명목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정책		●	●	명목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정책		●	●	명목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 정책			●	명목	
합계	4개 주제 + 데이터클리닝 1문항	23	60	66	

조사연구 1단계 :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1. 빈도 분석 결과
2.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정책실행담당자의
중요도-시급도 교차 매트릭스
4. 소결론

1 빈도 분석 결과

가. 문항별 빈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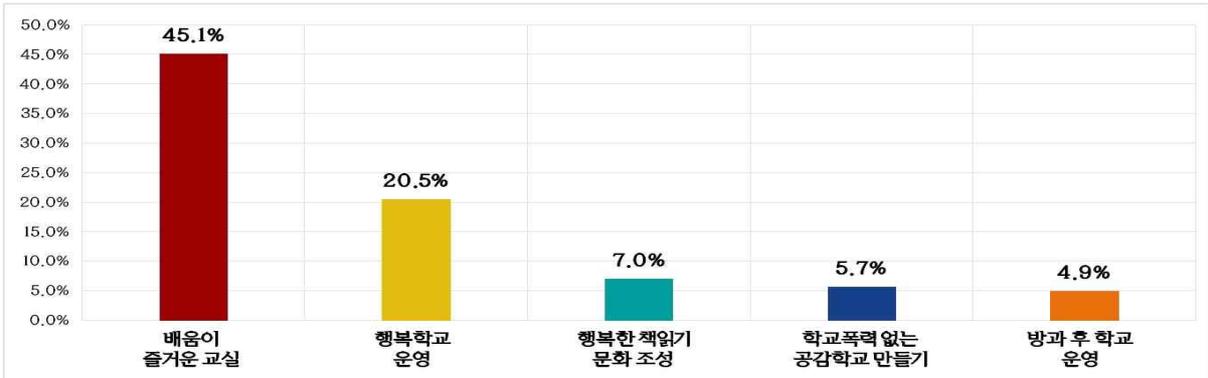
요약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23.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45.1%)', 2순위는 '행복학교 운영(20.1%)', 3순위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이해도가 높은 정책은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16.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33.6%)', 2순위는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12.7%)', 3순위는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9.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16.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32.8%)', 2순위는 '행복학교 운영(11.1%)', 3순위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19.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46.7%)', 2순위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1.5%)', 3순위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도가 높은 정책은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11.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1순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21.3%)', 2순위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11.5%)', 3순위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9%)'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36.6%)'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책수요자에게 경남교육의 32개 세부 정책과제 중 가장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26.2%)'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경남교육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평가 (인지도·이해도·만족도)

<질문> 귀하는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 <표 43>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1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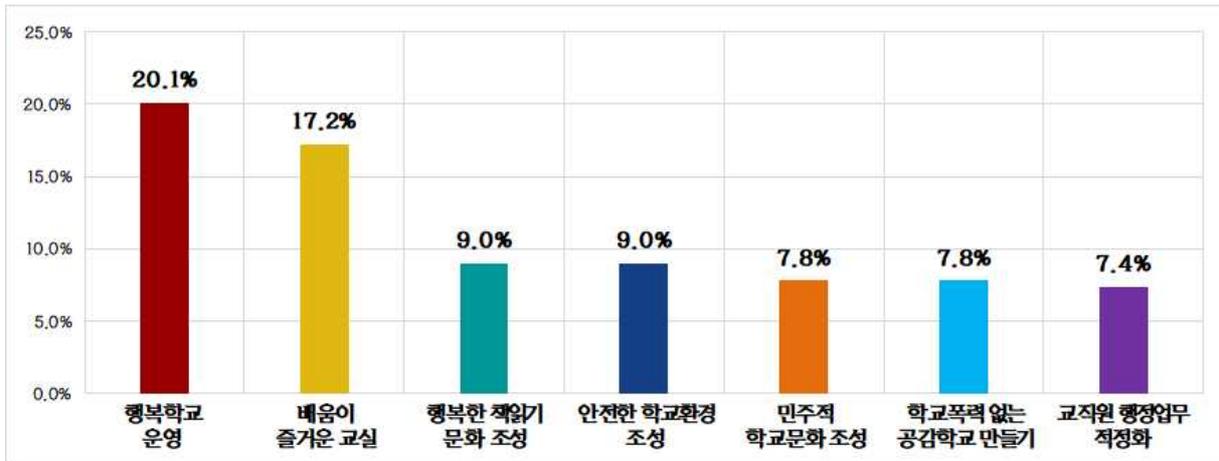


인지도 1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45.1%	20.5%	-	7.0%	-	2.5%	1.2%	2.0%	-	-	-	0.4%	3.3%	5.7%	-	-	3.7%
110명	50명	-	17명	-	6명	3명	5명	-	-	-	1명	8명	14명	-	-	9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	-	0.8%	4.9%	-	1.2%	-	-	-	-	1.2%	-	-	0.4%	-	-	100.0%
-	-	2명	12명	-	3명	-	-	-	-	3명	-	-	1명	-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45.1%), 행복 학교 운영(20.5%),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7%),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5.7%), 방과 후 학교 운영(4.9%), 안전한 건강급식(3.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2.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2%),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2%),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1.2%),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1.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0.8%), 나라사랑 교육 강화(0.4%),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0.4%)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4>, <표 44>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2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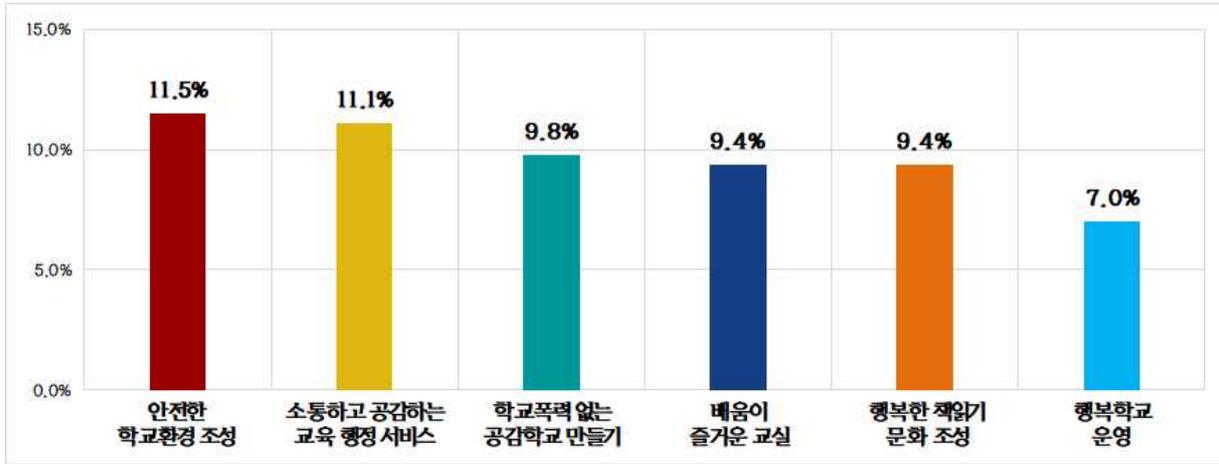


인지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7.2%	20.1%	2.0%	9.0%	-	2.5%	2.9%	7.8%	1.6%	-	0.8%	-	9.0%	7.8%	0.4%	-	2.5%
42명	49명	5명	22명	-	6명	7명	19명	4명	-	2명	-	22명	19명	1명	-	6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전체
-	-	0.4%	2.9%	1.2%	1.6%	0.4%	0.4%	7.4%	-	1.2%	0.8%	-	-	-	-	100.0%
-	-	1명	7명	3명	4명	1명	1명	18명	-	3명	2명	-	-	-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인지도 2순위로는 행복학교 운영(20.1%), 배움이 즐거운 교실(17.2%),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9%),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7.8%),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7.8%),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7.4%),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9%), 방과 후 학교 운영(2.9%),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2.5%), 안전한 건강급식(2.5%),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1.6%),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1.6%),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2%),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1.2%),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0.8%),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0.8%),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0.4%),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0.4%),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0.4%), 교직원복지 여건개선(0.4%)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5>, <표 45>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3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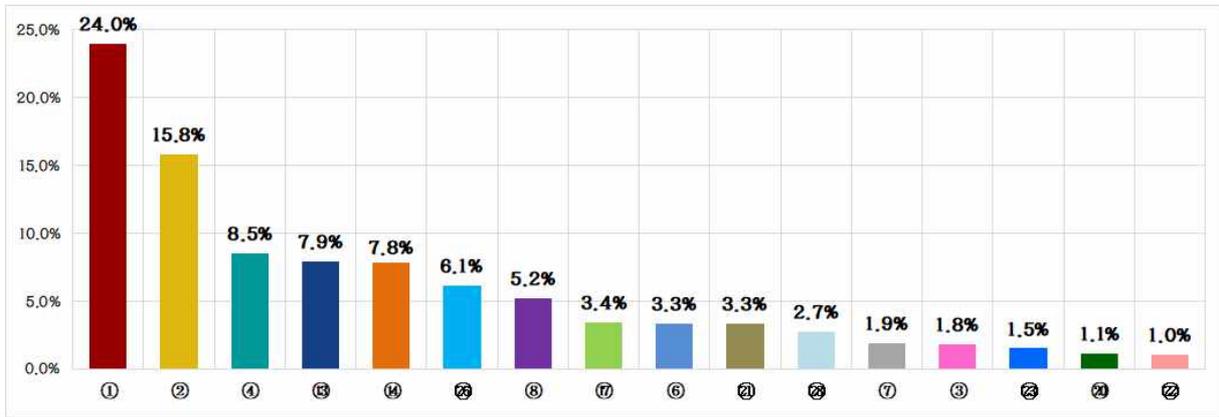


인지도 3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9.4%	7.0%	3.3%	9.4%	1.6%	4.9%	1.6%	5.7%	0.4%	0.4%	0.4%	-	11.5%	9.8%	0.8%	-	4.1%
23명	17명	8명	23명	4명	12명	4명	14명	1명	1명	1명	-	28명	24명	2명	-	10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	1.6%	2.0%	2.0%	1.6%	1.6%	0.8%	0.8%	11.1%	-	5.7%	1.6%	-	0.4%	-	-	100.0%
-	4명	5명	5명	4명	4명	2명	2명	27명	-	14명	4명	-	1명	-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인지도 3순위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11.5%),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1.1%),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9.8%), 배움이 즐거운 교실 (9.4%),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9.4%), 행복학교 운영(7%),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5.7%),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5.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9%), 안전한 건강급식(4.1%),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3.3%),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 방과 후 학교 운영(2%), 맞춤형 특수교육(1.6%),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6%),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1.6%)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6>, <표 46>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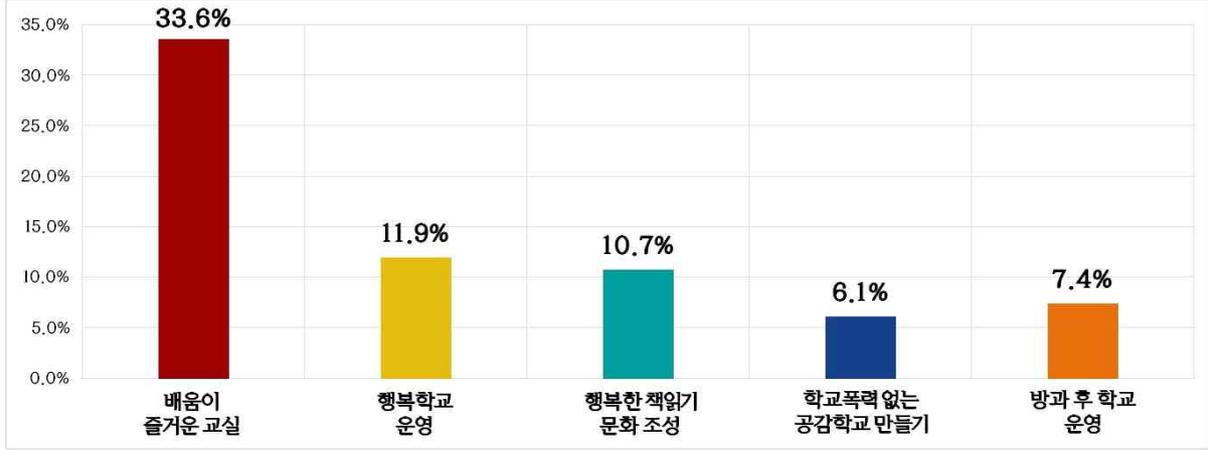
인지도(1~3순위 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24.0%	15.8%	1.8%	8.5%	0.5%	3.3%	1.9%	5.2%	0.7%	0.1%	0.4%	0.1%	7.9%	7.8%	0.4%	-	3.4%
175명	116명	13명	62명	4명	24명	14명	38명	5명	1명	3명	1명	58명	57명	3명	-	25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	0.5%	1.1%	3.3%	1.0%	1.5%	0.4%	0.4%	6.1%	-	2.7%	0.8%	-	0.3%	-	-	100.0%
-	4명	8명	24명	7명	11명	3명	3명	45명	-	20명	6명	-	2명	-	-	732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주요 경남정책 인지도 1~3순위 합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23.9%), 행복학교 운영(15.8%),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8.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9%),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7.8%),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6.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5.2%), 안전한 건강급식(3.4%),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3.3%), 방과 후 학교 운영(3.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2.7%),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9%),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1.8%),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1.5%),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1.1%),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귀하는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7>, <표 47>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1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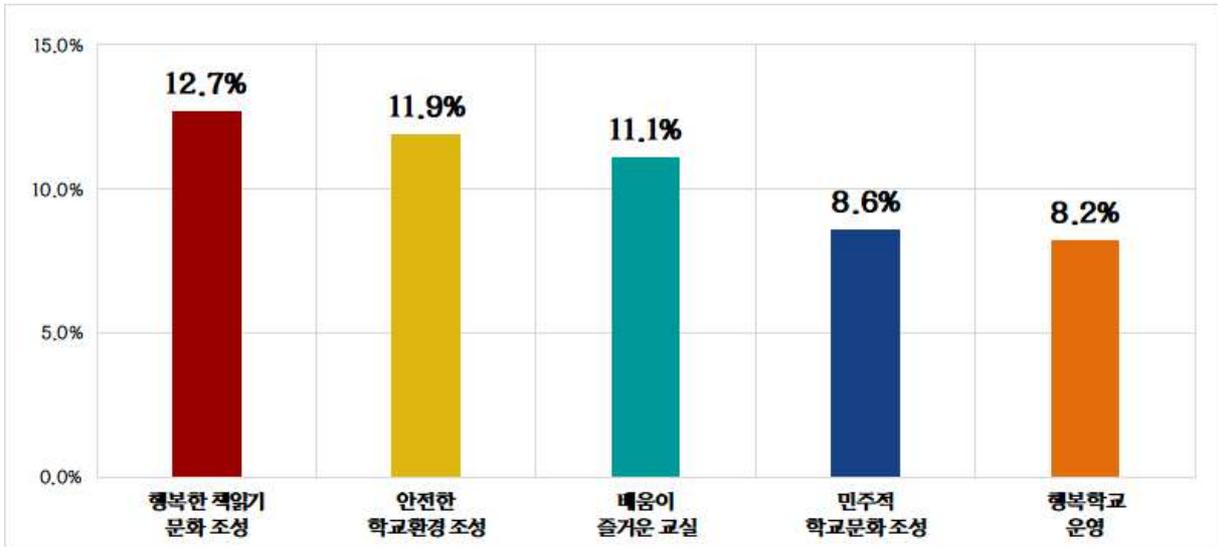


이해도 1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33.6%	11.9%	-	10.7%	-	4.1%	1.2%	3.3%	-	-	0.4%	0.4%	4.1%	6.1%	0.8%	-	5.7%
82명	29명	-	26명	-	10명	3명	8명	-	-	1명	1명	10명	15명	2명	-	14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0.4%	0.4%	0.4%	7.4%	0.8%	0.8%	0.8%	0.4%	2.9%	-	3.3%	-	-	-	-	-	100.0%
1명	1명	1명	18명	2명	2명	2명	1명	7명	-	8명	-	-	-	-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33.6%), 행복학교 운영(11.9%),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10.7%), 방과 후 학교 운영(7.4%),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6.1%), 안전한 건강급식(5.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4.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3.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3.3%),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2.9%),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2%),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0.8%),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0.8%),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0.8%),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0.8%)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8>, <표 48>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2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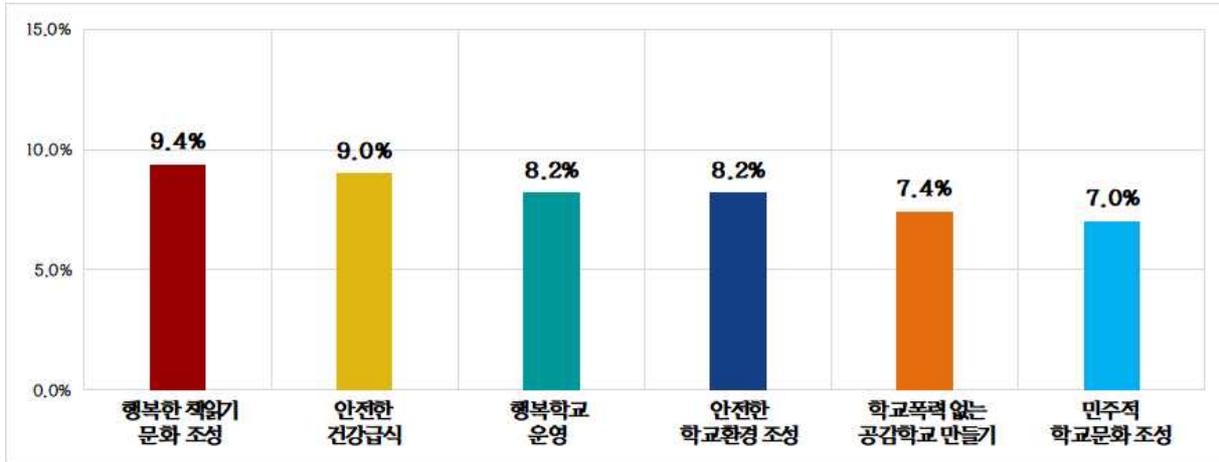


이해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1.1%	8.2%	1.6%	12.7%	0.8%	3.7%	2.5%	8.6%	2.0%	0.4%	0.8%	1.2%	11.9%	6.1%	0.8%	-	5.7%
27명	20명	4명	31명	2명	9명	6명	21명	5명	1명	2명	3명	29명	15명	2명	-	14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	0.8%	3.7%	4.1%	2.0%	1.2%	1.2%	0.4%	2.9%	-	2.9%	2.5%	-	-	-	-	100.0%
-	2명	9명	10명	5명	3명	3명	1명	7명	-	7명	6명	-	-	-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이해도 2순위로는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12.7%),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11.9%), 배움이 즐거운 교실(11.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8.6%), 행복학교 운영(8.2%),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6.1%), 안전한 건강급식(5.7%), 방과 후 학교 운영(4.1%),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3.7%),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3.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2.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2.9%),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5%),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2.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2%),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2%)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9>, <표 49>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3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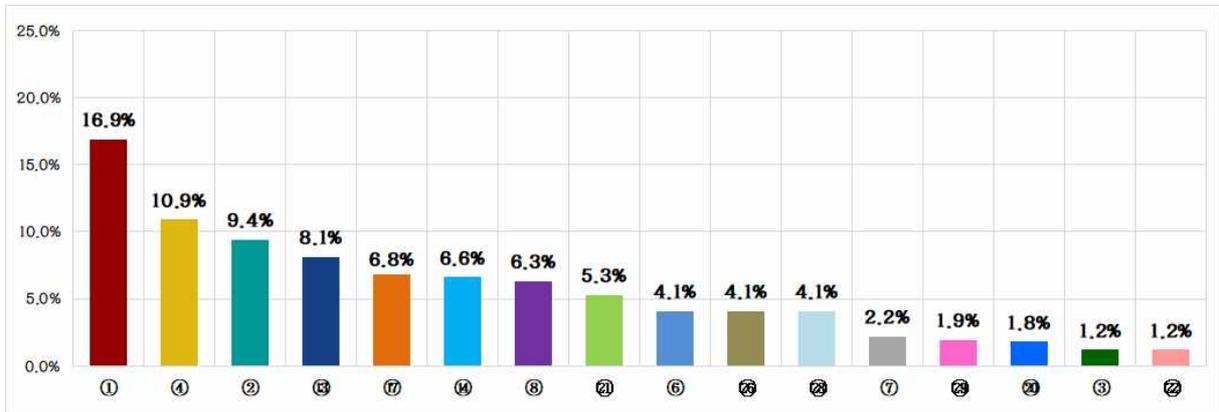
이해도 3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5.3%	8.2%	2.0%	9.4%	1.6%	4.5%	2.9%	7.0%	0.4%	-	2.0%	-	8.2%	7.4%	1.6%	0.4%	9.0%
13명	20명	5명	23명	4명	11명	7명	17명	1명	-	5명	-	20명	18명	4명	1명	22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1.6%	0.8%	1.2%	4.5%	0.8%	1.6%	0.8%	0.4%	6.6%	0.8%	6.1%	3.3%	0.4%	0.4%	0.4%	100.0%	
4명	2명	3명	11명	2명	4명	2명	1명	16명	2명	15명	8명	1명	1명	1명	244명	

정책과제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이해도 3순위는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9.4%), 안전한 건강급식(9%), 행복학교 운영(8.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8.2%),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7.4%),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6.6%),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6.1%), 배움이 즐거운 교실(5.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5%), 방과 후 학교 운영(4.5%),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9%),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2%), 맞춤형 특수교육(1.6%)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0>, <표 50>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잘 이해되고 있는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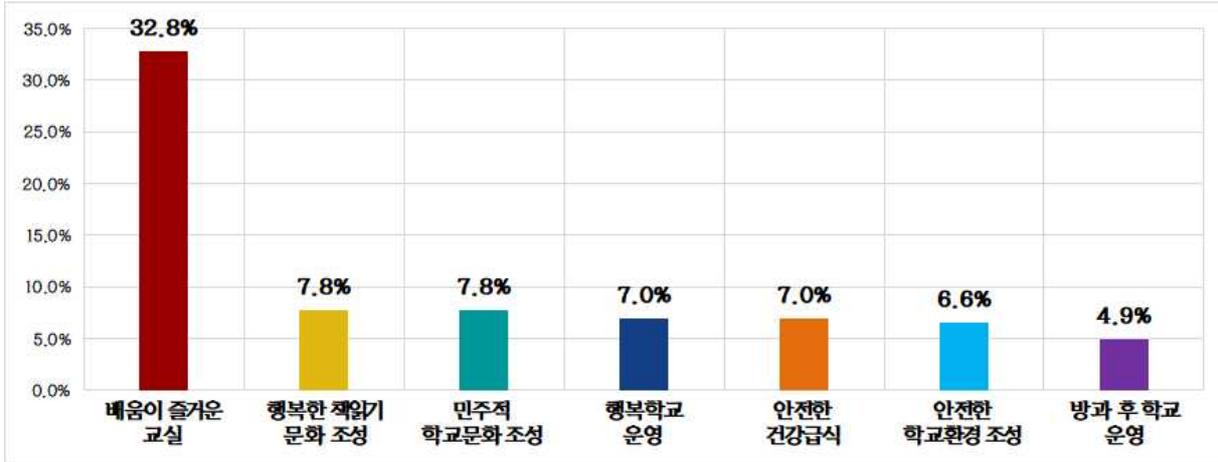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6.9%	9.4%	1.2%	10.9%	0.8%	4.1%	2.2%	6.3%	0.8%	0.1%	1.1%	0.5%	8.1%	6.6%	1.1%	0.1%	6.8%
122명	69명	9명	80명	6명	30명	16명	46명	6명	1명	8명	4명	59명	48명	8명	1명	50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0.7%	0.7%	1.8%	5.3%	1.2%	1.2%	1.0%	0.4%	4.1%	0.3%	4.1%	1.9%	0.1%	0.1%	0.1%	100.0%	
5명	5명	13명	39명	9명	9명	7명	3명	30명	2명	30명	14명	1명	1명	1명	732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주요 경남정책 이해도 1~3순위 합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16.7%),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10.9%), 행복학교 운영(9.4%),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8.1%), 안전한 건강급식(6.8%),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6.6%),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6.3%), 방과 후 학교 운영(5.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1%),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4.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2%),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9%),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1.8%),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1.2%),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2%)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질문> 귀하는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1>, <표 51>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1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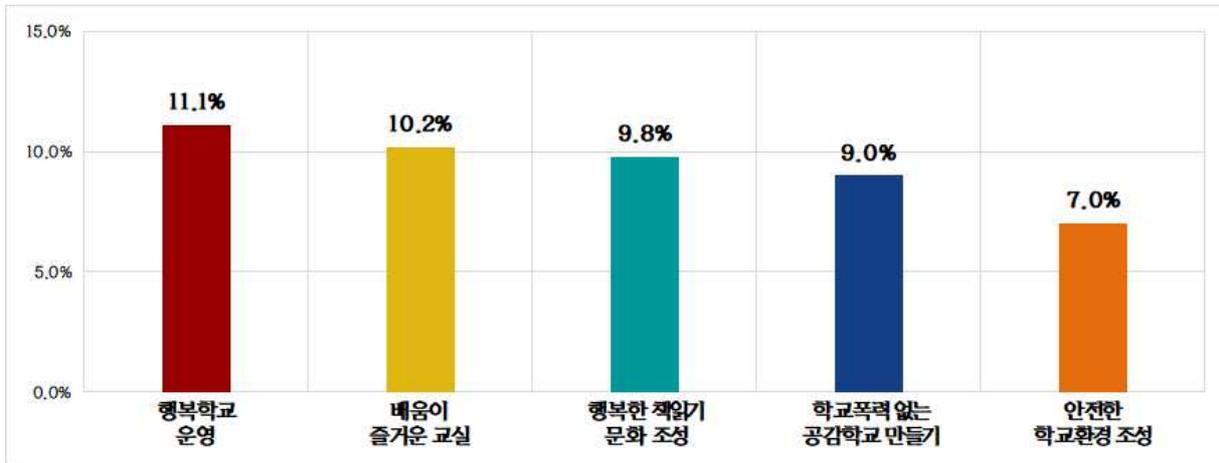


만족도 1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32.8%	7.0%	0.8%	7.8%	0.8%	3.3%	2.9%	7.8%	0.4%	0.8%	-	-	6.6%	2.9%	0.8%	-	7.0%
80명	17명	2명	19명	2명	8명	7명	19명	1명	2명	-	-	16명	7명	2명	-	17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전체
-	-	2.5%	4.9%	2.0%	1.6%	-	-	2.9%	-	1.6%	0.4%	0.4%	2.0%	-	-	100.0%
-	-	6명	12명	5명	4명	-	-	7명	-	4명	1명	1명	5명	-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32.8%),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7.8%),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7.8%), 행복학교 운영(7%), 안전한 건강급식(7%),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6.6%), 방과 후 학교 운영(4.9%),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3.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9%),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9%),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2.9%),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2%),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2%),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1.6%),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1.6%)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2>, <표 52>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2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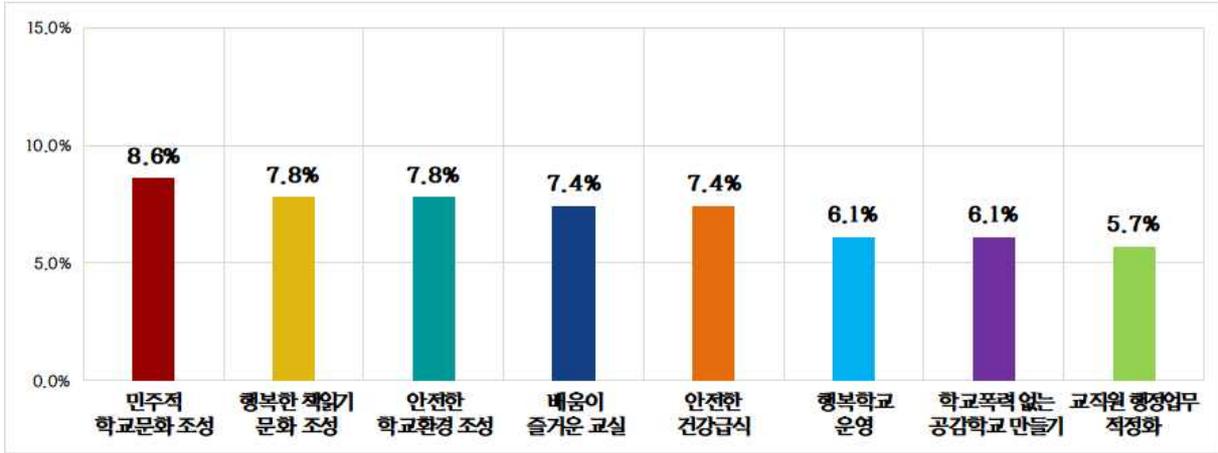


만족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0.2%	11.1%	0.8%	9.8%	0.4%	4.1%	4.1%	6.1%	1.6%	-	1.2%	-	7.0%	9.0%	1.2%	0.8%	6.1%
25명	27명	2명	24명	1명	10명	10명	15명	4명	-	3명	-	17명	22명	3명	2명	15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1.6%	2.5%	3.3%	2.5%	2.5%	0.4%	0.4%	0.4%	4.1%	-	6.1%	1.6%	0.4%	0.4%	-	100.0%	
4명	6명	8명	6명	6명	1명	1명	1명	10명	-	15명	4명	1명	1명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만족도 2순위로는 행복학교 운영(11.1%), 배움이 즐거운 교실(10.2%),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9.8%),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9%),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6.1%), 안전한 건강급식(6.1%),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6.1%),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4.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1%),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3.3%),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2.5%), 방과 후 학교 운영(2.5%),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2.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6%)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3>, <표 53>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3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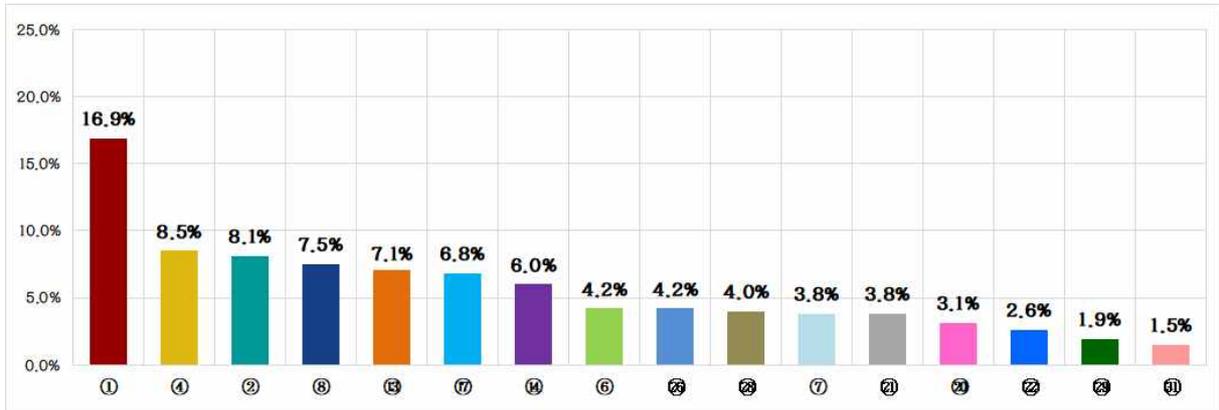


만족도 3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7.4%	6.1%	1.6%	7.8%	0.4%	5.3%	4.5%	8.6%	0.8%	0.8%	1.2%	0.8%	7.8%	6.1%	0.8%	-	7.4%
18명	15명	4명	19명	1명	13명	11명	21명	2명	2명	3명	2명	19명	15명	2명	-	18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0.8%	0.4%	3.7%	4.1%	3.3%	1.6%	1.2%	0.4%	5.7%	0.4%	4.1%	3.7%	-	2.0%	0.8%	100.0%	
2명	1명	9명	10명	8명	4명	3명	1명	14명	1명	10명	9명	-	5명	2명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만족도 3순위로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8.6%),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7.8%),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8%), 배움이 즐거운 교실(7.4%), 안전한 건강급식(7.4%), 행복학교 운영(6.1%),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6.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5.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5.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4.5%), 방과 후 학교 운영(4.1%),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4.1%),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3.7%),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7%),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3.3%),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2%)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4>, <표 54> '정책수요자에게 가장 만족되고 있는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6.8%	8.1%	1.1%	8.5%	0.5%	4.2%	3.8%	7.5%	1.0%	0.5%	0.8%	0.3%	7.1%	6.0%	1.0%	0.3%	6.8%
123명	59명	8명	62명	4명	31명	28명	55명	7명	4명	6명	2명	52명	44명	7명	2명	50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0.8%	1.0%	3.1%	3.8%	2.6%	1.2%	0.5%	0.3%	4.2%	0.1%	4.0%	1.9%	0.3%	1.5%	0.3%	100.0%	
6명	7명	23명	28명	19명	9명	4명	2명	31명	1명	29명	14명	2명	11명	2명	7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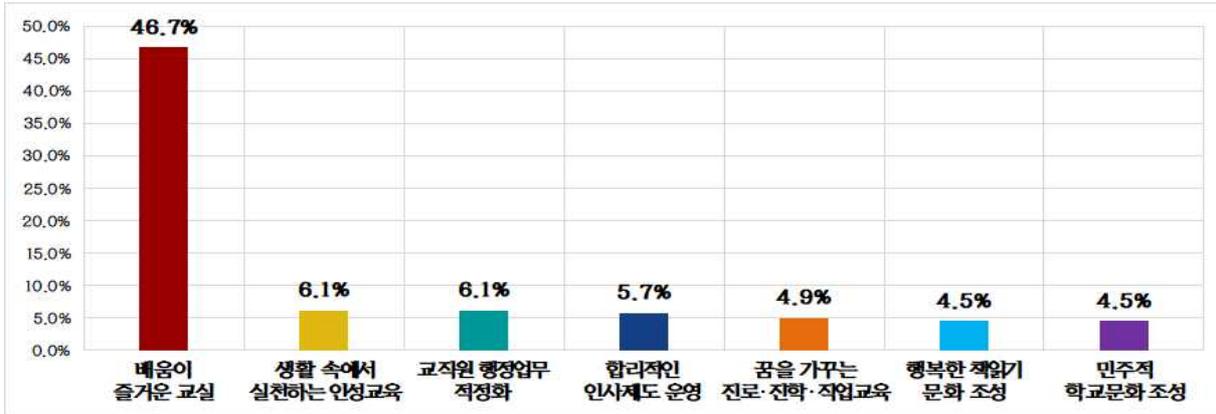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주요 경남정책 만족도 1~3순위 합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16.8%),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8.5%), 행복학교 운영(8.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7.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1%), 안전한 건강급식(6.8%),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6%),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2%),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2%),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4%),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3.8%), 방과 후 학교 운영(3.8%),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3.1%),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2.6%),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9%),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1.5%)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경남교육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평가 (중요도·시급도)

<질문> 귀하는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5>, <표 55>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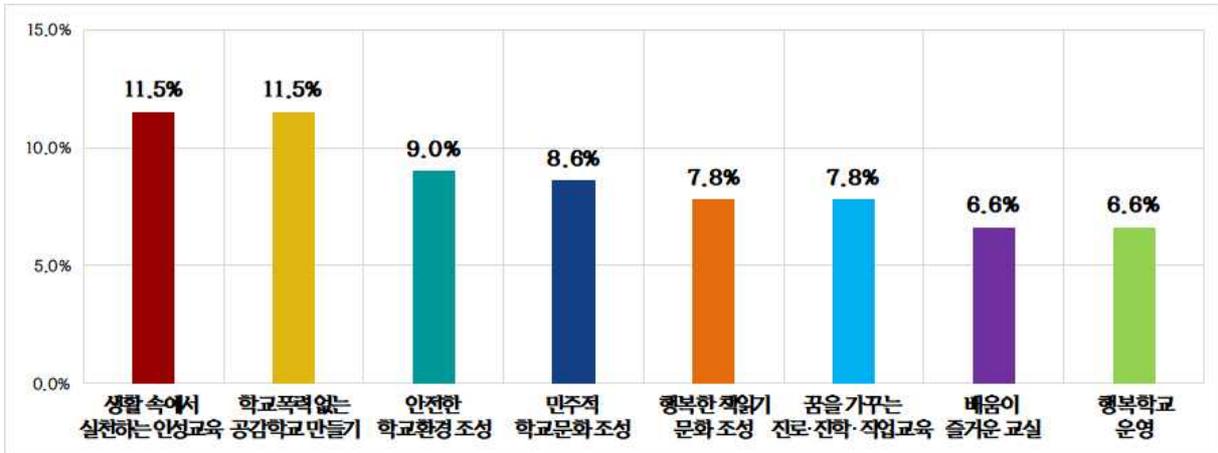
중요도 1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46.7%	3.3%	-	4.5%	0.4%	4.9%	6.1%	4.5%	0.4%	-	-	-	3.7%	3.3%	-	-	0.8%
114명	8명	-	11명	1명	12명	15명	11명	1명	-	-	-	9명	8명	-	-	2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	1.2%	0.4%	0.4%	-	-	0.4%	2.0%	6.1%	1.2%	1.2%	0.8%	-	5.7%	1.6%	100.0%	
-	3명	1명	1명	-	-	1명	5명	15명	3명	3명	2명	-	14명	4명	244명	

정책과제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46.7%),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6.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6.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5.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9%),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4.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4.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7%), 행복학교 운영(3.3%),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3.3%), 교직원복지 여건개선(2%),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1.6%),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1.2%),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1.2%),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1.2%), 안전한 건강급식(0.8%)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6>, <표 56>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2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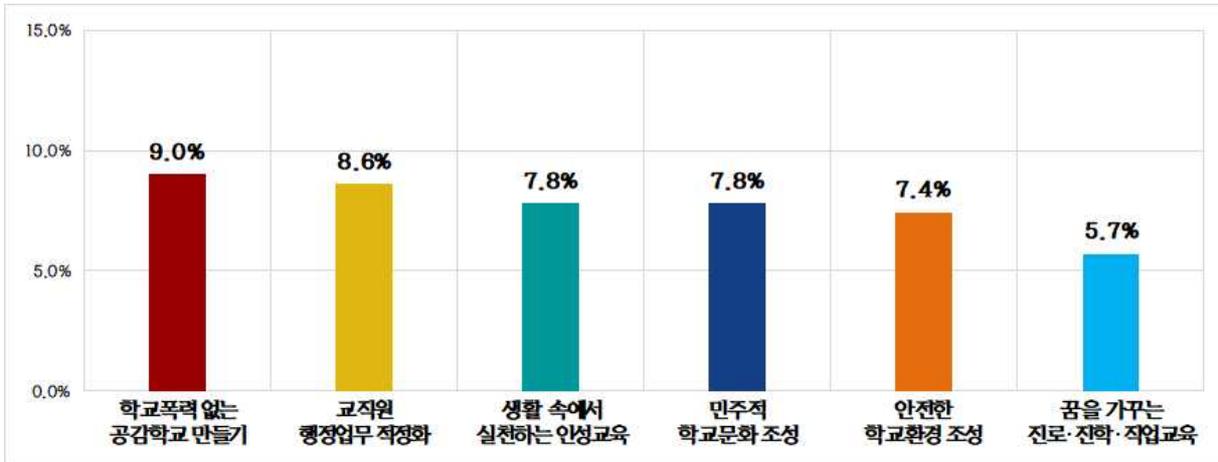


중요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6.6%	6.6%	2.0%	7.8%	0.4%	7.8%	11.5%	8.6%	0.8%	0.4%	2.0%	0.4%	9.0%	11.5%	0.4%	-	-
16명	16명	5명	19명	1명	19명	28명	21명	2명	1명	5명	1명	22명	28명	1명	-	-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1.6%	2.5%	1.6%	1.2%	-	0.4%	1.2%	0.4%	4.1%	2.5%	1.2%	2.5%	-	2.9%	2.0%	100.0%	
4명	6명	4명	3명	-	1명	3명	1명	10명	6명	3명	6명	-	7명	5명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중요도 2순위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1.5%),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11.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8.6%),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7.8%),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7.8%), 배움이 즐거운 교실(6.6%),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6.6%),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7.8%),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7.8%), 행복학교 운영(6.6%), 배움이 즐거운 교실(6.6%),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2.9%),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5%),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2.5%),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2.5%),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2%)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7>, <표 57>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3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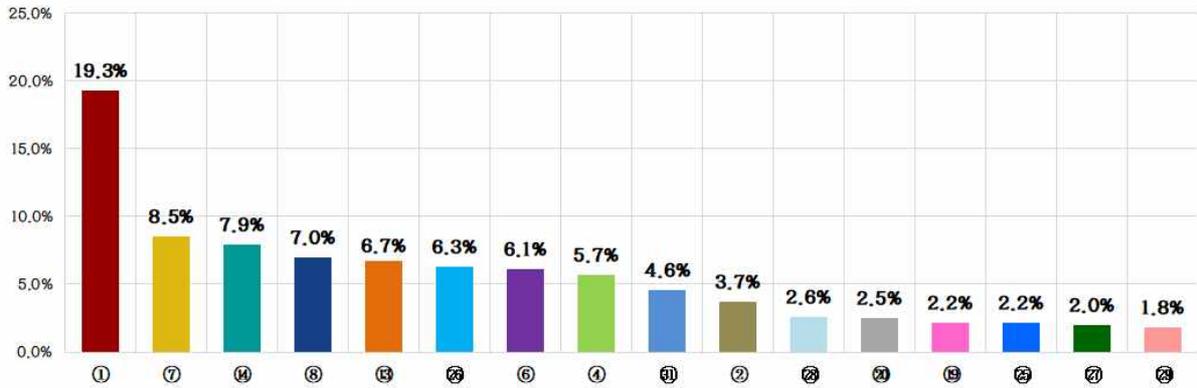


중요도 3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4.5%	1.2%	2.5%	4.9%	-	5.7%	7.8%	7.8%	2.0%	0.4%	1.6%	0.4%	7.4%	9.0%	1.6%	-	1.2%
11명	3명	6명	12명	-	14명	19명	19명	5명	1명	4명	1명	18명	22명	4명	-	3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전체
2.0%	2.9%	5.3%	0.8%	-	0.8%	0.8%	4.1%	8.6%	2.5%	5.3%	2.0%	0.4%	5.3%	0.8%	100.0%	
5명	7명	13명	2명	-	2명	2명	10명	21명	6명	13명	5명	1명	13명	2명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중요도 3순위로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9%), 교직원행정업무 적정화(8.6%),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7.8%),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7.8%),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4%),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5.7%),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5.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5.3%),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5.3%),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4.9%), 배움이 즐거운 교실(4.5%), 교직원복지 여건개선(4.1%),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9%),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5%),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2.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2%)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8>, <표 58>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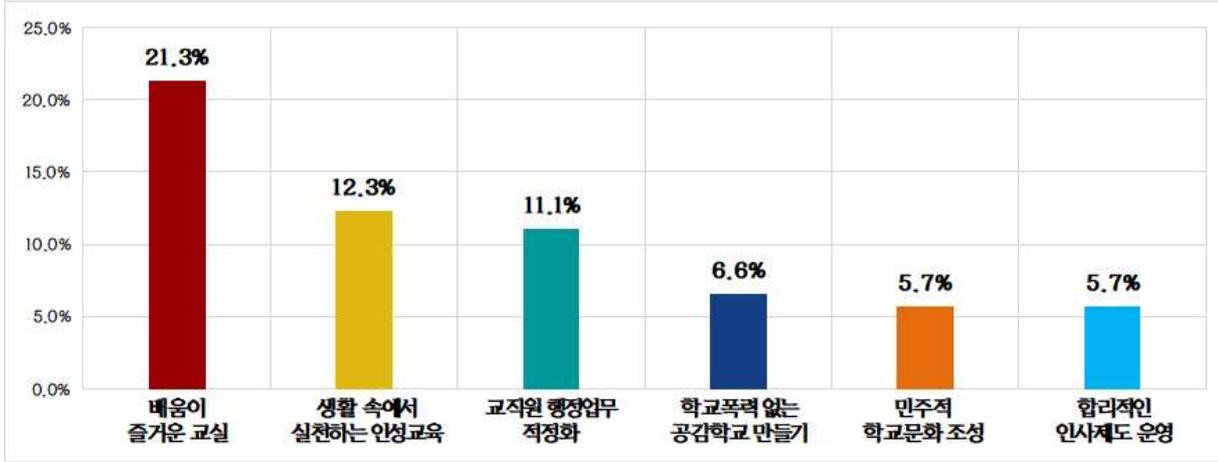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9.3%	3.7%	1.5%	5.7%	0.3%	6.1%	8.5%	7.0%	1.1%	0.3%	1.2%	0.3%	6.7%	7.9%	0.7%	-	0.7%
141명	27명	11명	42명	2명	45명	62명	51명	8명	2명	9명	2명	49명	58명	5명	-	5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1.2%	2.2%	2.5%	0.8%	-	0.4%	0.8%	2.2%	6.3%	2.0%	2.6%	1.8%	0.1%	4.6%	1.5%	100.0%	
9명	16명	18명	6명	-	3명	6명	16명	46명	15명	19명	13명	1명	34명	11명	732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주요 경남정책 중요도 1~3순위 합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19.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8.5%),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7.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7%),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6.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6.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6.1%),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5.7%),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4.6%), 행복학교 운영(3.7%),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2.6%),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2%), 교직원복지 여건개선(2.2%),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2%),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8%)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질문> 귀하는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9>, <표 59>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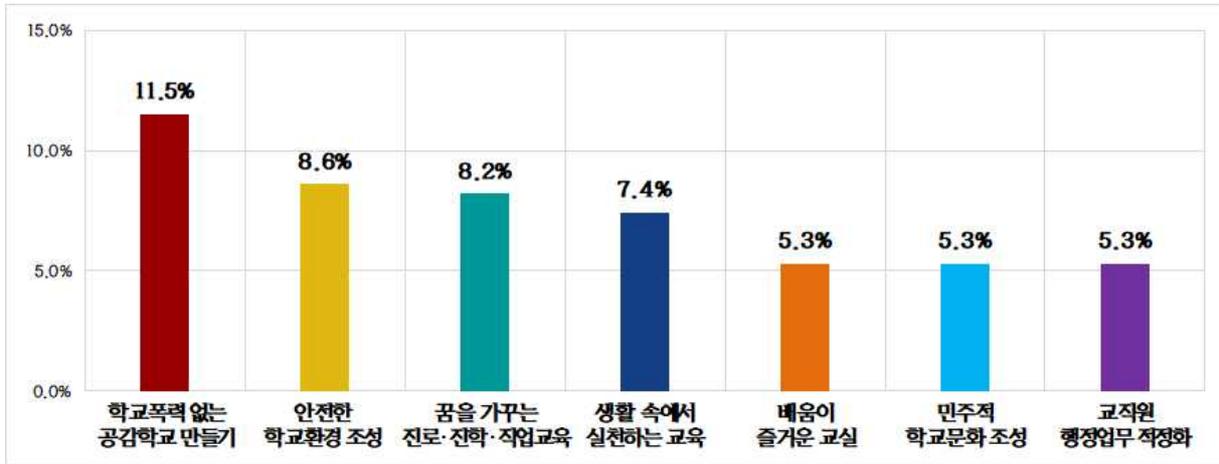


시급도 1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21.3%	2.9%	0.4%	2.0%	0.4%	4.5%	12.3%	5.7%	0.4%	-	0.8%	0.8%	4.5%	6.6%	-	-	0.8%
52명	7명	1명	5명	1명	11명	30명	14명	1명	-	2명	2명	11명	16명	-	-	2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전체
1.6%	2.0%	1.6%	0.4%	-	0.4%	-	3.3%	11.1%	2.5%	3.7%	2.0%	0.4%	5.7%	1.6%	-	100.0%
4명	5명	4명	1명	-	1명	-	8명	27명	6명	9명	5명	1명	14명	4명	-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21.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12.3%),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11.1%),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6.6%),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5.7%),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5.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4.5%),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3.7%), 교직원복지 여건개선(3.3%), 행복학교 운영(2.9%),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2.5%),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2%),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2%),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6%)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20>, <표 60>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2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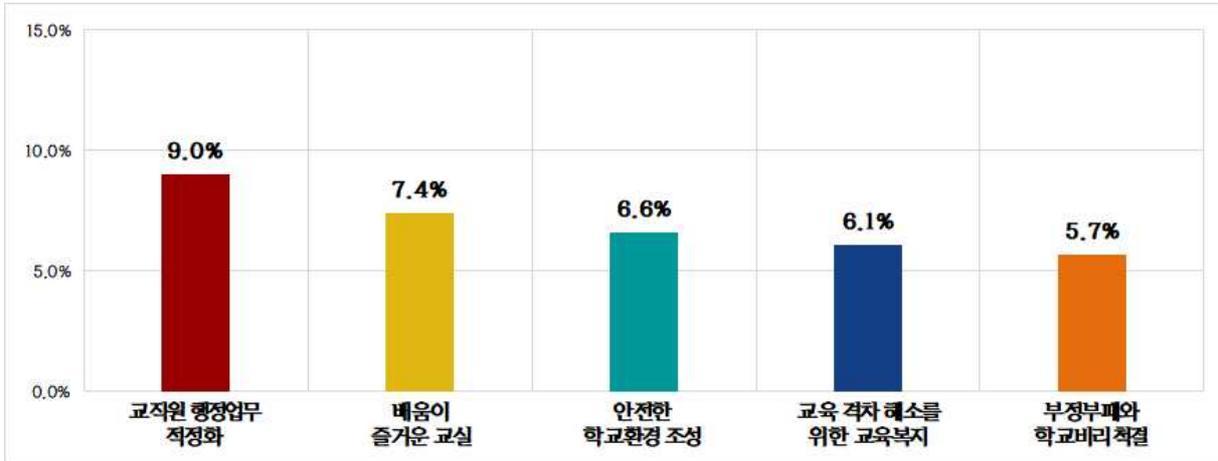


시급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5.3%	3.3%	1.2%	3.3%	0.4%	8.2%	7.4%	5.3%	1.6%	1.2%	2.5%	0.4%	8.6%	11.5%	1.2%	-	1.6%
13명	8명	3명	8명	1명	20명	18명	13명	4명	3명	6명	1명	21명	28명	3명	-	4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2.0%	3.7%	2.0%	0.8%	0.8%	0.4%	0.4%	1.6%	5.3%	3.7%	2.9%	3.7%	0.8%	4.5%	4.1%	100.0%	
5명	9명	5명	2명	2명	1명	1명	4명	13명	9명	7명	9명	2명	11명	10명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시급도 2순위로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11.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8.6%),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8.2%),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육(7.4%), 배움이 즐거운 교실(5.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5.3%),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5.3%),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4.5%),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4.1%),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3.7%),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3.7%),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7%), 행복학교 운영(3.3%),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3.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2.9%),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2.5%)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21>, <표 61>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3순위'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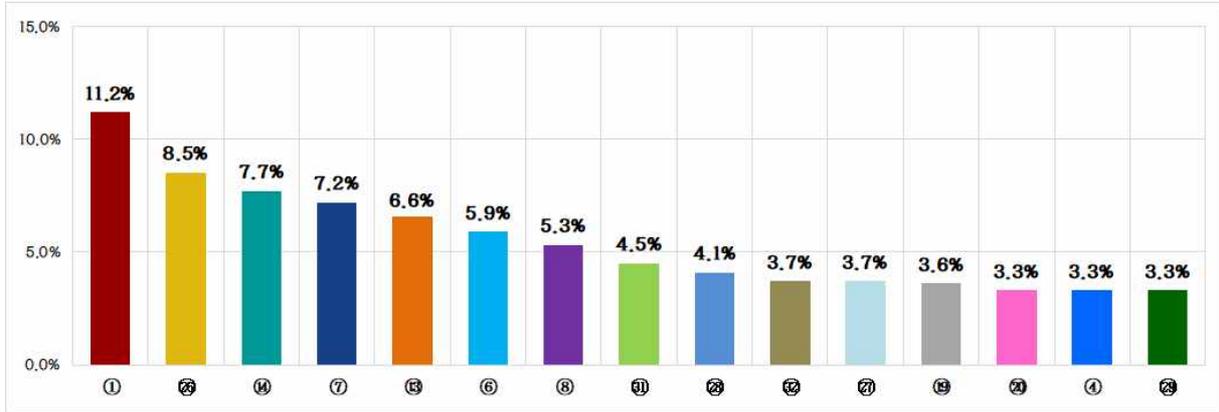


시급도 3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7.4%	3.3%	2.5%	4.5%	0.4%	4.9%	2.0%	4.9%	-	0.4%	1.2%	0.8%	6.6%	4.9%	1.6%	0.4%	1.6%
18명	8명	6명	11명	1명	12명	5명	12명	-	1명	3명	2명	16명	12명	4명	1명	4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2.5%	4.9%	6.1%	0.4%	0.4%	0.4%	1.6%	2.9%	9.0%	4.9%	5.7%	4.1%	0.8%	3.3%	5.3%	100.0%	
6명	12명	15명	1명	1명	1명	4명	7명	22명	12명	14명	10명	2명	8명	13명	244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경남정책 시급도 3순위로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9%), 배움이 즐거운 교실(7.4%),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6.6%),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6.1%),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5.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9%), 배움이 즐거운 교실(7.4%),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6.6%),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6.1%),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5.7%),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5.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4.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4.9%),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4.9%),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4.9%),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4.9%),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4.5%),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4.1%), 행복학교 운영(3.3%),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3.3%), 교직원복지 여건개선(2.9%)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22>, <표 62>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1~3순위 합'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1.2%	3.1%	1.4%	3.3%	0.4%	5.9%	7.2%	5.3%	0.7%	0.5%	1.5%	0.7%	6.6%	7.7%	1.0%	0.1%	1.4%
83명	23명	10명	24명	3명	43명	53명	39명	5명	4명	11명	5명	48명	56명	7명	1명	10명
⑱	⑲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전체	
2.0%	3.6%	3.3%	0.5%	0.4%	0.4%	0.7%	2.6%	8.5%	3.7%	4.1%	3.3%	0.7%	4.5%	3.7%		100.0%
15명	26명	24명	4명	3명	3명	5명	19명	62명	27명	30명	24명	5명	33명	27명		7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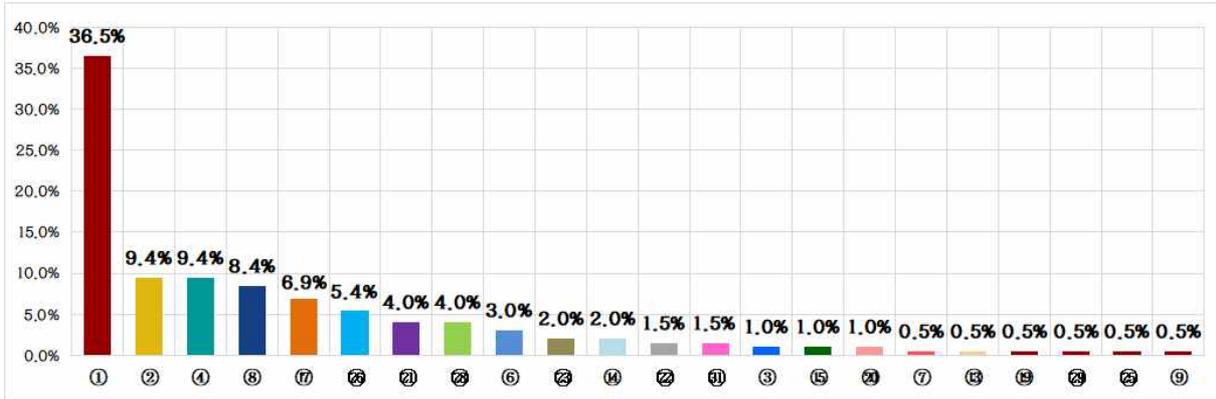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주요 경남정책 시급도 1~3순위 합계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11.3%),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8.5%),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7.7%),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7.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6.6%),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5.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5.3%),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4.5%),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4.1%),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3.7%),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3.7%),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3.6%),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3.3%),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3.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3%), 행복학교 운영(3.1%)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경남교육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평가 (성공·실패가능성)

<질문> 귀하는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23>, <표 63>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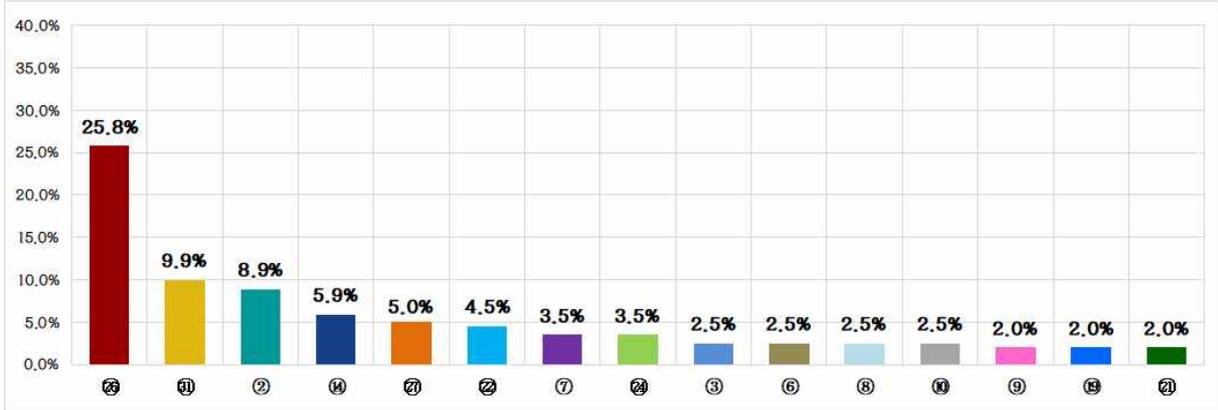
성공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36.5%	9.4%	1.0%	9.4%	-	3.0%	0.5%	8.4%	0.5%	-	-	-	0.5%	2.0%	1.0%	-	6.9%
74명	19명	2명	19명	-	6명	1명	17명	1명	-	-	-	1명	4명	2명	-	14명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	0.5%	1.0%	4.0%	1.5%	2.0%	-	0.5%	5.4%	-	4.0%	0.5%	-	1.5%	-	-	100.0%
-	1명	2명	8명	3명	4명	-	1명	11명	-	8명	1명	-	3명	-	-	202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배움이 즐거운 교실(36.6%), 행복학교 운영(9.4%),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9.4%),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8.4%), 안전한 건강급식 (6.9%),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5.4%), 방과 후 학교 운영(4%),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4%),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3%),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2%),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5%),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1.5%),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1%),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1%),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1%)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질문> 귀하는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24>, <표 64>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 설문결과



실패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1.5%	8.9%	2.5%	0.5%	1.0%	2.5%	3.5%	2.5%	2.0%	2.5%	0.5%	0.5%	1.0%	5.0%	1.0%	0.5%	-
3명	18명	5명	1명	2명	5명	7명	5명	4명	5명	1명	1명	2명	10명	2명	1명	-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전체	
0.5%	2.0%	0.5%	2.0%	3.5%	2.0%	3.0%	5.9%	25.8%	4.5%	0.5%	1.0%	1.5%	9.9%	1.5%	100.0%	
1명	4명	1명	4명	7명	4명	6명	12명	53명	9명	1명	2명	3명	20명	3명	202명	

-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㉓ 교육공무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 ㉛ 합리적인 인사제 운영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26.2%),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9.9%), 행복학교 운영(8.9%), 교직원복지 여건개설(5.9%), 학교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5%),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4.5%),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3.5%),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3.5%),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3%),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5%),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2.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2.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2.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2%),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 방과 후 학교 운영(2%) 순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나. 순위 분석 결과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관련 인식을 확인한 결과, 실패 가능성을 제외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시급도·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배움이 즐거운 교실’이 모두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실패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시급도·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의 1~3순위 합계로 본 순위는 아래와 같다.

<표 65>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순위분석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23.9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16.7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16.8
② 행복학교 운영	15.8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10.9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8.5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8.5	② 행복학교 운영	9.4	② 행복학교 운영	8.1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7.9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8.1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5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7.8	⑰ 안전한 건강급식	6.8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7.1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6.1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6.6	⑰ 안전한 건강급식	6.8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5.2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3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6
⑰ 안전한 건강급식	3.4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5.3	⑥ 진로·진학·직업교육	4.2
⑥ 진로·진학·직업교육	3.3	⑥ 진로·진학·직업교육	4.1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4.2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3.3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4.1	㉘ 부정부패, 학교비리 척결	4
㉘ 부정부패, 학교비리 척결	2.7	㉘ 부정부패, 학교비리 척결	4.1	⑦ 생활 속 실천하는 인성교육	3.8
⑦ 생활 속 실천하는 인성교육	1.9	⑦ 생활 속 실천하는 인성교육	2.2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3.8
③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1.8	㉘ 소통·공감 교육 행정 서비스	1.9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3.1
㉚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처우개선	1.5	㉑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1.8	㉘ 소통·공감 교육 행정 서비스	2.6
㉑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1.1	③ 과학·영재교육	1.2	㉑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1.9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1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1.2	㉓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1.5

중요도		시급도		성공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19.3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11.2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36.5
⑦ 생활 속 실천하는 인성교육	8.5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8.5	② 행복학교 운영	9.4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7.9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7.7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9.4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7.2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8.4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6.7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6.6	⑰ 안전한 건강급식	6.9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6.3	⑥ 진로·진학·직업교육	5.9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5.4
⑥ 진로·진학·직업교육	6.1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5.3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4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5.7	㉓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4.5	㉘ 부정부패, 학교비리 척결	4
㉓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4.6	㉘ 부정부패, 학교비리 척결	4.1	⑥ 진로·진학·직업교육	3
② 행복학교 운영	3.7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3.7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2

㉘ 부정부패, 학교비리 척결	2.6	㉚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3.7	㉜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처우개선	2
㉙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2.5	㉛ 지역특색 살리는 학교 만들기	3.6	㉝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1.5
㉞ 지역특색 살리는 학교 만들기	2.2	㉜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3.3	㉞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	1.5
㉟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2.2	㉝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3.3	㉟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1
㊱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2	㉞ 소통·공감 교육 행정 서비스	3.3	㊱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1
㊲ 소통·공감 교육 행정 서비스	1.8	㉟ 행복학교 운영	3.1	㊲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1

정책과제 32개 중 1순위부터 16순위까지의 관련 인식들을 파악한 결과, 실패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의 응답 패턴이 관련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학교 운영'의 경우는 인지도·이해도·만족도·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2~3순위였지만 중요도·시급도에서는 10순위권 안에 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경우에는 인지도·이해도·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11~12순위였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순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도에서는 2순위, 시급도에서는 4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로 분석해본 결과,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정책수요자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이해도가 높았을 때 대체로 만족도가 높고, 그에 따라 그 정책들이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문항의 1~3순위 합계를 순위로 분석해본 결과, 정책실행담당자들이 정책에 대해 인지도·이해도·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중요도·시급도는 낮을 수 있고, 인지도·이해도·만족도가 낮고 심지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중요도, 시급도 면에서는 높게 평가되는 정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66>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문항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	중요도	시급도	성공	실패
인지도	1						
이해도	.93***	1					
만족도	.926***	.979***	1				
중요도	.800***	.780***	.82***	1			
시급도	.657***	.633***	.691***	.908***	1		
성공	.794***	.763***	.786***	.713***	.496**	1	
실패	.202	.053	.091	.232	.431*	.030	1

*p<0.05, **<0.01, ***<0.001

빈도로 분석해본 결과,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정책수요자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이해도가 높았을 때 대체로 만족도가 높고, 그에 따라 그 정책들이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도분석에서 도출된 결과가 유의미한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1에 근접할수록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1~3순위로 선택된 보기들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관계수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해당하는 질문 7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p-value가 대부분 0.00이므로 질문 1~6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분석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해도와 만족도에 대한 상관계수가 0.97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지도·이해도(상관계수 0.935), 인지도·만족도(상관계수 0.935), 중요도·

시급도(상관계수 0.908), 중요도·만족도(상관계수 0.82), 인지도·중요도(0.8), 인지도·성공 가능성(상관계수 0.794), 만족도·성공 가능성(상관계수 0.786), 이해도·중요도(상관계수 0.780), 이해도·성공 가능성(상관계수 0.763), 중요도·성공 가능성(상관계수 0.713)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성공 가능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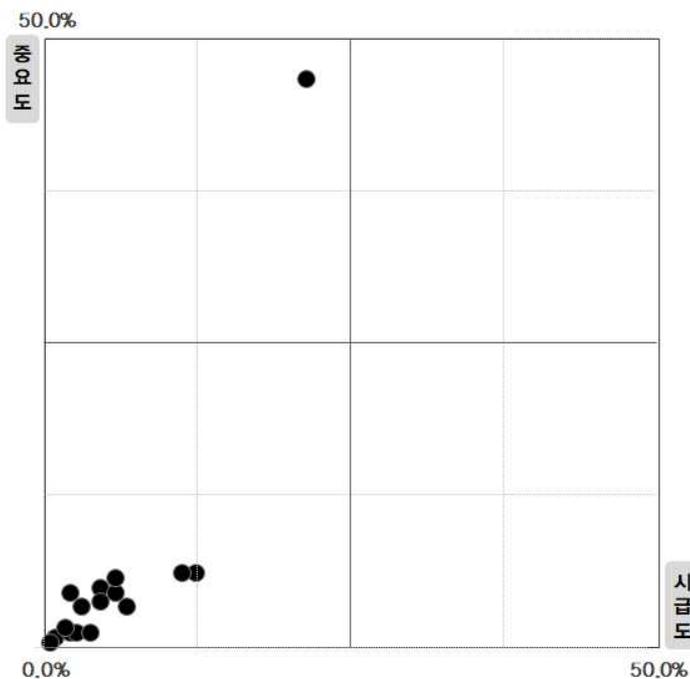
그리고 상관계수 결과표 중에서 시급도·만족도, 인지도·만족도, 이해도·시급도의 상관계수는 각각 0.691, 0.657, 0.633이다. 앞서 언급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성공 가능성 간의 관련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띄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는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정책실행담당자의 중요도·시급도 교차 매트릭스

본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책실행담당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빈도 및 순위분석과 상관관계수 분석의 결과를 통해 중요도와 시급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0.908로 매우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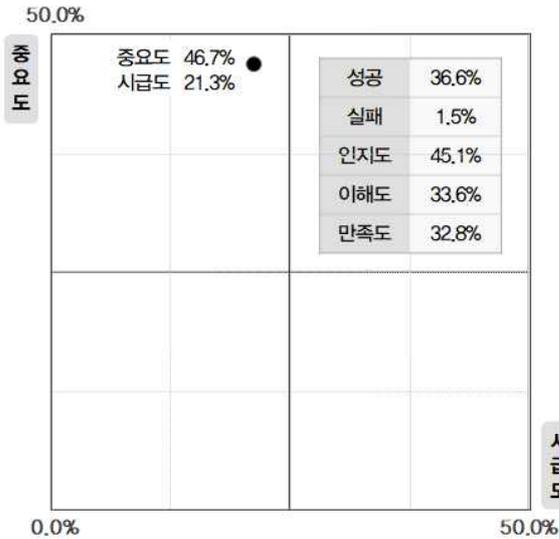
<그림 25> 경남교육정책 관련 정책실행담당자의 중요도·시급도 교차 매트릭스(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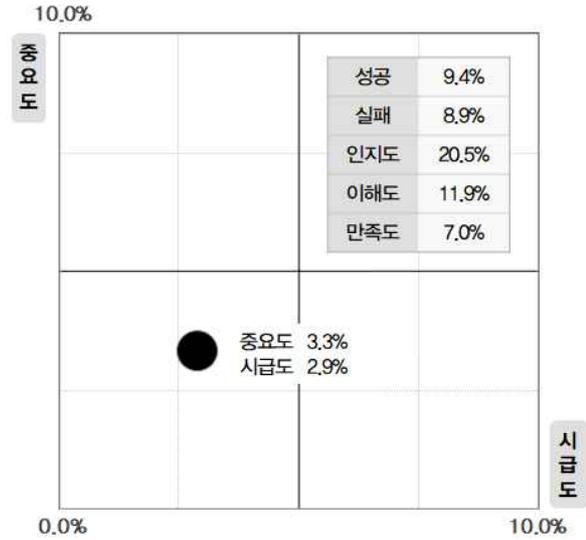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중 - 46.7%, 시 - 21.3% | ② 행복학교 운영 : 중 - 3.3%, 시 - 2.9% |
-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 중 - 4.5%, 시 - 2.0%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중 - 4.9%, 시 - 4.5% |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중 - 6.1%, 시 - 12.3%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중 - 4.5%, 시 - 5.7% |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중 - 3.7%, 시 - 4.5%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중 - 3.3%, 시 - 6.6% |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중 - 0.8%, 시 - 0.8%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중 - 1.2%, 시 - 2.0% |
- ⑳ 방과 후 학교 운영 : 중 - 0.4%, 시 - 0.4% |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중 - 6.1%, 시 - 11.1% |
- ㉕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중 - 1.2%, 시 - 2.5%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중 - 1.2%, 시 - 3.7% |
- ㉚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중 - 5.7%, 시 - 5.7% | ㉞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 중 - 1.6%, 시 - 1.6%

이렇듯 사전인식조사를 통해 얻게 된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정책 관련 인식을 1순위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중요도와 시급도의 중심으로 분석해보았

다. 시간 관리 매트릭스는 중요도와 시급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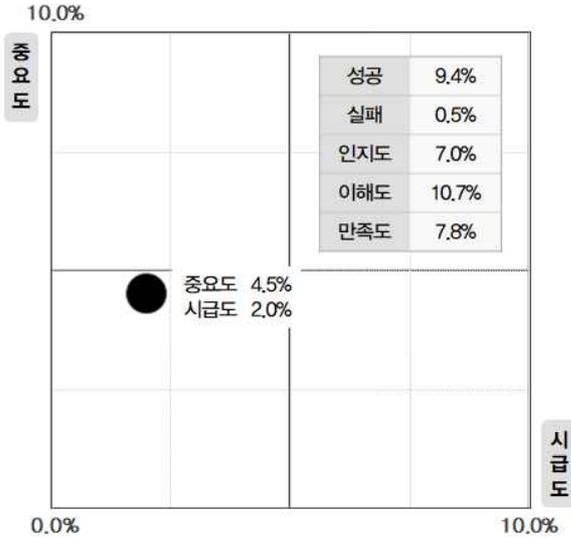
<그림 26> '배움이 즐거운 교실'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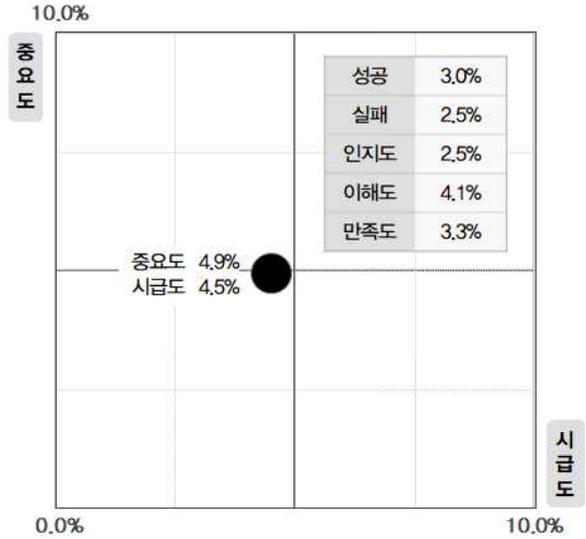
<그림 27> '행복학교 운영'의 매트릭스

실패 가능성을 제외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시급도·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1순위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배움이 즐거운 교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매트릭스 상에서도 중요도(46.7%)와 시급도(21.3%)뿐만 아니라 인지도(45.1%)와 이해도(33.6%)·만족도(32.8%)·성공 가능성(36.6%)이 모두 고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패 가능성 또한 1.5%로 낮게 평가되고 있어 정책실행담당자들에게 전반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학교 운영'의 경우에는 인지도(20.5%)·이해도(11.9%)·만족도(7.0%)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지만 중요도(3.3%)·시급도(2.9%)는 저평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성공 가능성(9.4%)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실패 가능성(8.9%) 또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인식을 통해 인지도·이해도·만족도·성공 가능성이 고평가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도·시급도 또한 높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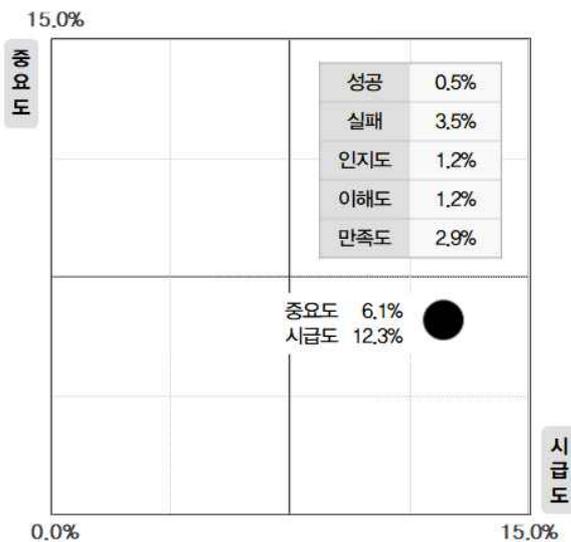
<그림 28>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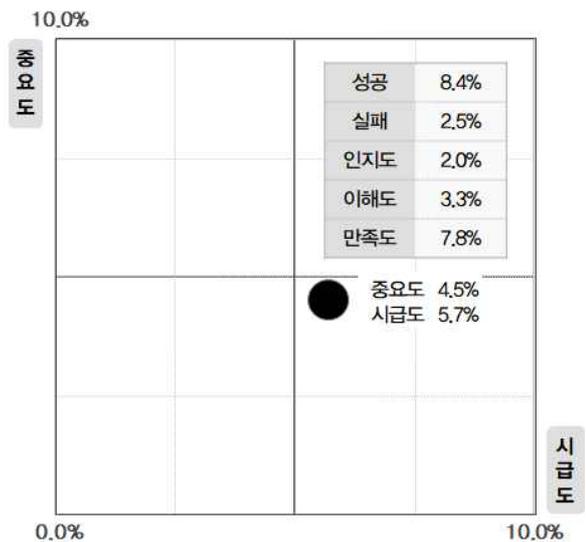
<그림 29>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의 매트릭스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의 경우는 인지도(7.0%)·이해도(10.7%)·만족도(7.8%)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만큼 실패 가능성(0.5%)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실행 담당자들의 인식 속에서 이 정책에 관하여 중요하지만(4.5%) 덜 시급한(2.0%)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의 경우는 인지도(2.5%)·이해도(4.1%)·만족도(3.3%)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정책들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다. 성공 가능성(3%) 또한 저평가되고 있지만, 진로·진학·취업 관련 정책인 만큼 정책실행담당자들에게 중요(4.9%)하면서도 시급(4.5%)한 정책이고, 실패 가능성(2.5%) 또한 희박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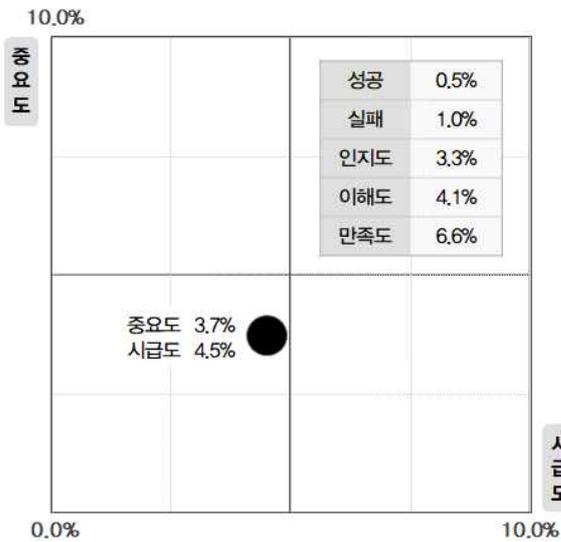
<그림 30>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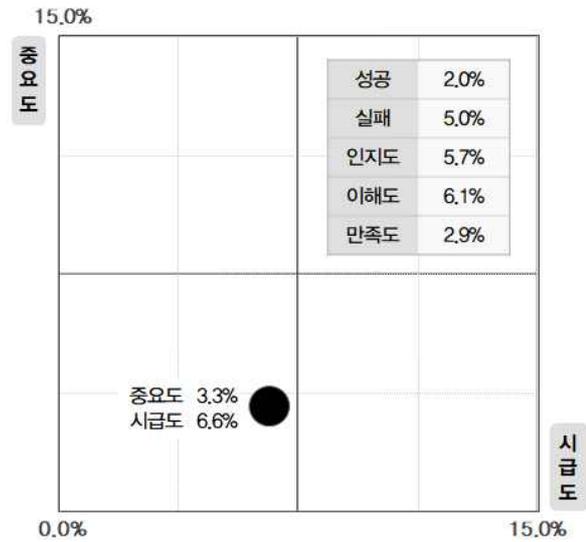
<그림 3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매트릭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경우는 만족도(2.9%)·인지도(1.2%)·이해도(1.2%)는 저평가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6.1%) 매우 시급한(12.3%)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패 가능성(3.5%)이 다른 인식수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성공 가능성(0.5%)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는 만족도(7.8%)·성공 가능성(8.4%)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 정책에 대해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중요한 것(4.5%)보다도 더 시급하다고(5.7%) 인식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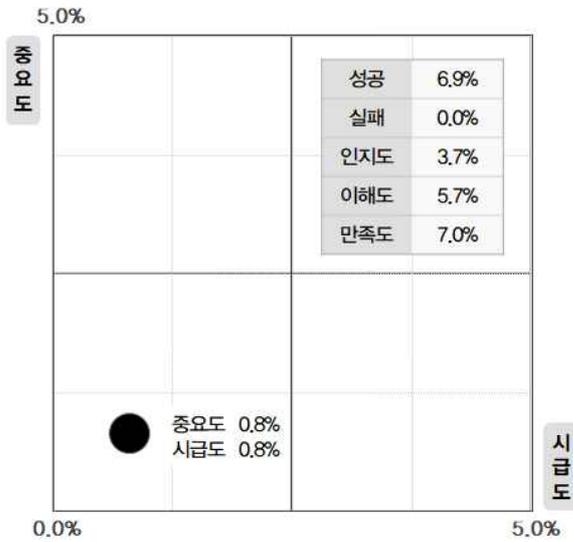
<그림 3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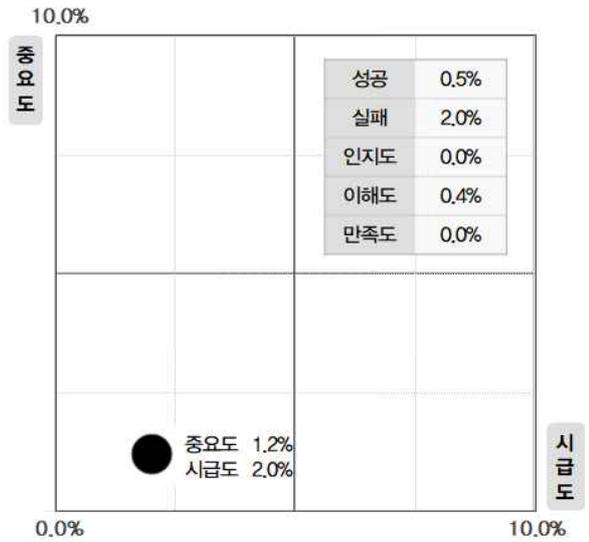
<그림 33>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의 매트릭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의 경우는 이해도(4.1%)·인지도(3.3%)·만족도(6.6%) 면에서 고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한 것(3.7%)보다도 더 시급한(4.5%)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지도(5.7%)·이해도(6.1%) 면에서 고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실패 가능성(5.0%)이 높은 편에 속하며, 중요한 것(3.3%)보다도 더 시급한(6.6%)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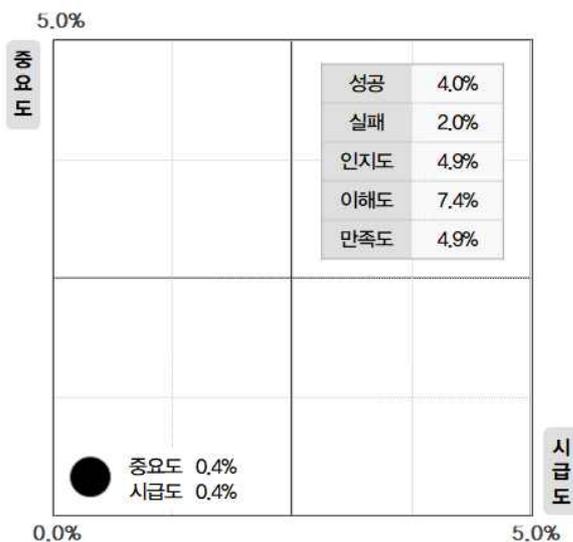
<그림 34> '안전한 건강급식'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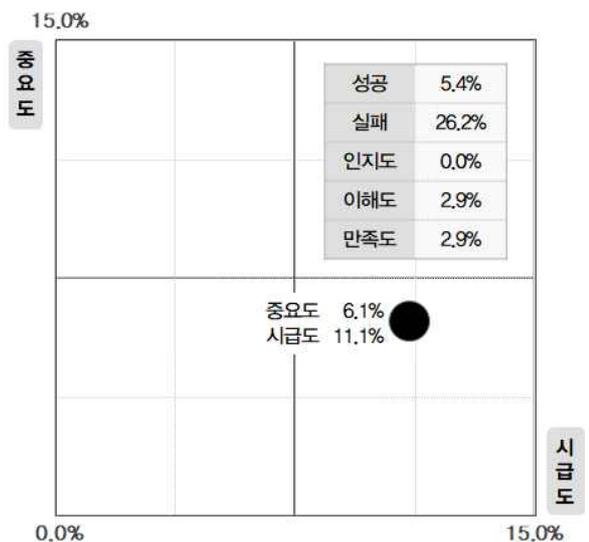
<그림 35>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의 매트릭스

'안전한 건강급식'의 경우는 만족도(7.0%)·이해도(5.7%)·성공 가능성(6.9%)이 고평가되고 있으나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거나(0.8%) 시급한(0.8%)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의 경우는 정책실행담당자들이 전반적으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실패 가능성 면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나타났으나 중요하고(1.2%) 시급한(2.0%)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방과 후 학교 운영'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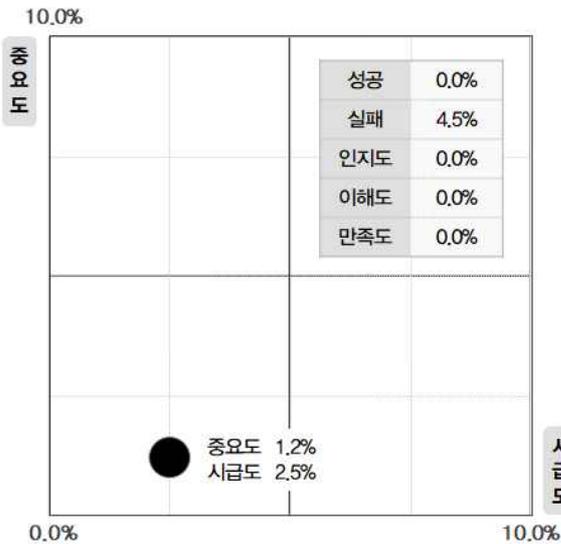


<그림 3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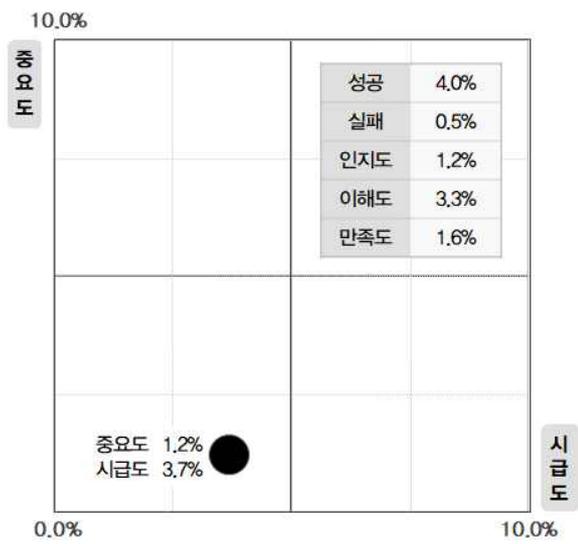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경우는 이해도(7.4%)·만족도(4.9%)·인지도(4.9%)·성공 가능성(4.0%)

는 다소 고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거나(0.4%) 시급하다고(0.4%)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직원 행정의 적정화’의 경우는 정책실행담당자들이 상당히 실패했거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26.2%). 하지만 정책실행담당자들이 이 정책에 관하여 중요하면서도(6.1%) 매우 시급한(11.1%) 정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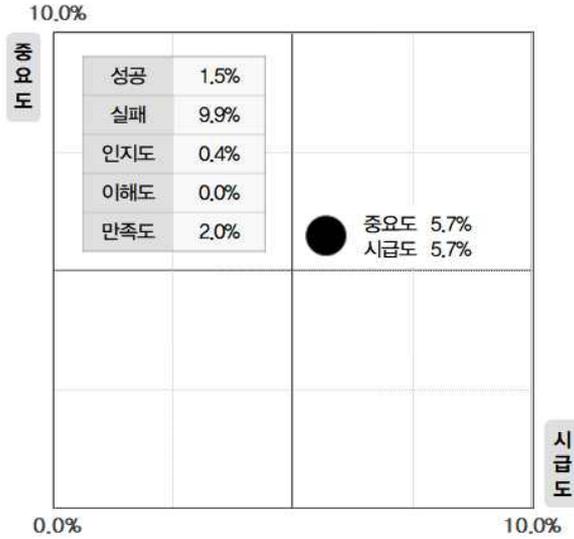
<그림 38>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의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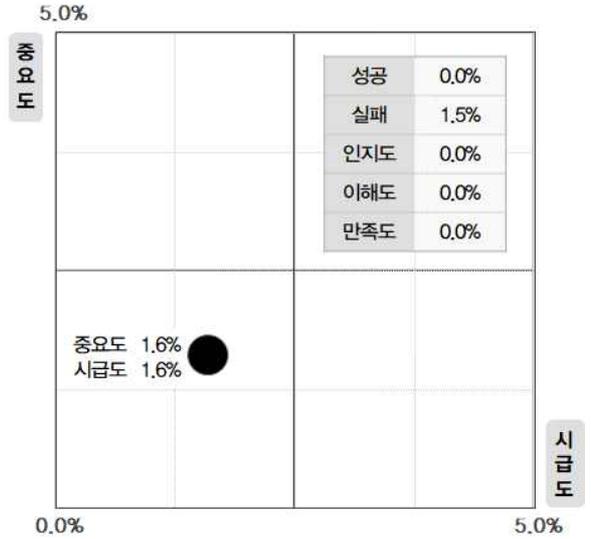
<그림 3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의 매트릭스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의 경우는 인지도(0%)·이해도(0%)·만족도(0%)·성공 가능성(0%)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저조하면서도 실패 가능성(4.5%)이 높다고 평가된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에 비해 중요도(1.2%)와 시급도(2.5%)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책실행담당자들에게는 중요하면서 시급한 정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의 경우에는 이해도(3.3%)·만족도(1.6%)·인지도(1.2%)·성공 가능성(4.0%) 면에서 다른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다소 응답 비율이 저조했던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면서도(1.2%) 시급한(3.7%) 성공 가능성(4.0%)이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0>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의 매트릭스



<그림 41>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의 매트릭스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서는 만족도(2.0%)·성공가능성(1.5%)·인지도(0.4%)·이해도(0%)가 저평가되고 있으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율(9.9%)이 현저히 높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중요하면서도(5.7%) 시급한(5.7%)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실행담당자들 역시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적정화와 인사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이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1.5%)·만족도(0%)·이해도(0%)·인지도(0%)·성공 가능성(0%)이 가장 저조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중요하면서도(1.6%) 시급한(1.6%)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소결론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관련 인식을 확인한 결과, 실패 가능성을 제외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시급도·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배움이 즐거운 교실’이 모두 1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정책과제 32개 중 1순위부터 16순위까지의 관련 인식들을 파악한 결과, 실패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의 응답 패턴이 관련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로 분석해본 결과,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정책수요자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이해도가 높았을 때 대체로 만족도가 높고, 그에 따라 그 정책들이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전체 문항의 1~3순위로 선택된 정책들의 빈도수를 더하여 전체 문항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질문 7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 간의 상관계수는 0.633~0.979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관계수 분석 결과 중에서도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한 상관계수가 0.908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인식조사의 결과를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중요도와 시급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실패 가능성을 제외한 인지도·이해도·만족도·중요도·시급도·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1순위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배움이 즐거운 교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중요도(57.8%)와 시급도(34%)뿐만 아니라 인지도(71.7%)와 이해도(50%)·만족도(50.4%)·성공가능성(36.6%)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행복학교 운영’의 경우에는 인지도(47.6%)·이해도(28.3%)·만족도(24.2%)는 상위권이었지만 중요도(11.1%)·시급도(9.5%)는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의 경우 인지도(5.7%)·이해도(6.6%)·만족도(11.5%)는 낮지만 중요도(25.4%)·시급도(21.7%)는 높게 평가되었다.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의 경우 설문응답자들은 실패한 정책 또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으나(26.2%), 중요하면서도(18.8%) 매우 시급한(25.4%) 정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정책수요자들의 만족도나 성공 가능성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인지도와 만족도보다는 이해도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 따라서 ‘단순히 정책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 인지도·이해도·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중요도·시급도는 낮을 수 있고, 인지도·이해도·만족도가 낮고 심지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식하더라도 중요도, 시급도 면에서는 높게 평가되는 정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연구 2단계 : 교육정책 수요조사

1. 예비조사(Pilot test) 분석 결과
2. 본조사 분석 결과
3. 교육 3주체의 만족도-중요도 교차 매트릭스
4. 소결론

1

예비조사(Pilot test) 분석 결과

가. 예비조사 데이터 클리닝 결과

응답의 불량데이터로 설문 유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클리닝 기준을 적용하여 불량 데이터를 제거한 유효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종단조사연구의 경우 직전 조사연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불량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교육정책수요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종단조사연구의 데이터 클리닝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하여 데이터 클리닝 기준을 연구계획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1차. 인구통계학적 문항의 경우 한 항목이라도 무응답이 있는 경우
- 2차. 다른 문항 중 10%(4문항) 이상 무응답일 경우
- 3차. 문29과 문43(교직원설문지 기준)에 대한 응답의 상이성을 확인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추출함으로써 데이터 클리닝 후 자료 분석 진행.

그러나 문항개발단계에서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 교육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 대학입시 제도, 미래교육 등 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제를 망라하고, 경남교육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교육현안에 관한 문항을 다수 추가하였다. 그 결과, 최초의 문항개발단계에서 계획한 문항의 개수보다 상당수 많아진 점으로 인하여 응답자들이 설문 도중 중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 전체 문항을 필수문항으로 처리하여 무응답이 나올 수 없도록 하고, 일부 데이터 클리닝의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변경된 데이터 클리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5대 정책과제 만족도·중요도·시급도 순위 문항(총 15문항) 중 전체 혹은 1~2개의 보기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보기만 선택한 경우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
- 2차. 1차 데이터 클리닝을 한 유효데이터에 한하여 문29와 문43(교직원 설문지 기준)

에 대한 응답의 상이성을 확인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추출함으로써 데이터 클리닝 후 자료 분석 진행.

단, 학생의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체 21문항(응답자 분류 포함) 중 14문항은 경남의 교육인식과 현주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설문에 응할 때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체 또는 5점 Likert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전체적으로 동일한 보기만 중복 선택한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불량데이터 확인·추출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에 응한 최종 응답자수는 교직원 247명, 학부모 372명, 학생 575명이다. 이를 대상으로 1차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한 결과, 불량데이터 수는 교직원 18개, 학부모 65개였고, 유효데이터는 교직원 229개, 학부모 307개, 학생 575개였다.

1차적으로 데이터 클리닝을 한 유효데이터에 한하여 2차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한 결과, 불량데이터 수는 교직원 38개, 학부모 94개, 학생 575개였다. 최종 유효데이터 수는 교직원 191개, 학부모 213개, 학생 540개로 총 유효데이터 비율은 교직원 77.33%, 학부모 57.26%, 학생 93.91%였다.

<표 67> 예비조사 데이터 클리닝 결과 불량 및 유효데이터 수

	응답자수	1차		2차		총 유효데이터(%)
		불량데이터	유효데이터	불량데이터	유효데이터	
교직원	247	18	229	38	191	77.33%
학부모	372	65	307	94	213	57.26%
학생	575	-	575	35	540	93.91%

나. 예비조사 문항척도 타당성 검증

교육 3주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정책수요조사의 예비조사를 진행한 만큼 각 대상에게 적합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각 문항의 요인들을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단일차원성, 신뢰도,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 직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교직원은 6개의 요인이, 학부모는 5개의 요인이, 학생은 3개의 요인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그러나 각 교육 3주체의 검증과정에서 구성타당도와 내적타당도 그리고 신뢰도 검증에서 부적합한 값을 띄는 문항들이 다소 발견되어 해당 문항들을 제거한 다음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4개의 요인이, 학생의 경우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68>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교직원, N=19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공통성	성분			
			1	2	3	4
16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612	.727			
15	학부모 교육참여활동 활성화	.549	.697			
14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장 마련	.567	.654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542	.653			
1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07	.651			
12	배움중심수업 확산	.572	.605			
7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563	.558			
18	교육복지 확대	.554	.532			
6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647		.777		
5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583		.729		
2	자유학년제 실시	.507		.625		
8	새 정부 교육정책 평가	.664		.612		
9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671		.543		
50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이해	.578			.741	
11	행복교육지구 사업 인지	.631			.737	
10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563			.516	
21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677				.767
23	교육혁신 만족도	.636				.548
19	교직원복지 확대	.433				.437
고유값			6.819	1.846	1.416	1.075
전체분산비율(%)			35.888	9.715	7.453	5.659
누적분산비율(%)			35.888	45.603	53.056	58.715
Cronbach's α			.855	.764	.658	.677

KMO=.87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1467.735(p<.001)$; Cronbach's $\alpha=.900$

<표 69>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학부모, N=213)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공통성	성분			
			1	2	3	4
16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693	.815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678	.776			
20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633	.765			
21	교육혁신 만족도	.630	.630			
1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96	.618			
10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681		.788		
7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628		.736		
8	새 정부 교육정책 평가	.514		.655		
9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583		.584		
11	행복교육지구 사업 인지	.558			.700	
19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	.577			.669	
14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장 마련	.684			.584	
18	교육복지 확대	.580			.538	
12	배움중심수업 확산	.572			.519	
15	학부모 교육참여활동 활성화	.554			.493	
5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754				.863
6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541				.636
고유값			6.780	1.543	1.185	1.046
전체분산비율(%)			39.882	9.078	6.969	6.155
누적분산비율(%)			39.882	48.960	55.929	62.083
Cronbach's α			.862	.767	.803	.474

KMO=.9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1575.084(p<.001)$; Cronbach's $\alpha=.888$

<표 70>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학생, N=54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공통성	성분	
			1	2
14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749	.865	
13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685	.825	
15	배움중심수업 확산	.672	.813	
12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659	.811	
16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68	.806	
19	교육복지 확대	.656	.793	
17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626	.775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561	.661	
11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722		.846
10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700		.832
고유값			5.272	1.425
전체분산비율(%)			52.724	14.248
누적분산비율(%)			52.724	66.972
Cronbach's α			.920	.639

KMO=.90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2973.097(p<.001)$; Cronbach's $\alpha=.887$

개발된 문항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부모의 ‘성분 4’의 경우는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문항 개수가 많을수록,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낮다는 이유로 문항을 제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학부모의 ‘성분 4’는 문항이 2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요인으로 문항을 제거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성립되지 않는다.

학부모 설문 문항의 전체 크론바하 알파계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위성분들까지 모두 0.8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과 신뢰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분 4에서 나타나는 낮은 알파계수가 학부모 설문 문항에 해당하는 전체 요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증과정을 진행하였다.

새롭게 분석한 요인분석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측정치와 Bartlett(Bartlett Test of Sphericity)의 구형성 검정분석을 실시하였다. KMO측정치는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이면 요인분석하기 적합한 표본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단계에서 표본집단인 교직원·학부모·학생의 KMO측정치는 0.878, 0.905, 0.909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찬가지로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분석한 결과, 교직원·학부모·학생의 경우는 유의확률이 $0.000 < \alpha = 0.001$ 이므로 계속해서 요인분석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개발 척도의 단일차원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측정개념들이 하나의 공통요인으로 묶여서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기법이다. 만약 각기 다른 측정개념들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는 단일차원성을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의 요인추출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로 Varimax 회전을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그 결과 고유치(Eigenvalue) 1을 초과하는 요인은 교직원, 학부모의 경우 모두 4개, 학생의 경우 2개이다. 누적 분산백분율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순으로 58.72%, 62.08%, 66.97%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 경우 모두 공통성(Communality)는 0.5 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은 0.4~0.8로 나타나 각 요인이 적절하게 분류되어 개념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의 경우는 총 응답자수 575명으로 교육 3주체 중 설문참여

도가 가장 높고 불량 데이터 수 또한 가장 낮았다. 문항개발단계에서 학생의 경우,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설문 응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교직원·학부모의 설문 문항개수 1/3 정도인 21문항으로 설문지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들이 설문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교직원·학부모의 경우는 문항수가 많은 관계로 필수 문항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무응답은 없었으나 불성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는 총 유효데이터 비율이 57.26%로 다량의 불량데이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다소 생소한 경남교육정책 내용과 60여개의 문항개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학부모의 경우, 교육 현안에 대한 문항개수를 다소 줄이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질문 표현을 완화하여 질문 파악이 용이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사 1단계에서 정책실행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사전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시급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인 정책실행담당자들은 정책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만족도·중요도에서 그치지 않고 시급도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수요자들은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시급성까지 설문하기에는 변별성을 있는 응답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본조사에서는 경남 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시급도 문항을 제외하고 만족도·중요도 문항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설문지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는에 대한 지 개방형 질문 추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였다. 의견 중 설문지 내용이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등간척도의 보기 순서가 긍정(매우 그렇다)에서 부정(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진행되는데, 본조사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코딩단계에서 역코딩(reverse coding)하여 순응적 응답행태에 따른 응답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은 설문이 길어질수록 피로하거나, 싫증나거나, 부주의해짐에 따라 잘못된 응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질문이 긍정적인 내용만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가 강화되어 응답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Drolet & Morrison, 2001:198). 그리고 경남 교육 정책 중 아쉽거나 보완하였으면 하는 정책이 있는지 교육 3주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본조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표 71> 예비조사의 기타 의견

	기타 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설문 문항이 부적절함	9건	41%
	중복되거나 문항수가 많음	8건	3%
	선택지 부족	4건	18%
	이해하기 힘든 질문	1건	5%
학부모	이해하기 힘든 질문	15건	52%
	중복되거나 문항수가 많음	6건	21%
	선택지 부족	4건	14%
	관심없는 질문	2건	7%
	설문 양식	1건	3%
	특수교육대상자 문항이 없음	1건	3%
학생	이해하기 힘든 질문	7건	58%
	복수 선택	3건	25%
	실효성 없는 질문	1건	8%
	학생에게 불필요한 질문	1건	8%

2

본조사 분석 결과

가. 데이터 클리닝 기준 및 결과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된 데이터 클리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등간척도문항 중에서 5개 이상(전체 문항의 20% 해당) 동일한 보기만 선택한 경우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
- 2차.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의 중요도, 만족도 문항에서 전체 혹은 1개의 보기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보기만 선택한 경우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
- 3차. 명목척도문항 중 5개 이상(전체 문항의 20%)을 '기타'만 선택한 경우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
- 4차. 동일한 응답패턴이 연속하여 제출된 경우, 제출 시각을 확인하여 동일인이 설문지를 작성 완료 후 중복 제출한 경우로 보고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

이와 같이 수정된 데이터 클리닝 기준을 적용하여 4차에 거쳐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그 중 학생용 설문지의 경우 문항수가 총 17개로 교직원·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문항수가 적다. 그리고 학생용 설문 문항 중 등간척도가 전체 17개 문항 중 10개에 달한다(학생의 경우 등간척도는 문6~15, 명목척도는 문1~5(응답자분류), 문 16, 17 해당).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많은 교직원·학부모와 동등한 데이터 클리닝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문항 수가 현저히 적은 학생에 한하여 등간척도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보기만을 선택한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축출함으로써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총 응답자수 교직원 4,258명, 학부모 10,907명, 학생 7,218명에서 1차 기준인 등간척도문항(교직원의 경우 문1~18, 학부모의 경우 문1~17) 중 5개 이상(전체 문항의 20%에 해당) 동일한 보기만 선택한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축출함으로써 불량데이터로 분류하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불량데이터 수는 교직원 130개, 학부모 298개, 학생 168개를 분류 후 삭제하였다. 그에 따른 데이터 클리닝 후 유효데이터 수는 교직원 4,128명, 학부모 10,609명, 학생 7,050명이었다.

교직원·학부모에 한하여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의 중요도, 만족도를 설문하였다. 이 문항에서 전체 혹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보기만 선택한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축출함으로써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불량데이터 수는 교직원 21개, 학부모 67개를 분류 후 삭제하였다. 그에 따른 데이터 클리닝 후 유효데이터 수는 교직원 4,107개, 학부모 10,542개이었다.

교직원·학부모에 한하여 명목척도문항(교직원의 경우 문19-1~47-2, 문 48~54(응답자 분류) 학부모의 경우 문 18~41, 문 42~48(응답자 분류) 해당) 중 5개 이상(전체 문항의 20%)을 보기 '기타'만 선택한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확인·축출함으로써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데이터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불량데이터 수는 교직원 52개, 학부모 24개를 분류 후 삭제하였다. 그에 따른 데이터 클리닝 후 유효데이터 수는 교직원 4,055개, 학부모 10,518개이었다.

마지막으로 중복 클릭, 네트워크 불안정,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동일한 응답패턴이 연속하여 제출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제출 시각을 확인하여 동일인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중복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불량데이터로 분류하여 제거하였다. 그 결과 불량데이터 수는 교직원 5개, 학부모 19개를 분류 후 삭제하였다.

4차에 걸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하여 정돈된 최종 유효데이터 수는 교직원 4,050개, 학부모 10,499개, 7,050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2> 본조사 데이터 클리닝 결과 불량 및 유효데이터 수

	응답자수	1차		2차	
		불량데이터	유효데이터	불량데이터	유효데이터
교직원	4,258명	130개	4,128개	21개	4,107개
학부모	10,907명	298개	10,609개	67개	10,542개
학생	7,218명	168개	7,050개	-	7,050개

	3차		4차		총 유효데이터
	불량데이터	유효데이터	불량데이터	유효데이터	
교직원	52개	4,055개	5개	4,050개	95.12%
학부모	24개	10,518개	19개	10,499개	96.26%
학생	-	7,050개	-	7,050개	97.67%

나.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의 요인들을 분류하고, 단일차원성, 신뢰도,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교직원 등간척도 문항의 요인분석으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은 전체적으로 0.348~0.644이고, 성분 1, 2의 요인적재량은 0.564~0.774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16, 1, 2의 공통성 경우 0.348~0.391로 전체 공통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0.4에 근접하고, 요인적재량이 0.5~0.6으로 타당성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교직원 등간척도 문항의 신뢰성 검증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전체 0.9이고, 성분 1은 0.904, 성분 2는 0.768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교직원, N=4,05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공통성	성분	
			1	2
10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597	.760	
11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장 마련	.644	.760	
18	교육혁신 만족도	.672	.708	
1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516	.699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491	.690	
15	교육복지 확대	.482	.684	
17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439	.660	
6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441	.653	
7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591	.629	
12	학부모 교육참여활동 활성화	.410	.625	
9	배움중심수업 확산	.433	.569	
16	교직원복지 확대	.386	.566	
3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615		.774
8	행복교육지구 사업 인지	.480		.678
4	새 정부 교육정책 평가	.503		.673
1	자유학년제 실시	.391		.624
5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632		.618
2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348		.564
고유값			7.281	1.789
전체분산비율(%)			40.451	9.938
누적분산비율(%)			40.451	50.389
Cronbach's α			.904	.768

KMO=.93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32,197.169(p<.001)$; Cronbach's $\alpha=.900$

학부모 등간척도 문항의 요인분석으로 타당도 검증 결과, 공통성은 전체적으로 0.438~0.717이고, 성분 1~3의 요인적재량은 0.518~0.8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간척도 문항의 신뢰성 검증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전체 0.911이고, 성분 1은 0.912, 성분 2는 0.816, 성분 3은 0.646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학부모, N=10,499)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공통성	성분		
			1	2	3
14	교육복지 확대	.614	.762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593	.759		
1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611	.749		
17	교육혁신 만족도	.684	.718		
10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장 마련	.632	.701		
11	학부모 교육참여활동 활성화	.535	.669		
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04	.666		
16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451	.660		
1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	.438	.651		
8	배움중심수업 확산	.515	.588		
5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500	.518		
3	새 정부 교육정책 평가	.696		.802	
4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766		.789	
6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717		.689	
2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662			.790
1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547			.736
7	행복교육지구 사업 인지	.559			.713
고유값			7.481	1.643	1.003
전체분산비율(%)			44.004	9.662	5.901
누적분산비율(%)			44.004	53.666	59.567
Cronbach's α			.912	.816	.646

KMO=.94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87,167.136(p<.001)$; Cronbach's $\alpha=.911$

학생 등간척도 문항의 요인분석으로 타당도 검증 결과 공통성은 전체적으로 0.653~0.760 이고, 성분 1~3의 요인적재량은 0.793~0.856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등간척도 문항의 신뢰성 검증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전체 0.922이고, 성분 1은 0.943, 성분 2는 0.658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학생, N=7,050)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공통성	성분	
			1	2
10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	.760	.856	
15	교육복지 확대	.750	.853	
9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	.733	.837	
1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718	.831	
12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725	.831	
8	소속 학교 운영 실태 평가	.701	.827	

11	배움중심수업 확산	.704	.808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653	.793	
7	경남형 혁신학교 확대	.751		.852
6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	.743		.843
고유값			6.029	1.210
전체분산비율(%)			60.294	12.101
누적분산비율(%)			60.294	72.395
Cronbach's α			.943	.658
KMO=.99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48,982.413(p<.001)$; Cronbach's $\alpha=.922$				

다. 조사 분석 결과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요약

<설문 조사 결과>

-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 중심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았으며(전체 79.4%), 이에 대한 의견으로 교직원(67.6%)과 학생(68.5%)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에 응한 상당수의 학부모(91.2%)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로 추진 중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았으며(전체 76.4%), 교직원(44.8%)보다 약 1.5배에 가까운 비율로 학부모(84.5%)와 학생(82.4%)이 행복학교에 대한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8.5%)이 많았으나, 보통이 28%,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은 35.5%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전체 52.1%), 교직원(57.2%)과 학생(62.2%)은 모두 만족하고 있으나, 학부모(50.2%)는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48.1%, 교직원 44.9%, 학부모 49.4%).
-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전체 48.5%), 교직원(52.2%)과 학생(57.8%)은 모두 만족하고 있으나, 학부모(51.8%)는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64.9%, 교직원 73.1%, 학부모 63.8%, 학생 62.2%).

<질문> 귀하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 중심 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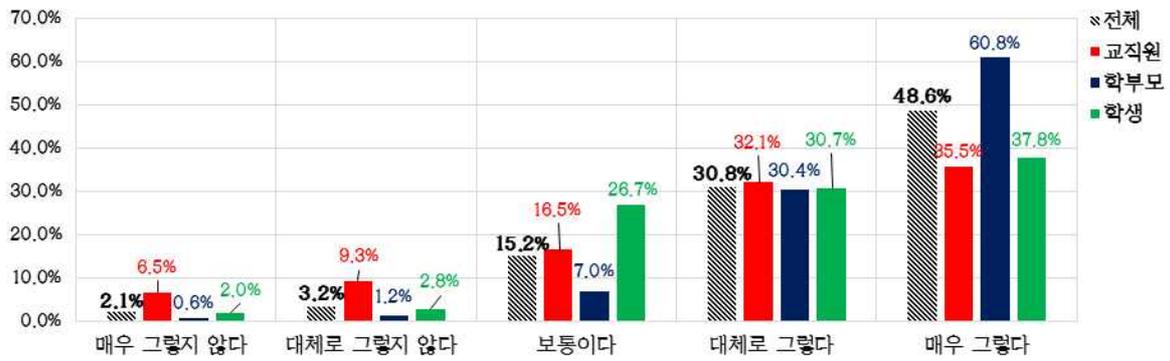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 중심 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79.4%, '보통이다'의 응답은 15.3%, 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5.3%로 나타났다.

변화해야 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67.6%, 학부모 91.2%, 학생 68.5%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16.6%, 학부모 7%, 학생 26.7%이고, 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15.8%, 학부모 1.8%, 학생 4.8%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부모와 교직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생활교육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학부모(91.2%), 학생(68.5%), 교직원(67.6%) 순으로, 성별은 여자(82.1%)가 남자(7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83.5%), 고등학교(74.6%), 중학교(72.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79.8%), 시 지역(79.3%)로 근소한 차이로 군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 <표 76> '회복적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환'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2.1%	3.2%	15.3%	30.8%	48.6%	100.0%	4.20	0.959		
	464명	700명	3,285명	6,658명	10,492명	21,599명				
교직원(a)	6.5%	9.3%	16.6%	32.1%	35.5%	100.0%	3.81	1.201	1097.565*** (df=2, 21,596)	b>a,c c>a (Dunnett T3)
	264명	375명	670명	1,302명	1,439명	4,050명				
학부모(b)	0.6%	1.2%	7.0%	30.4%	60.8%	100.0%	4.50	0.730		
	61명	130명	731명	3,192명	6,385명	10,499명				
학생(c)	2.0%	2.8%	26.7%	30.7%	37.8%	100.0%	4.00	0.966		
	139명	195명	1,884명	2,164명	2,668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로 추진 중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로 추진 중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76.4%, ‘보통이다’의 응답은 18%,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5.6%로 나타났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44.8%, 학부모 84.5%, 학생 82.4%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34.2%, 학부모 13.1%, 학생 16%이고,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21%, 학부모 2.4%, 학생 1.6%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교직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학부모(84.5%), 학생(82.4%), 교직원(44.7%) 순으로, 성별은 여자(77.5%)가 남자(73.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78.5%), 중학교(73.8%), 고등학교(72.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시 지역(77.2%)이 군 지역(7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표 77> '행복학교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2.3%	3.3%	18.0%	30.5%	45.9%	100.0%	4.14	.979	2205.147*** (df=2, 21,596)	c>a b>a (Dunnett T3)
	498명	721명	3,879명	6,592명	9,909명	21,599명				
교직원(a)	8.9%	12.1%	34.2%	29.3%	15.5%	100.0%	3.30	1.139		
	360명	489명	1,386명	1,186명	629명	4,050명				
학부모(b)	0.8%	1.6%	13.1%	34.0%	50.5%	100.0%	4.32	.820		
	87명	166명	1,371명	3,573명	5,302명	10,499명				
학생(c)	0.7%	0.9%	16.0%	26.0%	56.4%	100.0%	4.36	.833		
	51명	66명	1,122명	1,833명	3,978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을 교직원에게 한하여 설문한 결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38.5%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28%이고,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35.5%로 나타났다.

<그림 44>, <표 78> '자유학년제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직원	14.6%	18.9%	28.0%	22.9%	15.6%	100.0%
	592명	765명	1,134명	928명	631명	4,050명
학부모	-	-	-	-	-	-
학생	-	-	-	-	-	-

<질문> 귀하는 '경남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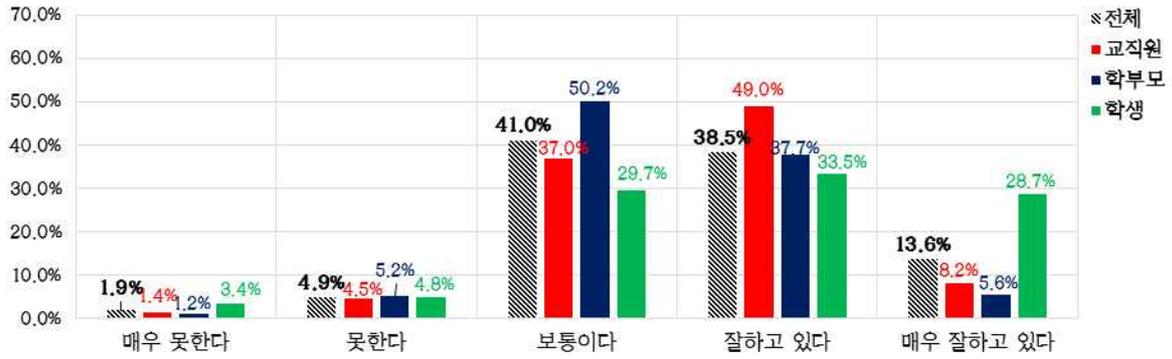
경남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52.1%, '보통이다'의 응답은 41.1%,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6.8%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교직원 57.2%, 학부모 43.3%, 학생 62.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36.9%, 학부모 50.3%, 학생 29.6%이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교직원 5.9%, 학부모 6.4%, 학생 8.2%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학생(62%), 교직원(57.1%), 학부모(43.3%) 순으로, 성별은 남자(63.9%)가 여자(4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55.7%), 중학교(49.3%), 고등학교(39.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61.5%)이 시 지역(50.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표 79> '현행 학교교육 전반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1.9%	4.9%	41.1%	38.5%	13.6%	21,599명	3.57	0.856		
교직원(a)	1.4%	4.5%	36.9%	49.0%	8.2%	4,050명	3.58	0.761	431.568*** (df=2, 21,596)	c>b,a a>b (Dunnett T3)
학부모(b)	1.2%	5.2%	50.3%	37.7%	5.6%	10,499명	3.41	0.730		
학생(c)	3.4%	4.8%	29.6%	33.5%	28.7%	7,050명	3.79	1.017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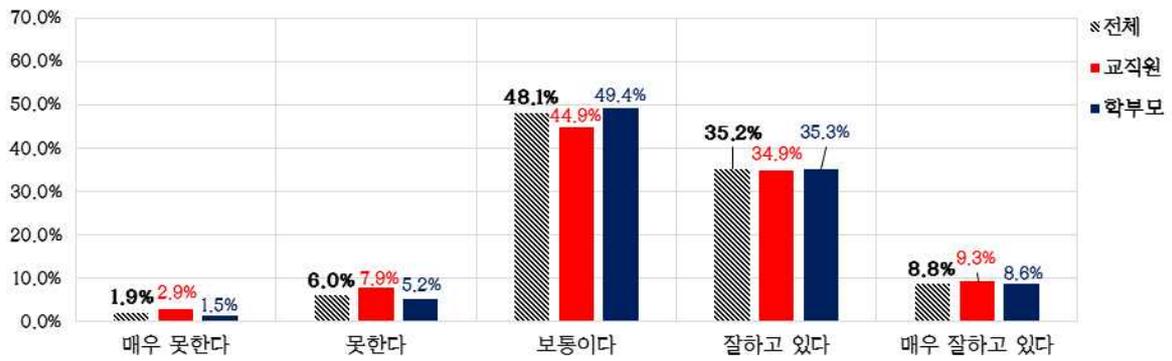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44%, '보통이다'의 응답은 48.1%,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7.9%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교직원 44.2%, 학부모 43.9%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45%, 학부모 49.4%이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교직원 10.8%, 학부모 6.7%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51.02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 값은 -2.884, 유의확률은 $0.004 < 0.05$ 이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44.1%), 학부모(43.9%) 순으로, 성별은 남자(48.5%)가 여자(4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45.2%), 고등학교(41.8%), 중학교(4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48.3%)이 시 지역(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 <표 80> '새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9%	6.0%	48.1%	35.2%	8.8%	100.0%	3.43	.808	
	270명	870명	7,004명	5,124명	1,281명	14,549명			
교직원	2.9%	7.9%	45.0%	34.9%	9.3%	100.0%	3.40	.871	
	117명	321명	1,820명	1,414명	378명	4,050명			
학부모	1.5%	5.2%	49.4%	35.3%	8.6%	100.0%	3.44	.782	-2.884** (df=6706.481)
	153명	549명	5,184명	3,710명	903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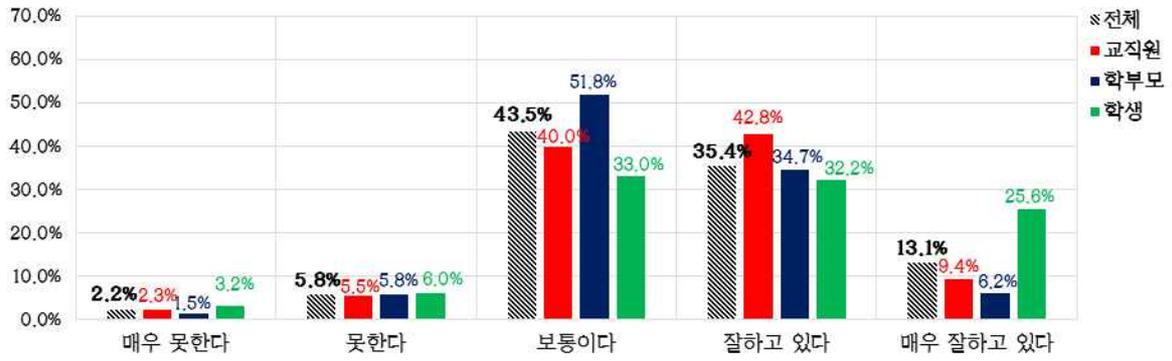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48.5%, '보통이다'의 응답은 43.5%,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8%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교직원 52.2%, 학부모 40.9%, 학생 57.8%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40%, 학부모 51.8%, 학생 33%이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교직원 7.8%, 학부모 7.3%, 학생 9.2%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학생(57.8%), 교직원(52.2%), 학부모(40.8%) 순으로, 성별은 남자(60.1%)가 여자(44.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52.3%), 중학교(45.3%), 고등학교(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58.1%)이 시 지역(46.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표 81> '경남교육청 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2.2%	5.8%	43.5%	35.4%	13.1%	100.0%	3.52	.872		
	473명	1,254명	9,388명	7,644명	2,840명	21,599명				
교직원(a)	2.3%	5.5%	40.0%	42.8%	9.4%	100.0%	3.52	.828	303.550*** (df=2, 21,596)	c>b,a a>b (Dunnett T3)
	93명	222명	1,621명	1,734명	380명	4,050명				
학부모(b)	1.5%	5.8%	51.8%	34.7%	6.2%	100.0%	3.38	.752		
	153명	612명	5,440명	3,639명	655명	10,499명				
학생(c)	3.2%	6.0%	33.0%	32.2%	25.6%	100.0%	3.71	1.015		
	227명	420명	2,327명	2,271명	1,805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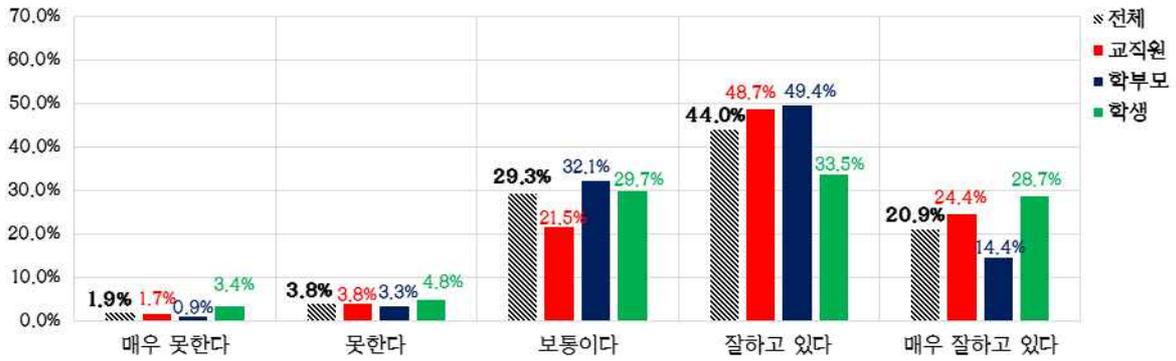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64.9%, ‘보통이다’의 응답은 29.4%,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5.7%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하고 있다+잘하고 있다)이 교직원 73.1%, 학부모 63.8%, 학생 62.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1.4%, 학부모 32%, 학생 29.6%이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못한다+못한다)은 교직원 5.5%, 학부모 4.2%, 학생 8.2%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직원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63.6%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은 남자(71.7%)가 여자(63.2%)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57.2%), 중학교(59.3%), 고등학교(51%) 순으로, 지역별은 군 지역(72.3%)이 시 지역(6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표 82>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1.9%	3.8%	29.4%	44.0%	20.9%	100.0%	3.80	.891		
	404명	830명	6,334명	9,514명	4,517명	21,599명				
교직원(a)	1.7%	3.8%	21.4%	48.7%	24.4%	100.0%	3.90	.867	64.851*** (df=2, 21,596)	a>b,c c>b (Dunnett T3)
	68명	152명	870명	1,971명	989명	4,050명				
학부모(b)	0.9%	3.3%	32.0%	49.4%	14.4%	100.0%	3.73	.778		
	98명	343명	3,369명	5,182명	1,507명	10,499명				
학생(c)	3.4%	4.8%	29.6%	33.5%	28.7%	100.0%	3.83	1.042		
	238명	335명	2,095명	2,361명	2,021명	7,050명				

*p<0.05, **p<0.01, ***p<0.001

주제 2. 경남교육의 현주소

요약

<설문 조사 결과>

-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74%, 교직원 62.8%, 학부모 78.5%).
-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59.9%, 교직원 66.3%, 학부모 55.5%, 학생 62.9%).
-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55.5%, 교직원 65.4%, 학부모 49.9%, 학생 58.3%).
-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48.5%). 교직원의 58.3%는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학부모의 45.5%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49%, 교직원 54.2%, 학부모 46.9%).
-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59.8%, 교직원 70.8%, 학부모 53.5%, 학생 62.8%)
-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53.7%, 교직원 64.2%, 학부모 44.6%, 학생 61.2%).
-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46.9%). 교직원과 학생은 각각 62.9%, 57.8%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경우 48.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직원복지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30.4%)보다 보통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9.6%).
- 학부모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통이다)이 37.9%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또한 35.3%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63.4%, 교직원 80%, 학부모 57%).

-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상당 부분 만족한다는 의견(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이 45.6%이고, 보통이라는 의견 또한 45.6%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교직원 57.6%, 학부모 42.9%이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교직원 35.1%, 학부모 49.7%이다. 경남의 교육혁신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42.8%)을,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직원 행정업무 부적정화(44.4%)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질문> 귀하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74%, '보통이다'의 응답은 20.1%,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5.9%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62.8%, 학부모 78.5%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5.8%, 학부모 17.8%이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11.4%, 학부모 3.7%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330.36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값은 -21.723, 유의확률은 $0.000 < 0.05$ 이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학부모(78.4%), 교직원(62.5%) 순으로, 성별은 여자(75.4%)가 남자(66.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75.9%), 중학교(71.4%), 고등학교(68.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시 지역(74.4%)이 군 지역(71.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표 83>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	4.4%	20.1%	43.7%	30.3%	100.0%	3.97	0.901	-21.723*** (df=6325.557)
	215명	638명	2,920명	6,363명	4,413명	14,549명			
교직원	3.4%	8.0%	25.8%	41.4%	21.4%	100.0%	3.69	1.003	
	139명	322명	1,049명	1,675명	865명	4,050명			
학부모	0.7%	3.0%	17.8%	44.7%	33.8%	100.0%	4.08	0.834	
	76명	316명	1,871명	4,688명	3,548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59.9%, ‘보통이다’의 응답은 32.9%,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7.2%로 나타났다.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66.3%, 학부모 55.5%, 학생 62.9%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6.5%, 학부모 36.9%, 학생 30.7%이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7.2%, 학부모 7.6%, 학생 6.4%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중심수업의 확산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66.3%), 학생(62.8%), 학부모(55.4%) 순으로, 성별은 남자(65%)가 여자(5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63.7%), 중학교(56.1%), 고등학교(49.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67.1%)이 시 지역(58.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0>, <표 84> '배움중심수업 확산'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1.6%	5.6%	32.9%	43.3%	16.6%	100.0%	3.68	.871		
	344명	1,200명	7,116명	9,345명	3,594명	21,599명				
교직원(a)	1.6%	5.6%	26.5%	50.5%	15.8%	100.0%	3.73	.848	170.930*** (df=2, 21,496)	c>b,a a>b (Dunnett T3)
	64명	228명	1,073명	2,047명	638명	4,050명				
학부모(b)	1.0%	6.6%	36.9%	45.3%	10.2%	100.0%	3.57	.801		
	109명	688명	3,883명	4,752명	1,067명	10,499명				
학생(c)	2.4%	4.0%	30.7%	36.1%	26.8%	100.0%	3.81	.958		
	171명	284명	2,160명	2,546명	1,889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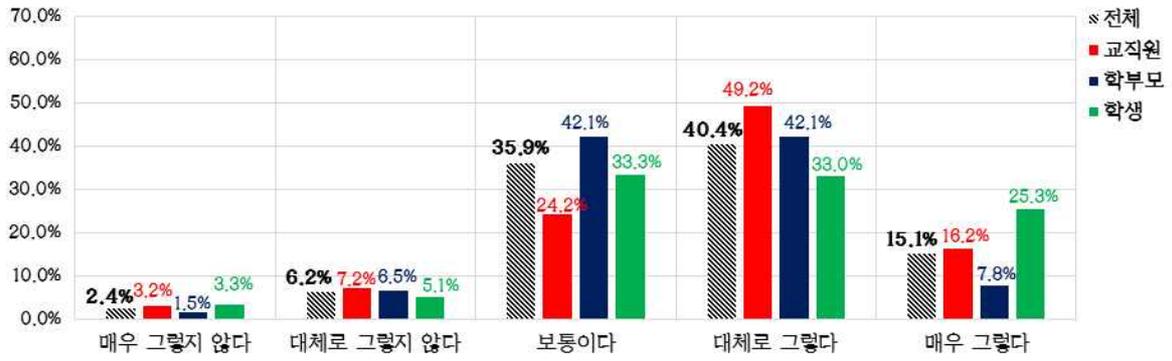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55.5%, '보통이다'의 응답은 35.9%,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8.6%로 나타났다.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65.4%, 학부모 49.9%, 학생 58.3%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4.2%, 학부모 42.1%, 학생 33.3%이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10.4%, 학부모 8%, 학생 8.4%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65.5%), 학생(58.2%), 학부모(49.9%) 순으로, 성별은 남자(64%)가 여자(52.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58.5%), 중학교(52.5%), 고등학교(4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63.7%)이 시 지역(5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표 8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2.4%	6.2%	35.9%	40.4%	15.1%	100.0%	3.60	.900		
	520명	1,333명	7,747명	8,735명	3,264명	21,599명				
교직원(a)	3.2%	7.2%	24.2%	49.2%	16.2%	100.0%	3.68	.936	167.584*** (df=2, 21,596)	c>b a>b (Dunnett T3)
	129명	290명	982명	1,993명	656명	4,050명				
학부모(b)	1.5%	6.5%	42.1%	42.1%	7.8%	100.0%	3.48	.791		
	155명	683명	4,420명	4,417명	824명	10,499명				
학생(c)	3.3%	5.1%	33.3%	33.0%	25.3%	100.0%	3.72	1.006		
	236명	360명	2,345명	2,325명	1,784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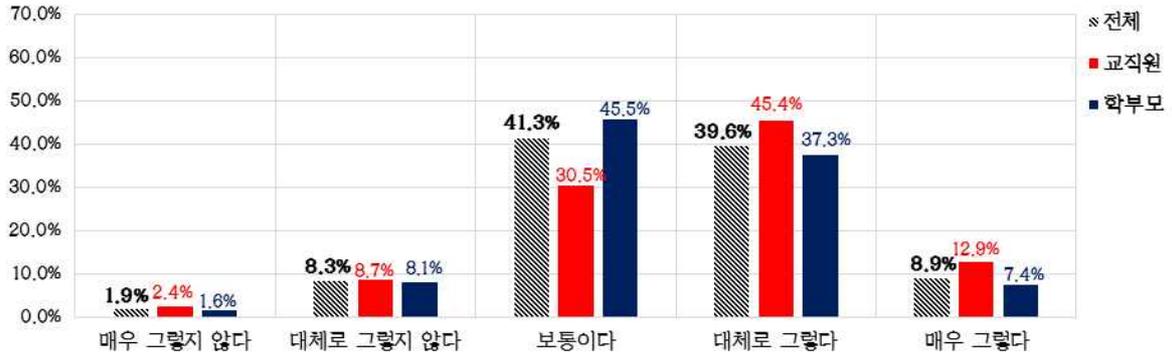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48.5%, 보통이다’의 응답은 41.3%,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10.2%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58.3%, 학부모 44.7%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30.6%, 학부모 45.6%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11.1%, 학부모 9.7%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78.76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 값은 10.454, 유의확률은 $0.000 < 0.05$ 이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58.4%), 학부모(44.7%) 순으로, 성별은 남자(54%)가 여자(47.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49.4%), 중학교(47.9%), 고등학교(44.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60.2%)이 시 지역(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 <표 86>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9%	8.3%	41.3%	39.6%	8.9%	100.0%	3.45	.839	10.454*** (df=6648.622)
	272명	1,209명	6,015명	5,757명	1,296명	14,549명			
교직원	2.4%	8.7%	30.6%	45.4%	12.9%	100.0%	3.58	.908	
	99명	354명	1,235명	1,838명	524명	4,050명			
학부모	1.6%	8.1%	45.6%	37.3%	7.4%	100.0%	3.41	.806	
	173명	855명	4,780명	3,919명	772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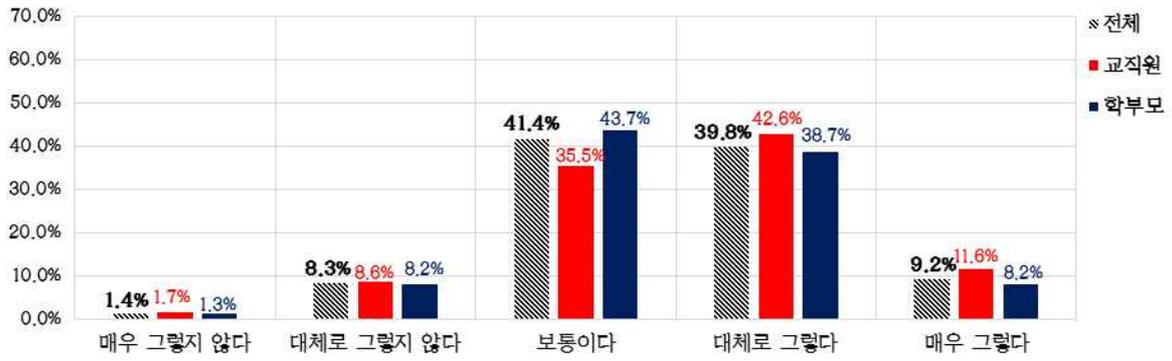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49%,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41.3%,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9.7%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54.2%, 학부모 46.9%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35.5%, 학부모 43.6%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10.3%, 학부모 9.5%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33.088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 값은 6.066, 유의확률은 $0.000 < 0.05$ 이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참여활동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54.3%), 학부모(46.9%) 순으로, 성별은 남자(50.3%)가 여자(48.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52%), 중학교(44.2%), 고등학교(40.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58.2%)이 시 지역(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표 87>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4%	8.3%	41.3%	39.8%	9.2%	100.0%	3.47	.826	6.066*** (df=6.066)
	202명	1,208명	6,021명	5,785명	1,333명	14,549명			
교직원	1.7%	8.6%	35.5%	42.6%	11.6%	100.0%	3.54	.868	
	67명	350명	1,437명	1,725명	471명	4,050명			
학부모	1.3%	8.2%	43.6%	38.7%	8.2%	100.0%	3.44	.807	
	135명	858명	4,584명	4,060명	862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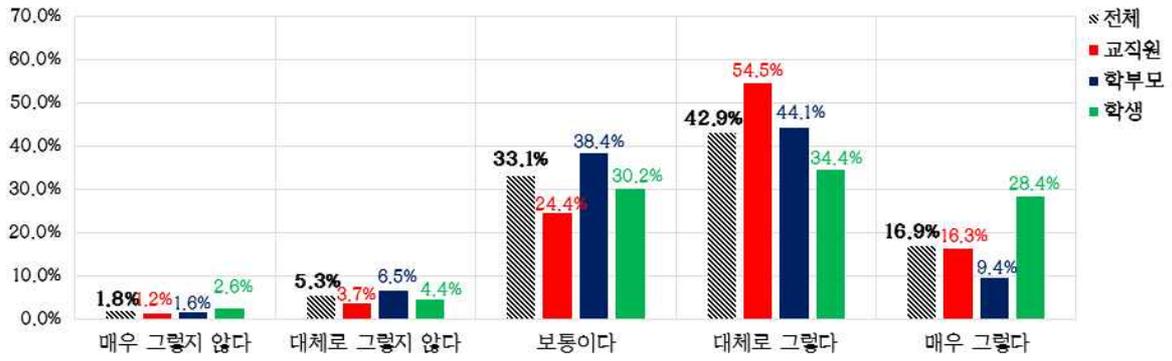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59.8%, '보통이다'의 응답은 33.1%,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7.1%로 나타났다.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70.8%, 학부모 53.5%, 학생 62.8%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4.3%, 학부모 38.4%, 학생 30.2%이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4.9%, 학부모 8.1%, 학생 7%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70.9%), 학생(53.5%), 학부모(62.7%) 순으로, 성별은 남자(67.1%)가 여자(57.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64%), 중학교(54.6%), 고등학교(5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69.3%)이 시 지역(58.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 <표 88>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1.8%	5.3%	33.1%	42.9%	16.9%	100.0%	3.68	.878		
	394명	1,139명	7,150명	9,265명	3,651명	21,599명				
교직원(a)	1.2%	3.7%	24.3%	54.5%	16.3%	100.0%	3.81	.790	283.498*** (df=2, 21,596)	c>b,a a>b (Dunnett T3)
	48명	148명	987명	2,208명	659명	4,050명				
학부모(b)	1.6%	6.5%	38.4%	44.1%	9.4%	100.0%	3.53	.813		
	164명	680명	4,036명	4,630명	989명	10,499명				
학생(c)	2.6%	4.4%	30.2%	34.4%	28.4%	100.0%	3.82	.980		
	182명	311명	2,127명	2,427명	2,003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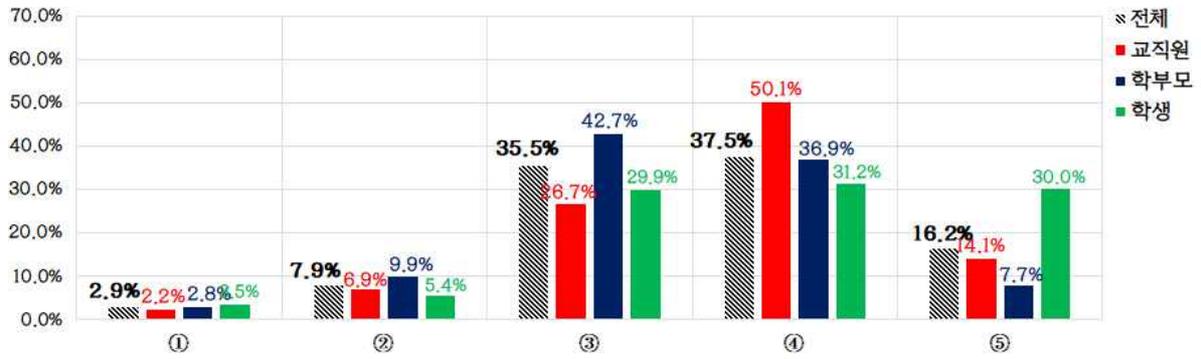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53.7%, ‘보통이다’의 응답은 35.5%,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10.8%로 나타났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64.2%, 학부모 44.6%, 학생 61.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6.7%, 학부모 42.7%, 학생 29.9%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9.1%, 학부모 12.7%, 학생 8.9%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교직원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64.3%), 학생(61.1%), 학부모(44.6%) 순으로, 성별은 남자(63.7%)가 여자(50.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54.7%), 중학교(53.5%), 고등학교(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64.1%)이 시 지역(51.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5>, <표 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2.9%	7.9%	35.5%	37.5%	16.2%	100.0%	3.56	.950	464.492*** (df=2, 21,596)	c>b,a a>b (Dunnett T3)
	633명	1,701명	7,665명	8,105명	3,495명	21,599명				
교직원(a)	2.2%	6.9%	26.7%	50.1%	14.1%	100.0%	3.67	.879		
	88명	280명	1,082명	2,028명	572명	4,050명				
학부모(b)	2.8%	9.9%	42.7%	36.9%	7.7%	100.0%	3.37	.868		
	295명	1,041명	4,480명	3,877명	806명	10,499명				
학생(c)	3.5%	5.4%	29.9%	31.2%	30.0%	100.0%	3.79	1.043		
	250명	380명	2,103명	2,200명	2,117명	7,050명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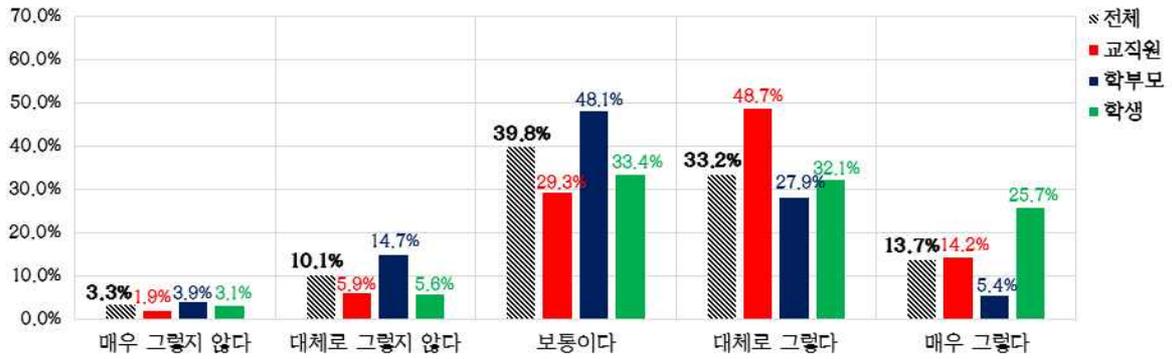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46.9%, ‘보통이다’의 응답은 39.7%,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13.4%로 나타났다.

확대되고 있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62.9%, 학부모 33.3%, 학생 57.8%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29.3%, 학부모 48.1%, 학생 33.5%이고,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7.8%, 학부모 18.6%, 학생 8.7%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교육 3주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3주체 간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의 수치를 보여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63%), 학생(57.7%), 학부모(33.3%) 순으로, 성별은 남자(59.5%)가 여자(4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48.7%), 중학교(46.4%), 고등학교(53.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58.8%)이 시 지역(44.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6>, <표 9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Post hoc
전체	3.3% 702명	10.1% 2,176명	39.7% 8,599명	33.2% 7,168명	13.7% 2,954명	100.0% 21,599명	3.44	.957		
교직원(a)	1.9% 75명	5.9% 240명	29.3% 1,188명	48.7% 1,972명	14.2% 575명	100.0% 4,050명	3.67	.856	923.652*** (df=2, 21,596)	c>b a>b (Dunnnett T3)
학부모(b)	3.9% 405명	14.7% 1,541명	48.1% 5,053명	27.9% 2,930명	5.4% 570명	100.0% 10,499명	3.16	.878		
학생(c)	3.1% 222명	5.6% 395명	33.5% 2,358명	32.1% 2,266명	25.7% 1,809명	100.0% 7,050명	3.72	1.009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직원복지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직원복지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교직원에게 한하여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30.4%, ‘보통이다’의 응답이 39.6%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30%로 나타났다.

<그림 57>, <표 91> ‘교직원복지 확대’에 관한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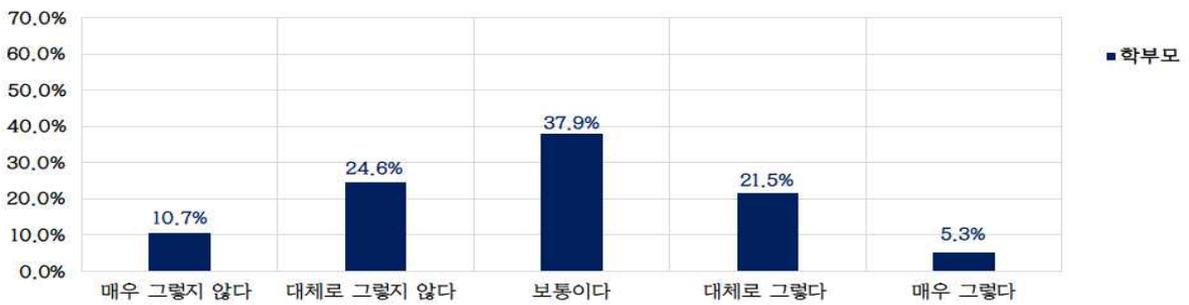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직원	9.3%	20.7%	39.6%	25.1%	5.3%	100.0%
	377명	838명	1,602명	1,017명	216명	4,050명
학부모	-	-	-	-	-	-
학생	-	-	-	-	-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학부모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26.8%로 나타났 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37.9%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35.3%로 나타났다.

<그림 58>, <표 92>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직원	-	-	-	-	-	-
학부모	10.7%	24.6%	37.9%	21.5%	5.3%	100.0%
	1,123명	2,584명	3,977명	2,255명	560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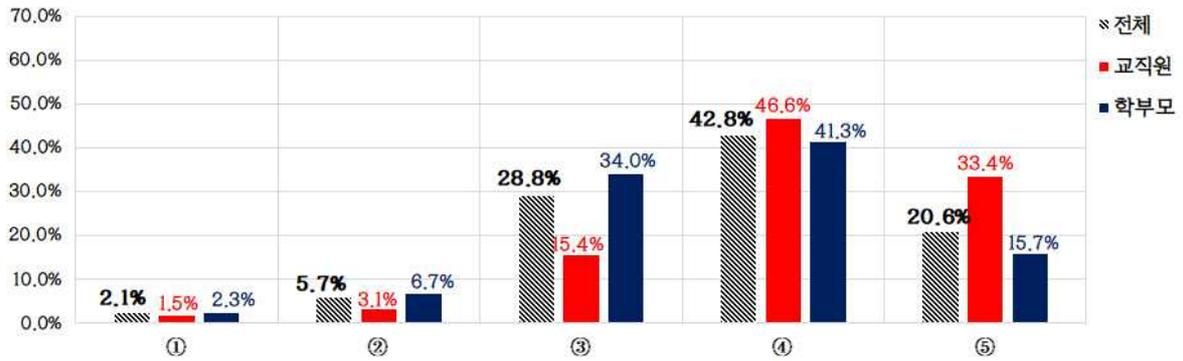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63.4%, ‘보통이다’의 응답은 28.8%,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7.8%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교직원 80%, 학부모 57%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15.4%, 학부모 34%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4.6%, 학부모 9%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188.55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값은 28.451, 유의확률은 $0.000 < 0.05$ 이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80.2%), 학부모(57%) 순으로, 성별은 남자(71.3%)가 여자(61.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64%), 중학교(62.4%), 고등학교(6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72.2%)이 시 지역(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9>, <표 9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1%	5.7%	28.8%	42.8%	20.6%	100.0%	3.74	.919	28.451*** (df=7716.513)
	306명	832명	4,184명	6,226명	,001명	14,549명			
교직원	1.5%	3.1%	15.4%	46.6%	33.4%	100.0%	4.07	.862	
	61명	127명	619명	1,889명	1,354명	4,050명			
학부모	2.3%	6.7%	34.0%	41.3%	15.7%	100.0%	3.61	.908	
	245명	705명	3,565명	4,337명	1,647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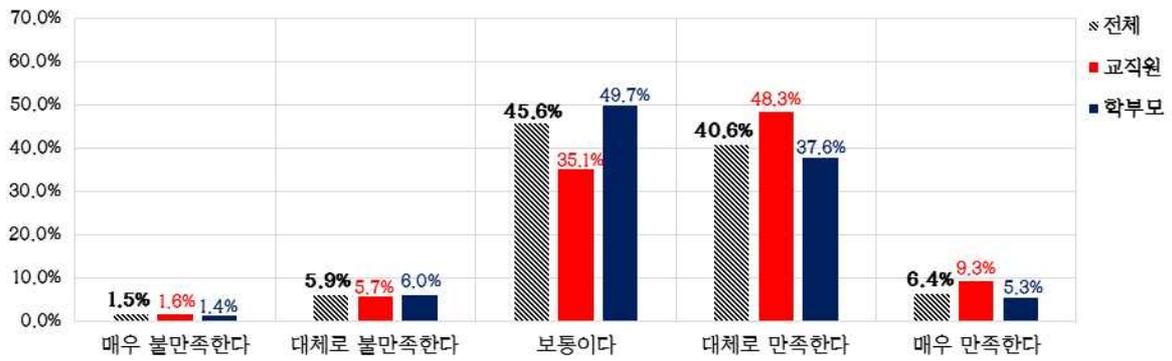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이 47%, '보통이다'의 응답은 45.6%,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7.4%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이 교직원 57.6%, 학부모 42.9%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의 응답은 교직원 35.1%, 학부모 49.7%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은 교직원 7.3%, 학부모 7.4%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T-test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33.11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 값은 12.816, 유의확률은 $0.000 < 0.05$ 이므로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교육혁신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3주체에서는 교직원(57.6%), 학부모(42.9%) 순으로, 성별은 남자(53.7%)가 여자(4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별에서는 초등학교(48.6%), 중학교(44.3%), 고등학교(42.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은 군 지역(58.3%)이 시 지역(4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60>, <표 94> '경남의 교육혁신 만족도'에 관한 설문결과



	매우 불만족한다	대체로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5%	5.9%	45.6%	40.6%	6.4%	100.0%	3.45	.763	12.816*** (df=6882.575)
	215명	856명	6,634명	5,906명	938명	14,549명			
교직원	1.6%	5.7%	35.1%	48.3%	9.3%	100.0%	3.58	.801	
	66명	229명	1,420명	1,957명	378명	4,050명			
학부모	1.4%	6.0%	49.7%	37.6%	5.3%	100.0%	3.39	.742	
	149명	627명	5,214명	3,949명	560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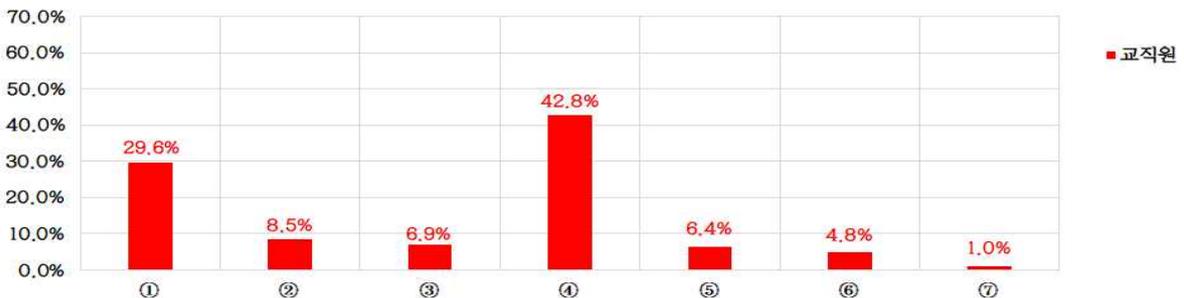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경남의 교육혁신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서(42.8%),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어서(29.6%),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어서(8.5%), 행복한 책임기 문화가 조성되어서(6.9%),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어서(4.8%), 기타(1.0%)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문화 발전(25%), 시도가 좋음(21%), 전부 다(21%)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61>, <표 95> '교육혁신 만족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어서 |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서 | ③ 행복한 책임기 문화가 조성되어서 |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서 |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어서 |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어서 | ⑦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교직원	29.6%	8.5%	6.9%	42.8%	6.4%	4.8%	1.0%	100.0%
	691명	198명	160명	999명	149명	111명	27명	2,335명

<표 96> '교육혁신 만족 이유'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학교 문화 발전	6건	25%
	시도가 좋음	5건	21%
	전부 다	5건	21%
	청렴	3건	13%
	교사 업무 경감	2건	8%
	변화에 맞는 수업	1건	4%
	자료집계 시스템	1건	4%
	학생의 부담 경감	1건	4%

<질문> 귀하는 경남의 교육혁신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지 않아서(44.4%),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27.5%),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지 않아서(12.2%), 기타(1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2%), 행복한 책임기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2%)는 같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권 약화(14%), 교사 업무 과다(14%), 학생만을 고려한 정책(14%)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62>, <표 97> '교육혁신 불만족 이유'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교직원	12.2%	2.0%	2.0%	27.5%	-	44.4%	11.9%	100.0%
	36명	6명	6명	81명	-	131명	35명	295명

<표 98> '교육혁신 불만족 이유'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권 약화	7건	14%
	교사 업무 과다	7건	14%
	학생만을 고려한 정책	7건	14%
	비민주적 인사	5건	10%
	정책에 대한 불신	5건	10%
	권한의 집중	3건	6%
	급격한 변화	3건	6%

	정책의 일관성 부족	2건	4%
	학교 폭력	2건	4%
	학습 방식에 대한 고려	2건	4%
	교육청의 변화 부재	1건	2%
	다양한 직종 간의 갈등	1건	2%
	수준별 수업 불가능	1건	2%
	시설 확충	1건	2%
	입시에 도움되지 않음	1건	2%
	정책의 강요	1건	2%
	좁은 정책 적용범위	1건	2%
	학생의 문제	1건	2%

주제 3.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요약

<설문 조사 결과>

-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교직원, 학부모 모두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29.5%, 학부모 29.5%).
- 타 시·도교육청 역점과제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교직원, 학부모 모두 인성교육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40.3%, 학부모 48.4%).
-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교직원의 경우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34%)를, 학부모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30.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 중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에서 교직원의 경우 배움이 즐거운 교실(37.8%)를, 학부모의 경우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25.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중요도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모두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50.2%, 학부모 33.8%).
-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 중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54.3%, 학부모 66.6%).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중요도에서는 교직원의 경우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45.2%)를, 학부모의 경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44.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 중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36.7%, 학부모 32.5%).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중요도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학교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36.5%, 학부모 41.1%).
-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 중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에서 교직원의 경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6%)를, 학부모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운영(31.5%)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중요도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25.6%, 학부모 40.3%).
-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 중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34.8%, 학부모 31.4%).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중요도에서는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0.3%)를, 학부모의 경우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6.3%)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질문> 귀하는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31.3%),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27.8%),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7.4%),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7.4%), 해당 없음(6%)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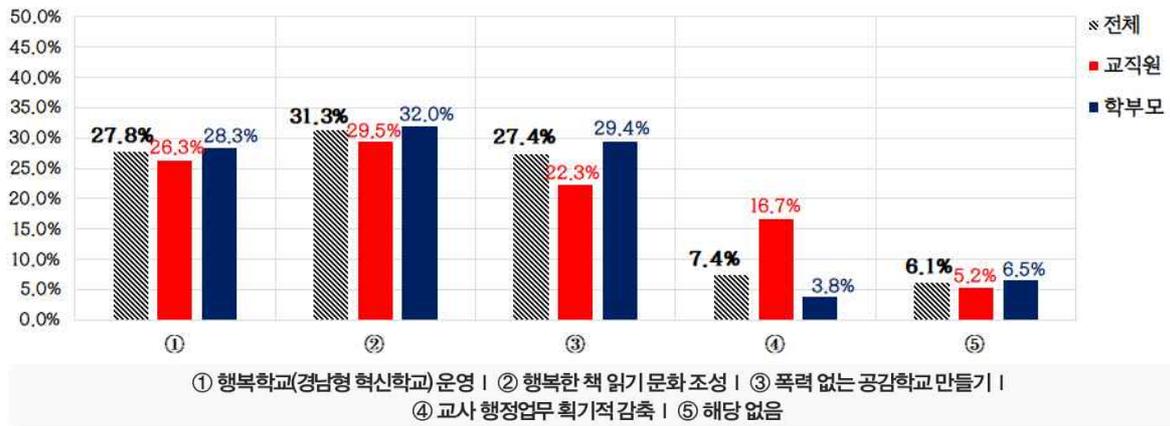
교직원은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29.5%),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26.3%),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2.3%),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16.7%), 해당 없음(5.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29.5%),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9.4%),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28.3%), 해당 없음(6.4%),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3.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역점과제 추진성과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은 학부모 32%, 교직원 29.6%, 여자 32.6%, 초등학교 36.2%, 시 지역 32%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운영은 남자 28.8%, 군 지역 30.9%이,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에서 중학교 31.5%, 고등학교 31.6%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림 63>, <표 99> '4대 역점과제 추진성과 만족도'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전체	27.8%	31.3%	27.4%	7.4%	6.1%	100.0%	717.901*** (df=4)
	4,042명	4,557명	3,991명	1,079명	880명	14,549명	
교직원	26.3%	29.5%	22.3%	16.7%	5.2%	100.0%	
	1,067명	1,193명	904명	675명	211명	4,050명	
학부모	28.3%	32.0%	29.4%	3.8%	6.5%	100.0%	
	2,975명	3,364명	3,087명	404명	669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다음(타 시·도교육청 역점과제)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교육청 역점과제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인성교육 확대(46.2%), 교육격차 해소(12.8%), 진로교육 확대(9.4%), 학교문화 혁신(8.7%), 교원역량 강화(7.4%),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5.9%), 기초 학력 향상(4.9%), 평화·인권교육 확대(2%),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1.7%), 기타(1%)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인성교육 확대(40.3%), 학교문화 혁신(21.1%), 교육격차 해소(8%), 교원역량 강화(7.7%), 기초 학력 향상(5.6%),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5%), 진로교육 확대(4.3%),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4%), 기타(2.5%), 평화·인권교육 확대(1.5%)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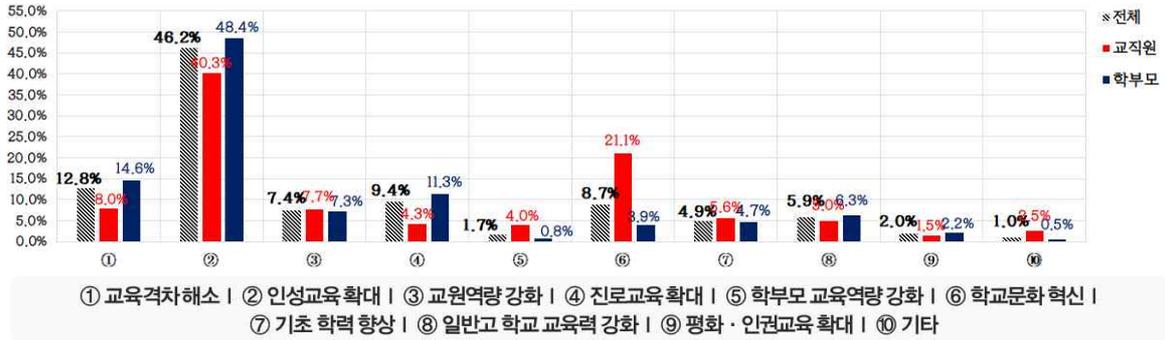
학부모는 인성교육 확대(48.4%), 교육격차 해소(14.6%), 진로교육 확대(11.3%), 교원역량 강화(7.3%),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6.3%), 기초 학력 향상(4.7%), 학교문화 혁신(3.9%), 평화·인권교육 확대(2.2%),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0.8%),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성교육 확대에서 학부모 48.4%, 교직원 40.3%, 남자 43.9%, 여자 46.6%, 초등학교 48.4%, 중학교 43%, 고등학교 39.6%, 시 지역 46.7%, 군 지역 4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사 업무 경감(36.4%), 교권보장(29.7%), 학교문화 조성(9.6%)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학부모는 교사-학부모-학생 간 상호 존중을 위한 인성 및 평등 교육(64.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장치 설치(14.3%), 사교육 감소를 위한 노력과 공교육 확산(12.9%)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64>, <표 100> '타 시·도 교육청의 역점과제 중 경남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χ^2
전체	12.8%	46.2%	7.4%	9.4%	1.7%	8.7%	4.9%	5.9%	2.0%	1.0%	100.0%	1755.451*** (df=9)
	1,861명	6,716명	1,078명	1,362명	246명	1,262명	716명	861명	293명	154명	14,549명	
교직원	8.0%	40.3%	7.7%	4.3%	4.0%	21.1%	5.6%	5.0%	1.5%	2.5%	100.0%	
	326명	1,634명	313명	176명	164명	854명	227명	204명	60명	92명	4,050명	
학부모	14.6%	48.4%	7.3%	11.3%	0.8%	3.9%	4.7%	6.3%	2.2%	0.5%	100.0%	
	1,535명	5,082명	765명	1,186명	82명	408명	489명	657명	233명	62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01> '타 시·도 교육청의 역점과제 중 경남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사 업무 경감	43건	36.4%
	교권 보장	35건	29.7%
	학교 문화 조성	9건	7.6%
	교사 처우 개선	7건	5.9%
	경쟁 사회 타파	4건	3.4%
	청렴	3건	2.5%
	학급당 학생 수 감축	3건	2.5%
	학부모 인식 교육	3건	2.5%
	공모 총량제	2건	1.7%
	교사 인식 개선	2건	1.7%
	복식학급 반대	1건	0.8%
	4차산업에 맞는 교육	1건	0.8%
	교육 자치	1건	0.8%
	복식학급 반대	1건	0.8%
	수업 개선	1건	0.8%
	입시 문화 개선	1건	0.8%
학교 지원 강화	1건	0.8%	
학부모	교사-학부모-학생 간 상호존중을 위한 인성 및 평등교육	45건	64.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장치 설치	10건	14.3%
	사교육 감소를 위한 노력과 공교육 확산	9건	12.9%
	예체능 수업 확대	4건	5.7%
	인구밀도에 따른 학교 추가 설립	2건	2.9%

<질문> 귀하는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29.9%),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27%),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20.2%),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9.8%),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9.8%), 기타(3.3%)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교직원들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34%),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27.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17.2%),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11.8%),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7.4%), 기타(2.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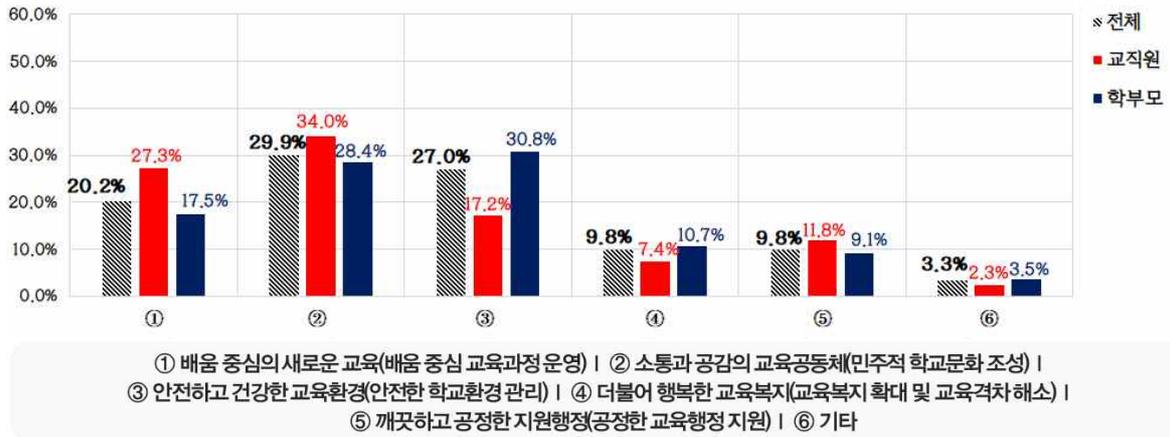
학부모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30.8%),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28.4%),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17.5%),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10.7%),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9.1%), 기타(3.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서 남자 33%, 여자 29.4%, 중학교 31.7%, 고등학교 30.4%, 시 지역 29%, 군 지역 3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부모 30.8%와 초등학교 29.8%가 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에서, 교직원 27.4%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사 업무 경감(28%), 정책 홍보(11%), 청렴(11%), 혁신학교(11%)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학부모는 문항에 있는 정책 모두 잘 시행 중(28.6%), 안전한 생활환경 및 평등한 복지 혜택 제공(71.4%)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65>, <표 102> '경남 5대 정책방향 추진성과'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전체	20.2%	29.9%	27.0%	9.8%	9.8%	3.3%	100.0%	435.845*** (df=5)
	2,946명	4,357명	3,931명	1,426명	1,433명	456명	14,549명	
교직원	27.3%	34.0%	17.2%	7.4%	11.8%	2.3%	100.0%	
	1,105명	1,378명	698명	300명	478명	91명	4,050명	
학부모	17.5%	28.4%	30.8%	10.7%	9.1%	3.5%	100.0%	
	1,841명	2,979명	3,233명	1,126명	955명	365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03> '경남 5대 정책방향 추진성과'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사 업무 경감	5건	28%	
	정책 홍보	2건	11%	
	청렴	2건	11%	
	혁신학교	2건	11%	
	권위 의식 버리기	1건	6%	
	역사 교육 정책	1건	6%	
	진부 다	1건	6%	
	지필평가 폐지	1건	6%	
	학부모 전시 정책	1건	6%	
	학생 인권 강화	1건	6%	
	학습지도연구대회 폐지	1건	6%	
	학부모	안전한 생활환경 및 평등한 복지 혜택 제공	15건	71.4%
		문항에 있는 정책 모두 잘 시행 중	6건	28.6%

<질문> 귀하는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25.9%),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25.4%), 행복학교 운영(22.4%),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13.9%), 해당 없음(6.4%),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3.4%), 맞춤형 특수교육(2.6%)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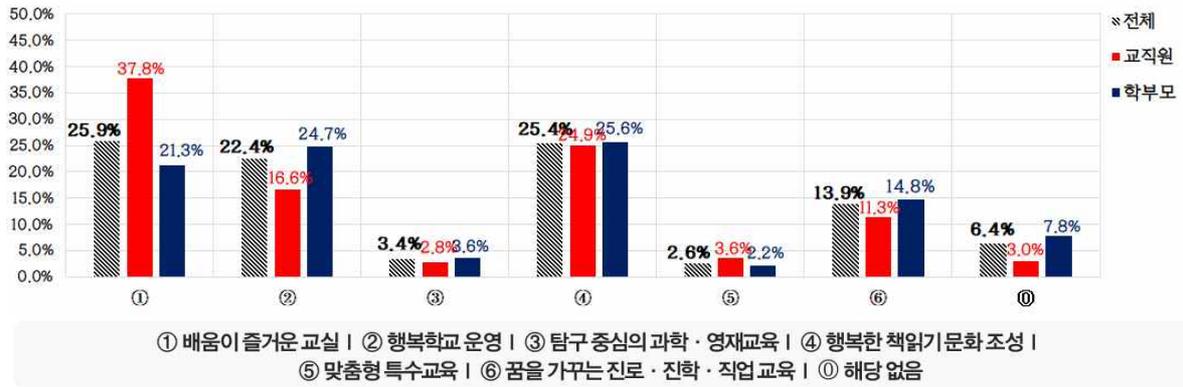
교직원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37.8%),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24.9%), 행복학교 운영(16.6%),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11.3%), 맞춤형 특수교육(3.6%), 해당 없음(3%),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8%)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25.6%), 행복학교 운영(24.7%), 배움이 즐거운 교실(21.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14.8%), 해당 없음(7.8%),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3.6%), 맞춤형 특수교육(2.2%)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배움이 즐거운 교실에서 교직원 37.8%, 남자 31.9%, 중학교 24.7%, 군 지역 3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부모 25.6%, 여자 26.7%, 초등학교 29.7%, 시 지역 26.1%는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을, 고등학교 23.9%는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66>, <표 104>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전체	25.9%	22.4%	3.4%	25.4%	2.6%	13.9%	6.4%	100.0%	552.754*** (df=6)
	3,770명	3,261명	493명	3,695명	374명	2,016명	940명	14,549명	
교직원	37.8%	16.6%	2.8%	24.9%	3.6%	11.3%	3.0%	100.0%	
	1,532명	671명	118명	1,007명	145명	457명	120명	4,050명	
학부모	21.3%	24.7%	3.6%	25.6%	2.2%	14.8%	7.8%	100.0%	
	2,238명	2,590명	375명	2,688명	229명	1,559명	820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배움이 즐거운 교실(38.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25%), 행복학교 운영(19.1%),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9.8%), 맞춤형 특수교육(4%),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7%), 해당 없음(1%)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 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50.2%),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19.3%),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12.2%), 행복학교 운영(11.8%), 맞춤형 특수교육(2.8%),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5%), 해당 없음(1.2%)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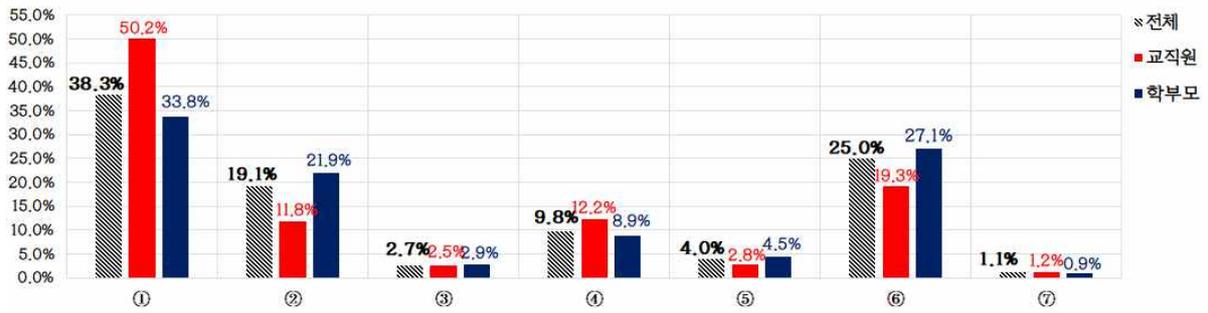
학부모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33.8%),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27.1%), 행복학교 운영(21.9%),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8.9%), 맞춤형 특수교육(4.5%),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2.9%), 해당 없음(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이 배움이 즐거운 교실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33.8%, 교직원 50.4%, 남자 40%, 여자 38.1%, 초등학교 41.3%, 중학교 33.8%, 고등학교 30.8%, 시 지역 37.8%, 군 지역 43.8%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정책과제는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27.1%, 교직원 19.4%, 남자 23.2%, 여자 25.3%, 초등학교 20.4%, 중학교 32.2%, 고등학교 37.5%, 시 지역 25.4%, 군 지역 22.2%로 나타났다.

<그림 67>, <표 105>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한 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임기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 ⑦ 해당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전체	38.3%	19.1%	2.7%	9.8%	4.0%	25.0%	1.1%	100.0%	490.690*** (df=6)
	5,577명	2,780명	400명	1,433명	583명	3,630명	146명	14,549명	
교직원	50.2%	11.8%	2.5%	12.2%	2.8%	19.3%	1.2%	100.0%	
	2,032명	478명	100명	496명	115명	780명	49명	4,050명	
학부모	33.8%	21.9%	2.9%	8.9%	4.5%	27.1%	0.9%	100.0%	
	3,545명	2,302명	300명	937명	468명	2,850명	97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39.5%),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2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9.1%), 해당 없음(8.7%),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6%),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6.4%), 나라사랑 교육(2.6%)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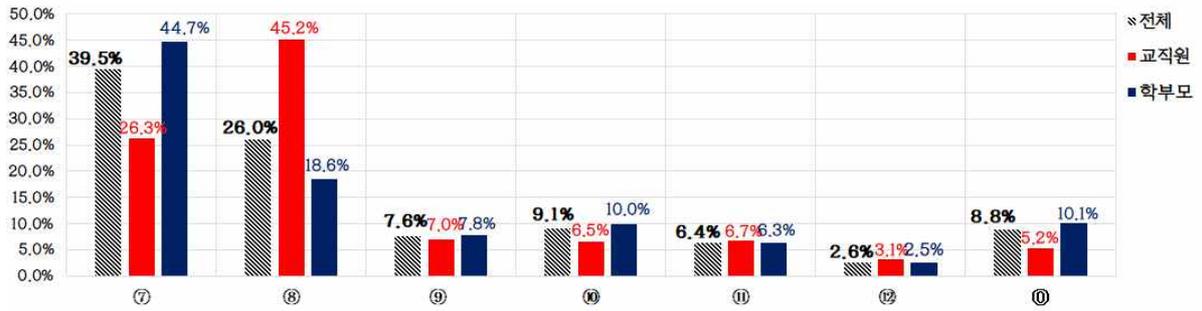
교직원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54.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3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3.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3.3%),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3.1%), 나라사랑 교육 강화(1.8%), 해당 없음(1%)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66.6%),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12.8%),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7.2%),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5.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5%), 해당 없음(1.8%), 나라사랑 교육 강화(1.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직원과 남자를 제외한 그룹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44.7%, 여자 40.8%, 초등학교 41.1%, 중학교 37.7%, 고등학교 34.4%, 시 지역 40.2%, 군 지역 35.7%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교직원과 남자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서 각각 45.4%, 37.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68>, <표 106>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㉑ 해당 없음

	⑦	⑧	⑨	⑩	⑪	⑫	㉑	전체	χ^2
전체	39.5%	26.0%	7.6%	9.1%	6.4%	2.6%	8.8%	100.0%	1176.437*** (df=6)
	5,754명	3,784명	1,106명	1,319명	935명	385명	1,266명	14,549명	
교직원	26.3%	45.2%	7.0%	6.5%	6.7%	3.1%	5.2%	100.0%	
	1,064명	1,832명	283명	265명	270명	127명	209명	4,050명	
학부모	44.7%	18.6%	7.8%	10.0%	6.3%	2.5%	10.1%	100.0%	
	4,690명	1,952명	823명	1,054명	665명	258명	1,057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63.2%),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18.4%),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6.1%),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4.7%),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4.6%), 나라사랑 교육 강화(1.5%), 해당 없음(1.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45.2%),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6.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6.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6.5%), 해당 없음(5.2%), 나라사랑 교육 강화(3.1%)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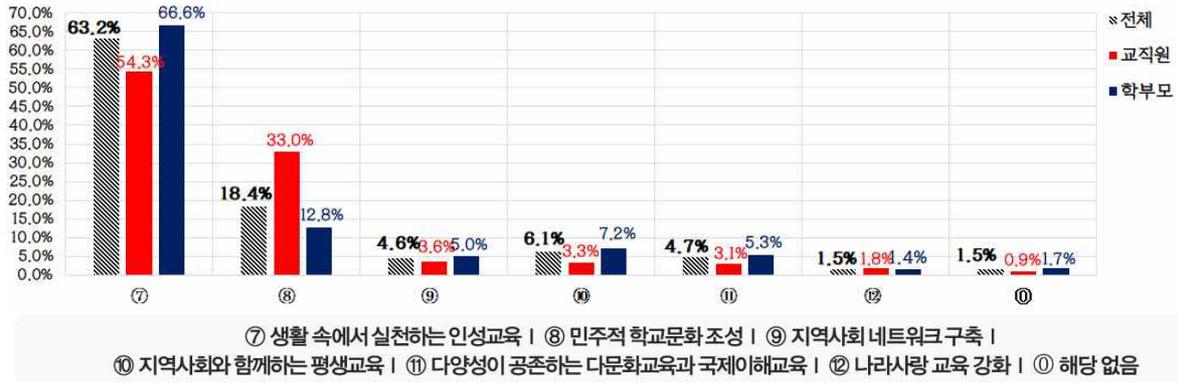
학부모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44.7%),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18.6%), 해당 없음(10.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10%),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8%),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6.3%), 나라사랑 교육 강화(2.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66.6%, 교직원 54.3%, 남자 52.2%, 여자 65.3%, 초등학교 65.4%, 중학교 60.5%, 고등학교 56.1%, 시 지역 64.1%, 군 지역 57.7%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정책과제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12.8%, 교직원 33%, 남자 30.1%, 여자 16.2%, 초등학교 16.8%, 중학교 20.7%, 고등학교 23%, 시 지역 17.3%, 군 지역 25.3%로 나타났다.

<그림 69>, <표 107>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χ^2
전체	63.2% 9,191명	18.4% 2,676명	4.6% 671명	6.1% 886명	4.7% 677명	1.5% 224명	1.5% 224명	100.0% 14,549명	845.601*** (df=6)
교직원	54.3% 2,198명	33.0% 1,335명	3.6% 145명	3.3% 134명	3.1% 125명	1.8% 73명	0.9% 40명	100.0% 4,050명	
학부모	66.6% 6,993명	12.8% 1,341명	5.0% 526명	7.2% 752명	5.3% 552명	1.4% 151명	1.7% 184명	100.0% 10,499명	
학생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3.6%),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3.1%), 안전한 건강급식(17.2%),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0.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8.6%), 해당 없음(5.4%), 포근한 보건의료(1.7%)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6.7%), 안전한 건강급식(20.4%),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16.8%),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2.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9.2%), 해당 없음(3.1%), 포근한 보건의료(1.5%)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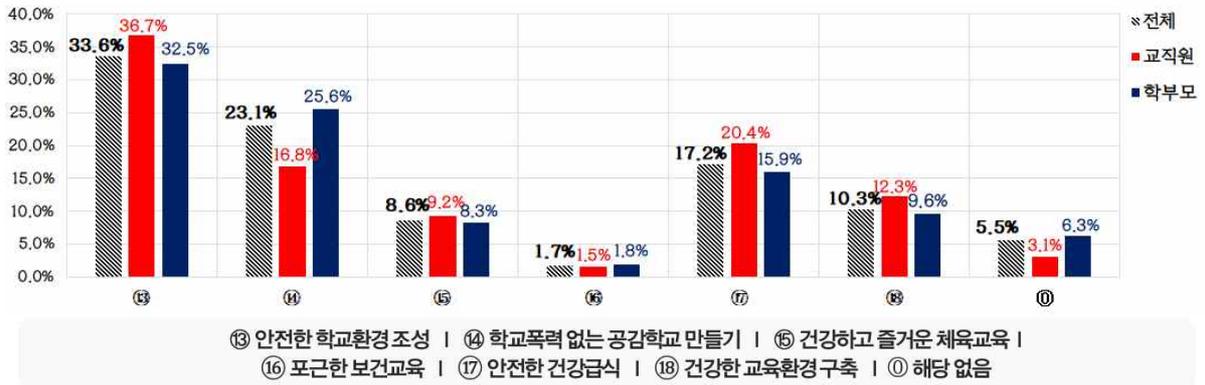
학부모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2.5%),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5.6%), 안전한 건강급식(15.9%),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9.6%),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8.3%), 해당 없음(6.3%), 포근한 보건의료(1.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32.5%, 교직원 36.6%, 남자 34.9%, 여자 33.4%, 초등학교 35.5%, 중학교 29.2%, 고등학교 31.2%, 시 지역 33.6%, 군 지역 33.5%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정책과제는 학교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25.6%, 교직원 16.8%, 남자 21.9%, 여자 23.4%, 초등학교 22%, 중학교 26.5%, 고등학교 23.8%, 시 지역 23.2%, 군 지역 22.7%로 나타났다.

<그림 70>, <표 108>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⑬	⑭	⑮	⑯	⑰	⑱	⑩	전체	χ^2
전체	33.6%	23.1%	8.6%	1.7%	17.2%	10.3%	5.5%	100.0%	227.692*** (df=6)
	4,895명	3,368명	1,247명	249명	2,499명	1,500명	791명	14,549명	
교직원	36.7%	16.8%	9.2%	1.5%	20.4%	12.3%	3.1%	100.0%	
	1,486명	682명	371명	60명	828명	497명	126명	4,050명	
학부모	32.5%	25.6%	8.3%	1.8%	15.9%	9.6%	6.3%	100.0%	
	3,409명	2,686명	876명	189명	1,671명	1,003명	665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39.8%),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28.9%),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4.8%), 안전한 건강급식(8.5%),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6%), 해당 없음(1%), 포근한 보건의교육(0.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36.5%),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29.8%),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8.9%),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6.6%), 안전한 건강급식(6.5%), 해당 없음(0.9%), 포근한 보건의교육(0.8%)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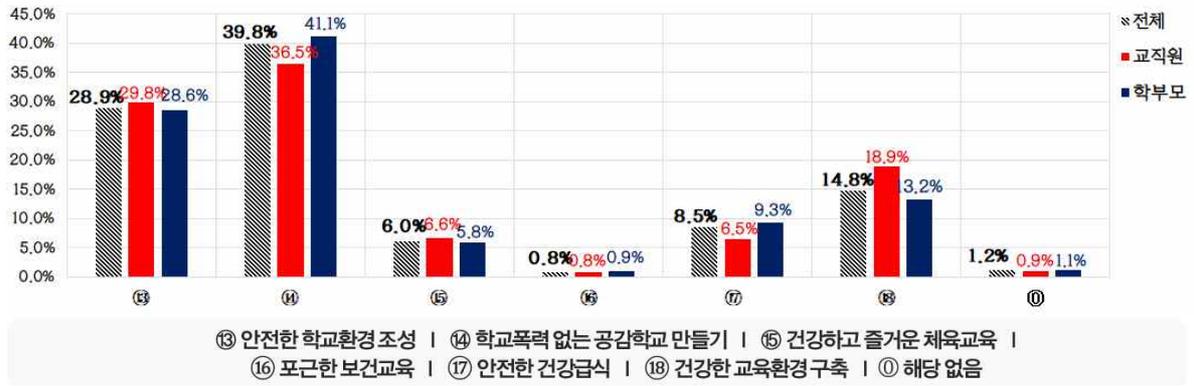
학부모는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41.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28.6%),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3.2%), 안전한 건강급식(9.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5.8%), 해당 없음(1.1%), 포근한 보건의교육(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이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41.1%, 교직원 36.5%, 남자 32.6%, 여자 41.2%, 초등학교 40.8%, 중학교 40.2%, 고등학교 33.6%, 시 지역 40.5%, 군 지역 35.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정책과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28.6%, 교직원 29.8%, 남자 30.2%, 여자 28.7%, 초등학교 30.3%, 중학교 25.4%, 고등학교 28.1%, 시 지역 28.9%, 군 지역 29.4%로 나타났다.

<그림 71>, <표 109>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㉓	㉔	㉕	㉖	㉗	㉘	㉙	전체	χ^2
전체	28.9%	39.8%	6.0%	0.8%	8.5%	14.8%	1.2%	100.0%	114.298*** (df=6)
	4,210명	5,796명	879명	121명	1,240명	2,153명	150명	14,549명	
교직원	29.8%	36.5%	6.6%	0.8%	6.5%	18.9%	0.9%	100.0%	
	1,206명	1,478명	269명	31명	262명	767명	37명	4,050명	
학부모	28.6%	41.1%	5.8%	0.9%	9.3%	13.2%	1.1%	100.0%	
	3,004명	4,318명	610명	90명	978명	1,386명	113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27.1%),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2.5%),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18.3%),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8.9%),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8.7%), 해당 없음(8.6%),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3.4%), 교직원복지 여건 개선(2.4%)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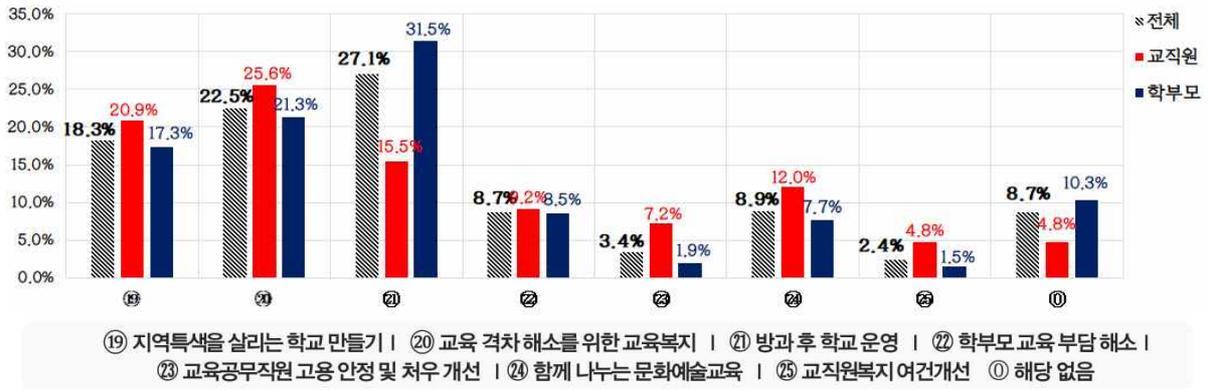
교직원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6%),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0.9%), 방과 후 학교 운영(15.5%),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12%),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9.2%),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7.2%), 교직원복지 여건개선(4.8%), 해당 없음(4.8%)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방과 후 학교 운영(31.5%),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1.3%),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17.3%), 해당 없음(10.1%),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8.5%),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7.7%),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1.9%), 교직원복지 여건개선(7.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와 방과 후 학교 운영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응답 비율은 교직원 25.7%, 남자 28%, 중학교 26.4%, 고등학교 27.6%, 군 지역 22.8%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응답 비율은 학부모 31.5%, 여자 28.4%, 초등학교 31.7%, 시 지역 27.9%로 나타났다.

<그림 72>, <표 110>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19	20	21	22	23	24	25	0	전체	χ^2
전체	18.3%	22.5%	27.1%	8.7%	3.4%	8.9%	2.4%	8.7%	100.0%	841.669*** (df=7)
	2,668명	3,276명	3,938명	1,267명	495명	1,298명	352명	1,255명	14,549명	
교직원	20.9%	25.6%	15.5%	9.2%	7.2%	12.0%	4.8%	4.8%	100.0%	
	848명	1,035명	629명	372명	291명	486명	194명	195명	4,050명	
학부모	17.3%	21.3%	31.5%	8.5%	1.9%	7.7%	1.5%	10.3%	100.0%	
	1,820명	2,241명	3,309명	895명	204명	812명	158명	1,060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36.2%),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16.4%),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5%), 방과 후 학교 운영(10.4%),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7.9%), 교직원복지 여건개선(7.9%),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4.1%), 해당 없음(2.1%)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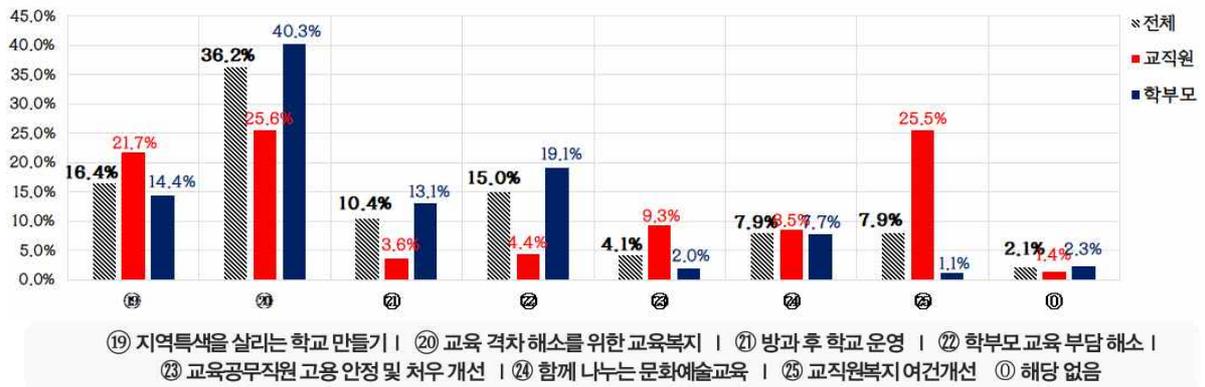
교직원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6%), 교직원복지 여건개선(25.5%),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21.7%),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9.3%),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8.5%),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4.4%), 방과 후 학교 운영(3.6%), 해당 없음(1.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40.3%),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9.1%),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14.4%), 방과 후 학교 운영(13.1%),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7.7%), 해당 없음(2.4%),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2%), 교직원복지 여건개선(1.1%)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직원을 제외한 그룹들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40.3%, 남자 32%, 여자 37%, 초등학교 36.1%, 중학교 37%, 고등학교 35.6%, 시 지역 37%, 군 지역 31.4%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직원은 교직원복지 여건개선에서 25.6%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는데, 근소한 차이이지만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던 정책과제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5%)이었다.

<그림 73>, <표 11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전체	χ^2
전체	16.4%	36.2%	10.4%	15.0%	4.1%	7.9%	7.9%	2.1%	100.0%	3562.434*** (df=7)
	2,385명	5,264명	1,518명	2,185명	590명	1,149명	1,146명	312명	14,549명	
교직원	21.7%	25.6%	3.6%	4.4%	9.3%	8.5%	25.5%	1.4%	100.0%	
	877명	1,035명	147명	178명	378명	343명	1,034명	58명	4,050명	
학부모	14.4%	40.3%	13.1%	19.1%	2.0%	7.7%	1.1%	2.3%	100.0%	
	1,508명	4,229명	1,371명	2,007명	212명	806명	112명	254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32.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28%),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9.5%), 해당 없음(9%),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8.8%),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영(5.8%),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3.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34.8%),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9.8%),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16%),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8.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6.6%),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5.6%),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5%), 해당 없음(4.1%)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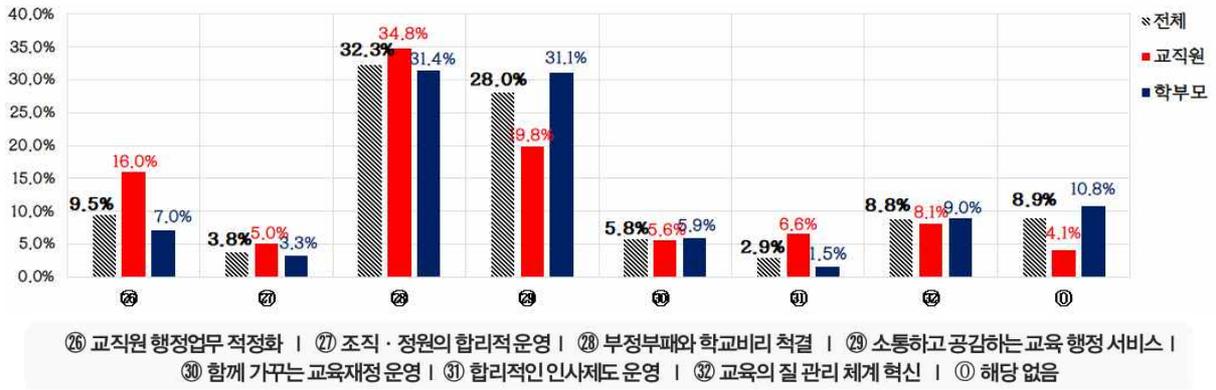
학부모는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31.4%),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1.1%), 해당 없음(10.8%),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9%),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7%),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5.9%),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3.3%),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1.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이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31.3%, 교직원 34.9%, 남자 28.1%, 여자 33.1%, 초등학교 33.4%, 중학교 30.5%, 고등학교 29.6%, 시 지역 32.6%, 군 지역 30.4%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정책과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였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31.1%, 교직원 19.8%, 남자 28.1%, 여자 33.1%, 초등학교 28.1%, 중학교 27.7%, 고등학교 28.4%, 시 지역 28.1%, 군 지역 27.4%로 나타났다.

<그림 74>, <표 112>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관련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 설문결과



	26	27	28	29	30	31	32	33	전체	χ^2
전체	9.5%	3.8%	32.3%	28.0%	5.8%	2.9%	8.8%	8.9%	100.0%	832.346*** (df=7)
	1,377명	546명	4,704명	4,069명	845명	427명	1,275명	1,306명	14,549명	
교직원	16.0%	5.0%	34.8%	19.8%	5.6%	6.6%	8.1%	4.1%	100.0%	
	647명	204명	1,411명	800명	225명	268명	328명	167명	4,050명	
학부모	7.0%	3.3%	31.4%	31.1%	5.9%	1.5%	9.0%	10.8%	100.0%	
	730명	342명	3,293명	3,269명	620명	159명	947명	1,139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질문> 귀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0.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19.7%),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19.3%),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16.1%),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4.1%),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영(4.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3.8%), 해당 없음(2%)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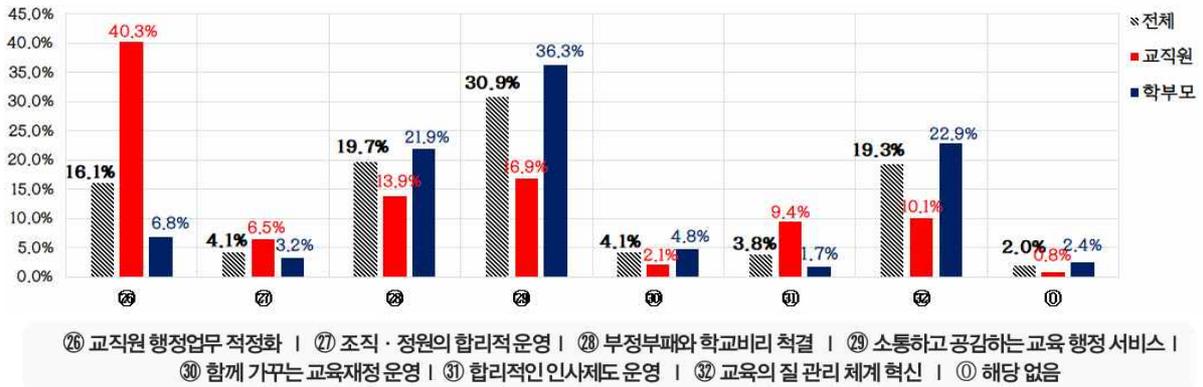
교직원은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0.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6.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13.9%),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10.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9.4%),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6.5%),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2.1%), 해당 없음(0.9%)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6.3%),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22.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21.9%),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6.8%),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4.8%),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3.2%),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2.5%), 해당 없음(1.7%)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직원을 제외한 그룹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학부모 36.3%, 남자 25.1%, 여자 32%, 초등학교 32.3%, 중학교 28.8%, 고등학교 27%, 시 지역 31.3%, 군 지역 28.2%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교직원은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에서 40.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75>, <표 113>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설문결과



	26	27	28	29	30	31	32	①	전체	χ^2
전체	16.1%	4.1%	19.7%	30.9%	4.1%	3.8%	19.3%	2.0%	100.0%	3347.838*** (df=7)
	2,342명	599명	2,860명	4,492명	593명	560명	2,809명	294명	14,549명	
교직원	40.3%	6.5%	13.9%	16.9%	2.1%	9.4%	10.1%	0.8%	100.0%	
	1,631명	263명	562명	684명	86명	380명	408명	36명	4,050명	
학부모	6.8%	3.2%	21.9%	36.3%	4.8%	1.7%	22.9%	2.4%	100.0%	
	711명	336명	2,298명	3,808명	507명	180명	2,401명	258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주제 4.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요약

<설문 조사 결과>

-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61%, 학부모 54%, 학생 27.9%).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 교직원의 경우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30.4%)을, 학부모의 경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43.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37.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학생의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다양한 수업 방법 시도(3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보장(41.4%)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경남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직원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23.1%)을, 학부모의 경우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28.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경남학생의 진학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직원, 학부모 모두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29.3%, 학부모 32.1%).
-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직원, 학부모 모두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43%, 학부모 42.4%).
-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직원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34.6%)를, 학부모의 경우 학생인권·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27.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토론회 확산(39.6%)를, 학부모의 경우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33.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는 교직원의 경우 정밀 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37.4%)를, 학부모의 경우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3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50.8%, 학부모 54.9%).
-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으로는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교직원 34.8%, 학부모 33.1%).
-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6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교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교장·교감 승진제도(3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교원 외 직원에 한하여 설문한 결과, 공무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공정한 보직관리 제도 운영(63.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질문> 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성교육(46.8%), 진로교육(14.4%), 창의성교육(10.9%), 특기적성교육(8.1%), 소프트웨어 활용교육(4.8%), 성교육(4.8%), 안전교육(2.8%), 세계시민교육(2.6%), 생태환경교육(1.3%), 수학교육(1%), 기타(0.9%), 통일교육(0.8%), 과학교육(0.7%)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인성교육(61%), 창의성교육(10.6%), 진로교육(9.4%), 세계시민교육(6.5%), 소프트웨어 활용교육(3.2%), 특기적성교육(2.6%), 생태환경교육(2.0%), 수학교육(1.1%), 성교육(1%), 안전교육(1.0%), 기타(0.6%), 통일교육(0.5%), 과학교육(0.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인성교육(54%), 창의성교육(13.5%), 진로교육(10.8%), 특기적성교육(8.6%), 소프트웨어 활용교육(4%), 성교육(2.9%), 세계시민교육(2.3%), 생태환경교육(1.1%), 안전교육(1.5%), 수학교육(0.5%), 과학교육(0.4%), 통일교육(0.3%),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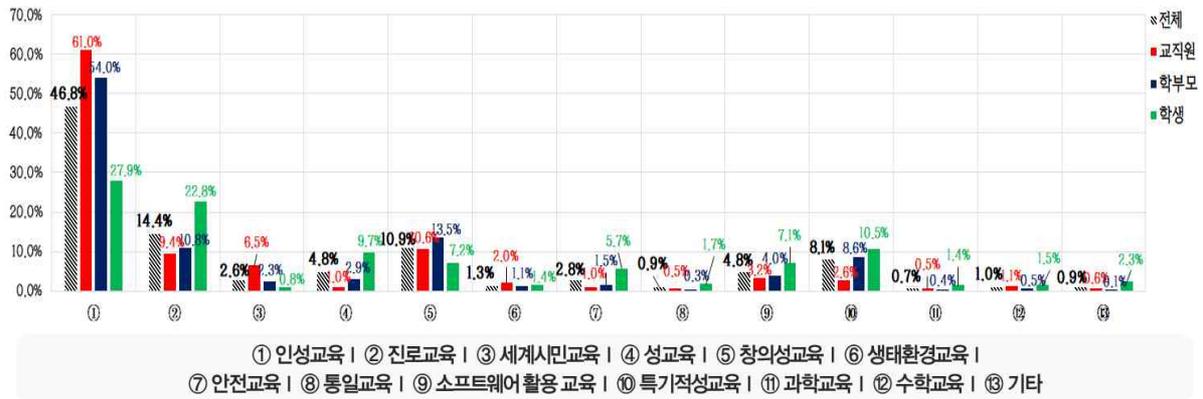
학생은 인성교육(27.9%), 진로교육(22.8%), 특기적성교육(10.5%), 소프트웨어 활용교육(7.1%), 성교육(9.7%), 창의성교육(7.2%), 안전교육(5.7%), 기타(2.3%), 통일교육(1.7%), 수학교육(1.5%), 생태환경교육(1.4%), 과학교육(1.4%), 세계시민교육(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에 가장 확대해야 할 교육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들이 인성교육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생 27.8%, 학부모 54%, 교직원 61.2%, 남자 41.8%, 여자 48.5%, 초등학교 50.8%, 중학교 40.3%, 고등학교 42.8%, 시 지역 46.9%, 군 지역 46.1%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민주주의 사회에 따른 인성교육과 인권교육(41%), 발명 및 예체능 교육(25%)을, 학부모는 역사 및 인문학교육(57.1%), 보기 항목 전부 해당(25%)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학생은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및 성교육(36.8%), 자기계발에 관한 교육(23.7%)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76>, <표 114> '미래사회 대비 가장 필요한 교육'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46.8%	14.4%	2.6%	4.8%	10.9%	1.3%	2.8%
	10,105명	3,117명	567명	1,030명	2,356명	291명	597명
교직원	61.0%	9.4%	6.5%	1.0%	10.6%	2.0%	1.0%
	2,472명	380명	262명	42명	429명	81명	42명
학부모	54.0%	10.8%	2.3%	2.9%	13.5%	1.1%	1.5%
	5,668명	1,131명	242명	305명	1,417명	114명	154명
학생	27.9%	22.8%	0.8%	9.7%	7.2%	1.4%	5.7%
	1,965명	1,606명	63명	683명	510명	96명	401명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χ^2
전체	0.9%	4.8%	8.1%	0.8%	1.0%	0.9%	100.0%	
	169명	1,045명	1,751명	160명	206명	205명	21,599명	
교직원	0.5%	3.2%	2.6%	0.5%	1.1%	0.6%	100.0%	3443.816*** (df=24)
	19명	130명	104명	19명	46명	24명	4,050명	
학부모	0.3%	4.0%	8.6%	0.4%	0.5%	0.1%	100.0%	
	30명	416명	907명	41명	53명	21명	10,499명	
학생	1.7%	7.1%	10.5%	1.4%	1.5%	2.3%	100.0%	
	120명	499명	740명	100명	107명	160명	7,050명	

*p<0.05, **p<0.01, ***p<0.001

<표 115> '미래사회 대비 가장 필요한 교육'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민주주의 사회에 따른 인성교육과 인권교육	13건	41%
	발명 및 예체능 교육	8건	25%
	독서 교육	6건	19%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5건	16%
학부모	역사 및 인문학교육	16건	57.1%
	보기항목 전부 해당	7건	25%
	예체능 교육	3건	10.7%
	외국어 교육	2건	7.1%
학생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및 성교육	14건	36.8%
	자기개발에 관한 교육	9건	23.7%
	예체능 교육	8건	21.1%
	4차산업혁명에따른교육	3건	7.9%

	다문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2건	5.3%
	미디어 매체교육	2건	5.3%

<질문>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33.2%),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24.6%),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20.9%), 교사의 전문성 강화(14.3%),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5.8%), 기타(1.1%)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30.4%),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26.3%),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18%), 교사의 전문성 강화(17.3%),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6.6%), 기타(1.4%)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43.7%),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21.9%), 교사의 전문성 강화(16.3%),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11%),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6.8%),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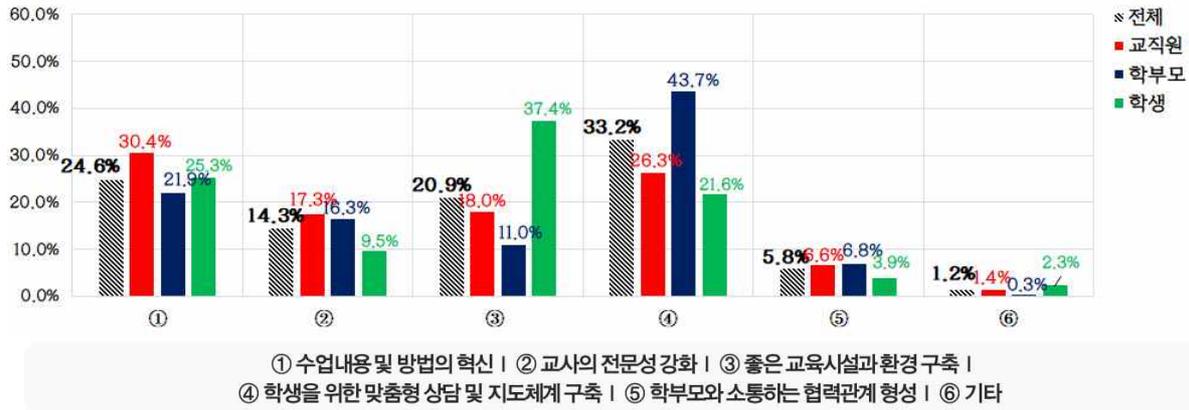
학생은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37.4%),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25.3%),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21.6%), 교사의 전문성 강화(9.5%),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3.9%), 기타(2.3%)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에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 교직원, 남자를 제외한 그룹들이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43.7%, 여자 37.1%, 초등학교 33.9%, 중학교 30.5%, 고등학교 37.2%, 시 지역 34%, 28.6%로 나타났다. 학생과 남자는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에서 각각 37.4%와 30.6%를, 교직원은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에서 30.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학부모-학생-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31.7%), 교권보호와 강화 및 업무 경감(24.4%)을, 학부모는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인성교육(29.3%), 교사의 인성교육 및 역량 강화(24.4%),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24.4%)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학생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68.3%), 교사의 역량강화 및 학생과의 소통(12.2%), 예체능 교육(12.2%)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77>, <표 116> '미래사회 대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전체	24.6%	14.3%	20.9%	33.2%	5.8%	1.2%	100.0%	
	5,308명	3,090명	4,518명	7,181명	1,255명	247명	21,599명	
교직원	30.4%	17.3%	18.0%	26.3%	6.6%	1.4%	100.0%	2597.492*** (df=10)
	1,232명	701명	731명	1,065명	266명	55명	4,050명	
학부모	21.9%	16.3%	11.0%	43.7%	6.8%	0.3%	100.0%	
	2,295명	1,716명	1,152명	4,593명	714명	29명	10,499명	
학생	25.3%	9.5%	37.4%	21.6%	3.9%	2.3%	100.0%	
	1,781명	673명	2,635명	1,523명	275명	163명	7,050명	

*p<0.05, **p<0.01, ***p<0.001

<표 117> '미래사회 대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학부모-학생-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26건	31.7%
	교권보호와 강화 및 업무 경감	20건	24.4%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7건	8.5%
	교육정책개선	7건	8.5%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소통	6건	7.3%
	평가방법 개선	5건	6.1%
	기초와 기본교육 강화	4건	4.9%
	학급당 학생 수 감축	4건	4.9%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성을 찾아주는 기회 제공	2건	2.4%
	학교폭력 처벌 강화	1건	1.2%
학부모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인성교육	12건	29.3%
	교사의 인성교육 및 역량 강화	10건	24.4%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10건	24.4%
	교육정책의 안정화	6건	14.6%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	2건	4.9%
	범죄예방 및 안전교육	1건	2.4%
학생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28건	68.3%
	교사의 역량강화 및 학생과의 소통	5건	12.2%
	예체능교육	5건	12.2%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교육 감소	1건	2.4%
	올바른 성교육프로그램	1건	2.4%
	자기계발 프로그램	1건	2.4%

<질문> 귀하는 학생의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다양한 수업 방법 시도(32.9%),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로 학생평가 방법 개선(18.9%), 지역 자연·문화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14.6%), 단위학교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14.4%), 교육과정 동아리활동 강화(10%), 배움중심수업 연구회 공모 및 지원(4.1%), 수업 나눔의 날, 배움중심수업축제 운영(3.9%), 기타(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업무경감에 따른 자율성 확보(48.8%), 교육정책 및 주변생활환경 개선(18.8%),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및 학습욕구(17.5%)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78>, <표 118>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교직원	10.0%	32.9%	14.6%	4.1%	14.4%	3.9%	18.9%	1.2%	100.0%
	404명	1,332명	592명	165명	583명	159명	767명	48명	4,050명

<표 119>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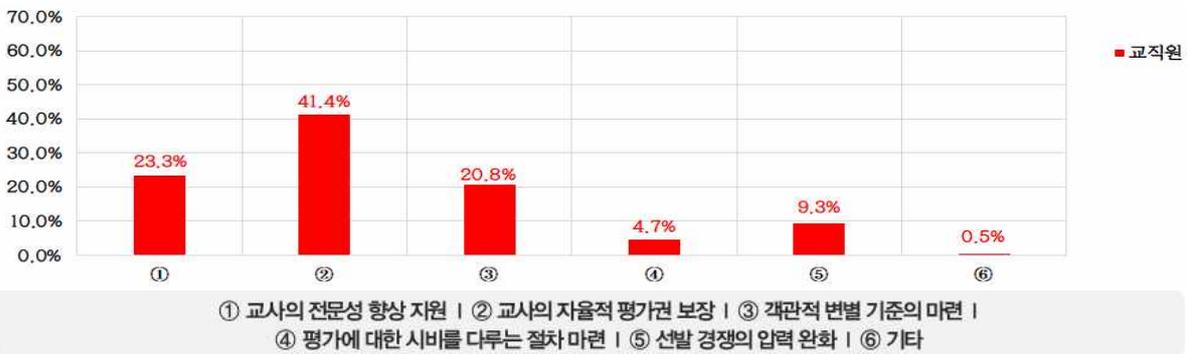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업무경감에 따른 자율성 확보	39건	48.8%
	교육정책 및 주변생활환경 개선	15건	18.8%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교육 강화 및 학습욕구	14건	17.5%
	학급당 학생 수 감축	8건	10%
	관리자의 교사에 대한 신뢰와 지원	4건	5%

<질문> 귀하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보장(41.4%),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23.3%), 객관적 변별 기준의 마련(20.8%), 선발 경쟁의 압력 완화(9.3%), 평가에 대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 마련(4.7%), 기타(0.6%)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육정책 및 대입제도 개선(44.2%), 교사의 자질검정 및 업무경감(37.2%), 학급당 학생 수 감축(16.3%)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79>, <표 120> '과정 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교직원	23.3%	41.4%	20.8%	4.7%	9.3%	0.5%	100.0%
	943명	1,676명	841명	190명	375명	25명	4,050명

<표 121> '과정 중심 수시평가 지원 정책'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육정책 및 대입제도 개선	19건	44.2%
	교사의 자질검정 및 업무경감	16건	37.2%
	학급당 학생 수 감축	7건	16.3%
	교사와 학생의 인성교육	1건	2.3%

<질문> 귀하는 경남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24.2%),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22.7%),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18.9%),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15.2%),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7.3%),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6%), 자유학기제 활성화(5.4%),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23.1%),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21.6%),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16.7%),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13.7%),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12.9%), 자유학기제 활성화(6.4%),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 (5.1%),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28.2%),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23.2%),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19.7%),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12.2%),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 (6.3%),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5.1%), 자유학기제 활성화(5%),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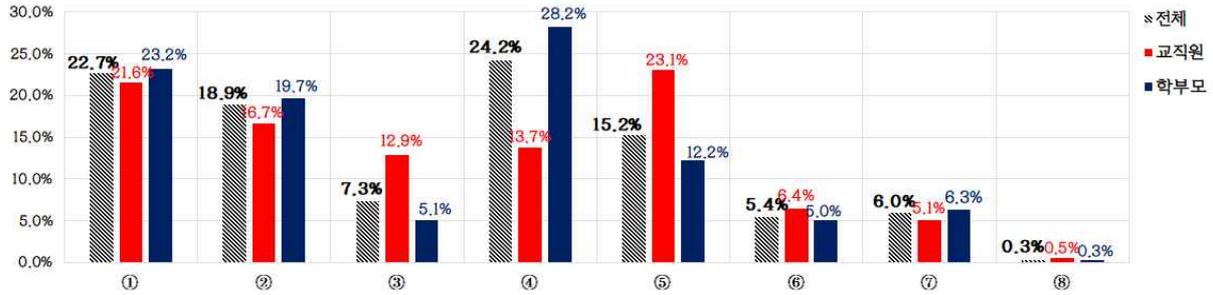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성별(남·여), 학교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직원, 남자, 군 지역을 제외한 그룹들이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28.2%, 여자 24.8%, 초등학교 24.6%, 중학교 23.1%, 고등학교 24%, 시 지역 24.8%로 나타났다. 교직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서 23.1%를, 남자와 군 지역은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에서 각각 21.5%, 22.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개개인에 맞는 실질적인 진로 직업 체험활동 기회 보장(34.5%), 진로 교사의 역량 강화(24.1%)을, 학부모는 기초 역량 강화(52.6%), 진로 상담교사 폐지 및 체계적인 진로교육(26.3%)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0>, <표 122>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지원 | ②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 | ③ 교원·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④ 학생 적성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 | ⑤ 지자체·공공기관·사업장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⑥ 자유학기제 활성화 | ⑦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 | ⑧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χ^2
전체	22.7%	18.9%	7.3%	24.2%	15.2%	5.4%	6.0%	0.3%	100.0%	768.132*** (df=7)
	3,309명	2,743명	1,058명	3,516명	2,216명	781명	871명	55명	14,549명	
교직원	21.6%	16.7%	12.9%	13.7%	23.1%	6.4%	5.1%	0.5%	100.0%	
	876명	676명	523명	554명	937명	259명	206명	19명	4,050명	
학부모	23.2%	19.7%	5.1%	28.2%	12.2%	5.0%	6.3%	0.3%	100.0%	
	2,433명	2,067명	535명	2,962명	1,279명	522명	665명	36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23>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개개인에 맞는 실질적인 진로 직업 체험활동 기회 보장	10건	34.5%
	진로 교사의 역량 강화	7건	24.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학습량 감소시켜 활동시간 확보	6건	20.7%
	학교 문화와 환경변화 유도	4건	13.8%
	입시제도 변화	2건	6.9%
학부모	기초 역량 강화	20건	52.6%
	진로상담교사 폐지 및 체계적인 진로교육	10건	26.3%
	자유학기제 폐지	5건	13.2%
	교원 역량 강화	2건	5.3%
	정서적 공감	1건	2.6%

<질문> 귀하는 **경남학생의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학생의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31.3%),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26%),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19.6%), 진학전문가 육성 및 대학 진학전문위원단 운영(12%), 다양한 대입전형을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6.1%),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 T/F팀 구성·운영(4.5%),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29.3%),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24.9%),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22%), 진학전문가 육성 및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12%),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 T/F팀 구성·운영(6.4%), 다양한 대입전형을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4.9%),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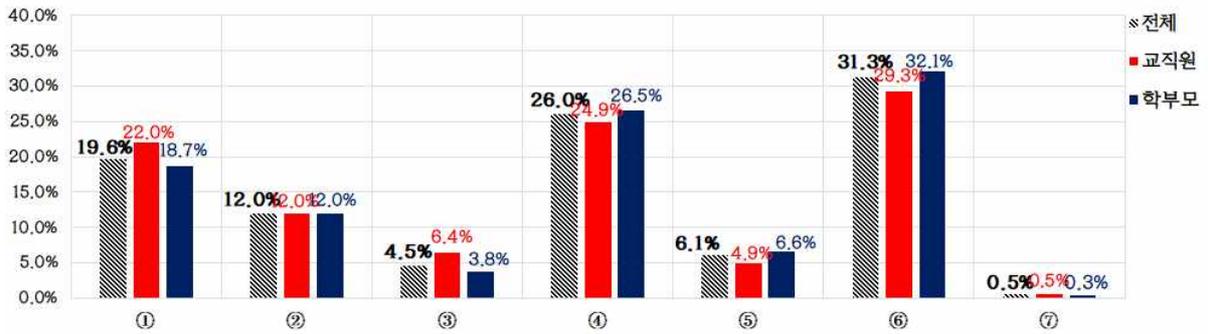
학부모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32.1%),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26.5%),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18.7%), 진학전문가 육성 및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12%), 다양한 대입전형을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6.6%),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 T/F팀 구성·운영(3.8%),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 3주체(교직원·학부모·학생)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를 제외한 그룹들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32.1%, 교직원 29.3%, 남자 28.6%, 여자 31.9%, 초등학교 34%, 고등학교 29.4%, 시 지역 31.5%, 군 지역 30.4%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에서 32.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입시정책 개선(32.4%), 학생의 진로체험과 직업 교육 강화 및 학부모 교육(29.4%)을, 학부모는 다양성 존중 및 진로 체험 교육 확대(62.2%), 평등한 정보제공 및 소통을 통한 정책 개선(18.9%)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1>, <표 124> '경남학생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 ② 진학전문가육성 및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③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T/팀 구성·운영 | ④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 ⑤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 | ⑥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 ⑦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전체	19.6%	12.0%	4.5%	26.0%	6.1%	31.3%	0.5%	100.0%	85.938*** (df=6)
	2,854명	1,742명	657명	3,790명	889명	4,560명	57명	14,549명	
교직원	22.0%	12.0%	6.4%	24.9%	4.9%	29.3%	0.5%	100.0%	
	891명	485명	260명	1,010명	198명	1,187명	19명	4,050명	
학부모	18.7%	12.0%	3.8%	26.5%	6.6%	32.1%	0.3%	100.0%	
	1,963명	1,257명	397명	2,780명	691명	3,373명	38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25> '경남학생 진학지원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입시정책 개선	11건	32.4%
	학생의 진로체험과 직업교육 강화 및 학부모 교육	10건	29.4%
	학교의 자율성 부과	6건	17.6%
	진로지도 담당 교사제도 폐지	4건	11.8%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지원	3건	8.8%
학부모	다양성 존중 및 진로 체험 교육 확대	23건	62.2%
	평등한 정보제공 및 소통을 통한 정책 개선	7건	18.9%
	교사 역량 강화	6건	16.2%
	특수학교 지원 강화	1건	2.7%

<질문> 귀하는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42.6%),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34.6%),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11.5%),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10.8%),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43%),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41.2%),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7.4%),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7.1%), 기타(1.2%)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42.4%),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32%),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13%),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12.3%),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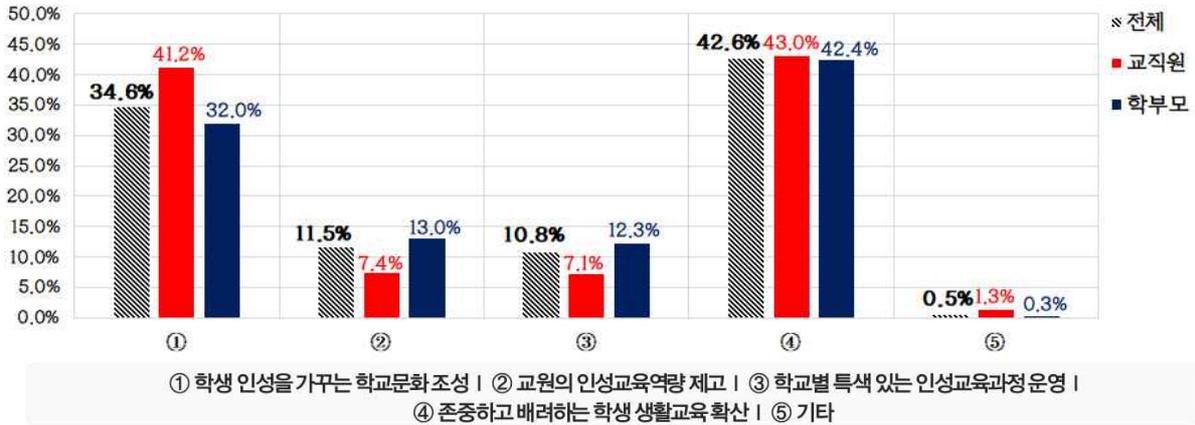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를 제외한 그룹들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42.4%, 교직원 43%, 여자 43.2%, 초등학교 42.4%, 중학교 43.3%, 고등학교 42.2%, 시 지역 42.7%, 군 지역 41.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보기 문항은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32.1%, 교직원 41.2%, 여자 33.3%, 초등학교 35.3%, 중학교 32.7%, 고등학교 33.9%, 시 지역 34.3%, 군 지역 36.5%로 나타났다.

남자는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에서 41.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에서 39.2%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학부모의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감(49.4%), 학교폭력 처벌 강화(25.9%)을, 학부모는 교사와 학생 간 서로 존중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50%), 가정에서 지속적인 인성교육 실시(20.5%)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2>, <표 126> '경남학생의 인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전체	34.6% 5,030명	11.5% 1,667명	10.8% 1,577명	42.6% 6,195명	0.5% 80명	100.0% 14,549명	268.972*** (df=4)
교직원	41.2% 1,667명	7.4% 301명	7.1% 289명	43.0% 1,743명	1.3% 50명	100.0% 4,050명	
학부모	32.0% 3,363명	13.0% 1,366명	12.3% 1,288명	42.4% 4,452명	0.3% 30명	100.0% 10,499명	
학생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27> '경남학생의 인성 함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학부모의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감	40건	49.4%
	학교폭력 처벌 강화	21건	25.9%
	교사의 인성교육 및 교권강화와 자율성 확대	15건	18.5%
	교사와 학생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 형성	5건	6.2%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 서로 존중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	22건	50%
	가정에서 지속적인 인성교육 실시	9건	20.5%
	사회성 및 인권 교육 실시	4건	9.1%
	가해학생 처벌 강화	4건	9.1%
	교사 역량 및 교권 강화	3건	6.8%
	독서교육 강화	2건	4.5%

<질문> 귀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학생인권·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24.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21.8%), 학생자치활동 강화(20.2%), 인권교육 강화(18.3%),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14.8%),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34.6%),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24.1%), 학생인권·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15.3%), 학생자치활동 강화(13.4%), 인권교육 강화(11.7%), 기타(0.9%)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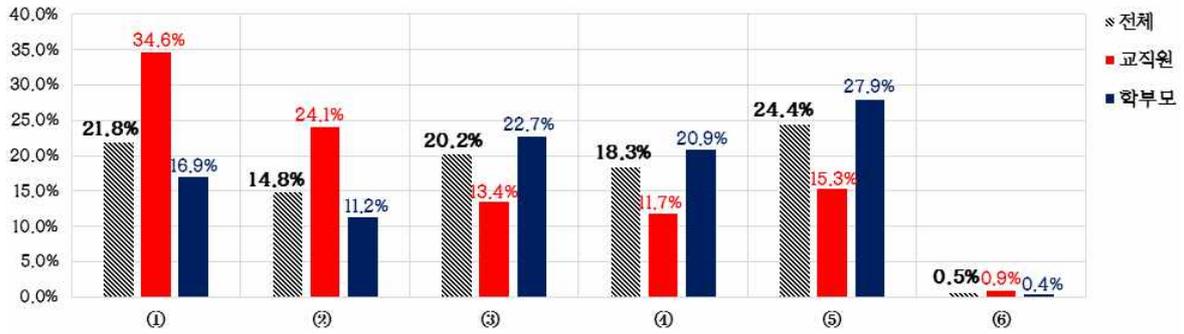
학부모는 학생인권·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27.9%), 학생자치활동 강화(22.7%), 인권교육 강화(20.9%), 민주시민교육 활성화(16.9%),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11.2%),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직원, 남자, 군 지역을 제외한 그룹이 학생인권·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27.8%, 여자 26.1%, 초등학교 24%, 중학교 25.9%, 고등학교 23.8%, 시 지역 25.2%로 나타났다. 교직원과 남자, 군 지역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서 각각 34.5%, 28.9%, 27.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관리자의 인식 개선(42.9%), 교직원문화의 민주화 선행(33.3%)을, 학부모는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58.2%), 학교 규정 및 교육정책 개선(18.2%)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3>, <표 128>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②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 | ③ 학생자치활동 강화 | ④ 인권교육 강화 | ⑤ 학생인권·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 ⑥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전체	21.8%	14.8%	20.2%	18.3%	24.4%	0.5%	100.0%	1204.968*** (df=5)
	3,176명	2,154명	2,932명	2,666명	3,545명	76명	14,549명	
교직원	34.6%	24.1%	13.4%	11.7%	15.3%	0.9%	100.0%	
	1,401명	975명	544명	474명	621명	35명	4,050명	
학부모	16.9%	11.2%	22.7%	20.9%	27.9%	0.4%	100.0%	
	1,775명	1,179명	2,388명	2,192명	2,924명	41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29>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관리자의 인식 개선	27건	42.9%
	교직원회의 민주화 선행	21건	33.3%
	지나친 학생인권 보호 개선 및 교권 보호	10건	15.9%
	인성교육 강화	5건	7.9%
학부모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32건	58.2%
	학교 규정 및 교육정책 개선	10건	18.2%
	교권 강화 및 교사 역량 강화	9건	16.4%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 제한	2건	3.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2건	3.6%

<질문> 귀하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32%),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30.4%),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14.5%), 시·군 등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12.6%), 교직원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5.6%),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4.7%),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39.6%),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22.2%), 시·군 등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11.5%),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9.6%),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9.4%), 교직원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7.2%),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33.6%),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29.1%),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16.4%), 시·군 등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13%), 교직원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4.9%),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2.8%),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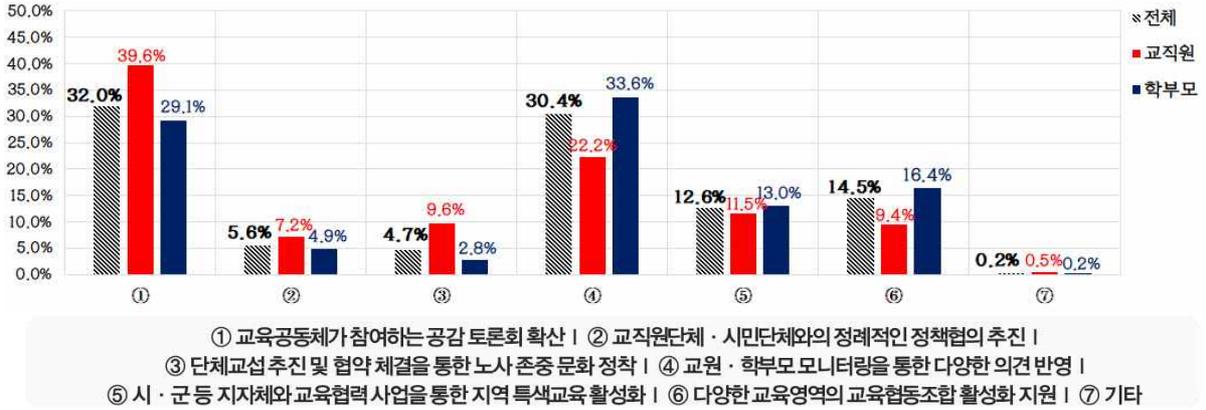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확대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부모, 여자, 초등학교를 제외한 그룹들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교직원 39.8%, 남자 37.6%, 중학교 34.8%, 고등학교 36.2%, 시 지역 31.7%, 군 지역 34.5%로 나타났다. 학부모, 여자, 초등학교는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에서 각각 33.5%, 31.7%, 33.1%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원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58%), 교육정책 개선(19%)을, 학부모는 학부모-학생-학교 간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 확산(76.2%), 중립적 시선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 재정립(19%)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4>, <표 130>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전체	32.0%	5.6%	4.7%	30.4%	12.6%	14.5%	0.2%	100.0%	655.284*** (df=6)
	4,661명	808명	685명	4,423명	1,829명	2,106명	37명	14,549명	
교직원	39.6%	7.2%	9.6%	22.2%	11.5%	9.4%	0.5%	100.0%	
	1,605명	290명	388명	900명	467명	379명	21명	4,050명	
학부모	29.1%	4.9%	2.8%	33.6%	13.0%	16.4%	0.2%	100.0%	
	3,056명	518명	297명	3,523명	1,362명	1,727명	16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31>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원 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	21건	58%
	교육정책 개선	7건	19%
	관리자의 의식개선	5건	14%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2건	6%
	교원평가제도 폐지	1건	3%
학부모	학부모-학생-학교간의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 확산	16건	76.2%
	중립적 시선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 재정립	4건	19%
	인성교육과 직접 참여하는 활동 수업 지원	1건	4.8%

<질문> 귀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

에서 전체적으로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33.6%),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29.1%),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16.4%), 시·군 등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13%), 교직원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4.9%),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2.8%), 기타(0.2%)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37.4%),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31.5%),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14.9%),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8.2%),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 관리(7.3%), 기타(0.7%)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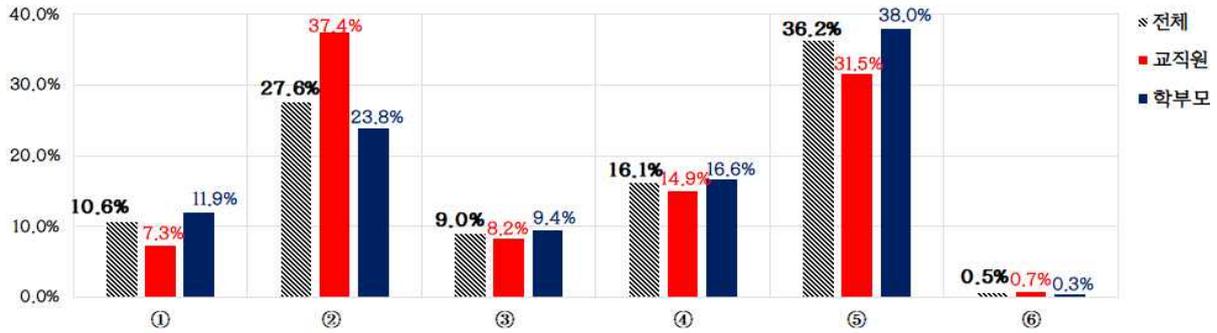
학부모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38%),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23.8%),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16.6%),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 관리(11.9%),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9.4%), 기타(0.4%)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들은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38%, 교직원 31.5%, 남자 41.7%, 여자 35.2%, 초등학교 234.6%, 중학교 40.3%, 고등학교 37.5%, 시 지역 35.7%, 군 지역 39.7%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구축(35.7%), 지속적인 안전지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26.2%), 환경문제에 대한 학교별 지원(26.2%)을, 학부모는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 및 사각지대와 주변 환경 개선(81.1%),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18.9%)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5>, <표 13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관리 | ②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 ③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유해시설관리 | ④ 미세먼지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개선 | ⑤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 ⑥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전체	10.6% 1,544명	27.6% 4,011명	9.0% 1,316명	16.1% 2,347명	36.2% 5,262명	0.5% 69명	100.0% 14,549명	302.094*** (df=5)
교직원	7.3% 297명	37.4% 1,515명	8.2% 333명	14.9% 604명	31.5% 1,274명	0.7% 27명	100.0% 4,050명	
학부모	11.9% 1,247명	23.8% 2,496명	9.4% 983명	16.6% 1,743명	38.0% 3,988명	0.3% 42명	100.0% 10,499명	
학생	-	-	-	-	-	-	-	

*p<0.05, **p<0.01, ***p<0.001

<표 13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환경문제에 대한 학교별 지원	11건	26.2%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구축	15건	35.7%
	지속적인 안전지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11건	26.2%
	가정에서의 지도	5건	11.9%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시설 및 사각지대와 주변 환경 개선	43건	81.1%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10건	18.9%

<질문>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로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53.8%),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19.4%),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12.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7.5%), 처벌 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교육방법 전환(6.7%), 기타(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50.8%),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20.2%), 처벌 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교육방법 전환(10.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9.9%),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7.3%), 기타(1.1%)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는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54.9%),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19.1%),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13.9%),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6.6%), 처벌 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교육방법 전환(5.2%), 기타(0.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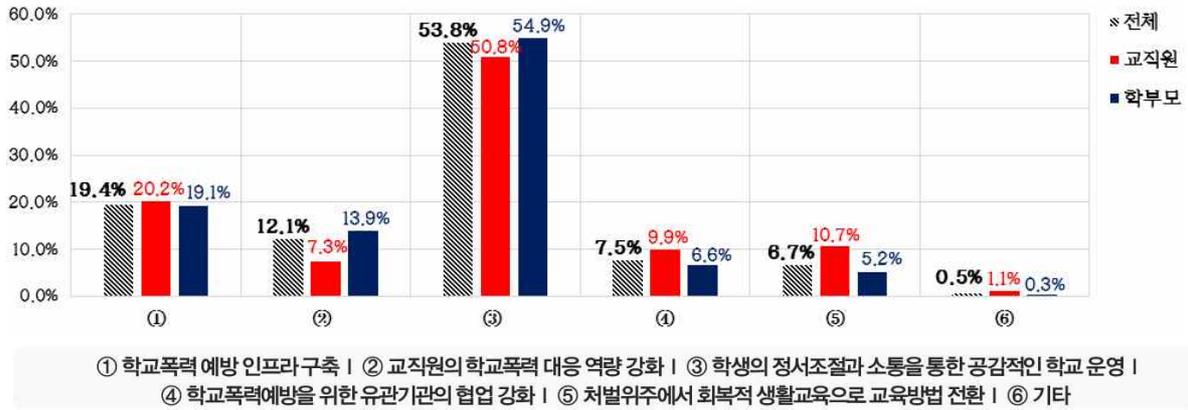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 조성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들은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54.9%, 교직원 50.7%, 남자 44.1%, 여자 55.6%, 초등학교 53.4%, 중학교 55.1%, 고등학교 53.2%, 시 지역 53.4%, 군 지역 56.4%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19.1%, 교직원 20.1%, 남자 24.4%, 여자 18.4%, 초등학교 19.4%, 중학교 19%, 고등학교 20.3%, 시 지역 19.7%, 군 지역 17.1%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50%),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23%)을, 학부모는 교권강화와 가해학생 처벌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63.2%), 공감교육 및 교원 역량 강화(31.6%)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6>, <표 134> ‘폭력 없는 공감학교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전체	19.4%	12.1%	53.8%	7.5%	6.7%	0.5%	100.0%	333.222*** (df=5)
	2,822명	1,759명	7,824명	1,091명	979명	74명	14,549명	
교직원	20.2%	7.3%	50.8%	9.9%	10.7%	1.1%	100.0%	
	817명	295명	2,058명	402명	433명	45명	4,050명	
학부모	19.1%	13.9%	54.9%	6.6%	5.2%	0.3%	100.0%	
	2,005명	1,464명	5,766명	689명	546명	29명	10,499명	
학생	-	-	-	-	-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35> ‘폭력 없는 공감학교 조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	37건	50%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17건	23%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8건	10.8%
	교권강화 및 주변 환경 개선	7건	9.5%
	전문 상담 또는 심리치료 인력 추가 지원	5건	6.8%
학부모	교권강화와 가해학생 처벌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24건	63.2%
	공감교육 및 교원 역량 강화	12건	31.6%
	부모와 함께 들을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필요	2건	5.3%

<질문> 귀하는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33.3%),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24.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11.5%),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8.9%),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8.7%), 교직원 복지 지원(7.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5.3%), 기타(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은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34%), 교직원 복지 지원(22.5%),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13.1%),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11.3%),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6.7%),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6.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5.1%), 기타(1%)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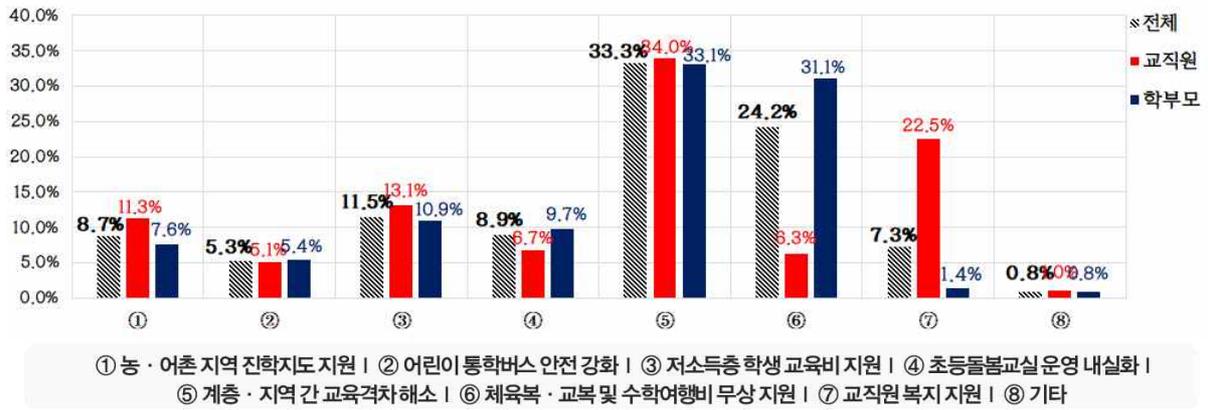
학부모는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33.1%),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31.1%),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10.9%),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9.7%),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7.6%),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5.4%), 교직원 복지 지원(1.4%), 기타(0.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관련성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는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2주체(교직원·학부모), 성별(남·여), 학교 급별(초·중·고), 지역별(시·군 지역)로 각각 교차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그룹들은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부모 33.1%, 교직원 34%, 남자 32.3%, 여자 33.5%, 초등학교 32.2%, 중학교 35%, 고등학교 36.5%, 시 지역 33.8%, 군 지역 30.7%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학교생활 및 환경 시설 지원(55.6%), 교육 복지 대상 철저히 확인 및 교육 관련 지원 강화(27.8%)을, 학부모는 무상 급식 및 학습 준비물 지원(34.3%), 교육환경 개선(30.5%)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7>, <표 136>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χ^2
전체	8.7% 1,261명	5.3% 770명	11.5% 1,671명	8.9% 1,290명	33.3% 4,849명	24.2% 3,522명	7.3% 1,056명	0.8% 130명	100.0% 14,549명	2624.115*** (df=7)
교직원	11.3% 458명	5.1% 208명	13.1% 530명	6.7% 273명	34.0% 1,375명	6.3% 256명	22.5% 911명	1.0% 39명	100.0% 4,050명	
학부모	7.6% 803명	5.4% 562명	10.9% 1,141명	9.7% 1,017명	33.1% 3,474명	31.1% 3,266명	1.4% 145명	0.8% 91명	100.0% 10,499명	
학생	-	-	-	-	-	-	-	-	-	

*p<0.05, **p<0.01, ***p<0.001

<표 137>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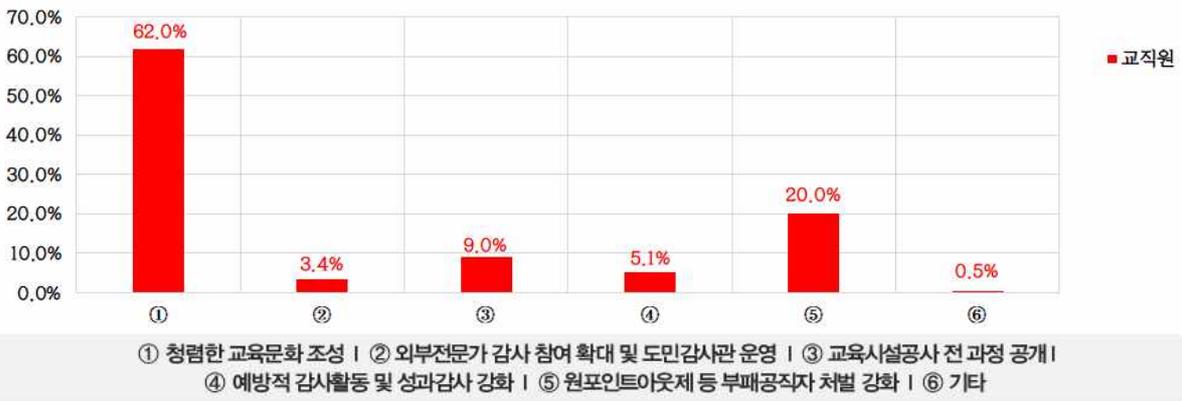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학교생활 및 환경 시설 지원	30건	55.6%
	교육 복지 대상 철저히 확인 및 교육 관련 지원 강화	15건	27.8%
	의식 개선을 위한 지원	6건	11.1%
	교사 인력 보충	3건	5.6%
학부모	무상 급식 및 학습 준비물 지원	36건	34.3%
	교육환경 개선	32건	30.5%
	사교육 절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22건	21%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	13건	12.4%
	고등학교 의무 교육제도 시행	2건	1.9%

<질문>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교직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62%), 원포인트아웃제 등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20%), 교육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9%),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5.1%),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및 도민감사관 운영(3.4%), 기타(0.6%)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고위 관직들의 사명감 고취 및 전문성 교육 강화(52.8%), 의사결정 전 과정 공개 및 인사비리 실질적 감사(19.4%)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8>, <표 138>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교직원	62.0%	3.4%	9.0%	5.1%	20.0%	0.5%	100.0%
	2,511명	136명	366명	206명	808명	23명	4,050명

<표 13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고위 관직들의 사명감 고취 및 전문성 교육 강화	19건	52.8%
	의사결정 전 과정 공개 및 인사비리 실질적 감사	7건	19.4%
	불필요한 사업 및 정책 지양	6건	16.7%
	내부 고발자 포상 및 개인 신상 보호	3건	8.3%
	기간제 및 시간강사 고용 시 투명화	1건	2.8%

<질문>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교직원 중 교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원은 교장·교감 승진제도 개선(32%), 교원인사이동 조기 실시 (25.7%), 업무역량 중심 관리자 인사 시행(12.8%), 교원전보 및 파견제도 개선(10.8%), 신규교사 수시 발령 (10%),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개선(4.8%), 교육장공모 실시(1.4%), 기타(1.3%),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 추진(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직원은 교원 인사제도 투명성을 위한 전 과정 공개 (46%), 신규교사 사전 생활지도 연수 기회 제공 및 기존 교사 복지제도 개선(22%)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89>, <표 140>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교직원	25.7%	10.0%	1.4%	10.8%	32.0%	12.8%	1.2%	4.8%	1.3%	100.0%
	919명	358명	50명	387명	1,144명	457명	44명	173명	47명	3,579명

<표 141> ‘교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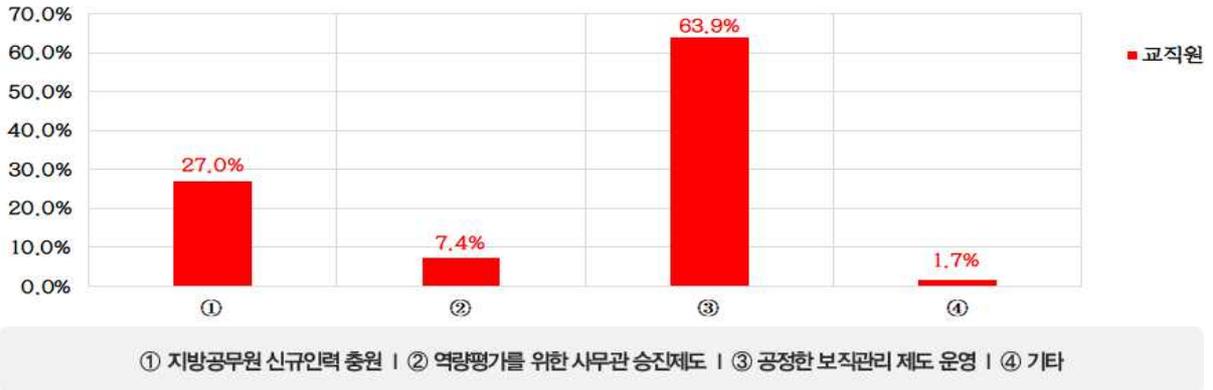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교원 인사제도 투명성을 위한 전 과정 공개	23건	46%
	신규교사 사전 생활지도 연수 기회 제공 및 기존 교사 복지제도 개선	11건	22%
	교장 단임제	8건	16%
	빠른 인사이동 및 승진제도 폐지	5건	10%
	벽지지역 만기 필요	3건	6%

<질문> 공무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교원 외 직원에 한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은 공정한 보직관리 제도 운영(63.9%),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충원(27%), 역량평가를 위한 사무관 승진제도(7.4%), 기타(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로부터 본 문항에서 제시한 보기 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보기를 개설하였다. 기타 의견 중 불성실한 응답(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은 전문직 공개채용 및 소통을 통한 교육 공무직 처우개선(43.8%), 승진제도 개선 및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한 공개(41.7%)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림 90>, <표 142>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설문결과



	①	②	③	④	전체
교직원	27.0%	7.4%	63.9%	1.7%	100.0%
	106명	29명	251명	7명	393명

<표 143>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에 관한 기타의견 결과

	기타의견	빈도	비율
교직원	전문직 공개채용 및 소통을 통한 교육 공무직 처우개선	21건	43.8%
	승진제도 개선 및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한 공개	20건	41.7%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	4건	8.3%
	교장 공모제 폐지 및 교장 단임제	3건	6.3%

<질문> 선생님께서는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직원의 자유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원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31.3%), 교권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필요(13.3%), 교사들이 교육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12.3%),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8.7%) 등의 순으로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자유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사의 인성교육 및 역량과 교권 강화가 필요(13.8%), 학생-학부모-학교-기관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12.4%), 다른 지역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없고 다자녀 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평등하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함(11.3%), 학생의 인권과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노력해야 함(10.9%) 등의 순으로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학생의 자유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과 특성화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12.2%), 직접적으로 참여하여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10.9%), 선생님이 학생에게 헐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교권남용이 사라져야 한다(8.8%),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안전교육과 올바른 생활지도를 해주면 좋겠다(7.2%) 등의 순으로 많은 의견이 나타났다.

<표 144>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자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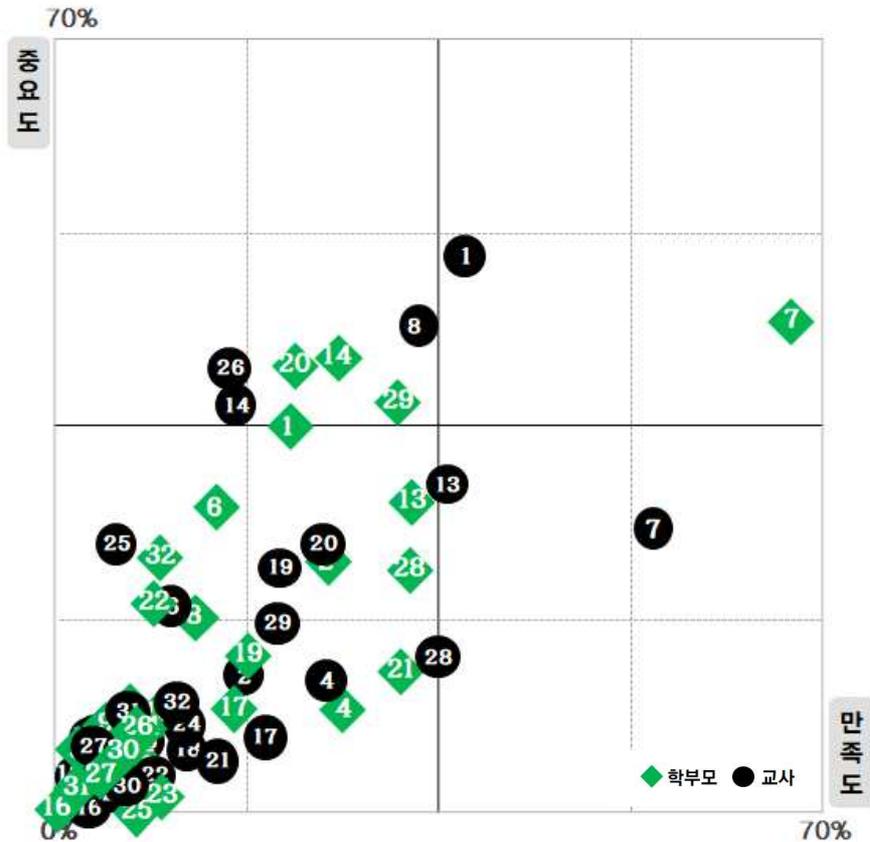
	발전방안	빈도	비율
교직원	교원의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필요	61건	31.3%
	교권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필요	26건	13.3%
	교사들이 교육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24건	12.3%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17건	8.7%
	교원승진제도 개선	14건	7.2%
	보여주기식 정치를 위한 교육정책 반대	13건	6.7%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7건	3.6%
	교원평가, 성과급제도 폐지	6건	3.1%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6건	3.1%
	경남지역마다 민주주의 격차가 심하므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필요	5건	2.6%
	수업의 질을 위해 각 교실 당 학생 인원수 감축 필요	4건	2.1%
	공정한 인사관리제도 필요	3건	1.5%
	교사의 자율성 필요	3건	1.5%
	청소년 학교폭력 발생 시 폭력 가해자학생들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3건	1.5%
	설문문항이 너무 많아 부담됨	2건	1%
초등과 중등의 성격이 다르므로 소속에 따라 문항이 구분될 필요	1건	0.5%	
학부모	교사의 인성교육 및 역량과 교권강화 필요	160건	13.8%
	학생-학부모-학교-기관 간의 소통 필요	144건	12.4%

	다른 지역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없고, 다자녀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자녀에게도 평등하게 복지혜택 필요	131건	11.3%
	학생의 인권과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노력 필요	126건	10.9%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105건	9%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개발 필요	103건	8.9%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조성	92건	7.9%
	학생의 자기개발을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 필요	82건	7.1%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81건	7%
	전학년 무상급식과 의무교육 실시 필요	44건	3.8%
	학생의 질 높은학 교생활을 위한 변화 필요	41건	3.5%
	교내 도서관을 통해 독서시간 확보 및 다양한 독서활동 필요	18건	1.6%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교육에 대한 사전정보 공시	16건	1.4%
	정책에 대한 설문지의 난이도가 높음	10건	0.9%
	자유학기제 폐지	8건	0.7%
학생	다양한 진로체험교육과 특성화 교육시간 확대	39건	12.2%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필요	35건	10.9%
	무분별한 교권남용	28건	8.8%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안전교육과 올바른 생활지도 필요	23건	7.2%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의 창 확대 필요	20건	6.3%
	등교시간 조정 필요	18건	5.6%
	수업내용과 교육방식 변화 필요	18건	5.6%
	교사의 학생 차별대우	17건	5.3%
	교육환경과 낙후된 시설 개선 필요	17건	5.3%
	수도권 학생들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 기회 지원	16건	5%
	특기적성교육 지원	15건	4.7%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	15건	4.7%
	학교폭력 처벌 강화	14건	4.4%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	13건	4.1%
	야간자율학습 자율적 선택 또는 폐지	12건	3.8%
	수시 진로상담 필요	9건	2.8%
자유학기제 폐지	3건	0.9%	

3

교육 3주체의 만족도-중요도 교차 매트릭스

<그림 91>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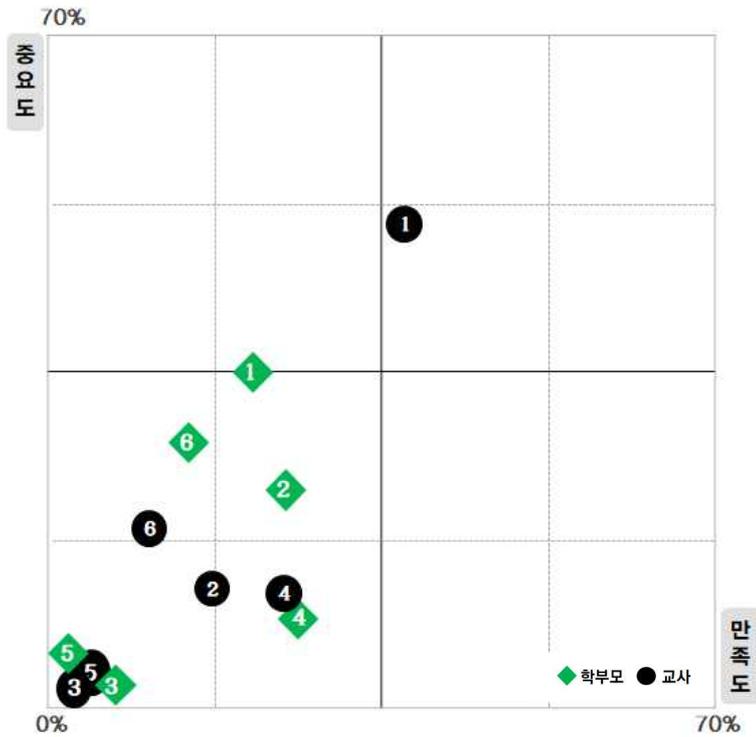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1
- ② 행복학교 운영 1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1
-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1
- ⑤ 맞춤형 특수교육 1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1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1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1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1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1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1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1
- ⑯ 포근한 보건의료 1
- ⑰ 안전한 건강급식 1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1
-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
-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1
-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1
-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1
-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1
-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
-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1
-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
-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1
-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1
-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1
-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1
-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1
-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1

본조사에서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한 만족도-중요도를 설문하였다. 설문 응답 결과에 따른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에 대한 만족도-중요도를 중심으로 매트릭스로 표현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림 92>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정책과제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1 ② 행복학교 운영 1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1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1
⑤ 맞춤형 특수교육 1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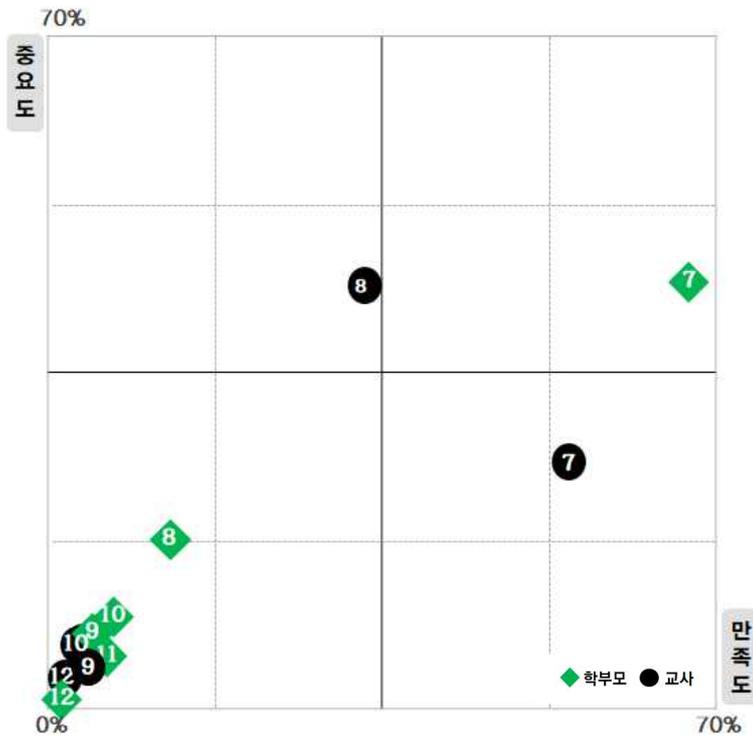
<표 145>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만족도		중요도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배움이 즐거운 교실(37.8%)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25.6%)	배움이 즐거운 교실(50.2%)	배움이 즐거운 교실(33.8%)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24.9%)	행복학교 운영(24.7%)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19.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27.1%)
행복학교 운영(16.6%)	배움이 즐거운 교실(21.3%)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12.2%)	행복학교 운영(21.9%)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11.3%)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14.8%)	행복학교 운영(11.8%)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8.9%)
맞춤형 특수교육(3.6%)	해당 없음(7.8%)	맞춤형 특수교육(2.8%)	맞춤형 특수교육(4.5%)
해당 없음(3%)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3.6%)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2.5%)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2.9%)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2.9%)	맞춤형 특수교육(2.2%)	해당 없음(1.2%)	해당 없음(0.9%)

정책방향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정책 과제에서 만족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직원의 경우 중요도 50.2%-만족도 37.8%로 모두 배움이 즐거운 교실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학부모의 경우 33.8%가 배움이 즐거

은 교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만족도에서는 21.3%로 3순위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93>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정책과제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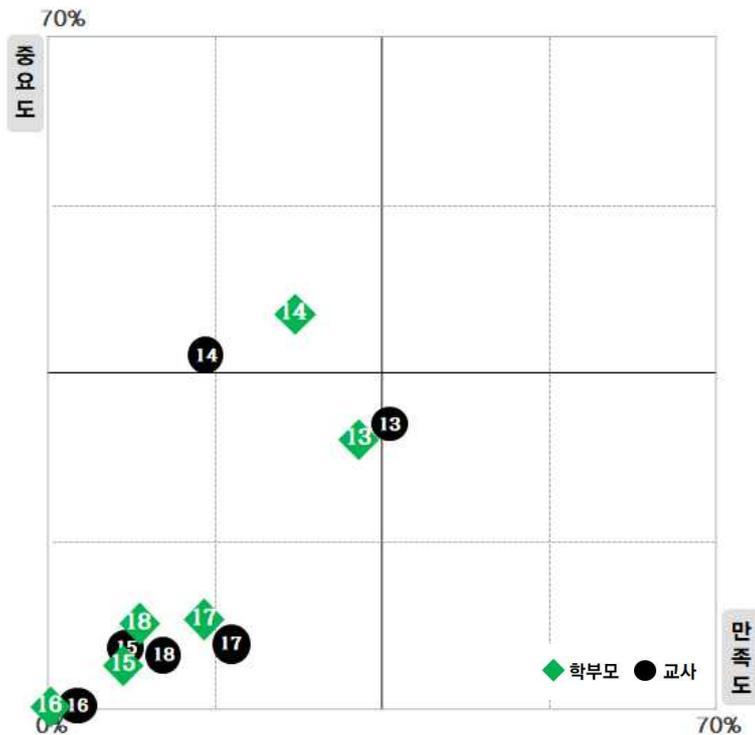
<표 146>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만족도		중요도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54.3%)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66.6%)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45.2%)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44.7%)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3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12.8%)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26.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18.6%)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3.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7.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	해당 없음(10.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3.3%)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5.3%)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6.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10%)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3.1%)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6.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8%)

나라사랑 교육 강화(1.8%)	해당 없음(1.8%)	해당 없음(5.2%)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6.3%)
해당 없음(1%)	나라사랑 교육 강화(1.4%)	나라사랑 교육 강화(3.1%)	나라사랑 교육 강화(2.5%)

정책방향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정책 과제에서 만족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부모의 경우 중요도 45.2%-만족도 44.7%로 모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교직원의 경우 54.3%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중요도에서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 45.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94>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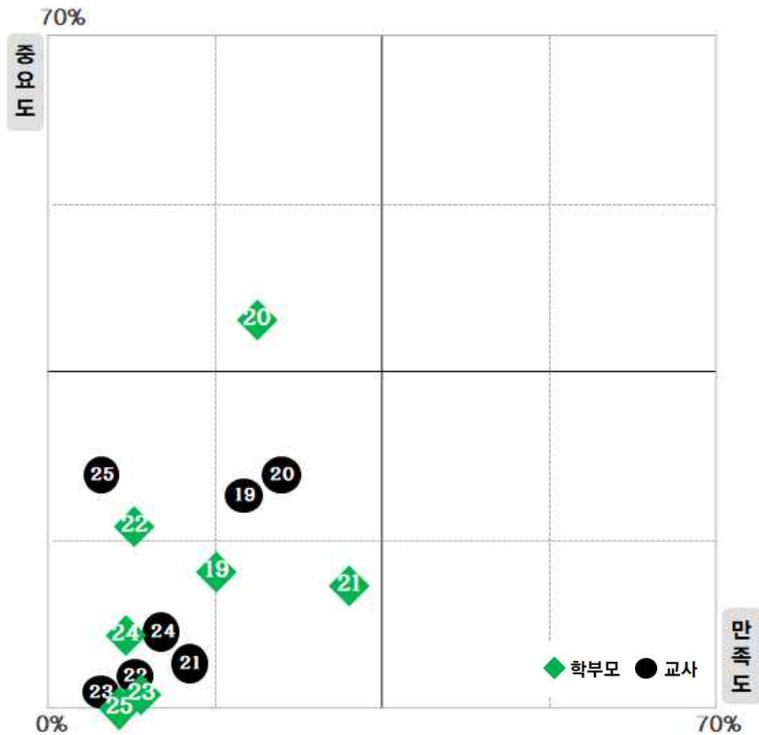
- 정책과제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표 147>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만족도		중요도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6.7%)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32.5%)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36.5%)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41.1%)
안전한 건강급식(20.4%)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25.6%)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29.8%)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28.6%)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16.8%)	안전한 건강급식(15.9%)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8.9%)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3.2%)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12.3%)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9.6%)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6.6%)	안전한 건강급식(9.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9.2%)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8.3%)	안전한 건강급식(6.5%)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5.8%)
해당 없음(3.1%)	해당 없음(6.3%)	해당 없음(0.9%)	해당 없음(1.1%)
포근한 보건교육(1.5%)	포근한 보건교육(1.8%)	포근한 보건교육(0.8%)	포근한 보건교육(0.9%)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2.9%)	맞춤형 특수교육(2.2%)	해당 없음(1.2%)	해당 없음(0.9%)

정책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정책 과제에서 만족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중요도의 응답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만족도에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교직원의 경우 36.7%, 학부모의 경우 36.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중요도 또한 마찬가지로 교직원,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가 각각 36.5%, 41.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95>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정책과제

①9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 ②0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1 ②1 방과 후 학교 운영 1 ②2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1 ②3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1 ②4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 ②5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표 148>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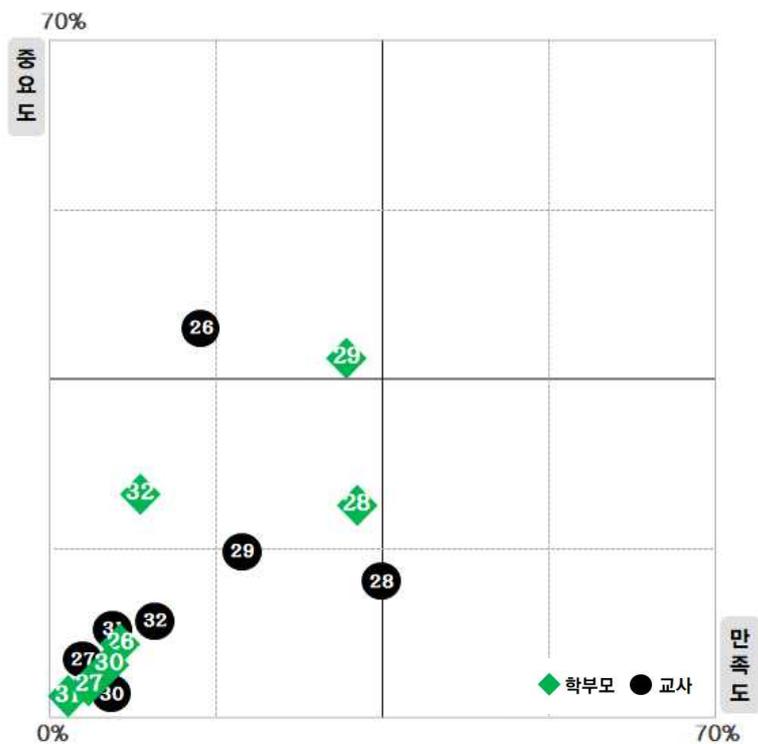
만족도		중요도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6%)	방과 후 학교 운영(31.5%)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5.6%)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40.3%)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20.9%)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21.3%)	교직원복지 여건개선(25.5%)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19.1%)
방과 후 학교 운영(15.5%)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7.3%)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21.7%)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4.4%)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12%)	해당 없음(10.1%)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9.3%)	방과 후 학교 운영(13.1%)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9.2%)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8.5%)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8.5%)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7.7%)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7.2%)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7.7%)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4.4%)	해당 없음(2.4%)
교직원복지 여건개선(4.8%)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1.9%)	방과 후 학교 운영(3.6%)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2%)
해당 없음(4.8%)	교직원복지 여건개선(7.5%)	해당 없음(1.4%)	교직원복지 여건개선(1.1%)

정책방향 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정책 과제에서 만족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직원의 경우 중요도 25.6%-만족도 25.6%로 모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학부모의 경우 중요도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에서는 2순위 21.3%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만족도로는 방과후 학교 운영이 31.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으나 교직원의 설문 조사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은 만족도 15.5%, 중요도 3.6%로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96>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교직원·학부모)



정책과제

②⑥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 ②⑦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1 ②⑧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1 ②⑨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1 ③⑩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1 ③⑪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1 ③⑫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표 149>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문항 응답결과

만족도		중요도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34.8%)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31.4%)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40.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6.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9.8%)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31.1%)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16.9%)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22.9%)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16%)	해당 없음(10.8%)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13.9%)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21.9%)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8.1%)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9%)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10.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6.8%)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6.6%)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7%)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9.4%)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4.8%)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5.6%)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5.9%)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6.5%)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3.2%)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5%)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3.3%)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2.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2.5%)
해당 없음(4.1%)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1.5%)	해당 없음(0.9%)	해당 없음(1.7%)

정책방향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정책 과제에서 만족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경우 만족하고 있는 정책으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교직원의 경우 34.8%이고, 학부모의 경우 31.4%이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직원의 경우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경우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가 36.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학부모의 만족도 1순위인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과 0.3%의 차이로 2순위에 그쳤지만 두 정책과제에서 압도적인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가 만족도 19.8%-중요도16.9%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조사 1단계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와 2단계 교육정책수요조사의 분석 결과, 정책실행담당자를 비롯하여 교직원, 학부모 모두 배움이 즐거운 교실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만족해하는 정책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도 인식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 경남교육 수요조사 연구용역의 핵심과제인 경남교육 수요자 전원(초등 저학년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본조사는 학생 7,218명, 학부모 10,907명, 교직원 4,258명 총 22,383명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다. 본 조사 결론을 도출하기에 앞서 조사에 참여해주신 경남교육 가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장에서는 본 조사 문항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 수요자들의 경남교육에 대한 인식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경남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경남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 본 조사의 소결론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본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첫째, 경남교육 현황, 구체적으로는 경남교육청의 교육지표, 정책방향, 역점과제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본 조사에서는 경남교육의 교육 일반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5점 척도로 물어 그 답을 얻었다.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 및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긍정적 답변을 더해 비 긍정적 답변과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둘째,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답변들을 참여자 비율에 따라 합산해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아울러 응답자 구성 별로 만족-중요도를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남교육정책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BCG 매트릭스라는 마케팅 전략기법을 활용하여 정책별로 만족도와 중요도 간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후 전개될 정책 재분류 작업에 밑바탕이 되고자 했다.

셋째, 경남교육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각 질문을 연계 분석하여 경남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미래교육 및 경남교육 방향을 도출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별로 경남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정리해 보는 것으로 본조사의 소결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가. 경남교육 현황 진단

1) 교육 3주체 간 긍정 응답률의 비교

먼저 본조사에서 수행한 경남교육 현황에 대한 교육수요 3주체 간 긍정 응답률의 비교를 통해 각 주체들의 경남교육현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각 주체별로 긍정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표 150>, <표 151>과 같다.

<표 150> 경남 교육인식에 대한 3주체 긍정 응답률 비교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順

	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	73.50%	68.50%	91.20%	67.60%
행복학교를 확대	76.40%	82.50%	84.50%	44.70%
경남의 전반적인 학교교육	76.40%	82.50%	84.50%	44.70%
새 정부의 교육정책	44.00%		43.90%	44.10%
교육청의 교육정책	56.50%	57.80%	40.80%	52.20%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	71.50%	63.60%	63.60%	73.00%
평균	66.38%	70.98%	68.08%	54.38%

<표 151> 경남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3주체 긍정 응답률 비교 :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順

	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복교육지구 필요성	74.00%		78.40%	62.50%
배움중심수업 변화	66.20%	62.80%	55.40%	66.30%
학교문화가 민주적 변화	63.50%	58.20%	49.90%	65.50%
소통과 공감의 기회 확대	48.50%		44.70%	58.40%
교육 참여활동이 활발	48.90%		46.90%	54.30%
학교환경이 안전 변화	66.20%	62.70%	53.50%	70.9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효과적	60.60%	61.10%	44.60%	64.30%
교육복지가 확대	48.90%	57.70%	33.30%	63.00%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	63.40%		57.00%	80.20%
경남의 교육혁신 만족	42.90%		42.90%	57.60%
평균	58.31%	60.50%	50.66%	64.30%

경남교육 3주체 간 긍정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학생 > 교직원 > 학부모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학부모의 긍정 응답률이 낮은 항목들을 살펴보겠다. 질문항목들을 분야별로 재분류해보면 그 원인이 확인된다. 첫째,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해 33% 머물고 있는 교육복지확대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제적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역할을 학부모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육비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통과 공감의 기회 확대여부와 학부모 참여활동 기회 확대 여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효과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 응답률이 낮은 것은 뒤에 살펴볼 만족도-중요도간의 결과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족도보다 중요도가 높은 정책에 대하여 긍정 응답률이 비교적 낮게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전반적 학교교육 그리고 교육혁신 만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률이 50%를 넘지 못했지만 자녀의 소속학교 운영실태와 같이 직접 관련성이 높은 질문에는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단순히 관련성 요인으로만 예단할 수는 없으나 학부모의 인식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고 보인다.

학부모의 긍정 응답률이 높은 질문들을 살펴보면 현재 경남교육의 핵심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성교육, 행복학교, 배움중심수업변화, 행복지구 확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경남교육의 주요 정책에 학부모들은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성과와 함께 미래의 방향성에 교육당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교직원의 긍정 응답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수요자인 동시에 교육정책의 현장실현자로서의 교직원의 위상과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감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으며 교육복지, 배움중심수업변화, 학교문화의 민주적 변화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효과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보다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성과와도 직결되기도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본분이기도 한 측면이 있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둘째, 직장인으로서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학교의 확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높은 긍정 응답률에 비해 교직원의 낮은 긍정 응답률의 원인으로는 행복학교로의 변화와 운영에 따르는 교사의 늘어 날 수업부담과 행정업무 가중에 대한 부담이 심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비해 소속 학교운영에 대해 30% 정도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한 공동운영자로서의 책임있는 선택으로 보인다. 학부모도 소속학교 운영실태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학교교육 보다 20%나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2) 교육지표에 대한 수요자 인식

‘경남의 교육인식’과 ‘경남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진행된 조사결과들을 경남교육의 교육지표와 연계해 재분류 분석해 보겠다. 현재 경남교육의 교육지표는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다. 풀어 본다면,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총 12개의 설문을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4가지 분류로 재구성 해 <표 152>과 같이 각 항목별로 긍정 응답률의 합산을 비교해 보겠다.

<표 152> 4가지 분류로 재구성하여 비교해 본 긍정 응답률 합계

교육지표	질문	학생 합	학부모 합	교사 합
‘함께’	행복교육지구필요성		78.4%	62.5%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	68.5%	91.2%	67.6%
	소통과 공감의 기회 확대		44.7%	58.4%
	교육 참여활동이 활발		46.9%	54.3%
	교육복지가 확대	57.7%	33.3%	63.0%
평균값	61.1%	63.1%	58.9%	61.2%
‘배우며’	행복학교 확대	82.5%	84.5%	44.7%
	배움중심수업 변화	62.8%	55.4%	66.3%
평균값	66.0%	72.7%	70.7%	55.5%
‘미래를 열어가는’	경남의 교육혁신 만족		42.9%	57.6%
	학교환경이 안전 변화	62.7%	53.5%	70.9%
평균값	58.4%	62.7%	48.2%	64.3%
‘민주시민 육성’	학교문화가 민주적 변화	58.2%	49.9%	65.5%
	학교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	61.1%	44.6%	64.3%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가 감소		57.0%	80.2%
평균값	60.1%	59.7%	50.5%	70.0%

경남교육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평균 값	61.4%	61.1%	66.0%	58.4%	60.1%
학생	64.5%	63.1%	72.7%	62.7%	59.7%
학부모	56.9%	58.9%	70.7%	48.2%	50.5%
교직원	62.7%	61.2%	55.5%	64.3%	70.0%

<표 152>에 나타난 것처럼 경남교육지표에 대한 교육 3주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긍정 응답률이 학부모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학생의 경우 전체 평균값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지만 ‘민주시민 육성’ 지표 중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평균 값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문화의 민주화 정도가 아직 다른 부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학부모의 경우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학생 및 교직원보다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지만, ‘배우며’ 항목 중 행복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행복학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의 90%이상이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을 한 것은 상벌제를 통한 처벌중심의 학생 생활지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면, 학부모의 긍정 응답률은 학생과 교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배우며’ 항목만이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교육복지 확대분야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전체 중 최하위(33.3%)에 머물고 있어 정책적 진단과 함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직원의 긍정 응답은 각 분야별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배우며’ 항목 중 행복학교 확대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학생과 학부모의 절반 정도인 44.7%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복학교의 방향이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행복학교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업무 가중과 교권확립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교직원은 교육정책의 수요자이자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에 교직원들의 경남교육지표별 만족도가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경남교육지표의 지속적 안정적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경남교육 지표에 대한 교육수요 3주체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남교육지표에 부합하는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3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률이 낮은 ‘함께’와 ‘배우며’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교육지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제고해 가야 할 것이다.

3) 정책방향 진단

경남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5대 정책방향과 본 수요조사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본 소결론 2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4) 역점 사업별 수요자 인식 진단

<표 153> 4대 역점 사업 중 잘하는 정책 비교

4대 역점 사업 중 잘하는 정책	변환 값	학부모	교사	순위	
				중요도	만족도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27.8%(2)	28.3%(3)	26.4%(2)	10	11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27.4%(3)	29.4%(2)	22.3%(3)	2	9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31.3%(1)	32.0%(1)	29.6%(1)	17	8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7.4%(4)	3.9%(4)	16.6%(4)	13	16

* 변환 값 : 각 문항별로 학부모 교사의 전체응답자수의 비율

경남교육은 4대역점과제를 이상과 같이 정하고 다양한 세부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4대역점사업과 맞춰 분석해본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과제를 제외한 3대과제가 비교적 고른 수행점수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과제이다. 아울러 ‘폭력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와 ‘행복학교 운영’에도 후한 점수를 주었다. 다만, 교직원의 인식처럼

‘폭력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와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과제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조사 설문 문항 중 행복학교에 대한 직접 문항은 총 4문항이다. 현재 행복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그리고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과 함께 경남교육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을 함께 진행하였다. 아래 <표 154>은 그 결과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표 154> ‘행복학교 운영’ 관련 설문 결과

질문 주제	내용	변환 값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	19.1%		21.9%	11.7%
	중요도	22.4%		24.6%	16.6%
행복학교 확대	(긍정 응답률)		82.5%	84.5%	44.8%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행복학교 운영	25.5%(1)		27.5%(1)	20.1%(3)

행복학교 운영은 만족도와 중요도면에서 전체 32개 정책과제 중에서 각각 11순위와 10순위의 응답을 얻었다.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는 8순위 응답을 얻어 대체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원 응답 순위는 만족도 12순위와 중요도 15순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행복학교 확대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압도적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인 반면 교직원은 절반 이하의 긍정 응답률을 보여 행복학교 정책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원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155>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관련 설문 결과

질문 주제	내용	변환 값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만족도	25.40%(7)		25.60%	25.00%
	중요도	9.80%(17)		8.90%	12.20%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독서문화 활성화	24.60%(3)		25.60%(2)	22.10%(2)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과 관련된 문항 역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 역점 사업 중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정책은 만족도(7순위)와 중요도(17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 정책이 완숙단계에 접어들어 경남교육 전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 세부분류기준별로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8.60%, 시지역 25.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남자(18.7%)와 중학교 고등학교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고학년이 될수록 책 읽기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대 역점 사업 중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정책은 안전 교육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학부모와 교직원이 선택했으며, 아울러 전 응답자층에서 1순위로 꼽혔다. 32개 정책과제 중 인성교육에 이어 중요도 2순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학부모와 교직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는 교직원 11순위, 학부모 6순위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교육청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6>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관련 설문 결과

질문 주제	내용	변환 값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만족도	23.20%		25.60%	16.80%
	중요도	39.80%		41.10%	36.50%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27.40%		29.40%	22.30%

4대 역점 사업 중 긍정적 응답이 가장 낮은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는 만족도-중요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직원(3순위)의 높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20순위)의 관심 부족으로 중요도 순위에서 뒤쳐졌으며, 만족도 순위(교직원 13순위, 학부모 22순위)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경남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의 문제이긴 하나 경남교육청의 분발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학교 및 학교혁신 등 경남교육혁신 과제들이 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목표했던 성과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5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관련 설문 결과

질문 주제	내용	변환값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만족도	9.5%(16)	-	7.0%	15.9%
	중요도	16.1%(13)	-	6.8%	40.5%

나.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과제 재분류 : 만족중요도 조사결과 분석

소결론의 두 번째 순서로 경남교육청의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과제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수요조사에서는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를 각각 물었다. 본 장에서는 문항별 세부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5대 정책방향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수가 학부모의 경우는 10,499명이고, 교직원의 경우는 4,050명이므로 표본 수의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 비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8>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만족도(교직원)	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
만족도(교직원)	1			
만족도(학부모)	.783	1		
중요도(교직원)	.869*	.496	1	
중요도(학부모)	.683	.580	.856*	1

*. p<0.05, **.p<0.0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도(교직원)·만족도(교직원)와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중요도(교직원)·만족도(교직원)는 $p=0.25 < \alpha=0.05$ 이고,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는 $p=0.030 < \alpha=0.05$ 이므로 유의하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상관계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도(교직원)·만족도(교직원)의 상관계수는 0.869이고,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의 상관계수는 0.856이므로 둘 다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9>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만족도(교직원)	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
만족도(교직원)	1			
만족도(학부모)	.783	1		
중요도(교직원)	.869*	.496	1	
중요도(학부모)	.683	.580	.856*	1

*. p<0.05, **.p<0.0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도(교직원)·만족도(교직원)와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중요도(교직원)·만족도(교직원)는 $p=0.25 < \alpha=0.05$ 이고,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는 $p=0.030 < \alpha=0.05$ 이므로 유의하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상관계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도(교직원)·만족도(교직원)의 상관계수는 0.869이고,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의 상관계수는 0.856이므로 둘 다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0>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만족도(교직원)	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
만족도(교직원)	1			
만족도(학부모)	.593	1		
중요도(교직원)	.777	.958**	1	
중요도(학부모)	.434	.979**	.901*	1

*. p<0.05, **.p<0.01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만족도·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 중요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는 $p=0.003 < \alpha=0.01$ 이고, 중요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는 $p=0.001 < \alpha=0.01$,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는 $p=0.014 < \alpha=0.05$ 이므로 유의하다.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중요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는 0.958이고, 중요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는 0.979,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는 0.901이므로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1>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만족도(교직원)	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
만족도(교직원)	1			
만족도(학부모)	.913*	1		
중요도(교직원)	.621	.842*	1	
중요도(학부모)	.599	.862*	.973**	1

*. p<0.05, **.p<0.01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만족도·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만족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 중요도(학부모)·만족도(학부모),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는 $p=0.11 < \alpha=0.05$ 이고, 중요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는 $p=0.35 < \alpha=0.05$, 중요도(학부모)·만족도(학부모)는 $p=0.27 < \alpha=0.05$,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는 $p=0.001 < \alpha=0.01$ 이므로 유의하다.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만족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는 0.913이고, 중요도(교직원)·만족도(학부모)는 0.842, 중요도(학부모)·만족도(학부모)는 0.862, 중요도(학부모)·중요도(교직원)는 0.973이므로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2>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만족도(교직원)	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
만족도(교직원)	1			
만족도(학부모)	.733	1		
중요도(교직원)	.350	-.108	1	
중요도(학부모)	.819*	.560	.269	1

*. p<0.05, **.p<0.0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만족도·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중요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는 $p=0.024 < \alpha=0.05$ 이므로 유의하다.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중요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는 0.819이므로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3>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만족도·중요도 상관분석 결과

	만족도(교직원)	만족도(학부모)	중요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
만족도(교직원)	1			
만족도(학부모)	.869*	1		
중요도(교직원)	.359	.123	1	
중요도(학부모)	.571	.852*	.088	1

*. p<0.05, **.p<0.01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만족도·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은 만족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 중요도(학부모)·만족도(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는 $p=0.011 < \alpha=0.05$, 중요도(학부모)·만족도(학부모)는 0.15이므로 유의하다.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만족도(학부모)·만족도(교직원)는 0.869, 중요도(학부모)·만족도(학부모)는 0.852이므로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만족·중요도 조사결과 통합 분석

<표 164>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인식조사 비율표

정책방향	정책	학부모		교사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21.40%	40.30%	25.70%	25.50%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1.90%	2.00%	7.10%	9.30%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1.50%	1.10%	4.80%	25.60%
	방과 후 학교 운영	31.50%	13.00%	15.60%	3.60%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7.30%	14.40%	20.80%	21.70%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8.50%	19.10%	9.20%	4.30%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7.70%	7.70%	12.10%	8.50%
배움중심의 새로운교육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14.90%	27.10%	11.40%	19.40%
	맞춤형 특수교육	2.20%	4.40%	3.30%	2.60%
	배움이 즐거운 교실	21.30%	33.80%	37.80%	50.40%
	탐구중심의과학·영재교육	3.60%	2.80%	2.90%	2.50%
	행복학교운영	24.60%	21.90%	16.60%	11.70%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25.60%	8.90%	25.00%	12.20%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나라사랑 교육 강화	2.50%	1.40%	3.20%	1.80%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6.30%	5.20%	6.60%	3.10%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8.60%	12.80%	45.40%	33.00%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44.70%	66.60%	26.20%	54.30%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7.80%	5.00%	7.00%	3.5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0.00%	7.20%	6.50%	3.30%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8.30%	5.80%	9.20%	6.60%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9.50%	13.20%	12.30%	18.90%
	안전한 건강급식	15.90%	9.30%	20.60%	6.50%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32.50%	28.60%	36.60%	29.80%
	포근한 보건교육	1.80%	0.80%	1.40%	0.80%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25.60%	41.10%	16.80%	36.50%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9.00%	22.90%	8.00%	10.10%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7.00%	6.80%	15.90%	40.50%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31.30%	21.90%	34.90%	13.90%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31.10%	36.30%	19.80%	16.80%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3.20%	3.20%	5.10%	6.40%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5.90%	4.80%	5.50%	2.10%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1.50%	1.70%	6.70%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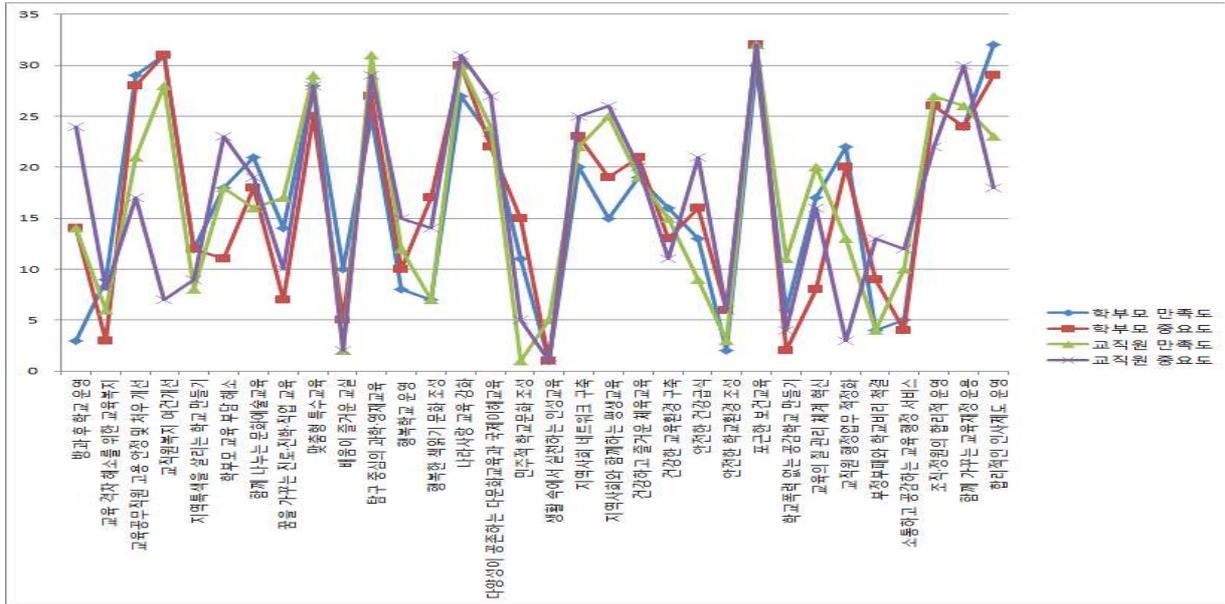
<표 165>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순위표

5대 정책과제	세부 정책	전체		학부모		교사	
		만족	중요	만족	중요	만족	중요
소통과 공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1	1	1	1	5	1
안전 교육환경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2	6	2	6	3	6
지원행정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 척결	3	8	4	9	4	13
지원행정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4	5	5	4	10	12
교육복지	방과 후 학교 운영	5	16	3	14	14	24
소통과 공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	11	11	15	1	5
배움중심	배움이 즐거운 교실	7	3	10	5	2	2
배움중심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8	17	7	17	7	14
안전 교육환경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9	2	6	2	11	4
교육복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10	4	9	3	6	8
배움중심	행복학교 운영	11	10	8	10	12	15
교육복지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2	12	12	12	8	9
안전 교육환경	안전한 건강급식	13	18	13	16	9	21
배움중심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14	7	14	7	17	10
안전 교육환경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15	15	16	13	15	11
지원행정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6	13	22	20	13	3
소통과 공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7	21	15	19	25	26
교육복지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8	19	21	18	16	19
지원행정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19	9	17	8	20	16
교육복지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20	14	18	11	18	23
안전 교육환경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21	22	19	21	19	20
소통과 공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2	23	20	23	22	25
소통과 공감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23	24	23	22	24	27
지원행정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24	25	24	24	26	30
지원행정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25	26	26	26	27	22
배움중심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26	30	25	27	31	29
교육복지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27	27	29	28	21	17
지원행정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용	28	29	32	29	23	18
소통과 공감	나라사랑 교육 강화	29	31	27	30	30	31
배움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30	28	28	25	29	28
교육복지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31	20	31	31	28	7
안전 교육환경	포근한 보건교육	32	32	30	32	32	32

<표 165>과 <그림 97>에서 보듯 만족도와 중요도는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위-하위 응답 간 격차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24순위권 이하 순위의 정책들은 교직원 복지여건 개선(교직원 응답)등을 제외하고는 24순위권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상위 15순위권 이상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2개 정책과제과제 중 하위

10위권 이하의 정책들은 만족도와 중요도 측면에서 전혀 교육수요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책별 평가작업을 통해 통폐합을 비롯한 정책 재분류 작업이 요구된다.

<그림 97> 5대 정책방향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그래프



3) 5대 정책방향별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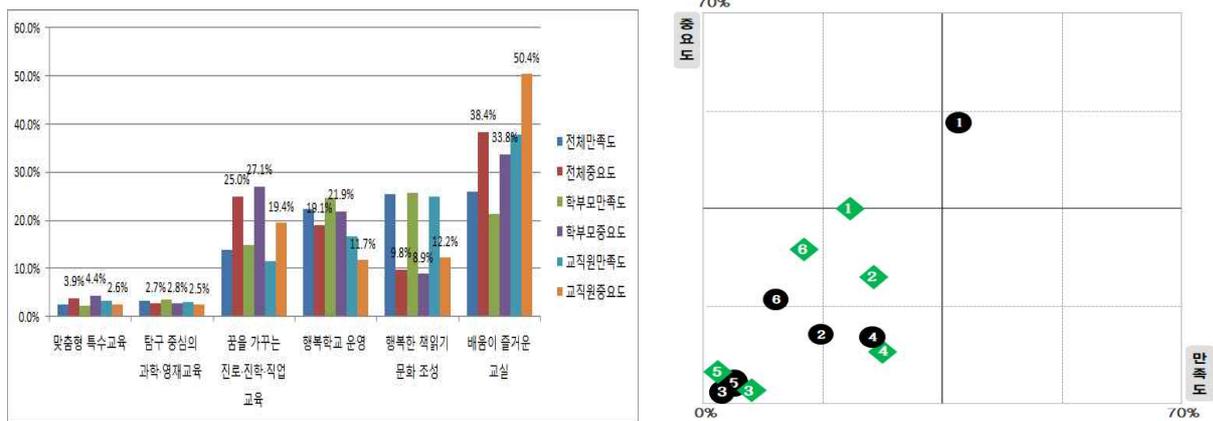
<표 166> 정책방향 1 :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비고	전체 변환순위		학부모 순위		교직원 순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배움이 즐거운 교실	7	3	10	5	2	2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8	17	7	17	7	14
행복학교 운영	11	10	8	10	12	15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14	7	14	7	17	10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26	30	25	27	31	29
맞춤형 특수교육	30	28	28	25	29	28

<표 166>과 같이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6개 정책 중 ‘배움이 즐거운 교실정책’은 중요도(38.4%)보다 만족도(25.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학부모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행복학교 운영’ 정책은 중요도(19.1%)보다 만족도(22.4%)가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진학·직업 교육’ 정책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상당히 뒤처지고 있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만족도와 중요도에서 하위순위에 머물러 있는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정책과 ‘맞춤형 특수교육 정책’은 교육수요자 중 특수한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계는 있으나 유사 정책들과의 통합으로 정책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림 98> 정책방향 1 :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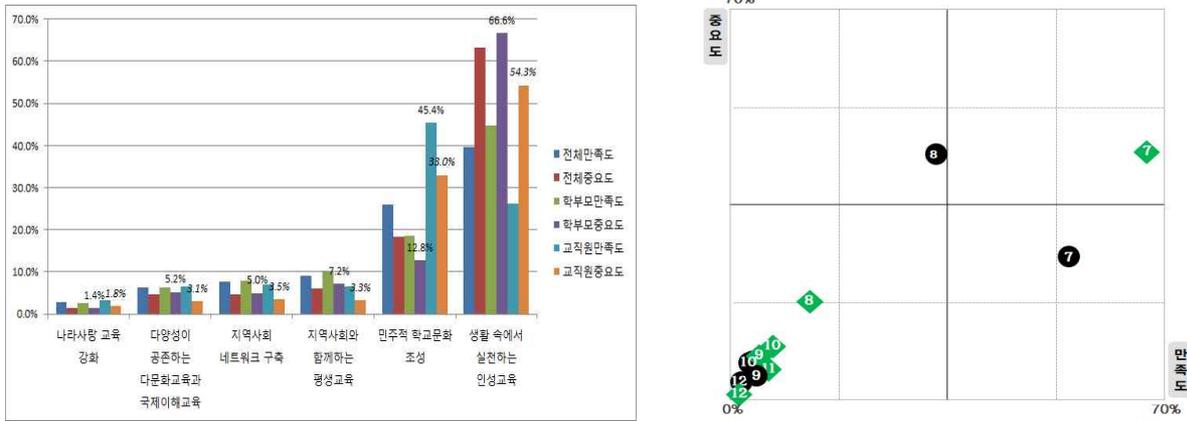


<표 167> 정책방향 2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비교	전체 변환순위		학부모 순위		교직원 순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1	1	1	1	5	1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6	11	11	15	1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7	21	15	19	25	26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2	23	20	23	22	25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23	24	23	22	24	27
나라사랑 교육 강화	29	31	27	30	30	31

인성교육정책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경남교육 수요자들이 ‘가장 잘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도(63.2%)보다 만족도(39.6%)가 낮은 점에 주목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직원들의 만족도 1순위(45.4%)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정책인데 중요도(26%)보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교육현장의 민주적 변화에 대해 각 교육주체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라사랑 교육 강화 정책은 만족도(2.7%)와 중요도(1.5%) 각각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분류가 필요하다.

<그림 99> 정책방향 2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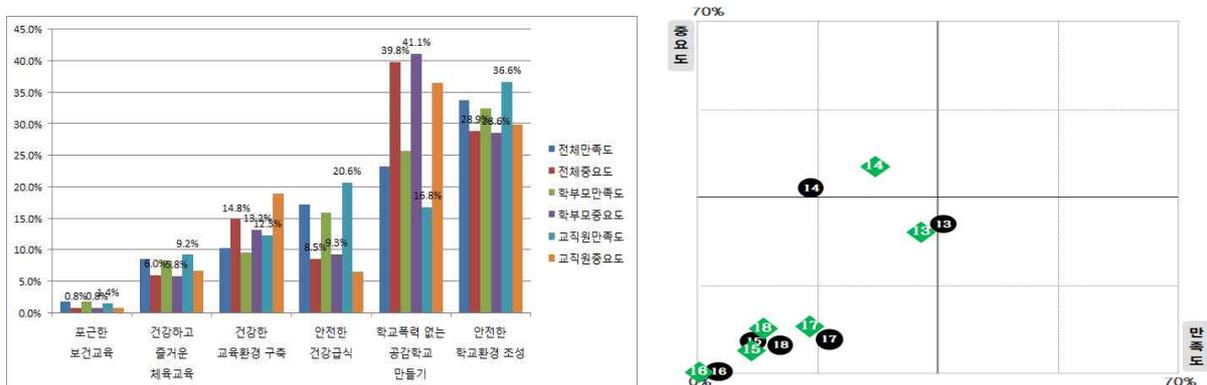


<표 168> 정책방향 3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비고	전체 변환순위		학부모 순위		교직원 순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2	6	2	6	3	6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9	2	6	2	11	4
안전한 건강급식	13	18	13	16	9	21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15	15	16	13	15	11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21	22	19	21	19	20
포근한 보건의교육	32	32	30	32	32	32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정책은 중요도(28.9%)에 보다 만족도(33.7%) 순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정책추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정책은 중요도(39.8%)보다 만족도(23.2%)가 낮게 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정책적 전략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포근한 보건의교육정책은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 요구와는 달리 만족도(0.8%)와 중요도(1.7%) 조사에서 최하위의 결과를 얻었다. 별도의 점검을 통해 재분류 또는 하위카테고리 이전 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림 100> 정책방향 3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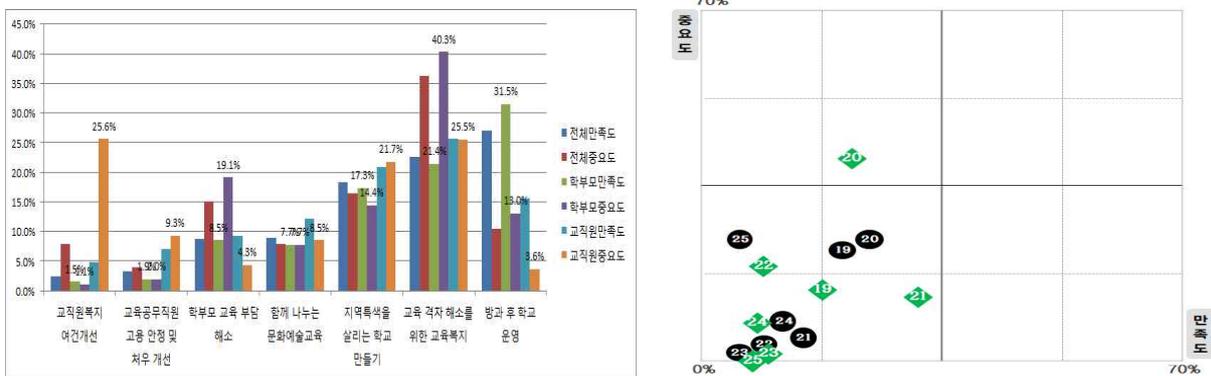


<표 169> 정책방향 4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비교	전체 변환순위		학부모 순위		교직원 순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방과 후 학교 운영	5	16	3	14	14	24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10	4	9	3	6	8
지역 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2	12	12	12	8	9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8	19	21	18	16	19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20	14	18	11	18	23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27	27	29	28	21	17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31	20	31	31	28	7

방과 후 학교 운영정책은 중요도(10.4%)에 비해 만족도(27.1%)가 높은 정책이다. 수년간 지속적인 실천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으며 사교육비 절감 등 실질적 체감효과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교직원 만족도(15.6%) 순위가 낮은 것은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그에 맞는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22.6%)는 중요도(36.2%)에 비해 낮은 결과가 나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복지현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교육부담해소정책과 교직원복지 여건 개선정책은 중요도에서 각각 학부모(19.1%)와 교직원(25.6%) 순위에서 높은 순위의 응답을 얻었지만 반대의 경우 무관심 속에 낮은 순위를 보여 전체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의 세분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림 101> 정책방향 4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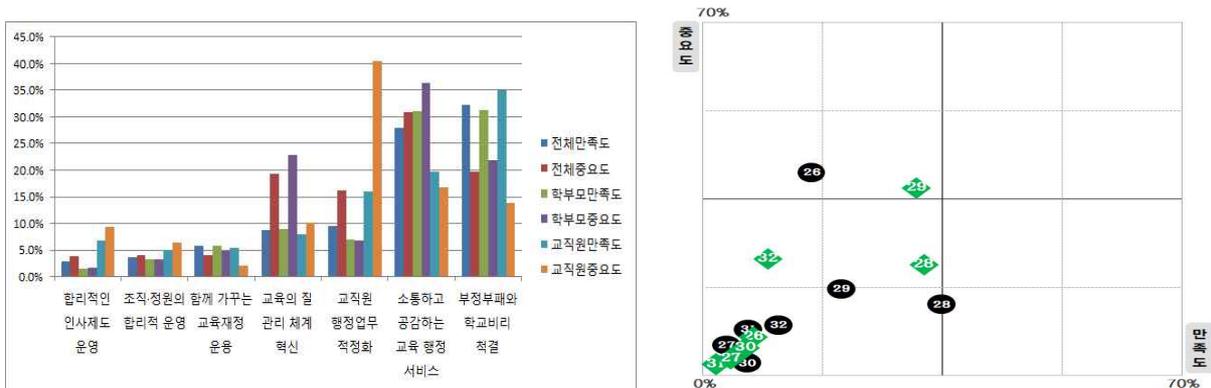


<표 170> 정책방향 5 :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비교	전체 변환순위		학부모 순위		교직원 순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 척결	3	8	4	9	4	13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4	5	5	4	10	12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6	13	22	20	13	3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19	9	17	8	20	16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24	25	24	24	26	30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25	26	26	26	27	22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용	28	29	32	29	23	18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 척결정책은 중요도(19.7%)에 비해 만족도(32.3%) 순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일선 현장에서 경남교육의 청렴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정책은 교직원 순위에서 만족도(15.9%)가 중요도(40.5%)에 비해 현격하게 뒤쳐져 있다.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업무 가중이 교직원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라 하겠다. 교육의 질관리체계 혁신정책은 교직원(10.1%)에 비해 학부모(22.9%)의 중요도가 높는데 이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요구가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02> 정책방향 5 :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만족도·중요도 그래프와 매트릭스



4) 32개 정책과제 재분류 사례 : BCG 매트릭스 활용

앞서 살펴 본 5대 정책방향별 32개 정책과제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중요도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재분류 및 통폐합이나 하위 카테고리로의 이관 등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대략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는 사용될 BCG 매트릭스는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그룹이 개발한 전략평가기법으로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의 조합이 적절한가를 검토하는 분석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성장률을 중요

도로 시장 점유율을 만족도로 변경해 적용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4개의 분면 각각의 전략적 의미(Star, Cash cow, Dog, Question Mark)를 최대한 살려 적용해 보기로 하겠다.

BCG 매트릭스를 활용한 만족도-중요도 분석은 각각 두 가지 차원씩 총 네 가지로 분류해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만족도가 높으면서 중요도 또한 높은 정책(Star), 두 번째는 만족도는 높지만 중요도가 낮은 정책(Cash cow), 세 번째 만족도는 낮지만 중요도는 높은 정책(Question Mark), 마지막으로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낮은 정책(Dog)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03> BCG 매트릭스 예시 및 32개 정책과제 재분류 기준



이런 분류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청 5대 정책방향의 32개 하위 정책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여기에 마케팅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BCG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각각의 정책별로 현 단계를 점검해 보고 정책 재분류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04>, <그림 105>, <그림 106>은 수요조사를 통해 얻은 32개 정책과제들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전체 응답자, 학부모, 교직원 응답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각 4분면에 해당 하는 주요 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① 만족도 高 중요도 高

- 현 단계 핵심 정책 - 경남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정책
- 현상관리를 통해 안정화 체계화시켜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관리시스템 구축
 - 예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안정적 지속적 관리 통해 경남교육 대표브랜드로 육성 가능
 - 예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확대,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배움이 즐거운 교실
 - 해당 정책별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혁신 프로그램 운영 필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교직원 응답결과)의 중요도 충분, 만족도 제고 위한 실천적 방안 필요

② 만족도 高 중요도 低

- 사업초기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중요도가 낮아진 정책 : 최소한 투자로 현상유지 추진
 - 사업 초기부터 중요도 낮은 정책 : 낭비 전시성 정책의 표본 - 재분류로 중요도 제고 추진
- 예3.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안전한 건강급식, 행복한 책 읽기 문화조성
- 정책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관리 필요

③ 만족도 低 중요도 高

-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 : 추진성과에 따라 만족도 제고 가능, 만족도 제고 위한 투자
 - 신규 정책(사업) 추진시 중요도 제고 검토 필요 : 부족시 연관 정책과 연계 방안 고려
 - 중요도의 성장가능성이 높을수록 장기적 핵심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 : 인력 예산 투입
- 예4.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 전략정책화를 통해 중요도 先제고 후 정책수행에 결과에 부합하는 만족도 향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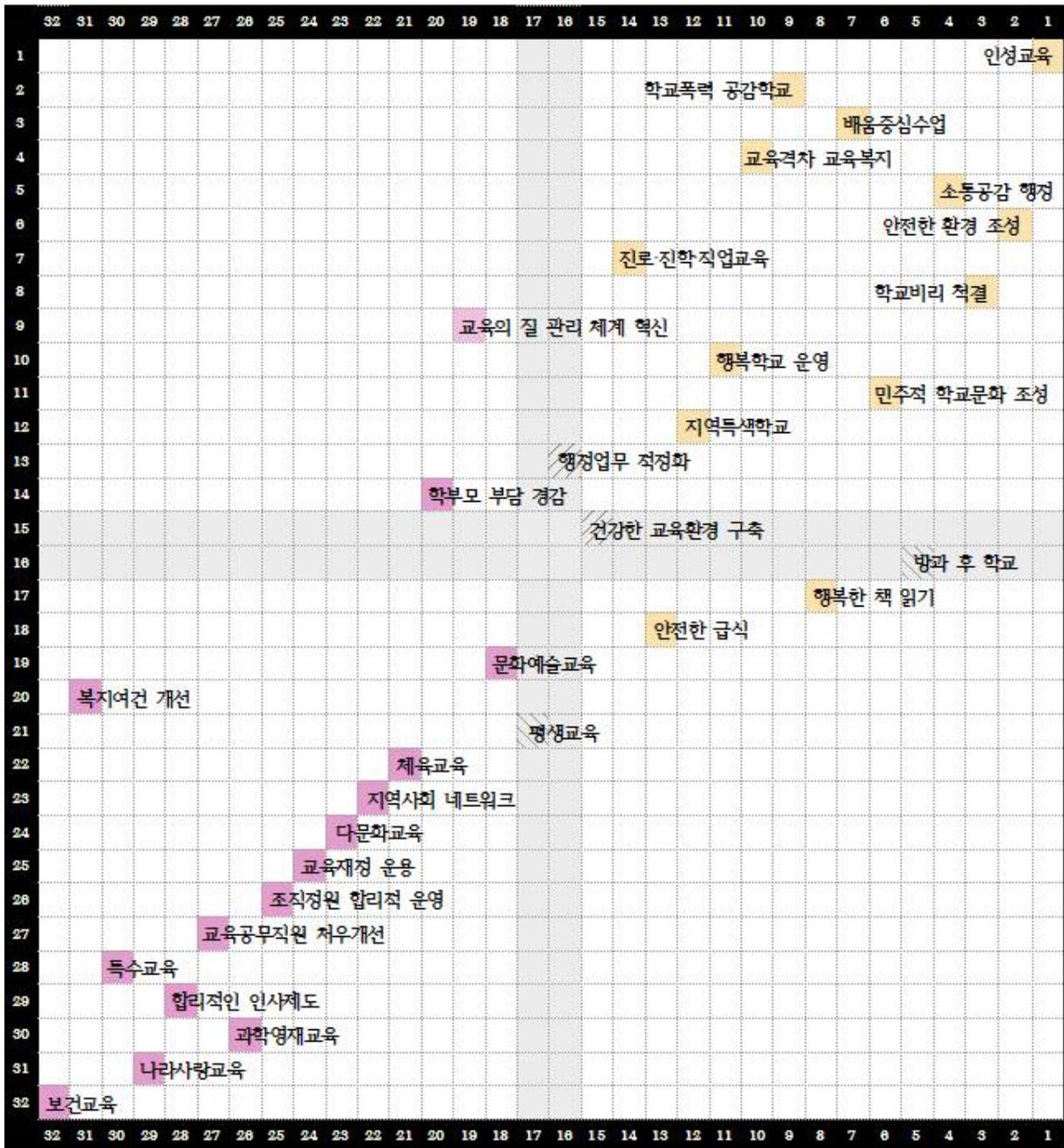
교직원 복지 여건개선(교직원 응답),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학부모 응답)

해당 주체들의 중요도 인식은 충분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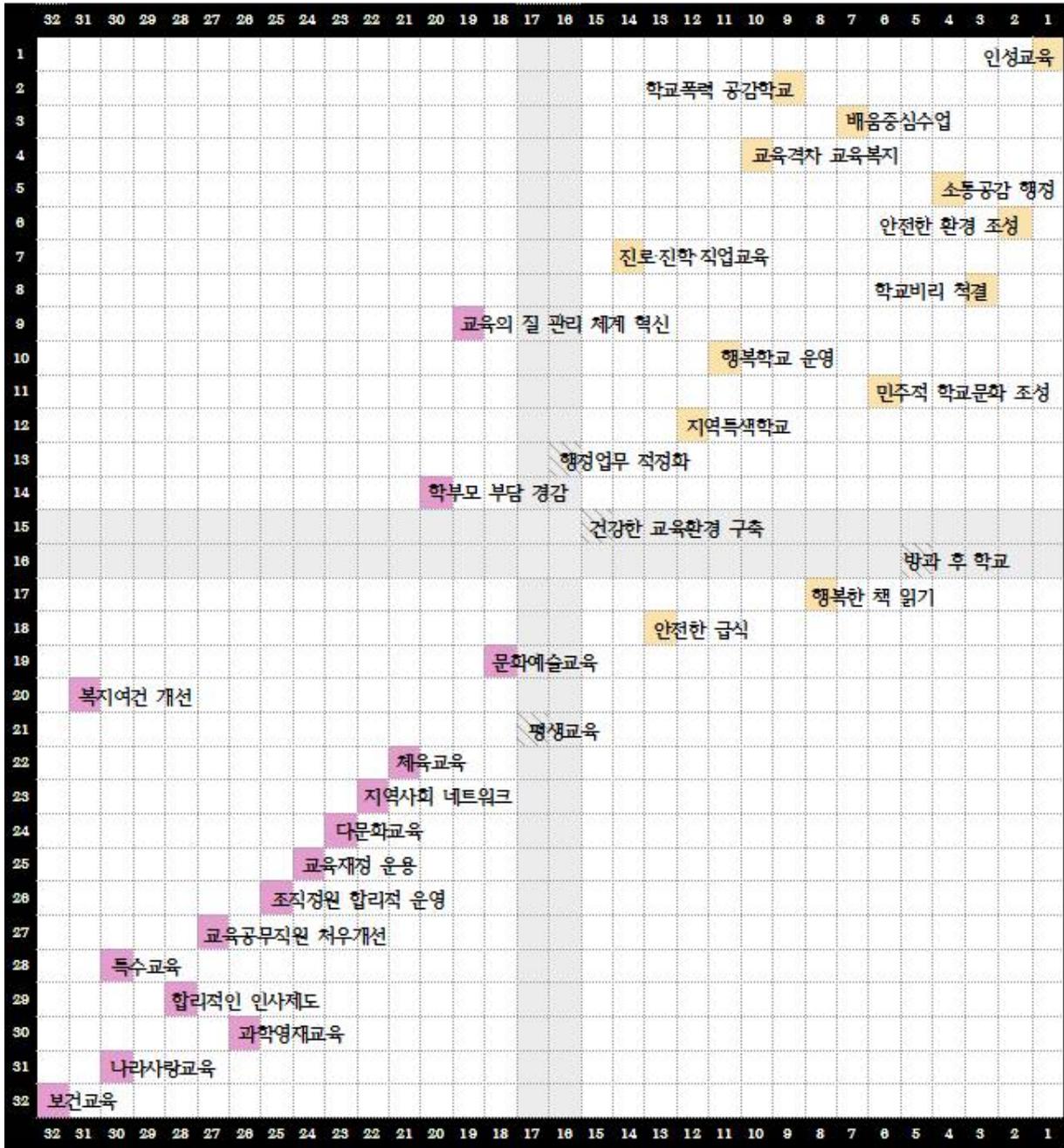
④ 만족도 低 중요도 低

-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하나 규모와 효과 면에서 전체를 아우르기 힘든 부분적 정책
 - 다른 교육정책들의 성공기반 역할을 해주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통폐합이나 재분류 또는 하위카테고리로의 이동 등으로 최소한의 관리 진행 필요
- 예5. 중요도 상위 정책과 통합 추진 : 행복학교운영 +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 정책
- 행복학교 운영 정책의 중요도를 높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체육교육 정책의 만족도 제고 추진
- 예6. 하위 카테고리 전환 : 보건교육, 나라사랑교육,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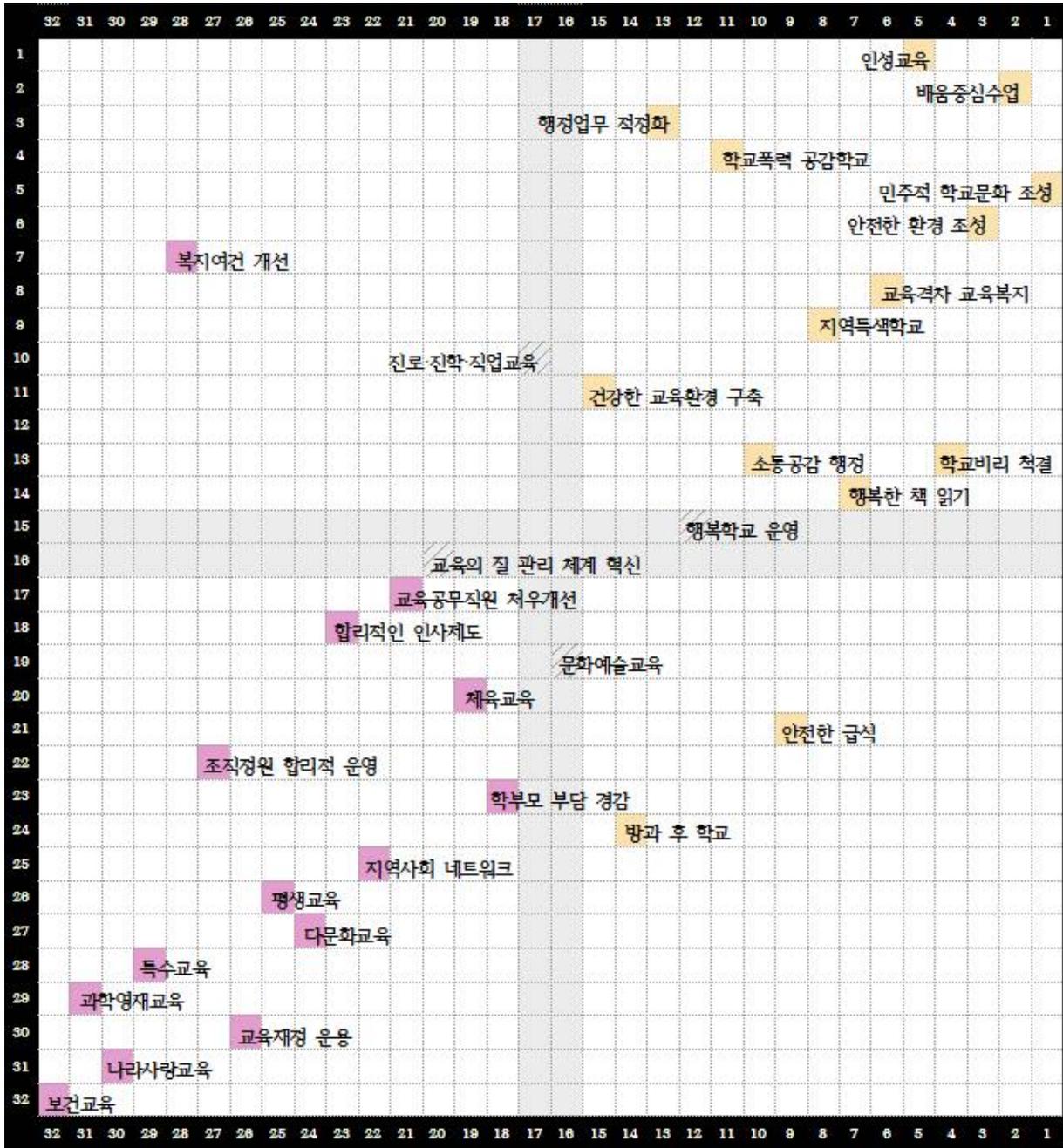
<그림 104>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 전체 응답자



<그림 105>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 학부모



<그림 106> 3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 교직원



이상의 그림들에서 본 것과 같이 32개 경남교육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주민들의 요구, 시대적 흐름, 경남교육의 발전 등)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전략에 따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당초 시작할 때부터 주목받지 못한 정책들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서 시작된 정책도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효과가 발생하여 만족도 상승하는 대신 중요도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 빈자리는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져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렇듯 정책에게도 사람처럼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한다. 현재의 32개 정책과제를 비롯한 하위정책들의 시작과 현재의 규명을 통해 미래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고자 한다.

다. 경남교육 방향 진단 : 미래교육 방향 도출

2017 경남교육 수요조사 연구용역의 본 조사에서는 경남의 미래교육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질문들을 연계 분석하여 경남의 미래교육과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조사된 질문을 미래교육과 교육환경 두 분야로 재구성해 각각의 인식을 분석 해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1> 미래교육, 교육환경 두 분야의 관련 키워드

분야	키워드
미래교육	필요교육 / 학교우선과제 / 인성교육 / 진학지원정책 / 진로교육 활성화
교육환경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소통과 공감의 기회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선투자 교육복지 예산

미래교육에 관한 설문결과 중 주제별 상위 3가지 답변을 정리하면 <표 172>과 같다.

<표 172> '미래교육'에 관한 설문결과 중 각 주제별 상위 3가지 답변 비교

(단위 : %)	정책	전체 변환값	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타1	기타2
미래 대비 학교 우선 과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33.2	21.6	43.7	26.3	37.2% 고교	34.0% 시
	수업내용 및 방법의 변화	24.6	25.2	21.9	30.4	27.2% 남성	26.1% 군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만들기	21.0	37.4	11.0	18.2	30.6% 남성	22.8% 군
미래 필요 교육	인성교육	46.8	27.8	54.0	61.2	41.8% 남성	40.3% 중등
	진로교육	14.4	22.8	10.8	9.3	19.1% 고등	14.5% 군
	창의성 교육	10.9	7.3	13.5	10.0	8.8% 남성	11.7% 여성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42.6		42.4	43.0	39.2% 남성	43.2% 여성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34.6		32.1	41.2	41.4% 남성	32.7% 중등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11.4		13.0	7.4	9.9% 남성	12.8% 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	24.2		28.2	13.7	24.8% 여성	24.8% 시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	22.8		23.2	21.7	23.7% 초등	17.8% 고등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	18.9		19.7	16.7	20.6% 중등	17.4% 군
진학지원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31.3		32.1	29.3	34.0% 초등	24.3% 중등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계 구축 운영	26.1		26.5	25.0	32.7% 중등	13.7% 고등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19.6		18.7	21.9	23.9% 고등	21.3% 군

먼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 3주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교직원들은 수업내용 및 방법의 변화를, 그리고 학생들은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만들기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각각 속해있는 준거집단의 성격을 감안하면 당연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세 가지 정책을 함께 통합하는 정책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 3주체들은 공통적으로 인성교육을 선택했다. 학생과 남성.군지역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타 교육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일 만큼 경남 교육수요자는 ‘인성교육’을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참고로 학생들은 3순위로 특기 적성교육 4순위로 성교육을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경남의 미래교육은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육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성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것으로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과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조성이 전 응답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학교와 가정이 서로 미루지 않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기조하에 인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뒤에 설명할 본 연구용역의 F.G.I.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진로교육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는 학부모는 학생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을, 교직원은 진로 직업체험의 활동비 경비 지원을 1순위로 선택했다. 학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인 진로지원을 위한 시스템구축 필요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교직원들은 보다 직접적인 진로체험활동 경비지원을 선택했다. 특히 체험활동이 잦은 초등학교에서 경비 지원 응답이 많은 것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진학지원을 위한 효과적 정책으로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가 1순위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구축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중학교관계자가 가장 많이 선택했고 고등학교관계자들이 가정 적게 선택한 원인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래 <표 171>은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중 각 주체별 상위 3가지 답변들을 정리해본 표이다.

<표 173>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결과 중 각 주체별 상위 3가지 답변 비교

(단위 : %)	정책	전체 변환값	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타1	기타2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인권·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24.4		27.8	15.4	25.9% 중등	19.0% 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21.8		16.9	34.5	19.9% 중등	27.1% 군
	학생자치활동 강화	20.2		22.8	13.4	19.1% 초등	19.5% 군

소통과 공감의 기회 효과적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	32.1		29.1	39.8	37.6% 남성	36.2% 중등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30.4		33.5	22.2	33.1% 초등	25.0% 군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4.5		16.4	9.4	15.3% 여성	11.7% 군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 운영	53.7		54.9	50.7	44.1% 남성	56.4% 군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19.4		19.1	20.1	24.4% 남성	17.1% 군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12.2		14.0	7.3	12.8% 초등	12.4% 시
선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33.3		33.1	34.0	36.5% 고등	30.7% 군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24.2		31.1	6.3	26.0% 시	13.1% 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11.5		10.9	13.1	15.0% 남성	8.0% 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36.2		38.0	31.5	41.7% 남성	34.6% 초등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27.5		23.7	37.4	32.8% 고등	26.5% 초등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	16.1		16.6	14.9		

우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교직원들은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시·군 간의 선택 역시 학부모 교직원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강화는 3순위였다.

교육공동체간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학부모들은 교원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교직원들은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토론회 확산을 선택했다.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남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의견전달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또 경남교육 최고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공감토론회를 소통과 공감의 방법으로 선택한 교직원의 선택은 교육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주체들간의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육정책과 현장에 대한 의견 전달과 토론을 소통과 공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각종 정책과 행사를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소통과 공감의 핵심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인식차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 운영이 전체 응답자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는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한 의견 보다는 학교운영방향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인식이라고 분석된다. 2순위는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인데 교직원과 남성응답자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 학부모의 선택이 많은데 반해 교직원의 선택은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에 이어 5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의 1차적 해결단위를 해당학교 해당교사에서 별도의 독립기구 혹은 지역별 교육지원청 등이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여진 것이다.

선투자가 필요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계층·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모든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했지만 2순위는 학부모 교직원간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지원을, 교직원들은 교직원 복지 지원을 선택했다. 이는 각각의 교육수요자가 처한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3순위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을 공통으로 선택하였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복지 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수요자별로 교육복지 정책의 재분류를 통해 각각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이 학부모의 1순위로 선택되었다. 남성과 중학교 관계자에게서 40%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교직원의 1순위는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였다. 고등학교관계자와 군지역에서 평균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차는 교육현장 참가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교직원들은 교사인 동시에 직장인으로서, 학교를 직장으로 학교건물을 사무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인 학부모와의 인식차이는 있으나 학교안전이라는 큰 공감대형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라. 맺음말 : 경남교육 수요자의 종합적 인식

1) 경남교육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2017 경남교육 수요조사 본 조사연구는 경남교육 수요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수요조사 항목 중 경남교육 정책실현담당자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174> 경남교육 추진 정책에 관한 긍정답변 비교

	학생	학부모	교사(교직원)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	62.2%	63.8%	73.1%
전반적인 학교교육	63.8%	43.3%	57.2%
교육청의 교육정책	57.8%	40.9%	52.2%
새 정부의 교육정책		43.9%	44.2%

<표 174>는 경남교육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긍정답변을 합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소속 학교-학교교육-교육청지원 모든 항목에서 긍정 답변이 높았다. 반면 학부모는 자녀가 소속된 학교의 운영실태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청 교육정책 < 전반적 학교교육 < 새정부 교육정책 순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하만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이는 자녀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전반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직원의 경우 소속학교 > 학교교육 > 교육청 > 새정부 순으로 긍정답변을 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남교육과 연관된 질문에는 긍정답변이 50%를 넘고 있어 교육수요자의 인식과 교육정책 실현담당자로서의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교육 수요자의 경남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요자별 인식 진단

지금까지 점검하고 분석했던 경남교육 수요자들의 인식에 대한 종합적 진단으로 소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래는 육수요자 간 인식차이에 집중해 수요자의 인식을 진단해 본 내용이다.

□ 경남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

경남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경남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경남교육지표에 대한 수요자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학생들은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보통이다'와 부정적 답변의 합을 넘었다.

둘째,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바람직한 교육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와 교직원이 창의성 교육을 2순위로 택할 때 진로교육을 선택했고,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9%)을 제기하는 의견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또 미래 대비 학교의 우선과제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만들기라는 실질적 선택을 해 학부모 교직원과의 인식차를 보여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의 혁신방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학교 확대와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변화 및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변화 등에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경남교육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의 목표와 경남교육 혁신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경남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학부모 인식의 핵심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라고 하겠다. 수요조사 전반에서 그러한 흐름

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인식의 기준을 찾아보면 첫째, 학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이나 인성교육의 확대,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등이 해당된다. 둘째, 소속된 학교와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행복학교의 확대, 학교환경의 안전한 변화, 학교폭력 예방 대응 효과적, 소속 학교의 운영실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은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의 확대,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설문에 대해서는 지극히 가치 중립적 입장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경남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간접행위자라는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현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이 본 연구는 물론 이후에 진행된 학부모 F.G.I.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작은 성과라도 할 수 있겠다.

• 남-녀 학부모 간 인식차이

여성학부모의 참여가 1:9로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에 대한 각 가정의 참여는 여성학부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학부모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남자가 더 긍정적(남 51.3%, 여39.9%)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군별 학부모 간 인식차이

시-군간의 인식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군지역이 더 높았으며(시 30.8%, 군 35.1%), 반대로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에 대한 만족도는 시지역 더 높았다(시 26.1%, 군 20.8%).

• 학교급별 학부모 간 인식차이

학교급별간 학부모의 인식차이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학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중등=고등(35.9%, 21.0%, 20.3%)순서이며, 배움이 즐거운 교실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3%, 16.8%, 16.7%) 반대로 중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높은 것은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9.80%, 27.10%, 27.70%)과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24.0% 29.8% 29.2%)에 대한 만족도 결과였다.

• 설립유형별 학부모 간 인식차이

학교유형별로 나타난 학부모의 인식차이는 방과후학교 운영(32.4%, 26.9%)과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26.5%, 20.7%)에 대해 국공립학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교폭력 없

는 공감학교 만들기(24.8%, 30.0%)와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14.2%, 18.5%)에 대한 만족도는 군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맞-외벌이별 학부모 간 인식차이

맞벌이 유무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차는 미미하나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학부모가 더 높게 나왔다(46.7%, 41.8%).

• 연령대별 학부모 간 인식차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미만 학부모가 다른 연령대 학부모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인성교육보다 높게 나왔으며(39.6%>37.5%),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0대미만 39.60%, 31~40 29.60%, 41~50 32.4%, 50~ 29.8%).

□ 경남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교직원의 인식은 교육수요자로서의 인식과 교육실현담당자로서의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정책실현담당자의 인식으로는 첫째, 교육혁신과 교육현장에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배움중심수업으로의 변화 및 중요성, 학교문화의 민주적 변화, 소속학교의 운영실태, 학교폭력 예방 및 효과적 대응,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 감소 등에 대한 높은 긍정적 인식은 직접적인 행위자로서의 교직원의 입장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둘째, 교육청 및 학교와 학부모를 소통하는 중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복지의 확대, 행복교육지구의 필요성, 경남교육혁신에 대한 만족,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 공감토론회의 확산 등이 그런 분류에 포함될 수 있겠다.

다음은 수요자로서의 교직원의 경남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 핵심은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와 교직원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행복학교 확대,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에서 소극적 답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중심수업으로의 변화 및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의 변화 등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는 정책실현담당자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인성과 실력향상 그리고 경남교육 지표인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사연구 3단계 : F.G.I.

1. F.G.I. 주제별 키워드 분석
2. 소결론

1

F.G.I. 주제별 키워드 분석

<표 175> '경남교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룹별 비교

경남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						
구분	초등학부모	초등교사	중등학부모	중등교사	장학사·교감	총합
안전	8	2	2	1	3	16
인성	1	-	-	1	-	2
청렴	1	2	3	2	3	11
미래	-	-	-	1	-	1
역량	-	-	1	1	-	2
감성	-	-	-	-	-	-
모두	-	-	-	1	-	1
교육공동체	5	-	1	2	-	8
복지	-	1	-	-	-	1
창의	-	1	-	-	-	1
능력	-	-	-	-	-	-
혁신	-	2	2	1	2	7
소통	6	1	4	2	3	16
평화	-	-	-	-	-	-
건강	-	-	-	1	-	1
공정	-	1	-	-	-	1
배움 중심	1	7	-	6	7	21
민주	-	1	-	1	1	3
인재	-	-	-	-	-	-
행복	4	4	2	4	5	19
깨끗	-	-	-	-	-	-

< 경남교육 상징단어 >

- 경남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배움 중심 / 행복 / 안전 / 소통 / 청렴 / 교육공동체를 주로 꼽음.
- 특히, 초등학부모의 경우, ‘안전’을, 중등학부모는 ‘소통’,
초·중등교사와 장학사·교감 그룹은 ‘배움 중심’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안전’을 선택한 이유로 미세먼지 대책, 가방 안전덮개에 대한 언급이 많음.
- ‘배움중심수업’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소통’ 2014년 이전에 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증대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
- 청렴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정착 중에 있다는 의견이 많음.

“소통...우리 이야기를 들을 공간, 이야기를 할 공간 없어, 박종훈교육감님이 계시면서 네트워크 활성화...”

“인성...모든 교육이 인성에서 시작...크고 나서의 생활패턴이 어릴 때 인성교육 따라 영향 받기 때문”

“안전...전국 처음 미세먼지 대책...가방커버 굉장히 크게 와 닿아...안전 굉장히 앞서...믿음직하다는 느낌”

“행복..행복학교, .소통하면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방법 의논...”

“창의...수학체험센터 설립, 체험 혹은 놀이를 통해 아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

“교육공동체...행복육지구,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지역과 같이 교육을 이끌어가는 취지”

“배움중심...교육감께서 일 년 전부터 수업혁신을 굉장히 강조... ‘수업혁신’하면 배움중심수업...”

“혁신...경남교육이 말 그대로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

“역량...설명회에 자주 언급...교육감님이 지금 경남교육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 보여...”

“청렴...엄마들이 학교에 잘 안가...빈손으로 가기는 애매...고민이 없어서 마음 편해...학교사정 몰라...”

“민주...경남교육 정책 민주주의 이념 바탕 입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자체가 다른 때하고 달라...”

새정부 교육정책 / 경남 교육정책 평가

< 새정부 교육정책 평가 >

-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직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없다,’
‘평가하기는 이르다,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많음.

“수능을 1주일 파격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 자체가 학생 중심으로 ...그 자체 만으로도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1 - e, 초등학부모)

“학교혁신 일반화가 제일 와 닿았습니다. 제대로 펼친다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2 - f, 초등교사)

< 경남 교육정책 평가 >

- 이와 비교해 경남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들어주려고 하는데, 과정상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 달라는 한마디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통하며 들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1 - h, 초등학부모)

“지역의 교통, 교육여건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방문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통적인 부분에서 좋은 인상을 받아...”(1 - a, 초등학부모)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환경부도 정부도 나서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방하지 못했지만, 저의 개인 의견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준 부분에 감동해”(1 - f, 초등학부모)

“방향으로는 100점을 준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결과들을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과 조금 마음에서 감점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방향은 저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교육본질을 추구하고자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굉장히 차별이 되어 있어서...”(2 - a, 초등교사)

“안전에 대해서 가방덮개를 한다든지 미세먼지측정기를 외부설치 한다든지 물론 좋은 의도인데 마지막에 약간 보여주기 식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2 - a, 초등교사)

“그전에 하던 일을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서. 실제로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실감 나지 않고요.”(4 - a, 중등교사)

“배움중심 관련해서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학생들과 격식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가 기대됐어요”(4 - e, 중등교사)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 향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낀 게 불필요한 업무들에 대해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습시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체감하는 게 없지만 노력들이 조금씩 보여서”(4 - f, 중등교사)

경남교육정책과 관련 가장 신뢰하는 / 중요한 / 잘하는 단위

< 교육청 / 교육지원청 / 학교 / 교사 >

- 경남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신뢰하고 잘 하고 있는 단위는 ‘교육청’, 가장 상위기관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추진을 위한 중요 단위는 ‘학교’로 언급함. 가장 가까운 곳이며, 실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곳이라는 인식.
- 학교나 담임교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교육지원청.

“아무래도 학교보다 큰 기관이니까...”(1 - g, 초등학부모)

“학부모들께 안내할 때 교육청에 홍보영상이나 자료들이 반응이 좋습니다.”(2 - f, 초등교사)

“가장 상위기관으로서 아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교육정책을 마련해서 ‘교육지원청’이 나 ‘학교’에 전달을 잘 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가장 중요하다”(3 - e, 중등학부모)

“신뢰가 가서 신뢰가 간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같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됩니다.”(4 - h, 중등교사)

“‘교육청’보다 ‘교육지원청’이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장님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선생님 요즘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우리 학교나 우리 반에는 없나요?”라고 물어보면, “공문

을 아직 못 받아서요.”라는 말씀을 너무 스스럼없이 하세요. 참 아쉽더라고요.”(3 - b, 중등학부모)

“(학교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기 때문에”(1 - a, 초등학부모)

“자녀들을 직접 맡겨놓은 곳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전달하고 말을 했을 때, 영향력이 부모님들께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2 - g, 초등교사)

“아무래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담임교사’겠죠?”(3 - a, 중등학부모)

“실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전체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3 - c, 중등학부모)

“도교육청에서 지침사항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학교 선에서 중단하면 아예 학생들에게 전달도 안 되고 학부모 관련 사업도 못하는 것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3 - d, 중등학부모)

“학교장의 역량이 중요하죠.” (3 - b, 중등학부모)

배움중심수업

- 초등학교에서는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편.
- ‘페이스맵’ 등 토론식 수업, 책 읽어주기, 바자회 등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고 있음.
-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변형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교사와 학부모 모두 무시협, 서술형 중심 시험 등으로의 변화로 인해 평가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일회성 참여 등 수박 겉핥기식 운영 및 수업에 대한 교사의 역량 문제를 언급했으나, 행정업무로 인한 수업 준비의 어려움과 연관 지어 볼 필요가 있음.
- ‘배움중심수업과 학력신장은 같이 가야한다’에 대부분 동의함.
- 정책 이해에 관한 지역 간, 학교 간 편차를 고려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이 필요함.

“담임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희 학교 담임선생의 경우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1 - e, 초등학부모)

“저희 아이는 행복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주제에 대해 바자회를 열자고 했어요. 판매한 금액을 기부 증서로 받았는데,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 배움중심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 - f, 초등학부모)

“올해 페이스맵이라는 방식을 통해 수학을 토론으로 재미있게 수업했어요.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발표를 하려고 하고 수학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외국 부럽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1 - h, 초등학부모)

“가장 큰 것은 초등학교의 시험이 없어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술형 중심으로 문제를 내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방식에 대해 학부모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죠. 교장선생님이 보수적인데, 평가지를 내년엔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대형화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지만, 대세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1 - b, 초등학부모)

“저희 애가 요즘 들어서 일회성으로 많이 했다고 들었고, 할 때마다 힘들다, 많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참여하는 아이들만 참여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1 - c, 초등학부모)

“학교마다 개인 교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사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실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2 - g, 초등교사)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방향이 전달이나 인식이 제대로 안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거의 통일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과 홍보와 안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지역마다의 차이도 있고, 인근 학교마다의 차이도 있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 - e, 초등교사)

“저는 학습연구년 나오기 전에 행복학교에 근무 하고, 개인적인 교사로서의 수업 형태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같은 동 학년이나 학년군의 ‘협력공동설계’ 그렇게

해서 수업을 풀어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책 하나만으로도 학교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겪었고, 그래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2 - b, 초등교사)

배움중심수업과 학력신장의 관계(상호보완적VS서로 대치되는 관계)

- 배움중심수업과 학력신장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입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평가 기준이 없어 사교육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향후 입시의 방향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견도 있음.
- 학력 개념의 재정의와 함께 입시 및 수업 형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력신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입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입시와 지금 가는 방향이 다른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라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3 - c, 중등학부모)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의 입시가 지금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1 - f, 초등학부모)

“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안하다고 했어요. 본인의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1 - g, 초등학부모)

“학력이라는 게 인지적 영역 부분에만 편향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능성적, 내신성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학력’이란 정의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 힘을 가지는 것이 ‘학력’이라고 본다면 아주 다양한 요소가 되겠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학력이 올라갔다는 건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의 재정의를 통해 다시 접근하자는 것이죠.”(2 - f, 초등교사)

“입시의 최종은 ‘수능’이죠. 입시 형태를 바꾸지 않고, 과정만 바꾼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2 - a, 초등교사)

“수업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죠.”(3 - a, 중등학부모)

배움이 즐거운 교실 정책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중학교부터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실천하지 않는 곳이 많음.
- 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확산이 미흡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수업이 입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교과를 아우르는 교사연구회를 활성화시켜야 함.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선생님 몇 분 연수를 다녀와서는 이 수업을 시도를 하더라고요. 입시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배움중심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면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5 - g, 초등교감)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쳐야한다고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 강의 중에 '배움중심수업'을 하는 곳이 없잖아요? 효과적이면 수능 방송도 해야죠.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대학진학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다.”(5 - d, 중등교감)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 30%정도 되는데 중학교는 하지 않는 학교들이 훨씬 많죠. '행복학교'하는 데만 확산이 조금 되고 있고. 구름학교나 행복학교, 중심학교만 조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5 - c, 중등교감)

“동일한 교과 협의회가 아니라 타 교과와 연계한 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서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바람에 교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많다. 전 교과를 아우르는 교사연구회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5 - a, 중등장학사)

학교현장에서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

- 관리자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으며, 형식상의 소통 일뿐 실제로 상호 간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음.
- 학부모와 학교 모두 서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소통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도 있음.
- 상호 간 신뢰를 위해 교사→관리자로 향하는 단계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결국으로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장선생님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4 - d, 초등교사)

“소통과 공감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관리자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사 집단과 아이들도 영향을 미치죠.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4 - g 중등교사)

“저희도 담임선생님은 잘 되는데, 그 위에 관리자에게 바로 간다는 것은 담임 선생님을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바로 가는 것은 항상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가는 것이지 소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2 - c, 초등교사)

“학교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이와 아이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며, 저는 아이끼리 문제이면 담임선생님과 합니다. 그 단계라는 게 저희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존중이죠.”(2 - a, 초등교사)

“임원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3 - c, 중등학부모)

“학부모들은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학교 시스템이 아닌 아이를 위주로 신경 쓰기 때문에 학교 임직원들이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변화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 - f, 초등학부모)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 확대

- 일반 학부모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상설기구의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음.
- 행복학교의 경우, 민주적인 분위기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학부모 대상 교육은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하여, 보편적이지 않고 활동적인 분위기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자녀의 학교활동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SNS 소통창구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작은 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장선생님, 학부모, 담임선생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1 - g, 초등학부모)

“행복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모든 선생님이 민주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소통적인 부분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4 - b, 중등교사)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지역은 자유학기제를 하면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소통을 기본으로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1 - f, 초등학부모)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직접 ‘밴드’를 운영합니다. 학교의 모든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 정보에 대해 댓글이나 의견을 밴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 규칙에 대해 그 밴드 내에서 학부모끼리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3 - a, 중등학부모)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밴드에 업로드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다른 활동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합니다. 일상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학부모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서의 아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니까요. 너무 좋았어요.(3 - e, 중등학부모)

“보편적이고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활동적으로 교육하니까 더 재미있게 들었어요.”(1 - g, 초등학부모)

“장단점이 있는데, 양면이 있지요. ‘분위기가 열렸다,’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체감은 하는데 ‘민원’으로 생각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으로 갑니다.”(2 - e, 초등교사)

“학부모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들까지 사랑방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현안 관련한 질의응답이 오고간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 a, 중등학부모)

“지역마다 조그마한 사랑방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3 - d, 중등학부모)

“보수적인 이 단체에서는 지시 한 마디가 중요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선생님들께 이러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가 없었던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굉장히 큼니다.(3 - a, 중등학부모)

경남의 교육혁신에 대한 평가 이유

- 가방안전덮개와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하는 차별성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함.
-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 또한 체감하고 있음.
-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의 철학적인 이해 및 구체적인 수혜 방법에 대한 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행정업무 경감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함.

▶ 긍정적 평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진행하는 부분이 눈에 띄면 잘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

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가방덮개를 보면 시행한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1 - c, 초등학부모)

“저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을 경남에서 먼저 했었고, 그런 도전들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1 - a, 초등학부모)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학교 관리자와의 관계,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2 - c, 초등교사)

▶ 부정적 평가

“저는 경남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학교의 선생님들의 업무에 바쁜 점을 해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1 - h, 초등학부모)

“올해 하반기에 행복지구로 선정되면서 이슈가 됐는데, 행복콘서트 등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지만, 학부모들은 수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1 - e, 초등학부모)

“겉보기에는 혁신이 있는 것 같지만 철학적인 이해가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지원청에서는 행복학교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것을 느꼈을 때, 철학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1 - f, 초등학부모)

“공약 중에 행정업무의 획기적인 감축이 있는데. 감축한다고 했는데 감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공문을 보내지 말라 했는데 공문은 오는 것 같고,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못 느끼겠습니다.”(2 - d, 초등교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행복해졌다. 수업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라는 분위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바빠지고 지쳐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가 아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 - b, 초등교사)

“초등학교는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학하고 나서는 초등학생 때와

는 완전 단절된 느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3 - c, 초등학부모)

“학교장님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변화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3 - d, 중등학부모)

“교육 정책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다고 느껴요.”(4 - g, 학부모)

“경남교육을 떠올리면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떠오르는 슬로건이 없습니다.”(4 - c, 중등교사)

“아직까지 교사나 학생의 변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4 - e, 중등교사)

교육비 경감 정책

-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실이 없는 현실, 기본적인 건강권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교육단체에서 꼭 줄여주셨으면 하는 것은 ‘교복’과 ‘체육복’
-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보니 예산은 충분,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더 풍성하게 진행한 경우도 있음.

“체육복을 한 번 사면 3년을 입는 편인데, 교복은 힘들지만 체육복만큼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1 - e, 초등학부모)

“제 생각에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이 같아요. 학부모들이 체감이 달라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 아무래도 도시지역의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론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받는 혜택보다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학교는 많은 편입니다.”(2 - c, 초등교사)

“복지 부분에서 일반적인 학습 준비물, 급식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학생들의 교육 환경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이라든지, 심지어 아

직도 이런...(2 - b, 초등교사)

“복지 쪽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도 많이 좋아졌고요. 방과후라든지 사실 , 학부모들이 방과후를 못 믿어서 못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지 믿는다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복지 쪽으로도, 우리 애들 ‘꿈나래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3 - b, 중등학부모)

“학교의 방과후수업도 별로 이제 아이가 안 맞아서 안 듣고, 그래서 저는 별로 혜택을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3 - e, 중등학부모)

“저희 지역은 인적지역이 진짜 작은데요. 방과후수업으로 치면 중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이 중학교 때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동아리활동 조차도 연계가 안 돼요. 저희 딸은 사물놀이 하고 이런 방과후활동을 하는데 중학교 가니까 없는 거예요.”(3 - a, 중등학부모)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실이 없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보건실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고 하던데 학생 수가 작아도 보건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보건교사를 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해서. 만성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서. 학생 수가 작다고 보건실이 없고 보건교사가 없는 거는. 두통을 앓을 경우에 두통약을 먹고 30분, 1시간 후에 학교 수업에 복귀할 수가 있는데, 그 복귀를 못하고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조건 조퇴를 시키거든요. 기본적인 건강권은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3 - c, 중등학부모)

“보건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시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막상 보건실에 가보면 보건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가시고 보건실은 비워져 있는 거죠.”(3 - b, 중등학부모)

“교육의 질은 돈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군청에서 지역의 명문 중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예산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예산 전부가 교육활동을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을 통해 더 폭넓은 체험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목 외의 것들을 배우는 게 필수적인데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만 잘해준다면 교육의 질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4 - h, 중등교사)

“저희 학교는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보니 예산은 충분해요. 덕분에 방과후학교를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각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악기를 중학교 때도 연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체험 활동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을 태어나서 처음 하는 활동이라 그런지 엄청 좋아했어요.”(4 - c, 중등교사)

“재원이 확충되거나 교사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예산이 줄어들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동아리를 담당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청이 아니라도 체험 활동을 지원해주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의를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 - g, 중등교사)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 정책으로 인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으나, 전반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함.
- 전담 인력 확보 등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중등교육으로 갈수록 독서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

“제가 마을 도서관에서 일을 해요. 주변 환경에서 책을 읽다 보니, 학생들이 이전보다 책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1 - g, 초등학부모)

“사서 선생님이 없어요. 올해 교장선생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머니들이 학교에 오시는 것을 꺼려하셨어요. 책을 한 번이라도 목소리로 읽어주면 감수성도 좋아지고 좋다고 어머니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학부모들의 노력이 교장선생님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1 - h, 초등학부모)

“저는 사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책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육하고, 아이들 상대로 공연도 했어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사서 선생님의 독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어요.”(1 - d, 초등학부모)

“이전부터 쪽 이어왔던 일입니다. 두드러진 부분은 학교와 연계하여 책을 읽어주는 학부모

문화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교사들이 그것을 수업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부분도 좋아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학교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적어서 전담 인력에 대한 확보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퇴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2 - b, 초등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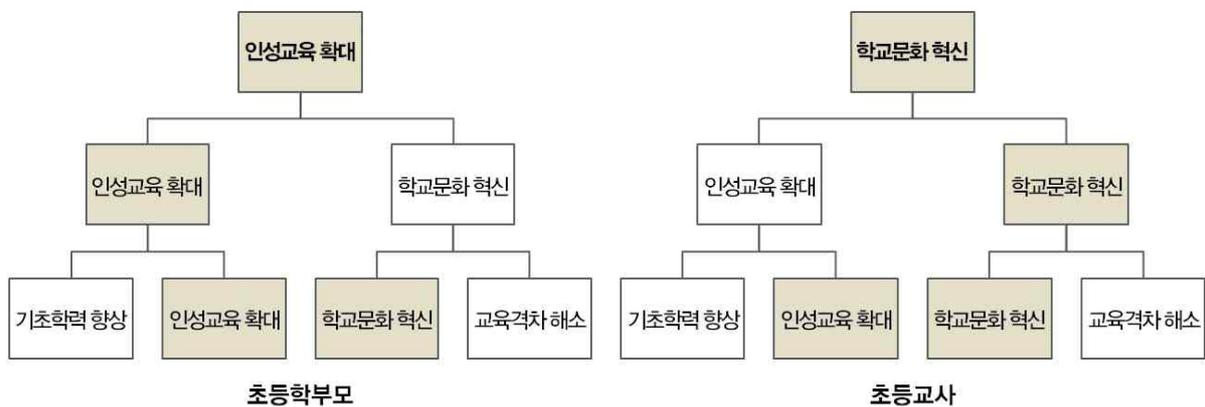
“책을 읽고 나서 애들이 독서기록을 쓰고 몇 권을 읽었다. 이런 수치적 접근을 안하니깐,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책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정말 책을 가까이하려는 철학은 있는 것 같습니다.”(2 - a, 초등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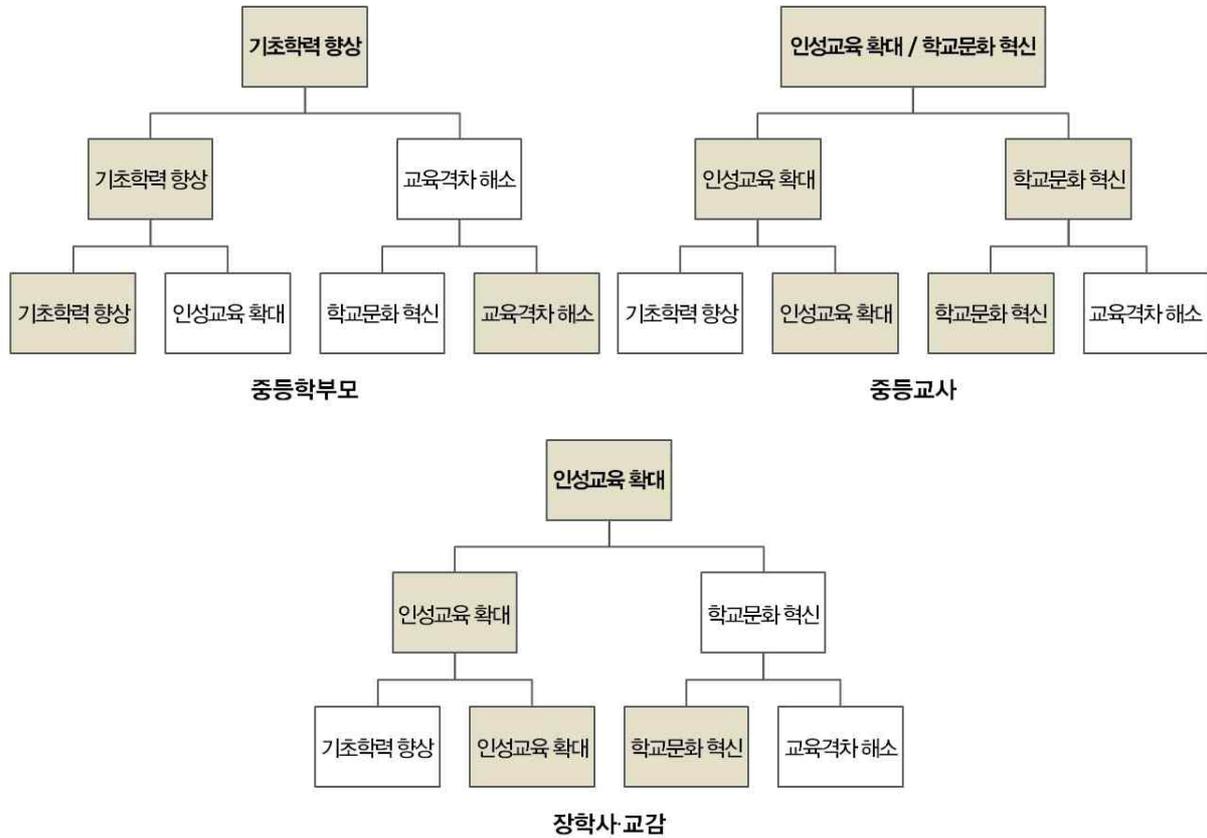
“특정 요일의 아침에 독후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책을 읽고 활동하더라고요. 그것을 읽고 기록을 해주니까...”(4 - d, 중등교사)

기초학력 향상 VS 인성교육 확대 VS 학교문화 혁신 VS 교육격차 해소

- 초등학부모는 인성교육 확대, 초등교사는 학교문화 혁신, 중등학부모는 기초학력 향상, 중등교사는 인성교육 확대와 학교문화 혁신, 장학사·교감은 인성교육 확대를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함.
- 인성교육이 학교문화 혁신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나옴.

<그림 107> F.G.I. 그룹별 정책토너먼트 결과





인성교육 확대 방안

-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 인성교육은 결국 학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수가 훨씬 줄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수업은 탄력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감수성 훈련이나, 감정코칭, 역할바꾸기 등을 추가하면 좋은 것 같다는 의견임.

“1차적인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부모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2차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1 - g, 초등학부모)

“본인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1 - f, 초등학부모)

“인성은 교육정책으로 바뀐다던지, 바로 선다던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죠.”(3 - b, 중등학부모)

“학교 문화 혁신은 선생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인성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주의를 줘야 할 학부모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선생님과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성 교육을 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4 - h, 중등교사)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수가 훨씬 줄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학부모, 선생님이라는 3박자가 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토론문화와 변화해 간다면 인성 교육이...”(5 - b, 초등교감)

“가정과 학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주체는 가정이라고 봅니다.”(5 - g, 초등교감)

“수업이 조금 탄력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인문학, 독서뿐만 아니라 종교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학교폭력과 같은 것도 살펴보면 형식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학생들의 주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에 대한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과 중심의 수업에 별도로 인성 수업을 추가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1 - b, 초등학부모)

“저는 감수성 훈련이나 감정코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1 - f, 초등학부모)

“저는 역할 바꾸기 같은...”(1 - g, 초등학부모)

교권확립과 학생인권의 양립 가능성

- 대부분 교권확립과 학생인권은 같이 가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 교권과 학생인권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인권 또는 하나의 개념 보자는 의견임.
- 방향은 같이 가야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 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는 교사의 의견도 확인함.
- 생활지도 지침보다 변호사들이 행정심판 사례, 자치위원회 재심청구 사례 등으로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한다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둘 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2 - f, 초등교사)

“방향은 같이 가야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사회에서도 일어나듯이 학생인권은 물론 존중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사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권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2 - c, 초등교사)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3 - a, 중등학부모)

“학생과 교사를 따로 묶지 말고 하나의 개념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교사의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든 지침들이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4 - a, 중등교사)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것,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할 것. 예를 들어 선생님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른들의 규칙을 지키는 것, 아이들은 교칙. 그렇게 문화가 잡혔어요.”(5 - c, 중등교감)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보면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은 초등교육법에 의거해서 학교 구성 공동체 간 의견을 모아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칙, 학칙입니다. 이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침사항을 준다는 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여건과 분위기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5 - f, 초등교감)

“변호사들이 행정심판 사례, 자치위원회 재심청구 사례 등으로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한다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5 - a, 중등장학사)

경남교육 정책방향 추진과제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개선해야 할 정책

- 경남교육 정책방향 추진과제 중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이 많았음,
- 또한, 배움중심수업이 꾸준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와 교사를 위한 복지와 연수 프로그램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로 행정실과 교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176> 경남교육 정책방향 추진과제에 대한 그룹별 평가

정책방향	정책과제	학부모		교사		장학사 · 교감
		초등	중등	초등	중등	
1.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1-1. 배움이 즐거운 교실			3	4	
	1-2. 행복학교 운영					
	1-3.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 교육			1		
	1-4.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2				
	1-5. 맞춤형 특수교육					
	1-6.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2.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	2-1.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1			
	2-2.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2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1		
	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1				
	2-5.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1
	2-6. 나라사랑 교육 강화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3-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1	1			
	3-2.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2
	3-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3	
	3-4. 포근한 보건교육					1
	3-5. 안전한 건강 급식		1			
	3-6.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4.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4-1.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1				
	4-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4-3. 방과후학교 운영					
	4-4.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4-5.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4-6.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1			
	4-7. 교직원 복지 여건 개선					1
5.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5-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1		1
	5-2.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5-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1	1			
	5-4.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5-5.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5-6.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5-7.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1

※ 정책방향 2의 '✓' 표시는 정책방향은 선택했으나 정책과제는 선택하지 않은 의견을 나타냄.

▶ 잘하고 있는 정책

“저는 ‘5-3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 척결’이에요. 처음 1학년 아이가 입학하고 면담할 때 걱정이었어요.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 빈손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제 가방만 보는 것 같았어요. 2학년 때부터는 아는 게 생겨서 그런지 좀 편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기 편해졌다고 느꼈어요.”(1 - h, 초등학부모)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는 교육청, 학교가 알아서 진행해 수동적인 수혜자의 느낌이 많았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때문이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원과 감시감독이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의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과 만나면 저희에게 잘 보이려고 교육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1 - b, 초등학부모)

“배움의 즐거운 교실에도 줄을 그었는데,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민주적인 문화나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때,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하고 도와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2 - e, 초등교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농구코트도 다 우레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크리스탈 재질로 되어있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바로 교체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3 - a, 중등학부모)

“안전한 건강 급식. 이제 급식 질들이 보편적으로 다들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급식 모니터링하고 다 참여를 해봤는데...”(3 - c, 중등학부모)

“‘배움중심수업’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토론 수업, 발표 수업, 거꾸로 수업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4 - b, 중등교사)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 교육’을 꼽았습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을 남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처음 시행할 때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기고 있어요.”(4 - g, 중등교사)

“‘배움중심수업’을 선택했고 ‘배움중심수업’을 받쳐주는 역할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배움중심수업’이 꾸준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와 교사를 위한 복지와 연수 같은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4 - e, 중등교사)

▶ 개선해야할 정책

“5-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에 했습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가 교원이라고 했는데, 교사와 교감을 상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실 업무가 자꾸만 교무실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자꾸만 업무가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행정실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5 - c, 중등교감)

“행복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작게 운영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지만, 너무 소수라서요. 이게 혁신학교잖아요? 학교 혁신으로 가는 방법인데, 일부 선생님들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2 - f, 초등교사)

“‘포근한 보건교육’을 골랐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경상남도의 보건교사 배치를 보면 산간 오지나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아예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119도 못 부르고, 그래서 보건교사의 배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5 - d, 중등교감)

“2-5번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문화 가정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이나 중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동료, 같은 학생, 친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선택했습니다.”(5 - e, 초등장학사)

“학교폭력’은 학교의 노력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든 교육, 연수는 많이 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불복’ 자치위원회 결정사항에서 ‘불복’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재심이 늘어나고 행정심판마저도 안 돼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타이틀은 ‘공감학교 만들기’인데 실제적으로

는 선생님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기피 부서가 되어 있고.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맡아도 떳떳하게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5 - a, 중등장학사)

교원복지 확대 및 처우개선

- 교원복지에 관해서는 학부모는 교사가 복지와 처우를 논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희생정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교사의 경우, 수업과 관련 없는 행정적 업무로 인해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음.
-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로 행정실과 교무실을 같은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선생님이 된 것인데,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져야 해요. 복지와 처우를 논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희생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1 - g, 초등학부모)

“1학년 담임선생님과 오후 내내 품의하고 기안하면서 정말 제가 행정직원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정보 업무를 맡으며 ‘이건 방과후업무보다 더 교사가 할 일이 아닌 것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4 ~ 5시간 수업하고 남은 시간은 교재 연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정보업무가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업무로 고착화되면서 지금은 교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 g, 초등교사)

“실제 돈과 관련된 품의 올리는 것은 행정실이 직접 해도 됩니다. 업무가 선생님의 것이라는 논리를 펴지만 실제로 권한을 가져가서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실이 더 빨라요. 대부분 행복학교에서는 행정실무원을 고용하여 그분들이 품위까지 다 하거든요. 해결 되는 거죠. 하지만 몇 학교 안 됩니다.”(2 - f, 초등교사)

“교감선생님도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행정실장들이 6급만 돼도 일 안하고 결재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대요. 행정실장도 일을 해야 합니다.”(2 - g, 초등교사)

“교사들이 정말로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료 집계와 공문의 수를 봤을 때 행정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체감할 수 없습니다. 일의 숫자를 줄여주는 것보다 업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4 - h, 중등교사)

진로교육 / 진학지원 정책

- 지역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중학교를 포함한 장기적 진학지도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정보 안내 연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생인데, 꿈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때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1 - c, 초등학부모)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중2 때 진로 결정하고, 고등학교 때 문과와 이과를 결정하잖아요. 결정 과정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해요. 좋아하는 것을 따라 대학교에 입학하고 전공을 바꾸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 진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1 - g, 초등학부모)

“저는 교육을 하는 목적이 진학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로 교육을 통해 인식이 확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로 교육을 받으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1 - b, 초등학부모)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여학생들이 가수에 열광하면서 전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하고, 꿈을 점점 바꿔 갈 수 있지만, 대학교가 그 부분에서 분명한 취업 준비과정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 e, 초등교사)

“그런데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책에서 보았는데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라고 물어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그저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만 몰아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3 - c, 중등학부모)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롭게 진로 교육을 받아야 중학교 때도 자유롭게 진로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4 - c, 중등교사)

“학부모들이 자녀의 능력에 대해 과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겠지, 좋은 대학교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때 실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진로 교육을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진로를 바탕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4 - b, 중등교사)

“고등학교 3학년을 지도하다 보니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잘 없는데,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고등학생 때도 이르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의 측면에서 진로 교육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격적인 진로 선택보다 진학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4 - d, 중등교사)

“대학에 관련된 거잖아요. 대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정보를 찾아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경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입시 때가 되어야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해서 특목고의 수준만큼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했다면 좋겠어요.”(1 - g, 초등학부모)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모든 선생님들은 훌륭한데 모이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훌륭하고, 그 학교만 우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2 - f, 초등교사)

“저도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4번을 뽑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진학지원 정책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진로교육 페스티벌처럼 다양한 형태의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 - g, 초등교사)

“내 아이 내 품에서’라는 경남의 슬로건. 대학은 서울 쪽으로 명문대학에 가는 것은 아이 개인의 문제인데 고등학교를 외부에 명문으로 보내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3 - b, 중등학부모)

“대입정보센터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수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년 초에도 연수를 갔었는데 경남 자체적으로 대학 입시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4 - e, 중등교사)

“진로 교육을 하면 진로 전담 교사들이 있는데 진학이 아닌 진로에 대한 강의에서 대입정보센터에서 중학생들도 보면 유익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도 선생님도 존재를 몰라서 활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지원정책이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4 - h, 중등교사)

“학생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대입에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생 생활기록부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도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기록부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4 - f, 중등교사)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경남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장전문위원단에 의해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교장 연수, 1박 2일 연수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5 - d, 중등교감)

안전

-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견해임.
-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임.
- 가방안전덮개의 경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전시성, 일회성이라는 견해도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저는 아직 안전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하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천장이 석면이에요. 학교가 크다 보니 공사가 커지고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등도 LED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부족해요.”(1 - a, 초등학교 학부모)

“말씀하신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석면 철거)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학교가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불안해지더라고요. 석면을 뜯다가 석면가루를 더 날리게 되는 것이 아닌지...”(1 - f, 초등학교 학부모)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이 ‘오빠, 요즘 애들이 가방 메고 다니는 건 뭐야?’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거야’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비 올 때도 좋고, 노랑게’라고 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좋은데, 그게 너무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나. 지금 3학년 1, 2, 3...금액이 또 많죠.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희 반은 벌써 3명이나 잃어버렸습니다.”(2 - a, 초등학교 교사)

“동영상과 체험 차량. 얼마 전 학교에 체험 차량이 한 번 왔습니다.”(2 - a, 초등학교 교사)

“요즘 운동장에 잔디를 다 없애지 않습니까? 애들이 실내화 신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청소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지진에서는 신발 갈아 신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가는데 훈련은 청소가 우선이니까 애들에게 신발 갈아 신고 나갑니다.”(2 - e, 초등학교 교사)

“저는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원하는 바를 얘기하자면, 학급이 많다 보면 체육관이 학급에 분배되는 횟수가 적습니다. 운동장도 아니고 체육관도 아닌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니다. 아이들이 체육관 외에 바깥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시멘트 바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도 가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수도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외에 폭신한 우레탄을 깔아준다면 아이들이 줄넘기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2 - g, 초등학교 교사)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음 날 ‘학교 실태조사’ 공문으로 ‘지진대비 보강’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해당되는 학교들은 학부모 대표와 내진 설계 전문가들과 회의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사로 넘겼는데, 요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의하면 학교에서도 바로 수용을 하고 처리를 하더라고요.”(3 -

b. 중등학부모)

“안전에 대한 제 생각은 보수적인 학교의 경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아들, 딸이 나온 초등학교의 경우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짓고 운영 중입니다. 1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교실에도 비가 옵니다.”(3 - a, 중등학부모)

청렴 / 부정부패

-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이 다소 어려워졌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로 청렴한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교의 사업비를 결정할 때, 공동체의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교장선생님 혼자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님과 교장 선생님밖에 모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비를 쓰는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1 - b, 초등학부모)

“경상남도의 경우 도시라기보다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지역사회가 좁아서 서로 간의 익명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을 봤을 때 청렴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신뢰성이 떨어져요.”(1 - f, 초등학부모)

“저도 사실은 이것(김영란법) 때문에 인색해지고 선생님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3 - b, 중등학부모)

“일례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가 유명무실해졌어요.”(3 - a, 중등학부모)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했는데, 청렴 부분에서는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었고...”(4 - h, 중등교사)

민원해결 경로

- 지원센터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교 교장선생님과 소통을 가장 자주하는 학부모 회장이나 관련된 임원진들한테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죠. 저도 교장선생님한테 다른 학부모의 이야기를 전달한 적이 있어요.”(1 - g, 초등학부모)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어요.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불편함도 상담하고 해결하는 역할로요. 학교에서 민원을 싫어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와의 소통을 장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선생님들 역시 민원을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 - b, 초등학부모)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와 연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1 - g, 초등학부모)

“요즘 선생님들은 너무 똑똑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1 - b, 초등학부모)

“개인적인 문제나 아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담임선생님께 하는 것이 맞고 학교의 문제 경우 교장선생님을 직접 뵈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편입니다.”(3 - b, 중등학부모)

마무리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자리를 공식화해서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1 - b, 초등학부모)

“개인적인 희망인데 모든 학교에 양호선생님이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1 - d, 초

등학부모)

“2018년도에는 학부모단체나 활동을 이끌어 나갈 때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되, 교육청이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1 - e, 초등학부모)

“학교가 굉장히 불통이고 단절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도 하시고, 학교에 소통 전문가와 심리 상담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1 - f, 초등학부모)

“우리 아이는 내년에 졸업하지만 앞으로 남아 있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 교육의 질이 향상된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노후가 된 학교는 시설 면에서 시나 교육청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느꼈으면 좋겠어요.”(1 - g, 초등학부모)

“보건교사들의 순회 공백 기간에는 아이들이 위험해집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보건 교육과 위험성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수업만 하라고 그래요. 선생님의 업무도 업무지만 좀 더 학생들에 대해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2 - a, 초등학부모)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있다면 내년에 경남교육의 장이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때 따라 정책이 또 한 번 확 바뀔까 우려됩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2 - c, 초등교사)

“첫 번째, 관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수업내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2 - d, 초등교사)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벤트성이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2 - e, 초등교사)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시행해 버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폭력 일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 좋은 정책은 1년 정도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연수하게 하고, 연수도

일방적인 전달연수가 아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해야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연수들을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2 - f, 초등교사)

“교사들이 동일체 관점으로 학교에 계속 일을 덜어내라, 선택과 집중해라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정책 방향 5가지 밑에 32개 정책 과제들이 나오고, 32가지 밑에 각각 파생되는 업무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되는데요. 무엇을 빼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교육청 자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2 - g, 초등교사)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각 과별로 공문 공유가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도교육청 각 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연수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서로 모르는 겁니다. 모든 과의 지시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 내, 각과에서 서로 업무 소통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학교 내에서 사안이 발생한다면 교사들이 중재를 하잖아요. 가해자가 교사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학생들이 될 수 있는데 해결할 때 편파적으로 될 수도 있어서 제3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2 - g, 초등교사)

“지금 정책 중에서 중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의 중앙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 - a, 중등학부모)

기타 주제1 : 학교장 재량권

“교장선생님이 업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이 안 좋은 거예요.”(3 - a, 중등학부모)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면 학교장 입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관으로 가져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장에 나와 보니까 많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거의...학부모님들 심의과정 물론, 자문이겠지만 다 거쳐야 합니다. 혁신적인 것을 해보려 해도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 재량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

- b, 초등교감)

“많이 줄어들고 책임은 무한으로 요구하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학부모 민원처리하기에 급급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재량권이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안 되거든요.”(5 - c, 중등교감)

“교장의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업의 오너도 책임은 지고 권한을 빼앗아버리면 그것은 책임만 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도 주고 책임도 함께 지게 해서 자기가 조심히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5 - h, 초등장학사)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들이 일어나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사회의를 거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이 합의가 되면 교장 재량권을 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5 - g, 초등교감)

기타 주제2 : 지역 간 격차 해소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방과 후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격차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라서 주관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교장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학교의 교장을 하고 차라리 의욕이 있고 뜻이 있는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로 가서 변화를 시킨다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찾아올 건데 안 좋은 곳은 공모교장을 보내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학교장의 노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배정할 때는 의무교육이다 보니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면 왜 저 학교를 안 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안 가는 이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 장학사들이 아니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나오는 불만마다 해소를 해주면 과밀학급이 생기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4년 동안 행복학교 하면서 지금은 학교 운영비인가 뭐 이렇게 해서 4년에 1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50개로 아마 내년에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한 학교에 돈 좀 적게 줘도 되요. 좀 더 확산하려면 다른 쪽으로 그 돈 다 분산해줘도...”

“마찬가지로 '행복학교'도 운영할 때는 그러다가 끊기고 마침 교장선생님도 바뀌면 전부 교장 탓으로 몰아가고 하는데, 저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F.G.I.를 통해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세가지였다. 첫째, 본 조사에서 얻을 결과들을 확인해보고 그 원인과 대안을 교육수요자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했다. 둘째, 경남교육의 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 교육관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했다. 마지막 연구과제는 학부모와 교사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초중등학부모와 초중등교사 그리고 교육관리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F.G.I.조사는 스크립터 작업과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연구결과와 F.G.I.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겠다. 경남교육을 상징하는 단어로 초등학부모는 ‘안전’을 꼽아주었고, 중등학부모는 소통 그리고 교사와 교육관리자들은 배움중심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가방땀개와 미세먼지감지기설치 그리고 인조잔디 제거 등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학부모들의 매우 우호적이었다. 조사참여자들은 경남교육을 상징하는 단어로 배움중심(21회), 행복(19회), 안전(16회), 소통(16회), 청렴(11회) 등을 꼽았는데 이는 경남교육 당국이 부단히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과 부합한다. 2단계조사에서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변화에 대해 교사 66%가 긍정답변을 했는데, F.G.I. 참여교사들은 전원 배움중심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1) 경남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F.G.I.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학부모들의 인식은 본 조사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직접 연관성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 되었을 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다. 행복학교의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배움중심수업이 교사와 교장이 바뀔 것으로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편적 확산과 지속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평소에는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뢰는 사라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학교장 등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학교와 교사를 다시 신뢰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

2) 경남교육에 대한 교사와 교육관리자의 인식

F.G.I. 조사에서 언급된 교사와 교육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첫째 학부모들의 단계적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일선현장 담당자인 교사와 소통하지 않고 바로 학교장 혹은 지원청과 교육청과의 소통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선교사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복학교 등 혁신사업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나눠 많은 학교가 행복학교가 된다면 경남교육의 변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관리자의 공통인식

학부모와 교직원간 공통인식을 먼저 살펴보면, 배움중심수업과 학력신장은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으며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제정과 교권확립 문제 역시 대결적 상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인권 차원에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본조사에서 만족도와 중요도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보건교사 배치 문제에서도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고요하고 있었다.

4)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관리자의 인식 '차이'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관리자간의 인식차이는 F.G.I.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성교육에 있어 학부모들은 가정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와 관리자들은 가정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며 교사의 책임과 주도로 이뤄지는 학교문화 혁신이 이뤄지면 인성교육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라 자신했다. 반면에 교사들은 교사들이 학생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경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인식은 무관심 혹은 반대로 나타난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는 교사 복지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을 교직원 집단이기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다. 또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부모는 무상교복이나 체육복 등 직접적인 지원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배움중심으로의 수업변화를 위한 체험활동비 보조 등의 간접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인식차이의 한 부분이다.

5) 인식의 '차이'에서 '다름'으로 받아들여야

학부모와 교사간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이 요청되는 이유는 학생을 위

해서이다. 어떤 결과이든 직접적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각인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확보된 시간은 학생들의 배움중심 수업 준비를 위해 쓰여질 것이며 교복과 체육복 등 직접적인 지원의 수혜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한 일방적인 가짜 소통이 아니라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진짜 소통이 필요하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해당학교 교사와 학교장 등이 중심이 되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공감 기회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결과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본 조사연구의 결론은 각 연구단계별로 소결론으로 제시하였으므로 각 단계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얻은 공통적인 시사점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대체로 긍정적인 학생의 인식

경남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생인식의 특징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보통이다’와 부정적 답변의 합을 넘었고 의사표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며,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만들기라는 실리적 선택도 했다. 특히 행복학교 확대와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변화 및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변화 등에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학생의 목표와 경남교육 혁신의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학부모의 인식

학생(자녀)과 연관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전반적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연구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주체로써 연관성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표하고 있지만 그 외 정책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방과후학교,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전환,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행복학교 확대 등 교육 전반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의 확대,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의 현실적 정책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경험과 수혜가 인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남교육이 좋은 정책을 내 놓고 잘 실천하고 있어도 내 아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무관심하거나 가치중립적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학부모의 인식을 감안하면 32개 정책과제 중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인성교육 및 행복학교의 확대와 배움이 즐거운 교실 등의 정책과제가 조속히 경남 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직원의 당연한 이중적 인식

교육수요자로서의 인식과 교육실현담당자로서의 인식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교직원들의 경남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실현담당자로서 경남교육혁신과 교육현장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와 교직원 복지에 대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아쉬움도 읽을 수 있었다. 정책과제 재분류를 통한 교육복지의 대상별 분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전략적 교육협력 등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중심수업으로의 변화에 대한 교직원의 실천의지와 인식은 경남교육 지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육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 인식의 출발점이 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해도-만족도 간 상관관계 유의성 확인

본 조사 연구 수행과정 중 정책실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핵심 결론은 이해도와 만족도간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개별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지도가 만족도나 성공가능성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반면 이해도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정책을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실행담당자들의 인식이라 할 수 있겠다.

5) BCG 매트릭스를 통한 정책재분류 시도

본 연구 VI장 본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진행한 BCG 매트릭스를 활용한 재분류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 32개 정책과제를 간단하게 재분류해 본다면 <6-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제언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분류의 결과 중 만족도와 중요도가 2%~12%에 머물러 있던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제들을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 및 예체능문화교육’으로 통합한 후 조사결과를 적용해보면 <표 177>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물론, 중요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단순 합산한 결과이지만 재분류를 통한 통합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77> 정책과제 재분류 전·후 비교 표

*()안은 전체순위

재분류 전			재분류 후		
정책과제	만족도	중요도	정책과제	만족도	중요도
탐구중심의 과학·영재교육	3.40%(26)	2.70%(30)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과 예체능문화교육	23.4% (9순위)	20.5% (8순위)
맞춤형 특수교육	2.50%(30)	3.90%(28)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8.60%(21)	6.00%(22)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8.90%(18)	7.90%(19)			

6) 미래교육 방향 “오늘 없는 미래는 없다”

금번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경남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경남미래교육방향은 ‘혁신’과 ‘인성’ 그리고 ‘준비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을 통해 수업, 소통체계, 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변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학생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순종적 획일적 학생이 아닌 다양한 인간적 매력을 갖춘 사람으로 커가길 바라며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 수요자들은 미래교육이 주는 환상이나 기대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 또는 인기를 얻고자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생긴 교육현장의 혼란을 더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교육정책 수요자들에게 미래교육이란 당장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바로 그 과정일 것이다. 아울러 다가 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매력 넘치는 ‘사람’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7) 교육협력공동체 활성화로 교육자치·분권 선도해야

지방자치와 분권확대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에 대한 논의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12월 교육감 일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은 ‘국가에서 지방 중심으로, 행정에서 교육 중심으로’라는 원칙에 맞도록 규제폐지와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재정립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제 경남교육 또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교육자치 시대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경남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과의 교육협력공동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복교육지구의 필요성에 학부모(78.4%)와 교직원(62.5%) 동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교육협력공동체 수준으로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및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등의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정책제언

가. 정책제언

1) 이해도와 만족도의 유의성을 활용하는 정책홍보 방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그럼 수요자의 이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일방적이고 단순한 소통으로는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이해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사전 연수를 실시(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하거나 사랑방 좌담회 형식의 소규모 설명회(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를 통해 쌍방향 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로 소통하기 어렵거나 내용이 복잡한 정책과제(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는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각 정책과제의 특성별로 맞춤형 홍보를 전개해야 이해도 제고를 통한 수요자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재분류 방안

앞에서 살펴 본 5대 정책방향별 32개 정책의 만족도-중요도 연구결과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대응(재분류) 방안을 적시하였다. 이 방안은 경남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한 일종의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정책재분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78> 만족도-중요도 매트릭스 분석에 기반한 5대방향별 32개 정책과제 재분류(안)

구분	대응(재분류) 방안	대상정책
만족도 ↑ 중요도 ↑	(만족도=중요도) → 이해도 제고 ; 만족도 제고 경남교육 대표 브랜드로 육성 → 각 정책별 스토리텔링 전개	생활속에 실천하는 인성교육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배움중심의 새로운 교육
	(만족도<중요도) 만족도 높이기 위한 방안 :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만족도>중요도) → 정책안정화 만족도의 안정적인관리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확대 : 지속적 수요자 반응 확인 - 정책 추진 경과 및 성과 취합 홍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안전한 건강 급식 방과후학교 운영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만족도<중요도) → 확대재생산 ; 만족도 제고 - 중요도 검증 완료 정책 →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 확산시킬 시기	행복학교 운영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만족도↓ 중요도↓	→ 존속가치 평가 후 재분류 추진	타 분류 이관	나라 사랑 교육 → 인성교육 따뜻한 보건교육 → 교육복지
		맞춤형 특기교육 확대 재생산 → 학생맞춤형 특기적성교육	체육교육 과학영재교육 문화예술교육 맞춤형 특수교육
대상별 정책	→ 대상자별 교육복지 및 행정정책 이원화 : 수요자간 무관심 및 경쟁구도 극복	교직원 행정 & 복지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학생 학부모 행정 & 복지	소통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시대상 반영정책	→ 지역사회와 교육협력네트워크 확대 운영 - 통합 확대 핵심정책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3)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남교육정책 공모전 개최

F.G.I. 조사를 위해 만나 본 경남교육 수요자들은 하나같이 경남교육방향과 정책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거의 전문가 수준의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참여와 의견에 감사를 드린다. 경남교육가족 중 참여하신 분들만 그렇겠는가? 더 많은 분들이 경남교육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 본다. 공모전을 연 2차례 진행한다면 매년 수백건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것이다. 실천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면 교육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내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혹 대상자가 없더라도 많은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남교육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소통과 공감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4) 교육자치 교육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경남교육협력공동체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책임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또한 일선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16년 결산기준 약 45억원이 기초교육경비보조금수익으로 결산집계 되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에 비해 적은 지원규모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결국 기초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교육수요자 특히 지역 학부모

와 연계해 지자체의 교육책임성 제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해당지역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 교육협력공동체를 협약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학교, 행복학교,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등의 정책과제를 공동 추진한다면 기초단체들의 교육책임성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교육행정지원사업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자체에 대한 인식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남교육 관련 연구과제 제안

1)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의 정례화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안타까운 점 하나가 바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종단비교를 통해 작년과 올해의 수요자 인식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면 더 큰 연구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연례적인 수요자 인식조사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사연구 시기 또한 상반기 반에 시작하여 하반기 중반 마무리된다면 정책과제 재분류 과정에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학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례 연구

현재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제외하고는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올 만큼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이며,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170시간에서 221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과 학기가 학년으로 확대된다는 점만 다를 뿐 거의 같이 운영되는 것이다. 경남교육현장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학생개인별 맞춤형 정책 발굴 방안 - 학생별 컨설팅 실천방안 연구

미래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진다.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학생 특기적성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조사도 진행되

어야 하며 전문적인 상담도 필수적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정책중에서 해당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고 핵심역량을 키워주는데 적합한 정책을 찾아 주기도 해야 한다. 이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혜영·주현성·이광수 (2016). 2016 인천 교육정책 인식조사.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인천교육 2016-0084.
- 고재학 (2008).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효성 분석 : 청소년 학교생활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사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 101~121.
- 공은배·김이경·신상명 (2002).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 2002-10
- 구자역·정규열 (2012). 시·도교육청 평가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5-20-5
- 김정민·김일혁·양승살·이선호 (2014).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PP 2014-16.
- 경상남도교육청 (2015). 2016 주요업무계획.
- 경상남도교육청 (2016). 2017 주요업무계획.
- 경상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2014). 경상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
- 경상남도교육청 (2015). 제6차 경남교육발전계획(2015~2018).
- 경상남도교육청 (2012). 경남교육 2012.
- 경상남도교육청 (2013). 경남교육 2013.
- 경상남도교육청 (2014). 경남교육 2014.
- 경상남도교육청 (2015). 경남교육 2015.
- 경상남도교육청 (2016). 경남교육 2016.
- 경상남도교육청 (2017). 경남교육 2017.
- 경상남도교육청 (2017). 경남교육 2017.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남궁지영·양수경 (2011). 교육개혁 수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1-03-11.
- 신현석 (2014).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 교육행정학연구. 32(2),

27-59.

세상모든소통연구소 (2016).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한 정책설문조사**.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이강주·양승실·차성현 (2013). **한국교육개발원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3)**.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3-35.

이두원 (2005). **국가 정책홍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탐색연구 공중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제13권 1호 pp.180~209

임소현·김홍주·한은정·황은희·정민지 (2016). **한국교육개발원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6-23.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2016). **2016년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 연구**. 강원: 강원도교육청.

Drolet, A. L. & Morrison, D. G. (2001). **Do We Really Need Multiple-Item Measures in Service Research?**, *Journal of Service Research*. 3(3): 196-204.

■ 권내부록 1 : 설문지

가. 정책실행담당자 사전인식조사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지역교육청·학교 사전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책임연구원 석종득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의 사전의견조사입니다. 교육정책수요자와의 접점에서 느낀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는 문항들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연구자 : 석종득

* 설문소요시간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응답자 정보

소속기관	① 교육지원청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소속기관 소재지	① 창원시 ② 진주시 ③ 통영시 ④ 사천시 ⑤ 김해시 ⑥ 밀양시 ⑦ 거제시 ⑧ 양산시 ⑨ 의령군 ⑩ 함안군 ⑪ 창녕군 ⑫ 고성군 ⑬ 남해군 ⑭ 하동군 ⑮ 산청군 ⑯ 함양군 ⑰ 거창군 ⑱ 합천군

※ 다음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①~⑳)로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세부 정책과제

정책방향	정책과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실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⑯ 포근한 보건교육 ⑰ 안전한 건강급식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질문1. 귀하는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질문2. 귀하는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질문3. 귀하는 정책수요자(학생·교직원·학부모 등)가 가장 만족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다음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①~⑳)로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세부 정책과제

정책방향	정책과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실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⑯ 포근한 보건교육 ⑰ 안전한 건강급식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질문1. 귀하는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질문2. 귀하는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다음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32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①~⑳)와 그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경남교육 5대 정책방향별 세부 정책과제

정책방향	정책과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실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⑯ 포근한 보건교육 ⑰ 안전한 건강급식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⑲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⑳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㉑ 방과 후 학교 운영 ㉒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㉓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㉔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㉕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㉖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㉗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㉘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㉙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㉚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㉛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㉜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질문6. 귀하는 성공했다고 보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7. 귀하는 실패했다고 보거나 실패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교육현장의 좋은 의견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1. 교육정책 수요조사 : 예비조사(Pilot test)

(교직원용)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진단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요조사'입니다.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는 문항들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문항 해당사항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문1.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미래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3.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4.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5.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중심 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6.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7. 선생님께서는 '현행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8. 선생님께서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9. 선생님께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10. 선생님께서는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주제 2. 경남교육의 현주소

문11. 선생님께서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⑤ 관심 없다

문12.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3.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4.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5.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8.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9.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직원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0.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1.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2.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직원 인사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3.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에 따라 24-1, 24-2 문항으로 각각 연결)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대체로 불만족한다 ④ 매우 불만족한다 ⑤ 관심 없다

문24-1. 선생님께서 경남의 교육혁신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어서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서
③ 행복한 책읽기 문화가 조성되어서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서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어서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어서 ⑦ 기타 _____

문24-2. 선생님께서 경남의 교육혁신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지 않아서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③ 행복한 책읽기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지 않아서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지 않아서 ⑦ 기타 _____

주제 3.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문25. 선생님께서는 다음 4개의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②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③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④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문26.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격차 해소 ② 인성교육 확대 ③ 교원역량 강화 ④ 진로교육 확대
⑤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⑥ 학교문화 혁신 ⑦ 기초 학력 향상 ⑧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
⑨ 평화·인권교육 확대 ⑩ 기타 _____

문27.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
-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⑥ 기타 _____

문28. 선생님께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
-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⑥ 기타 _____

※ 다음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①~⑥)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문29.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0.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1.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⑦~⑫)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정책과제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문32.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3.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4.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⑬~⑱)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정책과제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⑭ 학교폭력 없는 공민학교 만들기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교육 ⑰ 안전한 건강급식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문35.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6.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7.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㉑~㉕)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정책과제		
㉑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㉒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㉓ 방과 후 학교 운영
㉔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㉕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㉖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㉗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문38.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9.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0.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㉑~㉕)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정책과제		
㉑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㉒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㉓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㉕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㉖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㉗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문41.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2.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3.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4.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중심수업의 확산 ②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행복학교 운영
- ③ 과학교육 내실화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④ 독서문화 활성화 ⑤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⑥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주제 4.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문45. 선생님께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성교육 ② 진로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④ 성교육 ⑤ 창의성교육 ⑥ 생태환경교육
- ⑦ 안전교육 ⑧ 통일교육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⑩ 특기적성교육 ⑪ 과학교육 ⑫ 수학교육
- ⑬ 기타 _____

문46. 선생님께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더욱 우선해야 할 학교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 ② 교사의 전문성 강화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
-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
- ⑥ 기타 _____

문47.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별 맞춤형 지도 ② 교육과정 동아리활동 강화 ③ 학생 평가 방법 개선 ④ 다양한 수업 방법 시도
- ⑤ 지역 자연문화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⑥ 기타 _____

문48. 선생님께서는 '배움중심수업을 확산'하기 위해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중심수업 연구회 공모 및 지원 ② 단위학교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③ 수업 나눔의 날, 배움중심수업축제 운영 ④ 배움중심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연수활동 지원
- ⑤ 맞춤형 연수 지원 ⑥ 논술역량 강화와 공교육논술지원단 운영
- ⑦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로 학생평가 방법 개선 ⑧ 기타 _____

문49. 선생님께서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 ②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보장 ③ 객관적 변별 기준의 마련
- ④ 평가에 대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 마련 ⑤ 선발 경쟁의 압력 완화 ⑥ 기타 _____

문50.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⑤ 관심 없다

문51.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진로교육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 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 활동비 지원 ②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③ 교원, 학부모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연수(실시)
- ④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 ⑤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자) 진로체험처 확보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⑥ 자유학기제 활성화 ⑦ 다양성 교육 확대 ⑧ 기타 _____

문52. 선생님께서는 경남학생의 진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위학교 진학지도 지원을 위한) 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② (진학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③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및 일반고 내) 진로-진학 T/F팀 구성 운영
- ④ (중 고등학교가 함께하는)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 ⑥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⑦ 기타 _____

문53. 선생님께서는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②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③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
- ④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⑤ 기타 _____

문54. 선생님께서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②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 ③ 학생자치활동 강화 ④ 인권교육 강화
⑤ 학생인권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⑥ 기타 _____

문55. 선생님께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감 토론회 개최 ② 교직원단체·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의 ③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
④ 정책협의회 및 정책관리자회의 운영 ⑤ 교원 모니터링단 조직·운영 ⑥ 지지체와 교육협력 사업 추진
⑦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⑧ 기타 _____

문56. 선생님께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 관리 ②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③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 ④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
⑤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⑥ 기타 _____

문57.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②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③ 정서조절과 소통 중심의 공감학교 운영
④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협업 ⑤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⑥ 기타 _____

문58.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③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④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⑤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⑥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⑦ 교직원 복지 지원 ⑧ 기타 _____

문59. 선생님께서는 '부정부패와 학교비리'를 없애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②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및 도민감시관 운영 ③ 교육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
④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 ⑤ 원포인트 아웃제 등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⑥ 기타 _____

문60.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61. 선생님의 소속 학교 소재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녕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문62. 선생님의 소속 학교 및 기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⑤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 ⑥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⑦ 교육행정기관 및 경남교육청 직속기관

문63. 선생님의 소속 학교 규모는 어디에 해당합니까?(※소속 기관에 따라 문항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③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중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③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⑤ 31학급 이상

<고등학교>

-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③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④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문64. 선생님의 소속 학교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소속 기관에 따라 문항이 달라집니다)

- ① 국립·공립 ② 사립

문65. 선생님의 경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문66. 선생님의 직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응답에 따라 67-1, 67-2 문항으로 각각 연결됩니다)

- ① 교원 ② 교육전문직 ③ 교육행정직

문67-1. 선생님께서는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원인사이동 조기 실시 ② 신규교사 수시 발령 ③ 교육장공모 실시 ④ 교원전보 및 파견제도 개선
⑤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 ⑥ 업무역량 중심 관리자 인사 시행 ⑦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 추진
⑧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개선 ⑨ 기타 _____

문67-2. 선생님께서는 공무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충원 ② 역량평가를 위한 사무관 승진제도 ③ 공정한 보직관리 제도 운영
④ 기타 _____

Q. 설문 진행 시 이해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번호 _____

이유 _____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진단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요조사'입니다.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는 문항들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문항 해당사항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문1. 학부모님께서 '현재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미래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3.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4. 학부모님께서 수업 중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중심 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
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6.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7. 학부모님께서서는 '현행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8. 학부모님께서서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9. 학부모님께서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10. 학부모님께서서는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주제 2. 경남교육의 현주소

문11. 학부모님께서서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이름만 알고 있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⑤ 관심 없다

문12.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3.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4.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5.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8.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9.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0.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1.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에 따라 22-1, 22-2 문항으로 각각 연결됩니다)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22-1. 학부모님께서 경남의 교육혁신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어서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서
③ 행복한 책임기 문화가 조성되어서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서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어서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어서 ⑦ 기타 _____

문22-2. 학부모님께서 경남의 교육혁신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지 않아서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③ 행복한 책임기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지 않아서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지 않아서 ⑦ 기타 _____

주제 3.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문23.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4개의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②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③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④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문24.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격차 해소 ② 인성교육 확대 ③ 교원역량 강화 ④ 진로교육 확대
⑤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⑥ 학교문화 혁신 ⑦ 기초 학력 향상 ⑧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
⑨ 평화·인권교육 확대 ⑩ 기타 _____

문25.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중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⑥ 기타 _____

문26. 학부모님께서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⑥ 기타 _____

※ 다음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①~⑥)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임기 문화 조성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문27.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8.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9.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⑦~⑫)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정책과제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문30.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1.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2.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⑬~⑯)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정책과제

-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⑯ 포근한 보건교육 ⑰ 안전한 건강급식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문33.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4.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5.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⑲~㉔)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정책과제

- ㉑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㉒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㉓ 방과 후 학교 운영
- ㉔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㉕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㉖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㉗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문36.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7.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8.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㉘-㉚)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정책과제

- ㉘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㉙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㉚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㉛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㉜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㉝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용
- ㉞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문39.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0.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1.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42.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중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중심수업의 확산 ②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행복학교 운영
- ③ 과학교육 내실화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④ 독서문화 활성화 ⑤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⑥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주제 4.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문43. 학부모님께서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성교육 ② 진로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④ 성교육 ⑤ 창의성교육 ⑥ 생태환경교육
- ⑦ 안전교육 ⑧ 통일교육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⑩ 특기적성교육 ⑪ 과학교육 ⑫ 수학교육
- ⑬ 기타 _____

문44. 학부모님께서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더욱 우선해야 할 학교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 ② 교사의 전문성 강화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
-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
- ⑥ 기타 _____

문45. 학부모님께서서는 학생의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별 맞춤형 지도 ② 교육과정 동아리활동 강화 ③ 학생 평가 방법 개선 ④ 다양한 수업 방법 시도
- ⑤ 지역 자연 문화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⑥ 기타 _____

문46.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진로교육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 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 활동비 지원 ②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③ 교원, 학부모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연수 (실시)
- ④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 ⑤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장) 진로체험처 확보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⑥ 자유학기제 활성화 ⑦ 다양성 교육 확대 ⑧ 기타 _____

문47.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학생의 진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위학교 진학지도 지원을 위한) 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② (진학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③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및 일반고 내) 진로·진학 T/F팀 구성 운영
- ④ (중·고등학교가 함께하는)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 ⑥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⑦ 기타 _____

문48.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②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③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
- ④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⑤ 기타 _____

문49. 학부모님께서서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②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 ③ 학생자치활동 강화 ④ 인권교육 강화
- ⑤ 학생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⑥ 기타 _____

문50. 학부모님께서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감 토론회 개최 ② 교직원단체·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의 ③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
- ④ 정책협의회 및 정책관리자회의 운영 ⑤ 교원 모니터링단 조직·운영 ⑥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 추진
- ⑦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⑧ 기타 _____

문51. 학부모님께서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 관리 ②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 ③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 ④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
- ⑤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⑥ 기타 _____

문52.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②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③ 정서조절과 소통 중심의 공감학교 운영
- ④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협업 ⑤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⑥ 기타 _____

문53. 학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③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④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⑤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⑥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 ⑦ 교직원 복지 지원 ⑧ 기타 _____

문54. 학부모님께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를 없애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②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및 도민감사관 운영 ③ 교육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
- ④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 ⑤ '원포인트 아웃제' 등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 ⑥ 기타 _____

문55. 학부모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56.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 소재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원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 ⑰ 함양군 ⑱ 합천군

문57.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⑤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 ⑥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문58.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 규모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소속 학교에 따라 보기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③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 ④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중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③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 ④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⑤ 31학급 이상

<고등학교>

-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③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 ④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문59.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국립·공립 ② 사립

문60. 학부모님께서 맞벌이 가정에 해당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61. 학부모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Q. 설문 진행 시 이해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번호 _____

이유 _____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용)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안녕합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진단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요조사'입니다.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을 잡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소요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문항 해당사항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자 분류

문1. 자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2. 자신의 학교가 있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녕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문3. 자신이 다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⑤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⑥ 특성학교(특수학교(마이스터고 포함))

문4.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급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소속 학교에 따라 보기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③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중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③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⑤ 31학급 이상

<고등학교>

-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③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④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문5. 자신이 다니는 학교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초등학생은 본 문항이 없습니다.)

- ① 국립·공립 ② 사립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문6.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은 본 문항이 없습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7.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초등학생은 본 문항이 없습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8. '현재 학생의 학업성적이 미래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9. 수업 중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0.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것보다 누가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함께 해결하고 돕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1. 경남의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인 '행복학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2. '우리학교의 교육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3.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의 학교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14. '우리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주제 2. 경남교육의 평가

문15. 최근 3년 간 우리 학2 교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 최근 3년 간 우리학교는 '학생의 참여와 합의가 늘어나는 민주적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8.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9.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교육기회의 차이를 줄이고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복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0.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인성교육 ② 진로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④ 성교육 ⑤ 창의성교육 ⑥ 생태환경교육
⑦ 안전교육 ⑧ 통일교육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⑩ 특기적성교육 ⑪ 과학교육 ⑫ 수학교육
⑬ 기타 _____

문21.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더욱 우선해야 할 학교의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변화 ② 교사의 전문성 키우기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만들기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만들기
⑥ 기타 _____

Q. 설문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_____

이유 _____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2. 교육정책 수요조사 : 본 조사

(교직원용)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진단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요조사'입니다.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는 문항들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문항 해당사항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문1.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중심 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3.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로 추진 중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4. 선생님께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5. 선생님께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6. 선생님께서는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7.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주제 2. 경남교육의 현주소

문8. 선생님께서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문9.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0.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1.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2.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3.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4.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5.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직원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8. 선생님께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응답에 따라 19-1, 19-2 문항으로 각각 연결)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19-1. 선생님께서 경남의 교육혁신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어서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운영되어서
③ 행복한 책읽기 문화가 조성되어서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서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어서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어서 ⑦ 기타 _____

문19-2. 선생님께서 경남의 교육혁신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로 바뀌지 않아서 ②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③ 행복한 책읽기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 ④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되지 않아서
⑤ 안전한 건강급식이 실시되지 않아서 ⑥ 교직원 행정업무가 적정화되지 않아서 ⑦ 기타 _____

주제 3.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문20. 선생님께서는 다음 4개의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②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③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④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문2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격차 해소 ② 인성교육 확대 ③ 교원역량 강화 ④ 진로교육 확대
⑤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⑥ 학교문화 혁신 ⑦ 기초 학력 향상 ⑧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
⑨ 평화·인권교육 확대 ⑩ 기타 _____

문22.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⑥ 기타 _____

※ 다음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①~⑥)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문23.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4.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㉑-㉒)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정책과제

- ㉑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㉒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㉓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㉕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㉖ 나라사랑 교육 강화

문25.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6.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㉗-㉘)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정책과제

- ㉗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㉘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㉙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㉚ 포근한 보건의교육 ㉛ 안전한 건강급식 ㉜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문27.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8.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㉝-㉞)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정책과제

- ㉝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㉞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㉟ 방과 후 학교 운영
- ㊱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㊲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㊳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㊴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문29.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0.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㊵-㊶)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정책과제

- ㊵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㊶ 조차·정원의 합리적 운영 ㊷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㊸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㊹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㊺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㊻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문31.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2.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3.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중심수업의 확산 ②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행복학교 운영
- ③ 과학교육 내실화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④ 독서문화 활성화 ⑤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⑥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주제 4.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문34. 선생님께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성교육 ② 진로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④ 성교육 ⑤ 창의성교육 ⑥ 생태환경교육
- ⑦ 안전교육 ⑧ 통일교육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⑩ 특기적성교육 ⑪ 과학교육 ⑫ 수학교육
- ⑬ 기타 _____

문35. 선생님께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 ② 교사의 전문성 강화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
-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
- ⑥ 기타 _____

문36.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과정 동아리활동 강화 ② 다양한 수업 방법 시도 ③ 지역 자연문화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④ 배움중심수업 연구회 공모 및 지원 ⑤ 단위학교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⑥ 수업 나눔의 날, 배움중심수업축제 운영 ⑦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로 학생평가 방법 개선
- ⑧ 기타 _____

문37. 선생님께서는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 ②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보장 ③ 객관적 변별 기준의 마련
- ④ 평가에 대한 시비를 다루는 절차 마련 ⑤ 선발 경쟁의 압력 완화 ⑥ 기타 _____

문38.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 ②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
- ③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④ 학생 적성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
- ⑤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⑥ 자유학기제 활성화
- ⑦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 ⑧ 기타 _____

문39. 선생님께서는 경남학생의 진학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② 진학전문가 육성 및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③ 권역별 고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 T/F팀 구성 운영
- ④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⑤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
- ⑥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⑦ 기타 _____

문40. 선생님께서는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②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③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
- ④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⑤ 기타 _____

문41. 선생님께서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②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 ③ 학생자치활동 강화 ④ 인권교육 강화
- ⑤ 학생인권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⑥ 기타 _____

문42. 선생님께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 ② 교직원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
- ③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 ④ 교원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 ⑤ 사군 등 지지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
- ⑥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⑦ 기타 _____

문43. 선생님께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 관리 ②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 ③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 ④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
- ⑤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⑥ 기타 _____

문44. 선생님께서는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②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③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 ④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
- ⑤ 처벌 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교육방법 전환 ⑥ 기타 _____

문45.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③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④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⑤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⑥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 ⑦ 교직원 복지 지원 ⑧ 기타 _____

문46. 선생님께서는 '부정부패와 학교비리'를 없애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②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및 도민감사관 운영 ③ 교육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
- ④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 ⑤ 원포인트아웃제 등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 ⑥ 기타 _____

문47-1. (교원용) 선생님께서는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원인사이동 조기 실시 ② 신규교사 수시 발령 ③ 교육장공모 실시 ④ 교원전보 및 파견제도 개선
- ⑤ 교장교감 승진제도 개선 ⑥ 업무역량 중심 관리자 인사 시행 ⑦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 추진
- ⑧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개선 ⑨ 기타 _____

문47-2. (교원 외 직원용) 선생님께서는 공무원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총원 ② 역량평가를 위한 사무관 승진제도 ③ 공정한 보직관리 제도 운영
④ 기타 _____

응답자 분류

문48.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49. 선생님의 소속 학교 소재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녕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문50. 선생님의 소속 학교 및 기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⑤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⑥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⑦ 교육행정기관 _____

문51. 선생님의 소속 학교 규모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소속 학교에 따라 보기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③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중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③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⑤ 31학급 이상

<고등학교>

-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③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④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문52. 선생님의 소속 학교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국립·공립 ② 사립

문53. 선생님의 경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 30년 미만 ⑤ 30년 이상

문54. 선생님의 직무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교원 ② 교육전문직 ③ 교육행정직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용)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진단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요조사'입니다.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는 문항들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문항 해당사항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문1. 학부모님께서서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것보다 누가
힘들고 어떤 어려움을 있는지를 알고 함께 해결하고 돕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2.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로 추진 중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3. 학부모님께서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4. 학부모님께서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5.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6.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주제 2. 경남교육의 현주소

문7. 학부모님께서서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문8.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9.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0.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1.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2.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3.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4.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5.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 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 학부모님께서서는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주제 3.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문18.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4개의 경남교육 역점과제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②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③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④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문19.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격차 해소 ② 인성교육 확대 ③ 교원역량 강화 ④ 진로교육 확대
⑤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⑥ 학교문화 혁신 ⑦ 기초 학력 향상 ⑧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
⑨ 평화인권교육 확대 ⑩ 기타 _____

문20.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중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
격차 해소)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⑥ 기타 _____

※ 다음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①-⑥)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의 정책과제

-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② 행복학교 운영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⑤ 맞춤형 특수교육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문21.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2.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⑦-⑩)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의 정책과제

-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문23.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4.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⑬-⑭)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정책과제

- ㉓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㉔ 학교폭력 없는 공민학교 만들기 ㉕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㉖ 포근한 보건교육 ㉗ 안전한 건강급식 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문25.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6.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 (㉑~㉕)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의 정책과제

- ㉑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㉒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㉓ 방과 후 학교 운영
- ㉔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㉕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㉖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㉗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문27.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8.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의 정책과제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정책의 번호(㉑~㉕)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의 정책과제

- ㉑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㉒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㉓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㉕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㉖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용
- ㉗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문29.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0.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31. 학부모님께서서는 다음 중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움중심수업의 확산 ②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행복학교 운영
- ③ 과학교육 내실화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④ 독서문화 활성화 ⑤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⑥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주제 4.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문32. 학부모님께서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성교육 ② 진로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④ 성교육 ⑤ 창의성교육 ⑥ 생태환경교육
- ⑦ 안전교육 ⑧ 통일교육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⑩ 특기적성교육 ⑪ 과학교육 ⑫ 수학교육
- ⑬ 기타 _____

문33. 학부모님께서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 ② 교사의 전문성 강화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

-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
- ⑥ 기타 _____

문34.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 ②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
- ③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④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
- ⑤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⑥ 자유학기제 활성화
- ⑦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 ⑧ 기타 _____

문35.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학생의 진학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② 진학전문가 육성 및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③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 T/F팀 구성 운영
- ④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⑤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
- ⑥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⑦ 기타 _____

문36.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②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③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
- ④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⑤ 기타 _____

문37. 학부모님께서서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②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 ③ 학생자치활동 강화 ④ 인권교육 강화
- ⑤ 학생인권 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⑥ 기타 _____

문38. 학부모님께서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 ② 교직원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
- ③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 ④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 ⑤ 사·군 등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
- ⑥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⑦ 기타 _____

문39. 학부모님께서서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법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전 관리 ②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 ③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 ④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
- ⑤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⑥ 기타 _____

문40. 학부모님께서서는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②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③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 ④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

- ⑤ 처벌 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교육방법 전환 ⑥ 기타 _____

문41. 학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③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④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⑤ 개층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⑥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⑦ 교직원 복지 지원 ⑧ 기타 _____

응답자 분류

문42. 학부모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43.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 소재지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녕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문44.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⑤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⑥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문45.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 규모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소속 학교에 따라 보기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③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중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③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④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⑤ 31학급 이상

<고등학교>

-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③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④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문46. 학부모님 자녀의 소속 학교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국립·공립 ② 사립

문47. 학부모님께서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48. 학부모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용)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입니다.
본 설문은 경남교육정책의 진단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교육정책 수요조사'입니다.
경남교육정책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방향을 잡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정보는 통계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설문소요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 * 설문 관련 문의 (전화 051-515-5551, 이메일 ontong49@naver.com)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각 문항 해당사항의 번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자 분류

문1. 자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2. 자신의 학교가 있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원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문3. 자신이 다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등학교 ④ 과학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⑤ 예술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⑥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문4.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전체 학급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소속 학교에 따라 보기가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2학급 이하 ③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 ④ 25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중학교>

- ① 6학급 이하 ② 7학급 이상-18학급 이하 ③ 19학급 이상-24학급 이하

- ④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⑤ 31학급 이상

<고등학교>

- ① 12학급 이하 ② 13학급 이상-24학급 이하 ③ 25학급 이상-30학급 이하

- ④ 31학급 이상-36학급 이하 ⑤ 37학급 이상

문5. 자신이 다니는 학교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초등학생은 본 문항이 없습니다.)

- ① 국립-공립 ② 사립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문6.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것보다 누가 힘들고 어떤 어려움을 있는지를 알고 함께 해결하고 돕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7. 경남의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배움의 주인인 '행복학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8. '우리학교의 교육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9.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의 학교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문10. '우리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⑤ 매우 못한다

주제 2.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문11. 최근 3년간 우리 학교는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2. 최근 3년간 우리학교는 '학생의 참여와 합의가 늘어나는 민주적 문화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3.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4.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5.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기회의 차이를 줄이고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복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인성교육 ② 진로교육 ③ 세계시민교육 ④ 성교육 ⑤ 창의성교육 ⑥ 생태환경교육
⑦ 안전교육 ⑧ 통일교육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⑩ 특기적성교육 ⑪ 과학교육 ⑫ 수학교육
⑬ 기타 _____

문17.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변화 ② 교사의 전문성 키우기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만들기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만들기
⑥ 기타 _____

* 주어진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내부록 2 : 경남 정책방향별 예산 동향

가. 정책방향 1 -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구분	추진사업	예산(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 배움이 즐거운 교실	1-1-1.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지원						
	① 교육과정(유·초·중등) 편성·운영 지원	1,070,712(1-1-2)	802,490	618,380	187,390	86,260	199,684
	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 개발·보급	119,120(1-1-2)	55,020(1-1-1)	34,780	비예산	30,800	29,820
	③ 2015 개정 교육과정 연수·홍보 강화	102,670(1-1-2)	105,842	79,254	59,579	18,300	44,860
	④ 자유학기제 운영 및 지원	-	-	4,910(1-1-2)	1,044,972	5,547,652	650,806
	⑤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활동 활성화	374,038(1-1-4)	514,850(1-1-3)	445,426(1-1-3)	199,290	219,876	350,862
	⑥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	24,315,075(1-1-5)	23,126,200(1-1-4)	11,409,425(1-1-4)	8,392,100	8,472,250	7,196,525
	(‘13) 1-1-1-②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지원	1,357,780	567,380	-	-	-	-
	(‘13) 1-1-1-④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	-	604,800	-	-	-	-
	(‘13) 1-1-1-⑤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1,746,500(1-1-1-1-6)	83,110(1-1-1)	-	-	-	-
	(‘13) 1-1-3-⑤ 중등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운영	-	비예산	-	-	-	-
	(‘13,‘14) 1-1-1-② 교육과정 중심의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	2,518,260(1-1-1-⑥)	872,546	-	-	-
	(‘14) 1-1-1-④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4,578	-	-	-
	(‘13,‘14) 1-1-1-⑥ 창의경영학교(자율형)운영	-	1,025,000(1-2-2-②)	490,800	-	-	-
	1-1-2. 배움이 즐거운 교육활동 전개						
	① 학생·교사·학부모 입체 상담으로 개인별 맞춤 지도(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교육과정 동아리활동 강화(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학생 평가 방법 개선	-	-	-	37,290	92,760	237,170
	④ 「경남교육특허」시대를 열어가길 창의적인 수업 전개 (공약)	-	-	-	60,000	120,000	59,600
	⑤ 지역의 자연·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5) 고입전형 방법 변경(공약)	-	-	-	비예산	-	-
	1-1-3.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수업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원인별 맞춤형 전문 지원(공약)	9,051,000(1-2-2)	7,131,100(1-2-2)	2,646,428	1,280,000	1,200,000	1,072,000
	③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	192,180(1-1-1-1-2-2)	77,500(1-2-2)	77,500	268,300	412,600	419,800
	1-1-4.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운영(공약)						
	①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운영	-	-	-	34,800	4,554	4,554
② 영역별·분야별 연구 자료 디지털 콘텐츠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개발된 우수 교육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화	-	-	-	비예산	비예산	335,000	

1-1-5. 맞춤형 대안교육 운영(공약)							
① 수시형 대안교육 운영	161,219(3-5-2)	15,364,774(3-5-2.3)	131,572(3-5-2.3)	455,380	1,101,200	546,200	
② 입학형 대안교육 운영	220,000(3-5-3)	-	-	380,350	727,750	483,750	
③ 심화형 대안교육 운영	420,000(3-5-1)	435,000(3-5-1)	427,500(3-5-1)	50,000	20,000	20,000	
1-1-6. 미래형 지식정보화 교육 구현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7,320(2-5-2)	14,000(2-5-2)	10,178(2-4-2)	8,000	15,660	6,700	
②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활용기반 조성	1,707,642(2-5-3)	6,634,429(2-5-3)	2,855,450(1-2-6,2-4-3)	1,620,015	1,698,030	1,113,150	
③ EBS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1,733,120(1-2-4)	1,430,624(1-2-4)	945,520(1-2-4)	295,300	285,620	285,690	
④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활성화	-	-	-	-	108,250	103,050	
⑤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	-	-	34,240(①-1~3)	21,155	166,460	(1-③-2융합인재활성화)
('12~'14) 2-4-1. 지식정보활용능력신장							
① IT미래인재발굴·육성	18,270(2-5-1)	3,574	2,620	-	-	-	
② 학생정보올림피아드대회 운영	21,360(2-5-1)	21,040	18,820	-	-	-	
③ 교원컴퓨터프로그램경진대회 운영	19,060(2-5-1)	20,240	19,880	-	-	-	
④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운영	23,372(2-5-1)	23,372	19,840	-	-	-	
⑤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	139,100(2-5-1)	50,000	66,550	-	-	-	
('13) 2-5-1-④ 교육방송연구대회 (경남예선)	11,710(2-5-1)	6,800	-	-	-	-	
('13) 2-5-1-⑦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30,000(2-5-1)	30,000	-	-	-	-	
('13) 1-1-2. 주5일수업제 운영 지원							
① 주5일 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10,000(1-1-3)	10,000	-	-	-	-	
②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지원	512,640(1-1-3)	504,672	-	-	-	-	
③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000(1-1-3)	255,000	-	-	-	-	
④ 홍보 및 시행 추진단 운영	5,500(1-1-3)	5,500	-	-	-	-	
⑤ 장학자료 발간 보급 및 우수학교 지원	84,900(1-1-3)	84,900	-	-	-	-	
⑥ 연수회 개최	15,000(1-1-3)	15,000	-	-	-	-	
1-2-1. 행복학교 공모 및 운영(공약)							
① 행복학교 공모 및 운영	-	-	-	400,450	748,600	1,483,600	
② 행복맞이학교 공모 및 운영	-	-	-	360,450	450,000	610,000	
③ 행복학교 연구회 공모 및 운영	-	-	-	60,450	60,600	60,000	
1-2-2. 행복학교 지원 강화							
① 행복학교 추진단 및 정책연구팀 운영	-	-	-	17,984	41,720	36,560	
② 행복학교 컨설팅단 및 중간평가단 운영	-	-	-	14,000	32,400	32,730	
③ 행복학교 운영 도움자료 제작 및 배부, 누리집 구축 및 운영	-	-	-	79,260	25,200	23,100	
④ 행복학교 교직원 컨설팅단 연수, 공모설명회, 유공교원 연수	-	-	-	30,856	177,192	184,846	
⑤ 행복학교 세미나 및 성과보고회	-	-	-	30,760	31,378	51,378	
1-2-3. 행복교육지구 운영							
①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	-	-	-	-	-	61,000	
② 행복학교 기반 조성	-	-	-	-	-	128,268	
③ 학생의 꿈을 키워 나가는 마을학교 운영	-	-	-	-	-	55,030	

	④ 지역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	-	-	-	-	73,960
	1-2-4. 배움중심수업 확산						
	① 배움중심수업연구회공모및지원, 단위학교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공약)	-	-	-	31,520	34,284	700,900
	② '수업나눔의날'(공약), '상시수업나눔교사제', '배움중심 수업축제'운영	-	-	-	비예산	114,700	185,380
	③ 배움중심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연수 활동 지원(공약)	-	811,551(1-2-3)	-	5,320	305,590	150,872
	④ 맞춤형 연수 지원	-	-	-	120,000	165,860	157,500
	⑤ 논술역량강화와 공교육논술지원단 운영	159,300(1-2-3)	234,600(1-2-3)	202,270(1-2-3-③)	-	77,900	81,750
	1-2-5. 일반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공약)						
	①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	-	-	-	-	567,600	비예산
	②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	-	-	-	1,076,400	비예산
	③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	-	6,850,000(1-7-5-②)	5,600,000	특교(③-1)+4,206,625	5,850,625
	④ 자율형공립고 운영 내실화	-	1,012,705(4-2-4)	696,500(4-2-3-①)	500,000	500,000	500,000
	('14) 1-7-5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운영 점검	-	-	1,580	-	-	-
	1-3-1. 과학교육 내실화						
	① 과학교과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2,044,050(2-2-2)	168,000(2-2-1)	192,000(2-3-1-③)	97,780	4,279,980	1,326,888
	② 과학 실험교육 여건 조성	-	192,000(2-2-2)	90,000(2-3-1-②)	비예산	101,770	227,040
	③ 과학중점 학교 운영	204,000(2-2-1)	12,000(2-2-1)	27,000(2-3-1-⑦)	171,336	117,900	91,000
	④ 과학실험원 운영 및 관리	1,681,827(2-2-1)	1,862,780(2-2-1)	-	1,158,889	1,395,346	1,414,010
	('14) 2-3-1 과학교육 내실화						
	① 과학의 달 행사 개최	2,600(2-2-1)	3,660(2-2-1)	3,980	-	-	-
	②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운영	-	-	비예산	-	-	-
	⑤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운영	630,000(2-2-2)	337,950(2-2-2)	78,000	-	-	-
	⑥ 과학탐구수업 자료 제작 및 지원	3,000(2-2-1)	-	비예산	-	-	-
	1-3-2.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① 융합인재교육 실천 역량 강화	비예산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미래형 과학교실, 무한상상실, 창의과학교실 운영	248,050(2-2-2)	92,660+특교(2-2-2)	특교+72,600(2-3-2-①)	30,000	100,000	300,000
	③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지원	비예산	70,000(2-2-2)	50,000(2-3-2-①)	-	20,000	20,000
	1-3-3. 영재교육 활성화						
	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3,484,000(2-2-3)	3,484,000(2-2-3)	2,603,986(2-3-3-①)	2,042,850	3,324,250	3,733,600
	②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실시	521,000(2-2-3)	521,000(2-2-3)	459,000(2-3-3-②)	120,000	291,750	261,000
	③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	31,892(2-2-3)	31,892(2-2-3)	106,858(2-3-3-①)	92,889	45,100	39,440
	④ 발명교육 운영 내실화	785,548(2-2-3)	468,880(2-2-3)	572,950(2-3-3)	538,590	520,720	222,950
	1-3-4.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① 생태환경교육 협력체제 구축	40,000(2-2-4)	40,000(2-2-4)	비예산(2-3-4-④)	140,780	217,008	72,840
	② 체험중심 환경교육 강화	128,821(2-2-4)	293,640(2-2-4)	151,520(2-3-4-①,⑤)	37,240	261,736	569,251
	③ 환경교육 실천 역량 강화	24,000(2-2-4)	22,000(2-2-4)	22,000(2-3-4-⑤)	21,420	20,000	61,786
	('12~14) 2-3-4. 환경교육 강화						

1-3. 탐구중심의 과학 영재 교육

	② 환경교육 여건 조성	비예산	5,250(2-2-4)	26,210	-	-	-
	③ 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117,880(2-2-4)	26,000(2-2-4)	26,000	-	-	-
	1-3-5. 수학교육 활성화						
	① 행복한 수학교육교실 운영	-	150,000(1-2-5)	240,000(2-3-5-①.②)	65,000	150,000	650,000
	② 양산수학교육센터 운영	-	-	-	267,915	135,800	105,800
	③ 수학교사 전문성 신장	-	85,640(1-2-5)	85,640(2-3-5-③)	12,000	60,000	60,000
	④ 경남수학문화관 및 김해수학교육센터 신설	-	-	-	-	-	1,352,270
	1-3-6. 특수목적고 운영 내실화(공약)						
	① 외국어고 운영 내실화	-	-	-	135,000	135,000	비예산
	② 과학고 운영 내실화	-	-	-	819,000	820,620	904,220
	③ 체육고 운영 내실화	-	-	-	713,360	1,704,376	1,704,376
	1-4-1. 독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역점)						
	① 도서관 환경개선 및 자료 확충	1,162,397(4-3-3)	6,046,651(4-3-3)	2,134,097 (1-2-3-④, 4-3-3-②)	비예산	2,430,000	5,793,622
	②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역할 강화	4,677,634(1-2-3)	3,822,557(1-2-3)	3,987,567 (4-3-3-③)	4,229,525	3,973,381	6,235,573
	③ 도서관 통합서비스 운영	1,838,133(4-3-3)	2,856,549(4-3-3)	1,661,172 + 24개 기관 도서관 자체 별도 (4-3-3-①.④)	-	3,373,582	345,196
	④ 도서관 운영 전문성 확보	55,260(1-2-3)	62,290(1-2-3)	28,450	비예산	18,738	18,910
	1-4-2.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역점)						
	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 강화	-	-	740,824	-	비예산	49,000
	② 행복한 책 읽기 운영	-	-	-	-	-	350,000
	③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성화	-	-	-	-	-	430,000
	④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	-	-	-	-	30,000
	(‘15.’16) 1-4-2-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920,310(1-2-3)	-	-	-	-	-
	(‘15.’16) 1-4-2-② 방과후 및 토요 독서 프로그램 운영(역점)	-	-	-	비예산	601,200	-
	(‘15.’16) 1-4-2-③ 교원양성 대학 필수 강좌에 '교과 독서 지도' 과목 신설(역점)	-	-	-	비예산	비예산	-
	1-4-3. 도민을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 지원 확대(역점)						
	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공도서관 운영 내실화	-	1,091,000(1-2-3)	-	2,222,388	2,135,354	429,597
	② 지역별·계층별 특색 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545,120(4-3-3)	-	237,550	472,833	552,760
	③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전개	835,450(1-2-3)	비예산(4-3-3)	397,730(1-2-3-②)	54,000(1-4-2-⑤)	488,400	319,840
	④ 쉽고 편리한 U-도서관 서비스 제공	-	-	-	-	-	57,000
	1-5-1.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						
	① 장애영유아 무상무교육 지원	814,600(1-4-1)	881,000(1-4-1)	118,00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신·중설 특수학교(급) 교육여건개선 지원	3,030,000(1-4-1)	1,625,000(1-4-1)	1,625,000	950,000	820,000	820,000
	③ 건강장애 및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104,000(1-4-1)	93,600+특교(1-4-1)	108,000	197,880	317,880	313,800
	(‘13) 1-4-1-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2,880	-	-	-	-

1-5-2.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①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강화	-	43,260(1-4-2)	25,680	비예산	10,000	10,000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체계 확립	-	-	2,020	1,720	1,200	120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지원	-	-	5,648,000	4,392,321	2,037,686	2,111,630	
(‘13) 1-4-2 연구학교 및 실습 협력학교 운영	-	24,000	-	-	-	-	
(‘13) 1-4-2 특수교육 국제교류사업	-	62,780	-	-	-	-	
(‘13, ‘14) 1-4-1-⑥ 교원 연구활동 지원	-	16,100(1-4-2)	19,200	-	-	-	
(‘14, ‘15) 1-6-2-②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	5,648,000	3,722,600	-	-	
(‘15) 1-6-2-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	-	105,141	-	-	
1-5-3. 장애학생 복지 지원 강화							
①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1,432,400(1-4-2)	144,000(1-4-2)	126,000	50,000	90,000	100,000	
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	4,877,400(1-4-3)	5,236,920	5,280,850	5,528,094	6,187,916	
③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운영 지원	15,499,386(1-4-2)	12,878,338(1-4-3)	12,174,886	506,836	18,681,091+특교금	20,303,609+특교금	
1-5-4. 전환교육 지원 확대							
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공약)	690,000(1-4-2)	936,000(1-4-2)	474,000	308,000	140,000	150,000	
②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공약)	-	-	72,000	167,000	105,000	130,000	
④ 특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운영	-	-	248,000	-	-	140,000	
⑤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583,750(1-4-1)	483,510(1-4-1)	811,660	810,810	810,000	1,050,000	
(‘14) 1-4-4-③ 특수교육 정보관리 지원	-	-	100,000	-	-	-	
1-6-1.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① 전 고등학교 진로·직업체험 활동비 지원	99,286(1-6-1)	310,400(1-7-1-①,②)	310,400(1-7-1-①,②)	66,000	231,000	681,000	
② 진로진학상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경남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공약)	-	-	50,800(1-7-4-④)	167,460	66,160	65,760	
③ 교원, 학부모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연수 실시	109,960(1-6-1)	206,433(1-7-3,4)	155,633(1-7-3)	93,409	85,850	95,750	
④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 실현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	-	-	-	-	비예산	
⑤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업장 진로체험처 확보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1,400	1,400(1-7-2-②)	-	404,462	406,062	
(‘15) 1-7-1-③ 교과통합 진로교육 시범수업단 운영	-	-	-	비예산	-	-	
(‘15) 1-7-2-③ 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지원	-	-	-	비예산	-	-	
1-6-2. 단위학교 대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진학지원체제 구축 운영							
① 단위학교 진학지도 지원을 위한 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공약)	-	-	-	-	64,980	49,980	
② 진학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공약)	-	27,820(1-7-2)	27,820(1-7-2-③)	5,892	5,892	7,730	
③ 권역별 고3 부장 협의체 및 일반고 내 진로·진학 T/F팀 구성·운영	-	-	-	34,230	12,000	15,000	
④ 중·고등학교가 함께 하는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	-	-	-	비예산	30,000	
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	-	-	-	33,044	46,940	

1-6-3. 현장 중심의 고품격 맞춤형 진학지도							
① 학생 맞춤형 진학자료 개발 보급	-	115,990(1-7-4)	115,990(1-7-4-③,⑥)	-	51,180	147,750	
② 단위학교 맞춤형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지원	67,580(1-2-2)	1,548,550(1-2-2.1-7-4)	1,428,400	25,704	106,180	1,573,110	
③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진학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활성화	-	-	-	-	59,020	63,020	
④ 학생 진학 맞춤형 대학진학박람회 개최	785,620(1-6-1)	297,600(1-7-1)	297,600(1-7-1-④,⑤)	110,690	109,440	153,340	
⑤ 진학관련 온라인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대입상담실 운영(공약)	-	139,310(1-7-4)	139,310(1-7-4-①)	-	13,920	13,920	
1-6-4. 특성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							
① 취업지원센터 내실화 및 특성학교 취업역량 강화로 취업 중심 특성학교 운영	777,246(1-6-2.3)	3,895,476(1-6-1)	3,714,933(1-6-1)	392,954	477,890	461,400	
② 특성학교 수업 선진화 및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2,400,000(1-6-3)	1,583,000(1-6-2)	5,700,000(1-6-2-②)	1,309,000	1,960,000	1,950,000	
③ 산업체 맞춤 인력 양성 및 도제학교 운영을 통한 시·군별 우수 특성학교 육성	371,500(1-6-3)	-	-	98,000	1,054,500	1,525,500	
④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 및 직업교육 선진화로 특성학교 내실화	-	-	-	656,000	497,880	575,760	
1-6-5.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①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운영	2,361,125(1-6-4)	1,800,200(1-6-3)	1,869,770(1-6-3-①)	366,600	752,520	914,040	
② 특성학교장학금, 기자재 확충,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특성학교 내실화 지원	59,439,793(1-6-3.4)	22,722,291(1-6-2.3)	13,527,624(1-6-3-②)	12,789,956	11,086,774	11,851,250	
③ 기능경기영농학생 전진·상업경진대회 지원으로 전문 인재 양성	867,820(1-6-4)	887,390(1-6-3)	849,300(1-6-3-③,④)	404,139	722,134	854,594	
④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으로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	-	187,500(1-6-2-③)	31,000	30,235,400	13,168,410	
('14) 1-6-3-⑤ 경남 FFK 전진대회 운영 및 지원	96,736(11-6-4)	141,696(1-6-3)	144,606	-	-	-	
('12, '13) 1-7-5. 경남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①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운영	200,000(1-6-5)	150,000	-	-	-	-	
② 장학금 지원 및 국제교류사업	10,000,000(1-6-5)	비예산	-	-	-	-	
('14) 1-7-1. 진로·진학 체험활동 활성화							
③ 진로·진학 체험기관 발굴	-	16,000	16,000	-	-	-	
('12~'14) 1-7-2. 진로·진학 지원체제 운영							
① 진로교육 선도학교 운영	4,702,250(1-6-1)	150,500	150,500	-	-	-	
④ 교과통합 진로교육 시범 수업단 운영	-	24,000	24,000	-	-	-	
⑤ 진로교육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4,040(1-6-1)	300	300	-	-	-	
⑥ 진로교육 T/F팀 운영	-	8,370	8,370	-	-	-	
⑦ 수시·정시전형 대비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	-	3,000	3,000	-	-	-	
⑧ 대입전략 수립을 위한 고3부장 워크숍 운영	-	32,570	32,570	-	-	-	
('14) 1-7-4.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⑤ 문항 분석팀 운영 및 학력진단시스템 보급	-	94,560(1-7-4)	5,000	-	-	-	
1-2-1. 학력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14) 1-2. 맞춤형 학력향상							
① 수업공개 활성화 추진	-	비예산(1-2-1-①)	비예산	-	-	-	
② 수업 우수교사(수업명사) 인증제 운영	541,680(1-2-1)	166,420(1-2-1-②)	157,222	-	-	-	
③ 교실수업 개선 연구·연수 활동 지원	-	69,420(1-2-1-③)	76,600	-	-	-	
④ 수업분석환경 구축 사업 지원	-	254,800(1-2-1-④)	329,800	-	-	-	

1-2-5. 공정한 학업성적관리							
①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2,500	비예산(1-2-6)	비예산	-	-	-	-
②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 내실화	1,000(1-2-5)	20,610(1-2-6)	9,140	-	-	-	-
③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 지원	비예산	비예산(1-2-6)	비예산	-	-	-	-
④ 서술형평가 전문성 신장 및 지원	45,000	비예산(1-2-6)	비예산	-	-	-	-
1-5-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①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55,000(1-3-1)	100,900(1-3-1)	-	비예산	35,828	-	-
②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	148,050(1-3-4)	58,996	43,950	79,102	-	-
③ 현장중심 장학 지원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④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	-	-	-	840	-	-
(‘13) 1-3-1-③ 도·농 자매결연 유치원 운영	-	20,000	-	-	-	-	-
(‘14) ② 유·초 연계교육 지원	-	-	30,000	-	-	-	-
(‘15) ①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	-	197,555	비예산	-	-	-
1-5-2. 질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② 기타 교육활동 전문 인력 구성 운영(공약)	-	-	-	1,250	비예산	-	-
1-5-4.. 유아교육 협력체제 활성화							
①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체험활동 활성화	830,000(1-3-6)	40,000(1-3-5)	220,000	28,000	비예산	-	-
② 지역 거점유치원 운영	1,046,000(1-3-6)	340,000(1-3-3,5)	505,000	176,000	250,000	-	-
③ 지역과 함께하는 유아활동 전개	-	-	-	비예산	비예산	-	-
(‘14) ③ 유치원 종합복지 서비스 지원	-	-	20,000	-	-	-	-
(‘12) 1-3-2. 수요자가 만족하는 종일제 운영							
① 종일제 운영 지원	8,053,600	-	-	-	-	-	-
② 기타 교육활동 운영	382,500	-	-	-	-	-	-
③ 온종일 및 야간돌봄유치원 운영	2,503,000	-	-	-	-	-	-
(‘12) 1-3-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지원 확대							
① 기본 학습능력 발달 지원	22,746(1-3-3)	-	-	-	-	-	-
② 유치원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	20,000(1-3-3)	-	-	-	-	-	-
(‘13) 1-3-4. 유아교육 전문성 신장							
① 교원 연구활동 지원	130,440(1-3-5)	148,050	-	-	-	-	-
② 연구시범 유치원 운영	비예산	비예산	-	-	-	-	-
③ 교육실습협력 유치원 운영	비예산	비예산	-	-	-	-	-
(‘14) 1-3-3. 미래형 학교 기반 조성							
③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20,340(1-3-3)	4,730	-	-	-	-

(‘15, ‘16)
1-5.
질높은
유아교육

나. 정책방향 2 -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분	추진사업	예산(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1.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2-1-1. 학생의 인성을 함께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①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	-	-	-	11,900	11,400
	② 관계 중심 생활교육의 실천	-	-	-	-	비예산	비예산
	③ 또래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관계 형성(공약)	-	-	-	-	비예산	55,000
	④ 인성함양에 적합한 학교문화 기반 조성	-	-	-	-	20,000	22,680
	2-1-2.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① 교직 생애별 인성교육 지도 역량 제고	-	-	-	-	비예산	6,400
	② 교사공동체의 참여와 전담 여건 조성	-	-	-	-	비예산	2,000
	2-1-3.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운영						
	① 부담을 덜어주는 실천적 교육과정 운영	-	-	-	-	비예산	비예산
	②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평가 정착	-	-	-	-	비예산	비예산
	③ 인성중심 수업 지원 환경 구축	-	-	-	-	비예산	비예산
	④ 인성함양에 적합한 학교문화 기반 조성	-	-	-	-	비예산	비예산
	2-1-4.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공약)						
① 관계회복중심 생활교육 확산	-	-	-	-	비예산	비예산	
② 원인해결중심 생활교육	-	-	-	-	19,100	비예산	
③ 연합교외 생활교육 지원	-	-	-	-	비예산	비예산	
④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 대책 추진	-	-	-	-	비예산	비예산	
2-2. 민주적학교 문화조성	2-2-1. 민주시민교육 및 자치조직 기능 강화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	-	6,000	비예산	비예산
	② 학생회 역할 및 기능 연수(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48,700
	2-2-2. 집단지성의 교직원회 운영						
	① 교내 토론문화 활성화	-	-	-	-	-	4,300
	② 민주적 의사 결정 체제 확립	-	-	-	-	-	비예산
	2-2-3. 학생 자치활동 내실화						
	① 학생 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	-	-	-	11,710	15,180	12,680
	② 학생 자치를 위한 담임 역할 제고 및 지원	100,640(3-1-3)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학생 자치 동아리활동 지원(공약)	153,800(2-1-3, 3-1-3)	43,800+특교(2-1-3)	비예산(2-1-3-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2-4.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①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강화	-	-	-	31,600	47,100	55,300	
②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실천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구현하는 학생생활규정 정착	-	-	-	14,745	비예산	비예산	

2-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3-1. 나눔과 배려의 교육기부 확산							
	① 교육기부'e-나눔미'운영	5,000(2-1-1)	5,000(2-1-2)	5,000(2-1-2-①)	5,00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보급	-	10,000(2-1-2)	9,000(2-1-2-②)	비예산	7,000	7,000	7,000
	③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890,000(2-1-1)	599,350(2-1-2)	315,640(2-1-2-②,④)	273,031	329,581	14,180	14,180
	④ 찾아가는 교육기부 연수 및 프로그램 컨설팅	-	90,000(2-1-2)	58,860(2-1-2-④)	비예산	7,920	7,920	7,920
	2-3-2. 도민과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홍보 강화							
	① 교육 홍보체제 구축 지원	-	-	-	비예산	412,904	459,743	459,743
	② 교육활동 홍보 다양화	-	-	-	221,000	257,080	779,100	779,100
	③ 홍보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	-	91,720	51,720	54,092	54,092
	2-3-3.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① 교육공동체 공감 토론회 개최(공약)	-	-	-	217,775	171,900	119,100	119,100
	② 교직원단체, 시민단체 등과 정책협의 추진(공약)	-	-	-	21,620	210,090	4,000	4,000
	③ 단체 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	-	-	-	19,500	30,500	4,000	4,000
	④ 경남교육정책협의회 운영(공약) 및 경남정책관리자회의 운영	-	-	-	16,600	22,200	8,560	8,560
	⑤ 행복교육 교원모니터링단 조직·운영	-	-	-	11,000	3,300	1,500	1,500
	⑥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사업 추진	-	-	-	비예산	1,100	6,100	6,100
	⑦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공약)	-	-	-	-	11,000	22,630	22,630
	(2015) 2-2-2-⑥ 경남 교육정책 개발·운영	-	-	-	126,000	-	-	-
	2-3-4. 유아교육 협력체제 활성화							
	① 지역거점유치원 운영	-	-	-	176,000(1-5-4-②)	250,000(1-5-4-①)	200,000	200,000
②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체험활동 운영	-	-	-	28,000(1-5-4-①)	비예산(1-5-4-②)	비예산	비예산	
2-3-5. 학부모 교육 참여활동 활성화								
①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지원	-	-	-	217,190	2,300	2,600	2,600	
② 학부모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지원(공약)	-	-	-	98,024	138,000	172,800	172,800	
③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	-	128,540	142,060	141,060	141,060	
④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링단 조직·운영	-	-	-	9,00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2-4-1. 학교 시설 지역민 개방							
	① 학교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개방 및 관리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학교도서관 지역민 개방 운영 및 홍보 강화	-	-	-	비예산(350교)	620,000(400교)	비예산(450교)	비예산(450교)
	2-4-2.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① 학교시설 이용 평생교육 운영 및 평생교육 우수학교 선정·지원	-	108,000(4-3-1)	36,000(4-3-1-③)	비예산	36,000	36,000	36,000
	②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102,300(4-3-1)	103,900(4-3-1)	109,300+24개 도서관 자체예산(4-3-1-②)	311,420	172,700	164,900	164,900
	③ 평생교육시설 운영 내실화	1,339,920(4-3-1)	1,638,007(4-3-1)	1,738,951(4-3-1-④)	1,686,570	2,012,406	2,271,356	2,271,356
	④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행	-	-	-	-	263,660	298,566	298,566
	('13, '14, '15) 2-3-2-②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기반 조성	604,502(4-3-1)	750,300(4-3-1①)	522,640(4-3-1①)	244,438	-	-	-
	2-4-3. 학생성장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좌 개설							
	① 예비 학부모 대학 운영(공약)	20,400(4-3-2)	40,000(4-3-2)	40,000(4-3-2-①)	42,000	21,000	비예산	비예산
	②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공약)	328,630(4-3-2)	301,800(4-3-2)	382,460(4-3-2-①)	92,490	47,160	66,200	66,200

	③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226,771(4-3-2)	156,809(4-3-2)	171,806(4-3-2-①,③)	173,048	104,800	105,000	
	('13, '14) 4-3-2. 학부모교육 참여활동 활성화							
	②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928,696(4-3-2)	1,000,030	684,650	-	-	-	
	④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72,840(4-3-2)	26,335	14,745	-	-	-	
	('12, '13, '14) 4-3-4. 교육협력체제 구축							
	① 전국학술대회 지원	7,000	7,000	7,000	-	-	-	
	② 교과교육연구회 심포지움 지원	6,000	5,000	5,000	-	-	-	
	③ 교실수업개선 포럼 지원	6,000	5,000	5,000	-	-	-	
	④ 교과교육 및 정책과제 공동 연구자료 개발	12,000	12,000	12,000	-	-	-	
	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2,440	2,440	900	-	-	-	
	⑥ 교육협력관 파견 운영	-	6,000	4,000	-	-	-	
	⑦ 경상남도 대학-교육청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2,500	2,100	-	-	-	
	('12, '13) ④ 교육실습 학교담당자 워크숍 지원	4,000	6,000	-	-	-	-	
	('13) ⑥ 교육실습 운영프로그램 지원	-	42,000	-	-	-	-	
	('12) 4-3-5.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교육							
① 인구교육 담당교사 연수	9,035	-	-	-	-	-		
② 직장교육(인구교육) 실시	비예산	-	-	-	-	-		
③ 홍보 및 관련 자료 보급	비예산	-	-	-	-	-		
2-5.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교육	2-5-1. 다문화교육 내실화							
	①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교육 지원(공약)	1,373,470(4-1-3)	1,235,784(4-1-3)	845,065(4-1-3-②,③)	335,570	354,650	674,200	
	② 이중언어교육 지원	-	633,072(4-1-3)	1,349,171(4-1-3-④)	175,684	1,626,270	1,664,650	
	③ 광역형 경남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 및 거점형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	-	5,019,500(4-1-3-⑤)	-	9,768	273,410	
	('13, '14, '15) 2-4-1-② 상호문화이해교육 연수(공약)	-	18,040(4-1-3)	66,890(4-1-3-①)	15,600	-	-	
	2-5-2. 실용 중심 외국어교육 강화							
	①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공약)	150,200(1-5-1)	175,710(1-5-1)	170,580	-	52,440	59,310	
	② 영어 전문 인력 활용	19,613,128(1-5-1.2)	19,278,948(1-5-1.2)	12,581,107(1-5-2)	17,438,634	15,319,956	14,914,369	
	③ 실생활 의사소통 중심 영어 프로그램(공약)	-	287,862(1-5-1)	146,778	61,600	36,900	715,100	
	('13) 1-5-1-⑤ (가칭) 경남 국제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	24,660	-	-	-	-	
	('13) 1-5-1-⑥ (가칭) 경남 국제교육원 설립 추진	90,470(1-5-1)	5,040,000	-	-	-	-	
	('14) 1-5-1-①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	-	비예산	-	-	-	
	('14) 1-5-1-③ 초등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	-	37,880	-	-	-	
	('14) 1-5-2-③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	-	-	285,926	-	-	-	
	('14) 1-5-2-④ 원격 화상 스마트 원격 영어수업 운영	-	1,218,676(1-5-2)	1,240,966	-	-	-	
	('14) 1-5-2-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운영	821,148(1-5-2)	1,020,000(1-5-2)	비예산	-	-	-	
	('14) 1-5-2-⑥ 창의경영학교(영어교육모델) 운영	40,000(1-5-2)	20,000(1-5-2)	비예산	-	-	-	
	('15) 2-4-2-① 영어회화능력 검증 시스템 운영(공약)	-	-	-	21,500	-	-	
	('15) 2-4-2-⑤ 영어독서선도학교 운영	-	-	-	25,000	-	-	
	2-5-3. 국제 교류·교육 활성화							

① 국제교류지원센터 운영(공약)	219,040(1-5-3)	103,000(1-5-3)	72,000	99,790	84,790	84,790
② 학생 해외연수 및 답사계획 확대	41,390(1-5-3)	179,650(1-5-3)	166,930	65,000	65,000	65,000
③ 교직원 국제적 감각 향상(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교사 및 학생 교환 교수 학습 실시	-	-	-	27,500	42,500	42,500
⑤ 전략적 투자협력국(베트남)과의 협력 추진	158,370(1-5-3)	159,148(1-5-3)	155,928(1-5-3)	비예산	149,745	154,940
(‘14) 1-5-3-②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국제이해교육	137,600(1-5-3)	107,200(1-5-3)	102,600	-	-	-
(‘15) 2-4-3-②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확대	-	-	-	비예산	-	-

2-6-1. 찾아가는 우리고장 사랑 교육						
① 우리고장 바로알기 역사문화 탐방	-	-	-	-	80,000	96,000
② 경남 청소년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 개최	-	-	-	-	58,500	113,396
2-6-2. 활동중심의 나라사랑 교육 구현						
① 올바른 국가의식 및 역사의식 함양 교육	비예산(2-3-1)	비예산(2-3-1)	48000(2-5-1-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호국 보훈의식 함양 교육	비예산(2-3-1)	31,000(2-3-1)	67,000(2-5-1-②)	비예산	9,260(3회,5월~10월)	74,220(3회,4월~12월)
③ 나라사랑 계기교육 활동 강화	비예산(2-3-1)	비예산(2-3-1)	비예산(2-5-1-③)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역사 및 지리교육 강화	비예산(2-3-2)	비예산(2-3-2)	137,800(2-5-2)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⑤ 독도 사랑교육 지속적 실시	211,650(2-3-3)	188,850(2-3-3)	188,850(2-5-3)	3000	비예산	5,000
2-6-3. 통일안보 교육 강화						
① 통일안보 교육 역량 강화	36,500(2-3-4)	36,500(2-3-4)	36,500(2-5-4-②)	27400	20,000	비예산
② 눈높이 통일안보 교육	91,250(2-3-4)	71,750(2-3-4)	71,750(2-5-4-③,④)	18000	8,100(②-2만 해당)	170,300
③ 체험중심 통일안보 교육	9,000(2-3-4)	13,700(2-3-4)	13,700(2-5-4-①,②)	비예산	6,000	특교

2-1-1. 창의 인성교육 실천 강화						
① 창의 인성모델학교운영	340,000	360,000	90,000	-	-	-
② 창의 인성수업연구회운영	458,200	287,770	123,860	-	-	-
③ 창의 인성교육 컨설팅 지원	-	18,000	18,000	-	-	-
④ 창의경영학교(사교육절감형) 운영	-	3,329,500(4-2-3)	특교+315,000	-	-	-
⑤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	-	76,400	46,000	-	-	-
2-1-3. 학생 자치활동 강화						
① 자치법정 운영	91,000(2-1-3)	101,850+특교금	85,000	-	-	-
③ 학교문화 개선 선도학교 운영	91,000(2-1-3)	45,000	90,000	-	-	-
④ 학생 인권교육	-	41,200	비예산	-	-	-
2-1-4. 친구사랑 운동 전개						
① 친구사랑 주간 운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② 친구의 날 운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③ 친구사랑 프로그램 운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④ 친구사랑 활동 홍보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2-1-5. 봉사활동 내실화						
①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비예산	500	비예산	-	-	-
② 1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	500	비예산	-	-	-
③ 봉사활동 관련 연수 및 홍보	3,000	17,920	비예산	-	-	-

(‘12) ② 가족봉사단 운영 활성화	비예산	-	-	-	-	-
(‘12) 2-1-2. 기초질서 생활화						
① 기초질서교육	비예산	-	-	-	-	-
② 기본예절 교육	2,000	-	-	-	-	-
④ 향교시설이용교육	비예산	-	-	-	-	-
(‘12) 2-1-4. 양성평등교육 충실						
① 교원 연수 확대	8,866	-	-	-	-	-
② 양성평등 시범학교 운영 및 연구회 활동 강화	3,000	-	-	-	-	-
③ 교육공동체 및 단위학교 교과통합형 양성평등교육 추진	20,000	-	-	-	-	-

다. 정책방향 3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분	추진사업	예산(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3-1-1.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협업체 구축 및 운영(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스쿨존 안전지도 제작·배포 및 체험위주의 교통 안전교육(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유치원 등·하원 안심알리미 시스템 구축	-	-	-	-	-	414,600
	3-1-2. 학교 주변 유희시설 및 학교 내 노후 시설관리						
	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관리	233,512(3-2-6)	42,520(3-2-3)	46,870(3-2-3-③)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노후 시설 정밀 안전점검 실시(공약)	-	-	-	1,659,000	991,000(113동)	165,200(19동)
	③ 재난 위험시설 해소 추진(공약)	-	-	-	7,521,000	1,725,000(1동)	비예산(수시)
	④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	-	-	1,039,000(1-3-3-⑤)	210,000(1-5-3-④)	60,000(1-5-3-④)	600,000
	('15) 3-1-2-④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 해소 추진	-	-	-	1,930,000	-	-
	3-1-3.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 강화						
	① 놀이터, 모래사장 내 중금속 검사(공약) 및 가생충 검사 실시	-	-	-	200,000(500교)	-	비예산
	② 체육시설, 기자재 살균 처리 및 세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1-4. 실내 교실환경 개선 내실화						
	① 교사 내 공기 질 관리(공약)	284,906(3-2-5)	289,340(3-2-3)	303,137(3-2-3-①)	321,302(1,010교)	335,947(1,043교)	395,208(1,038교)
	② 깨끗한 학교 만들기 환경 조성	8,331,000(3-2-5)	7,882,000(3-2-3)	8,170,700(3-2-3-①)	7,627,500(509교)	7,665,000(511교)	8,230,400(515교)
	3-1-5. 학교 안전문화 정착						
	① 체험중심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	-	-	-	10,500	571,550
	②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안전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공약)	-	-	-	-	253,250	550,600
③ 학교 안전 점검 강화	-	-	-	-	비예산	비예산	
('15) 3-1-5. 재난대응 안전교육 강화							
①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운영	-	-	-	10,800	-	-	
② 학교 생활안전 매뉴얼 개발	-	-	-	비예산	-	-	
3-2.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3-2-1.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역점)						
	① 학교 내 교화질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732,500(3-4-2)	1,895,896(3-4-1)	3,093,120(220교) (3-4-1-①,⑤)	3,468,024(220교,18개소)	2,528,024(250대,초504교)	4,704,002(400교,초511교)
	② 학교(U-)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2,510,000(3-4-2)	2,480,000(3-4-1)	2,491,000(3-4-1-④)	1,242,000	1,282,500	1,292,500
	③ 배움터지킴이 운영	5,384,000(3-4-2)	6,024,000(3-4-1)	6,496,000(3-4-1-③)	6,540,000	5,035,700(832교)	5,044,700(838교)
	④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 운영	-	-	-	40,000(2교)	40,000(4교)	80,000(8교)
	⑤ 학교폭력 예방 어깨동무학교 및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	-	-	-	879,200
	⑥ 긴급무선호출기 시범학교 운영	-	-	-	-	-	110,000
	('12, '13) 3-4-1.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school-safe 운영						
	⑥ 생활지도(상담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105,000(3-4-1.3)	100,000	-	-	-	-
	⑦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8,160(3-4-3)	29,800	-	-	-	-

⑧ 청소년 선도활동 봉사대 운영	33,000(3-4-3)	23,000	-	-	-	-
⑨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감시제도 운영	20,000(3-4-3)	20,000	-	-	-	-
('12) 3-4-1-④ 지역 교외생활 선도협의회 운영	54,000	-	-	-	-	-
('13, '14) 3-4-1.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② 안전강화학교 운영	5,258,000(3-4-2)	2,480,000+특교금	3,762,000	-	-	-
3-2-2.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역점)(공약)						
①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전개	-	-	-	10,000	비예산	비예산
②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	419,000(3-4-3)	-	47,000	47,000	51,216
③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운영	-	-	28,000(3-4-3-㉠)	비예산	비예산	41,000
④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지원을 통한 상담 및 초기 대응력 제고	-	1,989,680(3-4-3)	1,984,857(3-4-3)	-	비예산	523,920
('13, '14) 3-4-3.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① 학교폭력실태조사	-	10,000	3,200	-	-	-
②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	-	30,000	30,000	-	-	-
③ 학교폭력 특별지원학교 운영	-	330,000	250,000	-	-	-
④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꿈나래미 보안관제 운영	-	-	25,520	-	-	-
('13, '15) 3-2-3.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③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지원단 운영(역점)	-	21,420(3-4-3)	50,760(3-4-3-⑤)	비예산	-	-
⑤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역점)	-	47,798(3-4-3)	65,000(3-4-3-④)	3,000	-	-
3-2-3. 정서조절과 소통 중심의 공감학교 운영(역점)						
① Wee프로젝트 운영 및 컨설팅	4,755,460(3-4-1)	-	4,550,755(3-5-2-④)	10,948,117	비예산(4537개)	12,849,786(4347개)
②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	48,290(3-4-4)	21,160(3-4-2)	21,560(3-4-2)	비예산	120,500	11,004
③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강화	-	40,120(3-4-4)	40,120(3-4-4)	31,500	31,500	55,466
④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	-	349,960(3-4-5)	444,000(3-4-5)	2,000	2,620,315	2,614,490
3-2-4.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 협업 무지개센터 운영(역점)						
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긴밀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	-	-	-	-	228,970
② 도교육청 주도 도단위, 지역단위 유관기관별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	-	-	5,000(3-2-3-②)	5,000	11,400
③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 활동 추진	-	-	-	-	-	441,900
('15) 3-2-1. 관계회복 인성교육 및 상담활동 강화						
① 또래 간 협력강화를 통한 관계 형성(역점)	-	-	-	55,000	-	-
② 인성 함양에 적합한 학교 문화 기반 조성(역점)	-	-	-	26,600	-	-
('15) 3-2-5.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학생 생활지도						
① 원인해결 중심 생활지도(역점)	-	-	-	비예산	-	-
② 연합교외 생활지도 지원(역점)	-	-	-	비예산	-	-
③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 대책 추진(역점)	-	-	-	비예산	-	-

3-3.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3-3-1. 학교체육 수업 질 향상						
	① 체육교과교육과정 운영 충실	6,083,620(3-1-1)	7,606,880(3-1-1)	9,246,906(3-1-1-①)	-	비예산	비예산
	② 7560+ 운동선도학교 및 학교체육연구대회 개최	345,000(3-1-1)	436,000(3-1-1)	406,568(3-1-1-②,③)	144,060	1,648,063(14교)	419,040(27교)
	③ 수상안전교육 강화	-	-	-	-	231,872	792,275
	3-3-2. 학교체육 활성화						
	①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841,520(3-1-2)	9,095,500(3-1-2,4)	6,736,610(3-1-3)	1,668,890	1,602,595	1,678,995
	②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화	비예산(3-1-2)	비예산(3-1-2)	비예산(3-1-2-①)	비예산	비예산	60,000
	③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	-	-	4,060	비예산	34,920
	('12) 3-1-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②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체육축제	127,194(3-1-1)	139,900	-	-	-	-
	3-3-3 운동부 운영 및 체육대회 운영 지원						
	①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	-	-	488,848	6,013,148	6,012,588
	②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	비예산(3-1-3)	비예산(3-1-4-②)	2,840	2,840	2,680
	③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지원	4,363,890(3-1-2)	4,765,684(3-1-3)	4,747,748(3-1-4-③)	-	4,237,361	4,323,169
	④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2,975,000(3-6-4)	-	-	-	비예산	비예산
	('12~'14) 3-1-1. 학교체육 강화						
	④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지원	비예산(3-1-1)	비예산(3-1-1)	비예산	-	-	-
	('12~'14) 3-1-2. 학생 건강 체력 증진						
	② '운동하는 학교' 활성화	111,200(3-1-1,2)	80,000	비예산	-	-	-
	③ 토요일 Sports Day 활성화	576,000(3-1-1)	3,667,200(3-1-2)	1,282,560(3-1-3)	-	-	-
('13,'14) 3-1-4.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비예산(3-1-1)	비예산(3-1-3)	비예산	-	-	-	
②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지도자연수	비예산(3-1-1)	비예산(3-1-3)	비예산	-	-	-	
('15) 3-3-1. 학교체육 활성화							
⑦ 체육중학교 설립 추진	-	-	-	비예산	-	-	
3-4. 포근한 보건교육	3-4-1. 학교 보건 관리 기반 조성						
	① 학교 보건 운영 관리 지원	360,862(3-2-1)	340,280(3-2-2)	18,000(3-2-2-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학교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강화	-	-	-	-	비예산	비예산
	③ 보건실 현대화 사업(공약)	-	-	270,560(3-2-2-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음용수 안정성 확보(공약)	72,330(3-2-2)	비예산(3-2-3)	비예산(3-2-3-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4) 3-2-2.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② 창의경영학교(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지원	22,000(3-2-4)	387,400	270,560	-	-	-
	3-4-2. 건강한 수면권 확보						
	①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 꺼두기 운동' 전개(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및 홍보(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25,000
	③ 스마트폰 차단앱 자발적 사용 안내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4-3. 학생 건강 관리						
	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99,210(3-2-2)	530,500(3-2-1)	500,500(3-2-1-②)	509,500	82,750	47,490
	② 학생 건강검사 실시	-	21,000(3-2-1)	16,500(3-2-1-①)	18,172	18,100	16,800
	③ 건강증진학교 운영	42,000(3-2-2)	-	-	-	비예산	비예산
④ 근·골격 및 척추질환 예방관리(공약)	-	-	-	비예산(3-3-2)	3,520	5,600	

	('14) 3-2-1. 학생 건강관리 강화						
	④ 학교 주치의제도 활성화	187,200(3-2-3)	387,000(3-2-1)	570,600(3-2-1-④)	-	-	-
	⑤ 건강한 체중관리 지원 강화	-	51,000(3-2-1)	66,000(3-2-1-⑤)	-	-	-
	3-4-4.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① 사전예방 및 발생초기 대응 강화	-	비예산(3-2-1)	비예산(3-2-1-③)	비예산	비예산	25,000
	②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	-	-	-	12,020	20,504
3-5. 안전한 건강급식	3-5-1.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						
	① 학교급식비 지원(공약)	122,204,425(3-3-1)	124,692,163(3-3-1)	274,836,105(3-3-1-①)	243,842,586	155,034,593	255,072,204
	② 지역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공약)	9,255,292(3-3-1)	9,535,857(3-3-1)	3,935,505(3-3-1-②)	5,764,664	비예산	비예산
	③ 학교급식 운영 현장 지원	비예산(3-3-1)	비예산(3-3-1)	비예산(3-3-1-③)	-	-	비예산
	3-5-2.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공약)	141,804(3-3-3)	146,437(3-3-3)	비예산(3-3-3-①)	8,000	549,000	비예산
	②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학교 급식 환경 개선	4,433,711(3-3-3)	11,000,000(3-3-3)	7,120,882(3-3-3-②,③)	7,004,068(88교)	9,000,000(80교)	12,196,512(80교)
	3-5-3. 올바른 식생활 교육						
	① 식생활 교재를 활용한 급식교육 활성화(공약)	18,000(3-3-2)	30,000(3-3-2)	비예산(3-3-2)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환경 살리기 급식교육 확대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전통 식문화 계승 교육 강화(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3,215,037	
	('13) 3-3-2-② 녹색 식생활 현장체험 사업 확대	39,680(3-3-2)	40,830	-	-	-	-
3-6.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3-6-1.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선진화(공약)						
	① 교육 공간 냉난방 온도의 적정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냉난방 시설 개선	-	-	-	1,200,000(30교)	800,000(20교)	8,044,100(105교)
	③ 2017년 개교 예정 초등학교 1학년 온돌교실 설치	-	-	-	비예산(9교)	116,100(4교)	232,200(5교)
	3-6-2. 자연친화적 미래형 학교 건축						
	① 친환경학교(에코스쿨) 설계(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학교 내 생태 정원 및 돌레길 조성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4) 3-5. 맞춤형 대안교육	('14) 3-5-4.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치료지원						
	① 피해학생 치유 및 상담을 위한 '꿈나르미힐링센터' 운영	-	-	531,800	-	-	-
	②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교부적응 치유·치료 지원	-	-	비예산	-	-	-
	③ 피해학생 보호자 치유 및 치료지원 대전 해맑음 센터 운영	-	-	비예산	-	-	-
	('14) 3-5-5. 학업중단 예방						
	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	비예산	-	-	-
② 학업중단숙려제운영 컨설팅 실시	-	-	10,000	-	-	-	
③ 상담여건 개선	-	-	1,800	-	-	-	
④ 외부기관 상담인프라 구축	-	-	비예산	-	-	-	
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기관 지원	-	-	52,500	-	-	-	
('12~'14) 3-6.	3-6-1. 교육환경 선진화 활성화						
	①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8,499,000	11,552,000	14,244,000	-	-	-
	②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68,335,499	49,832,099	61,808,326	-	-	-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육환경	('12) ②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1,000	-	-	-	-	-
	3-6-2.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① 녹색 건축학교 인증	1,000,000	107,510,345	197,217,368	-	-	-
	②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1,260,000	126,000	620,000	-	-	-
	('12, '13) ② 그린스쿨(Green school)사업 추진	7,000,000	4,100,000	-	-	-	-
	3-6-3. 적정규모학교 육성						
	② 학교 신·이설 추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라. 정책방향 4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분	추진사업	예산(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1.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만들기	4-1-1. 농어촌 지역 맞춤형 진학지도						
	① 농어촌 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	-	30,000	7,000	7,000
	②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운영	-	-	-	20,300	4,000	4,000
	③ 찾아가는 진로면접교실 운영	-	-	-	비예산	8,000	8,000
	4-1-2. 지역별 학교 교육력 신장						
	① 농어촌지역 교육 살리기	-	-	-	-	-	비예산
	② 원도심지역 학교 살리기	-	-	-	-	-	비예산
	4-1-3.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는 학교 조성						
	① 내실있는 다양한 학교 조성	-	-	-	-	-	비예산
	② 지역민과 함께하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	5,000(3-6-3)	5,000(3-6-3)	비예산(3-6-3-①)	-	-	비예산
	4-1-4. 통학버스 통합 관리 운영						
	① 학생 등·하교 및 수련활동 지원(공약)	10,474,480(3-6-3)	10,141,839(3-6-3)	9,716,519(3-6-3-③)	8,679,000	12,855,688	13,195,733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	-	-	5,000(1회)	12,256(6회)	5,620(4회)
	③ 통학버스 통합 운영 확대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5) 4-1-1. 지역문화 중심학교 운영						
	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공동체 형성	-	-	-	비예산	-	-
	② 문화예술교육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	-	비예산	-	-
③ 농어촌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비예산	-	-	
('15) 4-1-4. 농산어촌학교 EBS방송 및 ICT 활용 학습여건 개선							
① EBS 교육방송 지원단 운영	-	-	-	비예산	-	-	
② 농산어촌 EBS 교육방송 시청 학교 운영(공약)	-	-	-	비예산	-	-	
③ 농산어촌 ICT활용 학생 학습 여건 개선	-	-	-	비예산	-	-	
4-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4-2-1.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5,764,000(4-1-2)	5,759,403(4-1-2)	4,843,183(4-1-2-①)	4,646,140	4,485,180	5,345,704
	② 지역사회연계 공동사업 추진	-	-	-	218,377	379,372	155,000
	③ 교육복지사 효율적 운용	-	-	-	2,595	2,560	2,000
	④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운영	-	-	-	-	특교사업	특교사업
	('13.'14) 4-1-2-③ 농어촌 전일학교 운영	4,949,000(4-1-2)	3,706,280(4-1-2)	2,110,098	-	-	-
	('14) 4-1-2-④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사업 지원	-	-	242,000	-	-	-
	4-2-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① 초·중·고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	-	-	24,669,600	12,859,134
	② 고등학생 학비 지원(공약)	5,660,640(4-1-1)	6,302,631(4-1-1)	4,663,385(4-1-1-②)	4,474,383	4,319,553	4,222,572
	③ 초·중·고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공약)	-	-	-	13,884,440	11,118,420	10,345,500
④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4,592,288(4-1-2)	4,562,098(4-1-2)	4,231,257(4-1-2)	3,039,036	2,833,550	3,014,550	
⑤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공약)	-	417,606(4-1-2)	393,424(4-1-1-①)	450,000	599,992	528,007	

4-2-3. 유아학교 체제 구축							
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119,481,354(1-3-1, 4-1-1)	177,702,514(1-3-3)	245,676,619(1-3-3-①)	189,634,162(1-5-3-①)	145,555,680(1-5-3-①)	283,551,068	
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 지원	13,552,200(1-3-4)	16,773,000(1-3-3)	19,250,240(254개원) (1-3-3-②)	19,554,280(263개원) (1-5-3-②)	19,950,240(261개원) (1-5-3-②)	20,360,000(271개원)	
③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	126,279(1-3-3)	-	-	69,971(261개원)(1-5-3-③)	51,312(271개원)	
4-3. 방과후학교 운영							
4-3-1.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474,955(4-2-1)	456,549(4-2-1)	471,155(4-2-1-①)	594,710(4-2-3-③)	533,410	78,242	
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활동 강화	2,267,000(4-2-1)	2,958,000(4-2-1)	1,755,000(4-2-1-①)	1,790,000(4-2-3-③)	1,815,000	1,815,000	
③ 방과후(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문화 개선	-	-	-	-	비예산	비예산	
4-3-2.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	20,878,320(4-2-1-②)	13,966,040	12,012,033	12,487,953	
②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6,491,500(4-2-1)	24,738,500(4-2-1)	-	3,165,000	2,966,000(545교)	2,972,000(546교)	
③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5,119,640(4-2-3)	3,329,500(4-2-3)	-	-	1,085,016(30교, 35교)	865,550(40교, 40교)	
4-3-3. 초등돌봄교실 지원 내실화							
①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비예산(4-2-2)	비예산(4-2-2)	비예산(4-2-2-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18,310,000(4-2-1)	18,906,500(4-2-1)	17,548,000(4-2-1-③)	21,517,000	6,762,500	6,870,500	
③ 초등돌봄교실 운영 연계 강화	-	-	비예산(4-2-2-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4-3-4.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① 초등돌봄교실 운영 홍보 강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질 관리	-	-	-	-	13,068,872	12,694,344	
③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리 강화	-	-	-	-	3,340	3,400	
4-3-5.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① 방과후과정 운영 강화(공약)	-	7,037,350(1-3-2)	5,132,400(1-3-2-①)	4,774,800(1-5-2-①)	4,875,600(1-5-2-①)	5,012,000	
② 방과후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연계	-	-	-	-	-	75,000	
③ 엄마품 돌봄유치원 지원	-	2,402,000(1-3-2)	2,401,000(1-3-2-②)	1,848,000(1-5-3-③)	1,741,000(63개원)(1-5-3-③)	1,261,000(45개원)	
('13, '14) 4-2-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③ 방학 중·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	5,644,800	2,131,200	-	-	-	
4-4. 학부모 교육부담 해소							
4-4-1. 체육복, 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지원(공약)							
① 초·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체육복 지원	-	-	-	173,150	311,000(4,358명)	2,767,560(전학교)	
②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	-	비예산	410,000(1,640명) +비예산(②-2)	290,000(국민기초 생활수 급자, 한부모가정 +비예산(②-2)	
③ 교육과정의 일환인 수학여행비 지원	7,438,480(4-1-4)	-	-	5,872,060	5,908,950(③-1) +특교비지원(③-2) +비예산(③-3,4)	5,638,632(③-1) +특교비지원(③-2) +비예산(③-3,4)	
4-4-2. 기숙형고등학교 운영 지원							
①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형고 운영 지원	858,660(4-2-4)	2,781,705(4-2-4)	3,094,602(4-2-3-②,③)	400,450	400,000	400,000	
② 기숙사 사감 보조 인건비 지원	638,420(4-2-4)	-	-	660,000	680,000	718,400	
③ 기준중위소득 대상자 자녀 급식비 지원	1,234,800(4-2-4)	-	-	700,416	638,400	638,400	
4-4-3. 학생 교육활동 학습준비물 제공							

① 초등학교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5) 4-3-3-③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준비물 구입 지원(공약)	-	-	-	비예산	-	-

4-5.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4-5-1.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전 추진 강화						
	① 교육공무직원 인력 재배치 추진 대책 수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인력 재배치 실무점검단 운영 및 인력풀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지속 확대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4-5-2. 단계별 차별 해소 및 지속적 처우 개선(공약)						
	①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 수립 및 안내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처우 개선 관련 협의체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단계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단체교섭이행 상황 점검 및 차별 해소 실태 조사	-	-	-	-	비예산	비예산
	4-5-3. 교육공무직원연수 기회 확대로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①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연수 실시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교육기관 및 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교육공무직원 전문성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종별 연수 실시(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2~‘14) 4-5-2 비정규직 처우 개선						
① 비정규직 처우 개선	10,605,680	3,363,148	9,876,570	-	-	-	
② 비정규직 고용 안정 지원	366,072	3,000	33,818	-	-	-	

4-6. 함께나누는 문화예술교육	4-6-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①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산	-	-	-	-	비예산	비예산
	② 지역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	315,600(2-4-1)	-	-	비예산	비예산
	③ 맞춤형 예술강사 지원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678,240(2-4-1)	1,683,775(2-4-1)	1,936,352(2-2-1-①)	1,604,000	1,876,000	1,876,680
	4-6-2. 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①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100,000(2-4-1)	440,000(2-4-1)	903,000(2-2-1-③,④)	824,000	255,000	617,000
	②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	103,008(2-4-1)	-	482,000(2-2-1-②)	252,000	100,000	50,000
	4-6-3. 문화예술 및 체험활동 기회 확대						
	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공연 및 관람 기회 확대	비예산	-	-	-	34,000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 30회)	비예산
	② 저소득층 학생 문화 활동 지원(공약)	-	-	-	-	비예산	50,000
	③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683,000(2-2-2-⑤)	-	482,000	994,000
	④ 경남 중등학생 종합 학예 발표대회 운영	34,010(2-4-2)	47,740(2-4-2)	54,440(2-2-2-①)	510,000	52,840	58,540
	(‘12,‘13) 2-4-1. 문화예술교육 여건 개선						
	② 문화예술단체 협력 사업	110,000	281,000	-	-	-	-
	④ 학생 오케스트라 예술교육 인턴교사 운영 지원	195,940	271,600	-	-	-	-
	(‘12,‘13) 2-4-2.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②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강좌 개설	비예산	비예산	-	-	-	-
⑥ 초등학교 예능교실 운영	-	100,000	-	-	-	-	
⑦ 초등학교 소질적성 개발 경시대회	-	50,000	-	-	-	-	

		(14) 2-2-2.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② 노래하는 학교 페스티벌 개최	103,030(2-4-2)	31,600(2-4-2)	82,700(2-2-2-②)	-	-	-
	③ 학생 뮤지컬 제작 지원	-	22,400(2-4-2)	133,000(2-2-2-③)	-	-	-
	④ 끼를 살리는 다양한 학교축제	비예산(2-4-2)	비예산(2-4-2)	비예산(2-2-2-④)	-	-	-
		(15) 4-5-1. 경남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운영					
	① 경남 엘 시스테마 본부 구성	-	-	-	15,000	-	-
	② 경남 엘 시스테마 추진위원회 운영	-	-	-	-	-	-
	③ 경남 엘 시스테마 성과보고회 실시	-	-	-	25,000	-	-
		(14) 2-2-3. 체험수련활동내실화					
	① 학교급별 맞춤형 야영 수련 활동	-	비예산(2-4-3)	비예산	-	-	-
	② 학생 야영수련원 운영의 내실화	-	220,080(2-4-3)	86,778	-	-	-
	③ 청소년단체 지원	-	65,000(2-4-3)	55,000	-	-	-
	④ 수련,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운영	-	비예산(2-4-3)	비예산	-	-	-
	⑤ 수학여행 무상 지원	-	6,836,000(2-4-3)	5,923,570	-	-	-
	(13) 2-4-3-⑥ 현장체험활동지원	-	318,400	-	-	-	-
		4-7-1. 교직원 복지 지원 증진					
	①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0,713,670	22,070,910(4-5-1)	22,616,439(4-5-1-①)	26,812,950	23,459,270	26,028,569
	②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	-	-	52,500	28,000	55,000
	③ 교직원 법률 상담 지원	-	-	-	3,600	비예산	비예산
	④ 교직원 힐링센터 운영 기반 조성	-	-	-	-	비예산	5,979,191
	(12) 4-5-1-③ 교직원 복지대여 이자보전	240,000	-	-	-	-	-
	(13) 4-5-1-②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1,200,000	1,104,000	-	-	-	-
		4-7-2. 교직원 문화 활동 증진					
	① 문화예술 연수시간 확대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교직원 문화-체육 활동 지원	-	-	-	20,500	26,500	26,500
		4-7-3. 스승 존경 풍토 조성					
	① 교원지유지원센터 지정 운영	-	-	-	-	-	비예산
	② 사제동행 꿈끼 축제 운영	-	-	-	-	33,320	33,000
	③ 모범 교직원 표창	-	-	-	-	비예산	비예산
		4-4-1.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지원					
	① 현장중심의 맞춤형 연수체제 운영	458,510	458,510	463,900	-	-	-
	② 자격 및 직무연수 기회 확대	11,677,583	11,677,583	2,910,912	-	-	-
	③ 교원전문성신장을 위한 지원	128,420	128,420	247,808	-	-	-
	④ 홍보 및 시행 추진단 운영	-	비예산	비예산	-	-	-
		4-4-2. 교원능력개발 지원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체제 마련	110,785	비예산	비예산	-	-	-
	② 평가지표별 자율연수(학습지도 영역) 지원	23,264	340,000	3,170,064	-	-	-
	③ 평가지표별 자율연수(생활지도 영역) 지원	-	45,000	424,565	-	-	-
	④ 수업분석환경 구축 사업 지원	-	90,000	551,416	-	-	-
	⑤ 맞춤형연수지원	422,488	30,000	450,000	-	-	-

(13) ④ 홍보 및 시행 추진단 운영	-	170,000	-	-	-	-
4-4-3.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① 초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35,420	45,000	85,530	-	-	-
② 중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223,700	362,540	136,370	-	-	-
4-4-4.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① 지방공무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698,738	981,750	800,796	-	-	-
②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8,000	13,800	12,560	-	-	-
③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활성화	140,000	140,000	112,000	-	-	-
④ 지방공무원 외국어-국외연수 실시	159,250	185,500	155,312	-	-	-
⑤ 고급관리자과정 및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위탁교육	184,200	202,200	240,300	-	-	-
⑥ 학교회계직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연수	48,696	45,143	45,304	-	-	-

마. 정책방향 5 -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구분	추진사업	예산(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5-1-1.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기반 조성(역점)						
	①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내실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행정업무 매뉴얼 수정·보완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교직원 행정업무적정화협의회 구성·운영	-	-	-	비예산	6,261	비예산
	④ 교무행정일 확대 배치 및 역할 재정립	10,531,179(4-5-3)	13,864,154(4-5-3)	14,515,475(4-5-3-①)	17,182,132(817명,1회)	19,933,321(827명,6회)	24,039,427(854명,6회)
	⑤ 교무지원실 구축 확대	-	-	-	-	-	1,500,000
	⑥ 공립유치원 업무지원 인력 배치(공약)	-	-	-	-	-	비예산
	5-1-2. 일하는 방식 개선(역점)						
	①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학교업무 추진 효율화 지원	1,500(4-5-3)	1,600(4-5-3)	1,200(4-5-3-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단위학교 업무 표준안 마련 및 재구조화(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성과 위주의 전시성 행사 폐지(공약)	8,400(4-5-3)	6,000(4-5-3)	비예산(4-5-3)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5-1-3. 공문처리 부담 완화(역점)						
	① 공문서 유통방법 개선	비예산(4-5-3)	비예산(4-5-3)	비예산(4-5-3-③)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공문서 유통량 감축 목표제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학교 발송 공문서 모니터링 강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및 자료집계시스템 운영 내실화	-	-	-	53,269	55,944	55,944
	5-1-4. 현장 정착 및 환류(역점)						
	①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	-	비예산	16,111(4회, 1회)	10,450(1회, 1회)
	②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정책 연수 및 홍보 강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정책 현장 정착 강화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2) 4-5-4. 교직원종합복지관 운영							
① 기관등록 및 운영	669,773	-	-	-	-	-	
② 시설업무	820	-	-	-	-	-	
③ 물품구입	86,350	-	-	-	-	-	
5-2.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5-2-1. 조직·정원의 효율적 운영						
	① 중기기본인력계획에 의한 조직 인력 관리	5,400(5-2-4)	5,400(5-2-4)	2,220(5-2-4-①)	4,165	13,450	비예산
	②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관리	321,400(5-2-4)	321,400(5-2-4)	8,610(5-2-4-②)	36,000	72,000	비예산
	③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센터(담당) 운영	-	600,000(5-2-4)	400,000(5-2-4-③)	비예산	-	1,761,100
	(*15) 5-2-1. 교육청 내부 조직 혁신						
① 교육특허 업무 신설 운영	-	-	-	비예산	-	-	
② 진로진학지원센터 부설 전문상담소 운영(공약)	-	-	-	비예산	-	-	

		5-3-1.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						
5-3.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① 청탁금지법 실천 노력 강화	-	-	-	-	-	비예산	
	②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이행	비예산(5-1-2)	비예산(5-1-2)	비예산(5-1-1-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원포인트 아웃제도 운영(공약)	2,500(5-1-2)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④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공약)	비예산(5-1-2)	21,700(5-1-2)	16,616(5-1-1-③)	14,546	15,960	55,000	
	⑤ 학교 4대 비리 특별 관리(공약)	-	-	-	4,600	4,320	4,320	
	(12) 5-1-2-⑤ 민관협력사업 운영	20,000(5-1-2)	-	-	-	-	-	
	(12) 5-1-2-⑥ 민간기업 청렴도 증진	4,000(5-1-2)	-	-	-	-	-	
	(13~16) ①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74,000(850명)(5-1-2)	71,800(850명)(5-1-1①)	59,650(870명)	64,800(840명)	-	
	(14) 5-1-1 ④ 부패 제로화 추진	6,000(5-1-2)	45,000(5-1-2)	17,260	-	-	-	
	5-3-2.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열린감사제' 운영							
	① 외부전문기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공약)	-	-	-	5,360	5,360	5,220	
	② 제2기 도민감사관 운영(공약)	-	-	-	27,510	27,510	27,660	
	③ 청렴옴부즈만 운영	-	22,500(5-1-2)	22,000(5-1-1-①)	2,500	1,940	1,940	
	('12~'14) 5-1-2. 열린 감사행정 구현							
	① 열린 감사 행정 구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② 학부모감사관제 운영	58,000	52,950	58,315	-	-	-	
	5-3-3. 교육 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역점)							
	① 설계, 시공업제, 품명, 시공과정 등 공개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학부모, 지역주민참여협의회 구성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5-3-4. 예방적 감사활동 및 성과감사 강화							
① 일상감사 확대 및 특정감사 강화	-	비예산(5-1-3)	비예산(5-1-3-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학교자율감사 운영	-	-	-	-	-	21,000		
③ 사이버감사 강화	-	-	비예산(5-1-3-②)	-	-	비예산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	-	-	-	비예산		
⑤ 기관별 청렴실천 자체 점검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⑥ 감사의 전문성 제고	1,600(5-1-3)	1,600(5-1-3)	1,280(5-1-3-③)	1,280	1,280	1,280		
(12) 5-1-3-① 종합감사주기 탄력적 적용	비예산	-	-	-	-	-		
(12) 5-1-3-② 업무관련자체점검 체크리스트제 운영	비예산	-	-	-	-	-		
(12~14) 5-1-3-③ 감사의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5-4.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서비스		5-4-1.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①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184,890(5-4-1)	144,200(5-4-1)	63,000(5-4-1-①)	40,500	65,000	57,000		
② 수요자 중심 청렴한 학원행정 지원	187,700(5-4-1)	161,860(5-4-1)	160,150(5-4-1-②③)	45,380	47,050	49,380		
		5-4-2. 공공정보 공개 활성화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	4,400(5-4-2)	7,580(5-4-3)	7,250(5-4-2-③)	5,568	5,578	5,588		
② 학교 정보공시의 신뢰도 제고	11,000(5-4-2)	16,300(5-4-2)	12,800(5-4-2-①②)	12,720	10,230	10,800		
③ 유지원 정보공시 운영	비예산(1-3-3)	비예산(1-3-3)	비예산(1-3-3-③)	비예산(1-5-3-③)	비예산(1-5-3-③)	비예산		

5-4-3. 교육역사문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① 경남교육기록유산 보존체계 구축	122,350(5-4-3)	208,643(5-4-3)	240,367(5-4-3)	104,784	333,179	432,000		
② 기록정보자원의 대국민서비스 제공	-	-	-	10,800	36,800	36,800		
5-4-4. 고객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								
① 고객 중심 업무시스템 운영	105,600(5-4-5)	11,600(5-4-5)	14,220(5-4-5-①)	3,300	21,751	24,841		
②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53,450(5-4-5)	10,000(5-4-5)	38,630(5-4-5-②)	22,000	29,700	28,300		
③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3,440(5-4-5)	30,400(5-4-5)	비예산(5-4-5-③)	비예산	3,300	3,300		
(15) 5-4-4-③ 맞춤형 민원행정 운영	-	-	-	2,700	-	-		
5-4-5. 소통-공유의 정보시스템 운영								
①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	2,099,681(5-4-4)	2,286,573(5-4-4)	1,849,163(5-4-4-①)	2,213,001	2,206,760	2,146,969		
②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96,720(5-4-4)	299,106(5-4-4)	635,092(5-4-4-②)	817,475	6,766,399	2,589,164		
③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973,760(5-4-4)	887,080(5-4-4-③)	13,130	20,950	25,576		
④ 교육통계연보 발간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222,223(5-4-4)	44,707(5-4-4)	84,882(5-4-4-④)	65,393	66,979	50,467		
⑤ 자료집계 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이용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	-	-	-	55,582		
(13) ④ 스마트교육 유·무선망 기반시설 구축	-	2,483,600	-	-	-	-		
5-4-6. 소통-공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33,940(5-1-4)	28,650(5-1-4)	11,310(5-1-4-①,②)	비예산	11,190	35,292		
②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활동	6,000(5-1-4)	1,800(5-1-4)	1,440(5-1-4-③)	1,440	1,440	비예산		
5-5-1. 건전한 교육재정 기반 조성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8,600(5-3-2)	22,500(5-3-2)	18,270(5-3-1-②)	19,270	19,020	21,000		
②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	-	4,600(5-3-1-①)	4,780	4,900	4,780		
③ 교육재정 분석 및 환류	-	-	2,300(5-3-1-③)	1,500	1,800	비예산		
④ 결산업무 담당자 연수	-	-	-	비예산	1,400	1,400		
⑤ 결산대사 및 결산서 작성	-	-	-	23,220	22,600	28,600		
⑥ 학교회계 운영 지원	-	-	83,936(5-3-2-①)	-	284,545	286,944		
(14) 5-3-1-④ 보조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	2,150	-	-	-		
5-5-2. 효율적인 재정 관리								
① 학교회계 재정 분석 및 환류	-	-	1,180(5-3-2-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계약상당지일센터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계약과정 공개를 위한 계약정보연계시스템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21,860		
④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10,321,311(5-3-1)	35,211,228(5-3-1)	비예산(5-3-2-③)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5-5-3.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사학 육성								
① 사학기관 여건 개선 및 지원	374,493,523(5-3-3)	390,244,634(5-3-3)	402,428,364(5-3-3-①)	415,772,075	425,903,065	432,239,396		
② 사학기관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208,725(5-3-3)	비예산(5-3-3-②)	비예산(5-3-3-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사학기관 관계자 책무성 강화	28,744(5-3-3)	29,676(5-3-3)	16,462(5-3-3-③)	비예산	비예산	7,080		
④ 사립학교 행·재정 차등 지원 강화	381,475(5-3-4)	321,466(5-3-4)	203,900(5-3-3-④)	382,500	382,500	비예산		
5-5.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5-5-1. 건전한 교육재정 기반 조성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8,600(5-3-2)	22,500(5-3-2)	18,270(5-3-1-②)	19,270	19,020	21,000	
	②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	-	4,600(5-3-1-①)	4,780	4,900	4,780	
	③ 교육재정 분석 및 환류	-	-	2,300(5-3-1-③)	1,500	1,800	비예산	
	④ 결산업무 담당자 연수	-	-	-	비예산	1,400	1,400	
	⑤ 결산대사 및 결산서 작성	-	-	-	23,220	22,600	28,600	
	⑥ 학교회계 운영 지원	-	-	83,936(5-3-2-①)	-	284,545	286,944	
	(14) 5-3-1-④ 보조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	2,150	-	-	-	
	5-5-2. 효율적인 재정 관리							
	① 학교회계 재정 분석 및 환류	-	-	1,180(5-3-2-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계약상당지일센터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계약과정 공개를 위한 계약정보연계시스템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21,860		
④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10,321,311(5-3-1)	35,211,228(5-3-1)	비예산(5-3-2-③)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5-5-3.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사학 육성								
① 사학기관 여건 개선 및 지원	374,493,523(5-3-3)	390,244,634(5-3-3)	402,428,364(5-3-3-①)	415,772,075	425,903,065	432,239,396		
② 사학기관 경영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208,725(5-3-3)	비예산(5-3-3-②)	비예산(5-3-3-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사학기관 관계자 책무성 강화	28,744(5-3-3)	29,676(5-3-3)	16,462(5-3-3-③)	비예산	비예산	7,080		
④ 사립학교 행·재정 차등 지원 강화	381,475(5-3-4)	321,466(5-3-4)	203,900(5-3-3-④)	382,500	382,500	비예산		

5-6.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5-6-1.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① 교사 인사이동 조기 실시(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신규교사 수시 발령	-	-	-	-	-	비예산
	③ 교육장공모 실시(공약)	-	-	-	16,250	6,500	4,870
	④ 교원 정보 및 파견제도 개선(공약)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⑤ 교장·교감 승진제도 개선	-	-	-	비예산	19,598	비예산
	⑥ 업무역량 중심 관리자 인사 시행	-	-	-	-	-	비예산
	⑦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 추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5-2-1-③)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⑧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개선(공약)	-	-	-	41,000	66,820	57,000
	(‘15~’16) ③ 유치원 인사 혁신	-	-	-	비예산	비예산	-
	('12~'14) 5-2-1.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① 인사예고제 운영	184,932	10,000	10,000	-	-	-
	② 교장공모제 정착	24,000	39,002	39,002	-	-	-
	④ 교원 근무평정 제도 개선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⑤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개선	64,217	73,290	73,290	-	-	-
	⑥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	-
	5-6-2.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①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총원	-	-	-	-	237,150	249,600
	② 역량평가를 통한 사무관 승진제도	-	-	-	73,150	139,200	127,200
	③ 공정한 보직관리 제도 운영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5) ①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	-	-	비예산	-	-	
5-6-3. 공정한 교원 임용							
① 사·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참석	6,000(5-2-2)	3,000(5-2-2)	2,400(5-2-2-①)	비예산(10회)	비예산(10회)	비예산(8회)	
② 임용시험 사전 안내	비예산(5-2-2)	비예산(5-2-2)	비예산(5-2-2)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③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추진	1,768,880(5-2-2)	1,884,254(5-2-2)	1,675,799(5-2-2-②)	1,619,681	1,504,879	1,813,372	
(‘14) 5-2-2-④ 기간제 교원임용 및 인력풀제 운영	-	-	비예산	-	-	-	
('12~'14) 5-2-3. 수석교사 운영 내실화							
① 수석교사 선발 및 연수	1,308,600	938,306	934,066	-	-	-	
② 수석교사 수업경감	비예산	1,109,760	384,716	-	-	-	
③ 수석교사 업적평가	1,980,600	비예산	2,000	-	-	-	
5-7. 교육의 질 관리체계 혁신	5-7-1.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평가 실시						
	① 전 학교 교육공동체 참여형 학교주도적 학교자체평가(공약)	735,200(5-5-2)	1,081,340(5-5-2)	411,300(5-5-2-①)	비예산	비예산	51,640
	② 현장지원형 유치원 평가 실시	642,350(5-5-2)	694,940(5-5-2)	313,342(5-5-2-②)	비예산	163,342	151,697
	5-7-2. 기관평가 방법 혁신						
	①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사·도교육청평가 업무 추진	39,500(5-5-1)	25,800(5-5-1)	19,800(5-5-1-①)	20,250	17,600	17,600
	(‘15) ② 현장지원형 교육지원청평가 업무 추진	-	-	-	비예산	-	-
	5-7-3.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						
① 조직 성과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계약 평가	-	-	-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②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관리 평가	12,098(5-5-3)	4,950(5-5-3)	9,500(5-5-3-①②)	3,540	3,540	12,620
	③ BSC성과지표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	-	-	5,460	5,905	6,425
	(‘13~’16) 5-7-3-③ 성과관리·계약평가 결과 활용	3,000(5-5-3)	9,000(5-5-3)	9,000(5-5-3-③)	비예산	비예산	-
('12~'14) 5-5. 교육의 질 관리	5-5-1. 기관평가를 통한 책무성 강화						
	②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평가	451,230	552,220	136,540	-	-	-
	5-5-4. 꿈나르미학교 운영						
	① 꿈나르미학교 운영 지원	4,600(5-5-4)	410,420	291,910	-	-	-
	② 꿈나르미학교 선정 및 확산	430,700(5-5-4)	34,040	15,120	-	-	-
	5-5-5. 현장공감 교육정책 개발						
	① 경남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950	10,950	9,270	-	-	-
	② 교육정책개발 TF 운영	53,520	53,520	50,560	-	-	-
	③ 행복교육 모니터단(교원) 운영	14,580	14,580	8,540	-	-	-
	5-5-6. 교육정책 홍보 강화						
	① 교육홍보 체제 구축 및 지원	97,680	58,080	59,400	-	-	-
	② 교육활동 홍보활동 다양화	551,752	533,830	598,480	-	-	-
③ 홍보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	27,100	-	-	-	

■ 권내부록 3 : 공통문항 교차 비교분석

주제 1. 경남의 교육인식

◎ 질문. 귀하는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상벌제를 통한 처벌중심 생활지도에서 '회복적(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2.00%	2.80%	26.70%	30.80%	37.70%	100.00%	3.99	0.966	1102.503*** (df=2, 21,522)
	학부모	10,487	0.60%	1.20%	7.00%	30.40%	60.80%	100.00%	4.50	0.730	
	교직원	4,006	6.50%	9.30%	16.60%	32.20%	35.40%	100.00%	3.81	1.201	
성별	남자	5,511	3.80%	4.80%	20.00%	29.80%	41.60%	100.00%	4.01	1.070	-16.476*** (df=8395.872)
	여자	16,014	1.60%	2.70%	13.60%	31.20%	50.90%	100.00%	4.27	0.907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1.40%	2.20%	12.90%	30.80%	52.70%	100.00%	4.31	0.877	207.940*** (df=2, 21,522)
	중학교	6,367	3.00%	4.10%	20.00%	30.50%	42.40%	100.00%	4.05	1.028	
	고등학교	2,401	4.00%	6.40%	15.00%	31.90%	42.70%	100.00%	4.03	1.093	
지역별	시지역	18,490	2.20%	3.20%	15.30%	30.70%	48.60%	100.00%	4.20	0.960	-.117 (df=21523)
	군지역	3,035	1.90%	3.30%	15.00%	31.70%	48.10%	100.00%	4.21	0.947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의 공교육혁신모델로 추진 중인 '행복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0.70%	0.90%	16.00%	26.00%	56.40%	100.0%	4.36	0.832	2204.124*** (df=2, 21,522)
	학부모	10,487	0.80%	1.60%	13.10%	34.00%	50.50%	100.0%	4.32	0.820	
	교직원	4,006	9.00%	12.20%	34.10%	29.30%	15.40%	100.0%	3.30	1.140	
성별	남자	5,511	3.10%	3.60%	20.00%	26.60%	46.70%	100.0%	4.10	1.040	-3.583*** (df=8927.380)
	여자	16,014	2.00%	3.20%	17.30%	31.90%	45.60%	100.0%	4.16	0.957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2.10%	3.20%	16.20%	30.80%	47.70%	100.0%	4.19	0.961	34.262*** (df=2, 21,522)
	중학교	6,367	2.30%	3.30%	20.60%	29.90%	43.90%	100.0%	4.10	0.987	
	고등학교	2,401	3.30%	4.30%	19.70%	31.00%	41.70%	100.0%	4.03	1.040	
지역별	시지역	18,490	2.20%	3.20%	17.40%	30.90%	46.30%	100.0%	4.16	0.967	5.736*** (df=3932.568)
	군지역	3,035	3.10%	4.40%	20.70%	28.60%	43.20%	100.0%	4.04	1.046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못한다 | ② 못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고 있다 | ⑤ 매우 잘하고 있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3.4%	4.7%	29.9%	33.5%	28.5%	100.0%	3.79	1.017	426.704*** (df=2, 21,522)
	학부모	10,487	1.2%	5.2%	50.3%	37.7%	5.6%	100.0%	3.41	0.729	
	교직원	4,006	1.4%	4.5%	37.0%	49.0%	8.1%	100.0%	3.58	0.761	
성별	남자	5,511	2.7%	3.8%	29.6%	39.0%	24.9%	100.0%	3.79	0.948	21.397*** (df=8421.516)
	여자	16,014	1.7%	5.3%	45.0%	38.3%	9.7%	100.0%	3.49	0.807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1.1%	3.6%	39.6%	41.0%	14.7%	100.0%	3.65	0.811	205.793*** (df=2, 21,522)
	중학교	6,367	2.8%	5.8%	42.1%	35.4%	13.9%	100.0%	3.52	0.902	
	고등학교	2,401	4.3%	9.8%	46.3%	32.9%	6.7%	100.0%	3.28	0.888	
지역별	시지역	18,490	2.0%	5.2%	42.3%	37.6%	12.9%	100.0%	3.54	0.856	-11.842*** (df=4152.360)
	군지역	3,035	1.4%	3.2%	33.9%	43.6%	17.9%	100.0%	3.73	0.835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못한다 | ② 못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고 있다 | ⑤ 매우 잘하고 있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	-	-	-	-	-	-	-	-	10.054** (1, 14,491)
	학부모	10,487	1.5%	5.2%	49.4%	35.3%	8.6%	100.0%	3.44	0.782	
	교직원	4,006	2.9%	8.0%	45.0%	34.8%	9.3%	100.0%	3.40	0.870	
성별	남자	2,311	2.7%	6.8%	42.0%	37.2%	11.3%	100.0%	3.48	0.880	2.723** (df=3062.287)
	여자	12,182	1.7%	5.9%	49.3%	34.8%	8.3%	100.0%	3.42	0.793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5%	5.1%	48.2%	36.4%	8.8%	100.0%	3.46	0.785	16.567*** (df=2, 14,490)
	중학교	3,179	2.4%	7.9%	48.2%	32.5%	9.0%	100.0%	3.38	0.845	
	고등학교	1,700	2.8%	7.6%	47.8%	33.3%	8.5%	100.0%	3.37	0.852	
지역별	시지역	12,552	1.9%	6.2%	48.6%	34.6%	8.7%	100.0%	3.42	0.809	-3.908*** (df=14491)
	군지역	1,941	1.5%	5.0%	45.2%	38.8%	9.5%	100.0%	3.50	0.795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못한다 | ② 못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고 있다 | ⑤ 매우 잘하고 있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3.2%	6.0%	33.0%	32.3%	25.5%	100.0%	3.71	1.015	299.416*** (df=2, 21,522)
	학부모	10,487	1.5%	5.8%	51.9%	34.6%	6.2%	100.0%	3.38	0.752	
	교직원	4,006	2.3%	5.5%	40.0%	42.9%	9.3%	100.0%	3.51	0.828	
성별	남자	5,511	2.9%	5.0%	32.0%	36.3%	23.8%	100.0%	3.73	0.973	19.925*** (df=8368.768)
	여자	16,014	2.0%	6.1%	47.4%	35.1%	9.4%	100.0%	3.44	0.821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1.3%	4.4%	42.0%	38.1%	14.2%	100.0%	3.59	0.833	183.777*** (df=2, 21,522)
	중학교	6,367	3.1%	7.1%	44.5%	31.9%	13.4%	100.0%	3.45	0.917	
	고등학교	2,401	4.4%	9.9%	45.0%	30.0%	6.7%	100.0%	3.25	0.886	
지역별	시지역	18,490	2.3%	6.0%	44.8%	34.6%	12.3%	100.0%	3.49	0.869	-11.680*** (df=21523)
	군지역	3,035	1.6%	4.4%	35.9%	40.2%	17.9%	100.0%	3.68	0.871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소속 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못한다 | ② 못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고 있다 | ⑤ 매우 잘하고 있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3.4%	5.4%	27.6%	32.2%	31.4%	100.0%	3.83	1.042	561.351*** (df=1, 14,491)
	학부모	10,487	0.9%	3.3%	32.2%	49.3%	14.3%	100.0%	3.73	0.778	
	교직원	4,006	1.7%	3.8%	21.5%	48.6%	24.4%	100.0%	3.90	0.869	
성별	남자	5,511	2.6%	3.6%	22.1%	38.9%	32.8%	100.0%	3.96	0.960	15.092*** (df=8735.503)
	여자	16,014	1.6%	4.3%	30.9%	45.2%	18.0%	100.0%	3.74	0.859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0.9%	2.6%	25.3%	46.2%	25.0%	100.0%	3.92	0.827	51.592*** (df=2, 14,490)
	중학교	6,367	2.5%	5.4%	32.8%	40.0%	19.3%	100.0%	3.68	0.929	
	고등학교	2,401	5.2%	8.5%	35.3%	39.3%	11.7%	100.0%	3.44	0.981	
지역별	시지역	18,490	2.0%	4.2%	29.5%	43.8%	20.5%	100.0%	3.77	0.889	-11.081** (df=4094.939)
	군지역	3,035	1.4%	3.6%	22.7%	42.4%	29.9%	100.0%	3.96	0.888	

*p<0.05, **p<0.01, ***p<0.001

주제 2. 경남교육의 현주소

◎ 질문. 귀하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	-	-	-	-	-	-	-	-	561.351*** (df=1, 14,491)
	학부모	10,487	0.7%	3.0%	17.9%	44.6%	33.8%	100.0%	4.08	0.834	
	교직원	4,006	3.5%	8.0%	26.0%	41.3%	21.2%	100.0%	3.69	1.004	
성별	남자	2,311	3.1%	5.6%	24.4%	42.5%	24.4%	100.0%	3.80	0.973	-9.477*** (df=3073.632)
	여자	12,182	1.2%	4.2%	19.2%	44.0%	31.4%	100.0%	4.00	0.883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4%	3.8%	18.9%	42.9%	33.0%	100.0%	4.02	0.892	51.592*** (df=2, 14,490)
	중학교	3,179	1.7%	5.2%	21.7%	45.4%	26.0%	100.0%	3.89	0.909	
	고등학교	1,700	1.6%	6.1%	23.8%	45.0%	23.5%	100.0%	3.83	0.914	
지역별	시지역	12,552	1.4%	4.3%	19.9%	44.0%	30.4%	100.0%	3.98	0.893	2,808** (df=2494.030)
	군지역	1,941	2.2%	5.2%	21.2%	41.7%	29.7%	100.0%	3.91	0.954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배움중심수업(학생 참여활동 중심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2.4%	4.0%	30.8%	36.1%	26.7%	100.0%	3.81	0.957	168.886*** (df=2, 21,522)
	학부모	10,487	1.0%	6.6%	37.0%	45.2%	10.2%	100.0%	3.57	0.801	
	교직원	4,006	1.6%	5.6%	26.5%	50.6%	15.7%	100.0%	3.73	0.847	
성별	남자	5,511	2.1%	4.6%	28.3%	40.3%	24.7%	100.0%	3.81	0.930	12.583*** (df=8834.268)
	여자	16,014	1.4%	5.9%	34.6%	44.3%	13.8%	100.0%	3.63	0.844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0.9%	4.5%	30.9%	46.2%	17.5%	100.0%	3.75	0.827	154.828*** (df=2, 21,522)
	중학교	6,367	2.3%	6.0%	35.6%	38.8%	17.3%	100.0%	3.63	0.915	
	고등학교	2,401	3.4%	9.9%	37.4%	39.3%	10.0%	100.0%	3.43	0.919	
지역별	시지역	18,490	1.7%	5.8%	33.8%	42.8%	15.9%	100.0%	3.65	0.872	-9.850*** (df=4153.063)
	군지역	3,035	1.2%	4.0%	27.9%	45.9%	21.2%	100.0%	3.82	0.849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3.3%	5.1%	33.4%	33.0%	25.2%	100.0%	3.72	1.005	166.014*** (df=2, 21,522)
	학부모	10,487	1.5%	6.5%	42.1%	42.0%	7.9%	100.0%	3.48	0.791	
	교직원	4,006	3.1%	7.2%	24.2%	49.4%	16.1%	100.0%	3.68	0.934	
성별	남자	5,511	3.0%	4.9%	28.1%	39.2%	24.8%	100.0%	3.78	0.973	16.489*** (df=8685.973)
	여자	16,014	2.2%	6.6%	38.6%	40.9%	11.7%	100.0%	3.53	0.864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1.5%	5.0%	35.0%	42.4%	16.1%	100.0%	3.66	0.858	135.570*** (df=2, 21,522)
	중학교	6,367	3.2%	6.5%	37.8%	37.3%	15.2%	100.0%	3.55	0.933	
	고등학교	2,401	5.1%	11.5%	35.8%	38.2%	9.4%	100.0%	3.35	0.976	
지역별	시지역	18,490	2.5%	6.4%	36.9%	40.1%	14.1%	100.0%	3.57	0.897	-11.035*** (df=4090.082)
	군지역	3,035	1.9%	4.7%	29.7%	42.7%	21.0%	100.0%	3.76	0.898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	-	-	-	-	-	-	-	121.967*** (df=1, 14,491)	
	학부모	10,487	1.6%	8.2%	45.5%	37.3%	7.4%	100.0%	3.41		0.806
	교직원	4,006	2.4%	8.7%	30.5%	45.5%	12.9%	100.0%	3.58		0.907
성별	남자	2,311	2.5%	8.2%	35.3%	43.0%	11.0%	100.0%	3.52	0.884	3.998*** (df=3128.236)
	여자	12,182	1.7%	8.3%	42.6%	38.9%	8.5%	100.0%	3.44	0.829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6%	7.7%	41.3%	40.2%	9.2%	100.0%	3.48	0.828	22.407*** (df=2, 14,490)
	중학교	3,179	2.0%	7.8%	42.3%	38.9%	9.0%	100.0%	3.45	0.840	
	고등학교	1,700	2.8%	12.5%	40.5%	37.3%	6.9%	100.0%	3.33	0.882	
지역별	시지역	12,552	1.9%	8.5%	43.0%	38.5%	8.1%	100.0%	3.42	0.831	-10.001*** (df=2520.439)
	군지역	1,941	1.8%	6.9%	31.1%	46.4%	13.8%	100.0%	3.64	0.868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	-	-	-	-	-	-	-	38.869*** (df=1, 14,491)	
	학부모	10,487	1.3%	8.2%	43.6%	38.7%	8.2%	100.0%	3.44		0.807
	교직원	4,006	1.6%	8.7%	35.4%	42.7%	11.6%	100.0%	3.54		0.867
성별	남자	2,311	1.6%	8.5%	39.6%	40.6%	9.7%	100.0%	3.48	0.844	0.759 (df=3196.135)
	여자	12,182	1.3%	8.3%	41.8%	39.6%	9.0%	100.0%	3.47	0.822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1%	6.9%	40.0%	42.1%	9.9%	100.0%	3.53	0.807	80.951*** (df=2, 14,490)
	중학교	3,179	1.6%	10.0%	44.3%	36.1%	8.1%	100.0%	3.39	0.835	
	고등학교	1,700	2.5%	13.2%	44.2%	33.4%	6.8%	100.0%	3.29	0.869	
지역별	시지역	12,552	1.5%	8.5%	42.5%	39.0%	8.5%	100.0%	3.45	0.821	-9.036*** (df=2558.812)
	군지역	1,941	0.9%	7.0%	33.9%	44.8%	13.4%	100.0%	3.63	0.833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환경이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2.6%	4.4%	30.3%	34.4%	28.3%	100.0%	3.82	0.980	282.657*** (df=2, 21,522)
	학부모	10,487	1.6%	6.5%	38.4%	44.1%	9.4%	100.0%	3.53	0.813	
	교직원	4,006	1.2%	3.6%	24.3%	54.7%	16.2%	100.0%	3.81	0.788	
성별	남자	5,511	2.1%	3.9%	26.9%	40.7%	26.4%	100.0%	3.85	0.927	16.769*** (df=8918.527)
	여자	16,014	1.7%	5.7%	35.3%	43.7%	13.6%	100.0%	3.62	0.852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1.2%	4.6%	30.2%	45.2%	18.8%	100.0%	3.76	0.851	158.885*** (df=2, 21,522)
	중학교	6,367	2.4%	5.8%	37.2%	38.8%	15.8%	100.0%	3.60	0.903	
	고등학교	2,401	3.5%	7.7%	38.0%	41.5%	9.3%	100.0%	3.45	0.894	
지역별	시지역	18,490	1.9%	5.6%	34.3%	42.4%	15.8%	100.0%	3.64	0.879	-13.521*** (df=4178.798)
	군지역	3,035	1.3%	3.0%	26.4%	45.9%	23.4%	100.0%	3.87	0.847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3.5%	5.4%	30.0%	31.2%	29.9%	100.0%	3.79	1.043	462.893*** (df=2, 21,522)
	학부모	10,487	2.8%	9.9%	42.7%	36.9%	7.7%	100.0%	3.37	0.868	
	교직원	4,006	2.1%	6.9%	26.7%	50.2%	14.1%	100.0%	3.67	0.876	
성별	남자	5,511	3.0%	5.6%	27.7%	37.1%	26.6%	100.0%	3.79	0.995	20.053*** (df=8965.931)
	여자	16,014	2.9%	8.7%	38.2%	37.7%	12.5%	100.0%	3.48	0.921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2.3%	7.8%	35.2%	37.4%	17.3%	100.0%	3.60	0.937	45.961*** (df=2, 21,522)
	중학교	6,367	3.6%	7.3%	35.6%	37.3%	16.2%	100.0%	3.55	0.967	
	고등학교	2,401	4.6%	10.1%	36.4%	39.0%	9.9%	100.0%	3.40	0.956	
지역별	시지역	18,490	3.1%	8.3%	36.7%	36.8%	15.1%	100.0%	3.53	0.952	-13.985*** (df=4197.529)
	군지역	3,035	1.7%	5.2%	29.0%	41.8%	22.3%	100.0%	3.78	0.91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7,032	3.2%	5.6%	33.5%	32.1%	25.6%	100.0%	3.71	1.009	919.081*** (df=2, 21,522)
	학부모	10,487	3.9%	14.7%	48.1%	27.9%	5.4%	100.0%	3.16	0.878	
	교직원	4,006	1.8%	5.9%	29.3%	48.8%	14.2%	100.0%	3.68	0.856	
성별	남자	5,511	3.1%	6.1%	31.3%	36.4%	23.1%	100.0%	3.70	0.988	23.546*** (df=9083.683)
	여자	16,014	3.3%	11.5%	42.8%	32.0%	10.4%	100.0%	3.35	0.929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2.5%	9.7%	39.1%	34.1%	14.6%	100.0%	3.49	0.941	108.222*** (df=2, 21,522)
	중학교	6,367	3.6%	9.1%	40.9%	32.2%	14.2%	100.0%	3.44	0.964	
	고등학교	2,401	6.4%	14.9%	40.7%	31.0%	7.0%	100.0%	3.17	0.983	
지역별	시지역	18,490	3.4%	10.7%	41.1%	32.1%	12.7%	100.0%	3.40	0.956	-14.736*** (df=4143.595)
	군지역	3,035	2.4%	6.2%	32.6%	39.5%	19.3%	100.0%	3.67	0.935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부정부패와 학교비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	-	-	-	-	-	-	-	774.881*** (df=1, 14,491)	
	학부모	10,487	2.3%	6.7%	34.0%	41.3%	15.7%	100.0%	3.61		0.908
	교직원	4,006	1.5%	3.1%	15.2%	46.8%	33.4%	100.0%	4.08		0.860
성별	남자	2,311	1.9%	4.5%	22.3%	46.1%	25.2%	100.0%	3.88	0.900	8.298*** (df=3292.827)
	여자	12,182	2.2%	6.0%	29.9%	42.2%	19.7%	100.0%	3.71	0.92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9%	5.2%	28.9%	42.5%	21.5%	100.0%	3.77	0.909	12.320*** (df=2, 14,490)
	중학교	3,179	2.6%	6.2%	28.8%	42.4%	20.0%	100.0%	3.71	0.941	
	고등학교	1,700	2.5%	7.8%	27.8%	45.4%	16.5%	100.0%	3.66	0.928	
지역별	시지역	12,552	2.2%	5.9%	29.9%	42.7%	19.3%	100.0%	3.71	0.918	-10.073*** (df=2601.298)
	군지역	1,941	1.5%	4.5%	21.8%	43.7%	28.5%	100.0%	3.93	0.902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최근 3년간 경남의 교육혁신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조사대상	학생	-	-	-	-	-	-	-	-	175.034*** (df=1, 14,491)	
	학부모	10,487	1.4%	6.0%	49.7%	37.6%	5.3%	100.0%	3.39		0.742
	교직원	4,006	1.6%	5.7%	35.1%	48.3%	9.3%	100.0%	3.58		0.800
성별	남자	2,311	2.1%	6.3%	37.9%	46.0%	7.7%	100.0%	3.51	0.809	4.215*** (df=3114.939)
	여자	12,182	1.4%	5.8%	47.1%	39.5%	6.2%	100.0%	3.43	0.753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1%	5.3%	45.0%	41.8%	6.8%	100.0%	3.48	0.746	30.904*** (df=2, 14,490)
	중학교	3,179	2.1%	6.9%	46.7%	38.3%	6.0%	100.0%	3.39	0.789	
	고등학교	1,700	2.5%	7.7%	47.1%	37.8%	4.9%	100.0%	3.35	0.793	
지역별	시지역	12,552	1.5%	6.1%	47.2%	39.2%	6.0%	100.0%	3.42	0.760	-9.968*** (df=14491)
	군지역	1,941	1.1%	4.7%	35.9%	49.2%	9.1%	100.0%	3.61	0.762	

*p<0.05, **p<0.01, ***p<0.001

주제 3. 경남교육정책의 평가

◎ 질문. 귀하는 다음 4개의 경남교육 역5점과제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행복학교(경남형 혁신학교) 운영 | ②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 ③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④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 ⑤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708.807*** (df=4)
	학부모	10,487	28.3%	32.0%	29.4%	3.9%	6.4%	100.0%	
	교직원	4,006	26.4%	29.6%	22.3%	16.6%	5.1%	100.0%	
성별	남자	2,311	28.8%	24.9%	28.7%	10.8%	6.8%	100.0%	85.028*** (df=4)
	여자	12,182	27.6%	32.6%	27.2%	6.7%	5.9%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26.4%	36.2%	25.4%	6.4%	5.6%	100.0%	327.702*** (df=8)
	중학교	3,179	30.5%	22.1%	31.5%	8.6%	7.3%	100.0%	
	고등학교	1,700	30.5%	21.2%	31.6%	10.4%	6.3%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27.3%	32.0%	27.9%	6.8%	6.0%	100.0%	70.740*** (df=4)
	군지역	1,941	30.9%	27.3%	24.2%	11.1%	6.5%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다음 중 경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교육격차 해소 | ② 인성교육 확대 | ③ 교원역량 강화 | ④ 진로교육 확대 | ⑤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 |
 ⑥ 학교문화 혁신 | ⑦ 기초 학력 향상 | ⑧ 일반고 학교 교육력 강화 | ⑨ 평화인권교육 확대 | ⑩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조사대상	학생	-	-	-	-	-	-	-
	학부모	10,487	14.6%	48.4%	7.3%	11.3%	0.8%	3.9%
	교직원	4,006	8.1%	40.3%	7.8%	4.3%	4.0%	21.1%
성별	남자	2,311	11.7%	43.9%	7.5%	5.9%	1.9%	14.7%
	여자	12,182	13.0%	46.6%	7.4%	10.0%	1.6%	7.5%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3.3%	48.4%	7.5%	7.9%	1.9%	8.6%
	중학교	3,179	11.6%	43.0%	7.8%	12.3%	1.4%	7.8%
	고등학교	1,700	12.0%	39.6%	6.5%	11.9%	0.8%	10.6%
지역별	시지역	12,552	12.8%	46.7%	7.3%	9.6%	1.6%	7.9%
	군지역	1,941	13.1%	43.0%	7.9%	8.1%	2.1%	13.5%

구분		⑦	⑧	⑨	⑩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1568.283*** (df=9)
	학부모	4.6%	6.3%	2.2%	0.6%	100.0%	
	교직원	5.6%	5.1%	1.4%	2.3%	100.0%	
성별	남자	5.8%	4.6%	1.8%	2.2%	100.0%	197.768*** (df=9)
	여자	4.7%	6.2%	2.0%	1.0%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5.2%	4.1%	2.1%	1.0%	100.0%	309.608*** (df=18)
	중학교	4.4%	8.4%	1.8%	1.5%	100.0%	
	고등학교	4.4%	11.5%	1.8%	0.9%	100.0%	
지역별	시지역	4.8%	6.3%	2.0%	1.0%	100.0%	112.521*** (df=9)
	군지역	5.4%	3.2%	2.0%	1.7%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다음 중 현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문제 보기

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배움 중심 교육과정 운영) | 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③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 ④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
 ⑤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공정한 교육행정 지원) | ⑥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	445.157*** (df=5)
	학부모	10,487	17.5%	28.4%	30.8%	10.7%	9.1%	3.5%	100.0%	
	교직원	4,006	27.4%	34.1%	17.0%	7.4%	11.9%	2.2%	100.0%	
성별	남자	2,311	20.8%	33.0%	23.7%	9.6%	9.8%	3.1%	100.0%	20.059*** (df=5)
	여자	12,182	20.1%	29.4%	27.6%	9.8%	9.9%	3.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9.2%	29.3%	29.8%	9.5%	9.3%	2.9%	100.0%	122.110*** (df=10)
	중학교	3,179	22.7%	31.7%	21.1%	9.9%	11.1%	3.5%	100.0%	
	고등학교	1,700	21.8%	30.4%	22.2%	11.3%	10.9%	3.4%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19.8%	29.0%	28.2%	10.0%	9.8%	3.2%	100.0%	96.284*** (df=5)
	군지역	1,941	22.8%	36.4%	18.9%	8.8%	10.4%	2.7%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 ⑦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21.3%	24.6%	3.6%	25.6%	2.2%
	교직원	4,006	37.8%	16.6%	2.9%	25.0%	3.3%
성별	남자	2,311	31.9%	21.9%	4.8%	18.7%	3.0%
	여자	12,182	24.8%	22.5%	3.1%	26.7%	2.4%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27.1%	22.5%	3.2%	29.7%	2.1%
	중학교	3,179	24.7%	22.3%	3.7%	17.1%	2.5%
	고등학교	1,700	21.3%	22.1%	3.7%	17.2%	5.0%
지역별	시지역	12,552	24.8%	22.5%	3.4%	26.1%	2.5%
	군지역	1,941	33.0%	21.7%	3.2%	21.4%	2.6%

구분		⑥	⑦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539.048*** (df=6)
	학부모	14.9%	7.8%	100.0%	
	교직원	11.4%	3.0%	100.0%	
성별	남자	14.5%	5.2%	100.0%	112.705*** (df=6)
	여자	13.8%	6.7%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0%	6.4%	100.0%	771.386*** (df=12)
	중학교	23.4%	6.3%	100.0%	
	고등학교	23.9%	6.8%	100.0%	
지역별	시지역	14.0%	6.7%	100.0%	68.286*** (df=6)
	군지역	13.1%	5.0%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배움이 즐거운 교실 | ② 행복학교 운영 | ③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 ④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 |
 ⑤ 맞춤형 특수교육 | ⑥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 | ⑦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33.8%	21.9%	2.8%	8.9%	4.4%
	교직원	4,006	50.4%	11.7%	2.5%	12.2%	2.6%
성별	남자	2,311	40.0%	19.1%	3.9%	9.4%	3.0%
	여자	12,182	38.1%	19.1%	2.5%	9.9%	4.1%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41.3%	20.5%	2.8%	10.5%	3.7%
	중학교	3,179	33.8%	17.0%	2.7%	9.2%	4.0%
	고등학교	1,700	30.8%	15.4%	2.6%	7.2%	5.2%
지역별	시지역	12,552	37.5%	19.5%	2.7%	9.8%	4.0%
	군지역	1,941	43.8%	16.6%	2.7%	9.9%	3.6%

구분		⑥	⑦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497.633*** (df=6)
	학부모	27.1%	1.1%	100.0%	
	교직원	19.4%	1.2%	100.0%	
성별	남자	23.2%	1.4%	100.0%	28.654*** (df=6)
	여자	25.3%	1.0%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0.4%	0.8%	100.0%	376.260*** (df=12)
	중학교	32.2%	1.1%	100.0%	
	고등학교	37.5%	1.3%	100.0%	
지역별	시지역	25.4%	1.1%	100.0%	33.524*** (df=6)
	군지역	22.2%	1.2%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⑦	⑧	⑨	⑩	⑪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44.7%	18.6%	7.8%	10.0%	6.3%
	교직원	4,006	26.2%	45.4%	7.0%	6.5%	6.6%
성별	남자	2,311	33.1%	37.8%	5.8%	7.2%	6.3%
	여자	12,182	40.8%	23.8%	7.9%	9.4%	6.4%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41.1%	24.0%	7.7%	8.8%	6.8%
	중학교	3,179	37.7%	29.5%	7.1%	9.0%	5.5%
	고등학교	1,700	34.4%	31.1%	7.8%	10.5%	5.9%
지역별	시지역	12,552	40.2%	24.8%	7.6%	9.4%	6.5%
	군지역	1,941	35.7%	34.0%	7.7%	6.9%	6.1%
구분		⑫	⑬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1184.185*** (df=6)		
	학부모	2.5%	10.1%	100.0%			
	교직원	3.2%	5.1%	100.0%			
성별	남자	3.4%	6.4%	100.0%	218.684*** (df=6)		
	여자	2.5%	9.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2.6%	9.0%	100.0%	85.280*** (df=12)		
	중학교	2.6%	8.6%	100.0%			
	고등학교	2.8%	7.5%	100.0%			
지역별	시지역	2.7%	9.0%	100.0%	81.603*** (df=6)		
	군지역	2.2%	7.4%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⑦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인성교육 | ⑧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⑨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 ⑪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 ⑫ 나라사랑 교육 강화 | ⑬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⑦	⑧	⑨	⑩	⑪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66.6%	12.8%	5.0%	7.2%	5.2%
	교직원	4,006	54.3%	33.0%	3.5%	3.3%	3.1%
성별	남자	2,311	52.2%	30.1%	4.2%	4.8%	4.5%
	여자	12,182	65.3%	16.2%	4.7%	6.3%	4.7%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65.4%	16.8%	4.3%	6.1%	4.8%
	중학교	3,179	60.5%	20.7%	4.6%	5.8%	4.1%
	고등학교	1,700	56.1%	23.0%	6.0%	6.4%	4.9%
지역별	시지역	12,552	64.1%	17.3%	4.5%	6.3%	4.7%
	군지역	1,941	57.7%	25.3%	5.0%	4.9%	4.1%

구분		⑫	⑬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843.964*** (df=6)
	학부모	1.4%	1.8%	100.0%	
	교직원	1.8%	1.0%	100.0%	
성별	남자	2.5%	1.7%	100.0%	282.675*** (df=6)
	여자	1.4%	1.4%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3%	1.3%	100.0%	105.672*** (df=12)
	중학교	2.2%	2.1%	100.0%	
	고등학교	2.0%	1.6%	100.0%	
지역별	시지역	1.5%	1.6%	100.0%	83.362*** (df=6)
	군지역	2.0%	1.0%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⑲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⑬	⑭	⑮	⑯	⑰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32.5%	25.6%	8.3%	1.8%	15.9%
	교직원	4,006	36.6%	16.8%	9.2%	1.4%	20.6%
성별	남자	2,311	34.9%	21.9%	8.2%	1.2%	15.4%
	여자	12,182	33.4%	23.4%	8.6%	1.8%	17.5%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35.5%	22.0%	8.3%	1.7%	18.2%
	중학교	3,179	29.2%	26.5%	9.9%	1.5%	15.4%
	고등학교	1,700	31.2%	23.8%	7.4%	1.9%	15.2%
지역별	시지역	12,552	33.6%	23.2%	8.7%	1.8%	16.9%
	군지역	1,941	33.5%	22.7%	7.9%	1.2%	18.9%

구분		⑬	⑰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230.504*** (df=6)
	학부모	9.5%	6.4%	100.0%	
	교직원	12.3%	3.1%	100.0%	
성별	남자	14.1%	4.5%	100.0%	56.249*** (df=6)
	여자	9.6%	5.7%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2%	5.1%	100.0%	130.578*** (df=12)
	중학교	11.2%	6.3%	100.0%	
	고등학교	14.6%	5.9%	100.0%	
지역별	시지역	10.1%	5.7%	100.0%	23.231*** (df=6)
	군지역	11.8%	4.0%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⑭ 학교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 ⑮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
 ⑯ 포근한 보건의료 | ⑰ 안전한 건강급식 | ⑱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 ㉠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⑬	⑭	⑮	⑯	⑰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28.6%	41.1%	5.8%	0.8%	9.3%
	교직원	4,006	29.8%	36.5%	6.6%	0.8%	6.5%
성별	남자	2,311	30.2%	32.6%	7.9%	1.1%	7.5%
	여자	12,182	28.7%	41.2%	5.7%	0.8%	8.7%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30.3%	40.8%	6.0%	0.8%	8.1%
	중학교	3,179	25.4%	40.2%	5.9%	0.9%	9.8%
	고등학교	1,700	28.1%	33.6%	6.3%	1.1%	8.9%
지역별	시지역	12,552	28.9%	40.5%	5.8%	0.9%	8.7%
	군지역	1,941	29.4%	35.6%	7.6%	0.6%	7.5%

구분		⑬	⑰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112.610*** (df=6)
	학부모	13.2%	1.2%	100.0%	
	교직원	18.9%	0.9%	100.0%	
성별	남자	19.5%	1.2%	100.0%	101.931*** (df=6)
	여자	13.9%	1.0%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3.2%	1.0%	100.0%	130.800*** (df=12)
	중학교	16.2%	1.6%	100.0%	
	고등학교	21.2%	0.8%	100.0%	
지역별	시지역	14.2%	1.0%	100.0%	45.702*** (df=6)
	군지역	18.5%	0.8%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②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③ 방과 후 학교 운영 |
 ④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⑤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⑥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⑦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⑧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17.3%	21.4%	31.5%	8.5%	7.7%
	교직원	4,006	20.8%	25.7%	15.6%	9.2%	12.1%
성별	남자	2,311	19.5%	28.0%	20.2%	9.5%	8.0%
	여자	12,182	18.0%	21.5%	28.4%	8.6%	9.1%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7.3%	20.4%	31.7%	8.7%	8.6%
	중학교	3,179	20.3%	26.4%	17.4%	9.1%	9.7%
	고등학교	1,700	20.0%	27.6%	19.4%	8.1%	9.4%
지역별	시지역	12,552	17.7%	22.5%	27.9%	8.8%	8.8%
	군지역	1,941	22.0%	22.8%	22.0%	8.5%	10.0%

구분	①	②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831.340*** (df=7)
	학부모	1.5%	10.2%	
	교직원	4.8%	4.7%	
성별	남자	4.1%	6.8%	135.054*** (df=7)
	여자	2.1%	9.0%	
학교급별	초등학교	2.0%	8.5%	360.828*** (df=14)
	중학교	3.0%	9.6%	
	고등학교	3.5%	7.3%	
지역별	시지역	2.4%	8.8%	69.061*** (df=7)
	군지역	2.8%	6.9%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지역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②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 ③ 방과 후 학교 운영 |
 ④ 학부모 교육 부담 해소 | ⑤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⑥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
 ⑦ 교직원복지 여건개선 | ⑧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14.4%	40.3%	13.0%	19.1%	7.7%
	교직원	4,006	21.7%	25.5%	3.6%	4.3%	8.5%
성별	남자	2,311	19.8%	32.0%	10.1%	8.9%	7.1%
	여자	12,182	15.8%	37.0%	10.5%	16.2%	8.1%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5.4%	36.1%	11.9%	16.3%	8.0%
	중학교	3,179	17.7%	37.0%	7.4%	13.3%	7.9%
	고등학교	1,700	19.5%	35.6%	8.1%	10.8%	7.6%
지역별	시지역	12,552	15.5%	37.0%	10.7%	16.0%	7.9%
	군지역	1,941	22.3%	31.4%	8.9%	8.4%	8.3%

구분	⑤	①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3567.969*** (df=7)
	학부모	1.1%	2.4%	
	교직원	25.6%	1.5%	
성별	남자	14.8%	1.9%	288.321*** (df=7)
	여자	6.5%	2.1%	
학교급별	초등학교	7.1%	2.0%	185.743*** (df=14)
	중학교	8.8%	2.4%	
	고등학교	10.4%	2.1%	
지역별	시지역	7.1%	2.1%	223.537*** (df=7)
	군지역	12.7%	1.9%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㉕ 조직 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㉖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㉗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㉘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㉙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㉚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 ㉛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㉔	㉕	㉖	㉗	㉘	㉙	㉚
조사대상	학생	-	-	-	-	-	-	-
	학부모	10,487	7.0%	3.2%	31.3%	31.1%	5.9%	1.5%
	교직원	4,006	15.9%	5.1%	34.9%	19.8%	5.5%	6.7%
성별	남자	2,311	13.3%	5.7%	28.1%	26.5%	5.4%	4.9%
	여자	12,182	8.7%	3.4%	33.1%	28.3%	5.9%	2.6%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8.9%	3.4%	33.4%	28.1%	5.9%	2.6%
	중학교	3,179	10.5%	4.2%	30.5%	27.7%	5.5%	3.1%
	고등학교	1,700	10.5%	4.9%	29.6%	28.4%	5.6%	4.4%
지역별	시지역	12,552	9.0%	3.7%	32.6%	28.1%	5.8%	2.8%
	군지역	1,941	12.6%	4.1%	30.4%	27.4%	5.6%	3.6%

구분	㉔	㉕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832.499*** (df=7)
	학부모	9.0%	11.0%	
	교직원	8.0%	4.1%	
성별	남자	9.1%	7.0%	137.100*** (df=7)
	여자	8.7%	9.3%	
학교급별	초등학교	8.5%	9.3%	54.779*** (df=14)
	중학교	9.2%	9.2%	
	고등학교	9.2%	7.4%	
지역별	시지역	8.7%	9.3%	35.031*** (df=7)
	군지역	8.9%	7.4%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㉔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 | ㉕ 조직·정원의 합리적 운영 | ㉖ 부정부패와 학교비리 척결 |
 ㉗ 소등학교 공감하는 교육 행정 서비스 | ㉘ 함께 가꾸는 교육재정 운용 | ㉙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
 ㉚ 교육의 질 관리 체계 혁신 | ㉛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㉔	㉕	㉖	㉗	㉘	㉙	㉚
조사대상	학생	-	-	-	-	-	-	-	-
	학부모	10,487	6.8%	3.2%	21.9%	36.3%	4.8%	1.7%	
	교직원	4,006	40.5%	6.4%	13.9%	16.8%	2.1%	9.3%	
성별	남자	2,311	24.7%	6.9%	17.4%	25.1%	4.0%	7.6%	
	여자	12,182	14.5%	3.5%	20.1%	32.0%	4.1%	3.1%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4.8%	3.6%	20.4%	32.3%	4.3%	3.5%	
	중학교	3,179	18.4%	4.7%	18.7%	28.8%	3.6%	3.8%	
	고등학교	1,700	19.1%	5.9%	17.7%	27.0%	3.6%	5.6%	
지역별	시지역	12,552	14.9%	3.9%	20.2%	31.3%	4.1%	3.4%	
	군지역	1,941	23.9%	5.2%	16.0%	28.2%	4.2%	6.6%	

구분		㉔	㉕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3349.716*** (df=7)
	학부모	22.9%	2.4%	100.0%	
	교직원	10.1%	0.9%	100.0%	
성별	남자	12.2%	2.1%	100.0%	393.024*** (df=7)
	여자	20.7%	2.0%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9.2%	1.9%	100.0%	102.967*** (df=14)
	중학교	19.8%	2.2%	100.0%	
	고등학교	19.4%	1.7%	100.0%	
지역별	시지역	20.1%	2.1%	100.0%	187.352*** (df=7)
	군지역	14.3%	1.6%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다음 중 경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배움중심수업의 확산 | ②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행복학교 운영 |
 ③ 과학교육 내실화 및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 ④ 독서문화 활성화 | ⑤ 선진화된 특수교육 지원 |
 ⑥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 ⑦ 해당없음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	1137.574*** (df=6)	
	학부모	10,487	17.7%	27.5%	5.0%	25.6%	2.1%	14.4%	7.7%		100.0%
	교직원	4,006	43.5%	20.1%	2.7%	22.1%	2.1%	5.7%	3.8%		100.0%
성별	남자	2,311	31.0%	27.6%	4.7%	18.9%	2.8%	8.9%	6.1%	100.0%	113.028*** (df=6)
	여자	12,182	23.7%	25.1%	4.3%	25.7%	2.0%	12.6%	6.6%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23.9%	25.6%	4.3%	28.6%	1.8%	9.4%	6.4%	100.0%	381.211*** (df=12)
	중학교	3,179	26.7%	24.9%	4.1%	17.4%	2.1%	17.4%	7.4%	100.0%	
	고등학교	1,700	27.0%	25.9%	5.1%	15.6%	3.8%	16.1%	6.5%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23.7%	25.5%	4.4%	25.5%	2.1%	12.2%	6.6%	100.0%	88.124*** (df=6)
	군지역	1,941	32.5%	25.3%	4.5%	19.1%	2.4%	10.5%	5.7%	100.0%	

*p<0.05, **p<0.01, ***p<0.001

주제 4. 경남교육의 발전 방안

◎ 질문. 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경남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 ① 인성교육 | ② 진로교육 | ③ 세계시민교육 | ④ 성교육 | ⑤ 창의성교육 | ⑥ 생태환경교육 |
⑦ 안전교육 | ⑧ 통일교육 | ⑨ 소프트웨어 활용교육 | ⑩ 특기적성교육 | ⑪ 과학교육 | ⑫ 수학교육 | ⑬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조사대상	학생	7,032	27.8%	22.8%	0.9%	9.7%	7.3%
	학부모	10,487	54.0%	10.8%	2.3%	2.9%	13.5%
	교직원	4,006	61.2%	9.3%	6.4%	1.0%	10.6%
성별	남자	5,511	41.8%	15.5%	2.1%	6.4%	8.8%
	여자	16,014	48.5%	14.1%	2.8%	4.2%	11.7%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50.8%	10.8%	2.7%	3.8%	11.7%
	중학교	6,367	40.3%	20.0%	2.2%	7.1%	9.0%
	고등학교	2,401	42.8%	19.1%	3.1%	3.6%	11.6%
지역별	시지역	18,490	46.9%	14.4%	2.5%	4.9%	10.9%
	군지역	3,035	46.1%	14.5%	3.5%	4.0%	11.0%
구분		⑥	⑦	⑧	⑨	⑩	⑪
조사대상	학생	1.4%	5.7%	1.7%	7.1%	10.5%	1.4%
	학부모	1.1%	1.5%	0.3%	4.0%	8.6%	0.4%
	교직원	2.0%	1.0%	0.4%	3.2%	2.5%	0.5%
성별	남자	1.2%	4.2%	1.5%	7.1%	6.1%	1.7%
	여자	1.4%	2.3%	0.5%	4.1%	8.8%	0.4%
학교급별	초등학교	1.6%	3.5%	0.9%	5.1%	6.6%	0.7%
	중학교	0.9%	1.8%	0.7%	4.9%	10.4%	0.8%
	고등학교	1.1%	1.4%	0.5%	3.4%	10.1%	0.7%
지역별	시지역	1.3%	2.7%	0.8%	4.8%	8.4%	0.7%
	군지역	1.8%	3.0%	0.7%	5.4%	6.6%	1.1%
구분		⑫	⑬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1.5%	2.2%	100.0%	3451.182*** (df=24)		
	학부모	0.5%	0.1%	100.0%			
	교직원	1.1%	0.8%	100.0%			
성별	남자	1.8%	1.8%	100.0%	565.017*** (df=12)		
	여자	0.7%	0.5%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0.9%	0.9%	100.0%	725.980*** (df=24)		
	중학교	0.8%	1.1%	100.0%			
	고등학교	1.3%	1.3%	100.0%			
지역별	시지역	0.9%	0.8%	100.0%	55.810*** (df=12)		
	군지역	1.6%	0.7%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수업내용 및 방법의 혁신 | ② 교사의 전문성 강화 | ③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 구축 |
 ④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지도체계 구축 | ⑤ 학부모와 소통하는 협력관계 형성 | ⑥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7,032	25.2%	9.5%	37.4%	21.6%	3.9%	2.4%	100.0%	2588.007*** (df=10)
	학부모	10,487	21.9%	16.3%	11.0%	43.7%	6.8%	0.3%	100.0%	
	교직원	4,006	30.4%	17.2%	18.2%	26.3%	6.6%	1.3%	100.0%	
성별	남자	5,511	27.2%	12.8%	30.6%	22.2%	5.4%	1.8%	100.0%	674.455*** (df=5)
	여자	16,014	23.6%	14.8%	17.6%	37.1%	6.0%	0.9%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2,757	23.5%	14.1%	20.7%	33.9%	7.1%	0.7%	100.0%	234.363*** (df=10)
	중학교	6,367	26.4%	14.8%	22.8%	30.5%	4.2%	1.3%	100.0%	
	고등학교	2,401	25.1%	14.0%	17.5%	37.2%	3.5%	2.7%	100.0%	
지역별	시지역	18,490	24.3%	14.1%	20.7%	34.0%	5.7%	1.2%	100.0%	35.689*** (df=5)
	군지역	3,035	26.1%	15.2%	22.8%	28.6%	6.3%	1.0%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의 진로교육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진로·직업체험의 활동비·경비 지원 | ②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자료제공 활성화 |
 ③ 교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 ④ 학생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 |
 ⑤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장 등 진로체험장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⑥ 자유학기제 활성화 |
 ⑦ 고성음악학교, 밀양영화학교 등 다양성 교육 확대 | ⑧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조사대상	학생	-	-	-	-	-	-	-
	학부모	10,487	23.2%	19.7%	5.1%	28.2%	12.2%	5.0%
	교직원	4,006	21.7%	16.7%	12.8%	13.7%	23.1%	6.4%
성별	남자	2,311	21.5%	16.7%	11.9%	20.9%	16.1%	7.4%
	여자	12,182	23.0%	19.3%	6.3%	24.8%	15.0%	5.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23.7%	17.7%	7.2%	24.6%	15.2%	4.9%
	중학교	3,179	22.5%	20.6%	6.8%	23.1%	15.4%	6.6%
	고등학교	1,700	17.8%	22.2%	8.6%	24.0%	14.5%	5.9%
지역별	시지역	12,552	22.9%	19.1%	6.9%	24.8%	14.5%	5.3%
	군지역	1,941	22.1%	17.4%	9.6%	20.2%	19.3%	5.7%

구분		⑦	⑧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755.244*** (df=7)
	학부모	6.3%	0.3%	100.0%	
	교직원	5.1%	0.5%	100.0%	
성별	남자	4.9%	0.6%	100.0%	135.697*** (df=7)
	여자	6.2%	0.4%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6.3%	0.4%	100.0%	82.577*** (df=14)
	중학교	4.6%	0.4%	100.0%	
	고등학교	6.6%	0.4%	100.0%	
지역별	시지역	6.1%	0.4%	100.0%	60.969*** (df=7)
	군지역	5.4%	0.3%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학생의 진학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경남대입정보센터 확대 운영 | ② 진학전문가 육성 및 대학진학전문위원단 운영 |
 ③ 권역별 고3부장 협의체 구성 및 진로·진학 T/F팀 구성·운영 | ④ 중학교를 포함한 진학지도 체제 구축 운영 |
 ⑤ 다양한 대입전형을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강화 | ⑥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역량 강화 |
 ⑦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18.7%	12.0%	3.8%	26.5%	6.6%
	교직원	4,006	21.9%	12.0%	6.4%	25.0%	4.9%
성별	남자	2,311	21.4%	13.1%	6.2%	23.8%	6.1%
	여자	12,182	19.2%	11.8%	4.2%	26.5%	6.1%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8.9%	11.4%	3.6%	26.1%	5.6%
	중학교	3,179	19.4%	12.0%	4.9%	32.7%	6.4%
	고등학교	1,700	23.9%	15.5%	8.7%	13.7%	8.4%
지역별	시지역	12,552	19.3%	11.9%	4.5%	26.2%	6.3%
	군지역	1,941	21.3%	12.5%	4.7%	25.6%	5.2%
구분		⑥	⑦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84.568*** (df=6)		
	학부모	32.1%	0.3%	100.0%			
	교직원	29.3%	0.3%	100.0%			
성별	남자	28.6%	0.8%	100.0%	45.763*** (df=6)		
	여자	31.9%	0.3%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34.0%	0.4%	100.0%	370.039*** (df=12)		
	중학교	24.3%	0.3%	100.0%			
	고등학교	29.4%	0.4%	100.0%			
지역별	시지역	31.5%	0.3%	100.0%	7.827 (df=6)		
	군지역	30.4%	0.3%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학생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학생 인성을 가꾸는 학교문화 조성 | ②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 ③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과정 운영 |
 ④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교육 확산 | ⑤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267.022*** (df=4)
	학부모	10,487	32.1%	13.0%	12.3%	42.4%	0.2%	100.0%	
	교직원	4,006	41.2%	7.4%	7.1%	43.0%	1.3%	100.0%	
성별	남자	2,311	41.4%	9.9%	8.7%	39.2%	0.8%	100.0%	65.571*** (df=4)
	여자	12,182	33.3%	11.8%	11.2%	43.2%	0.5%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35.3%	10.9%	10.8%	42.4%	0.6%	100.0%	17.833* (df=8)
	중학교	3,179	32.7%	12.8%	10.5%	43.3%	0.7%	100.0%	
	고등학교	1,700	33.9%	12.2%	11.4%	42.2%	0.3%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34.3%	11.6%	10.8%	42.7%	0.6%	100.0%	5.780 (df=4)
	군지역	1,941	36.5%	10.3%	11.1%	41.6%	0.5%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② 토론하는 교직원회 운영 | ③ 학생자치활동 강화 | ④ 인권교육 강화 |
 ⑤ 학생인권·교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 ⑥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	1191.047*** (df=5)
	학부모	10,487	16.9%	11.2%	22.8%	20.9%	27.8%	0.4%	100.0%	
	교직원	4,006	34.5%	24.0%	13.4%	11.7%	15.4%	1.0%	100.0%	
성별	남자	2,311	28.9%	23.4%	17.9%	13.6%	15.6%	0.6%	100.0%	329.625*** (df=5)
	여자	12,182	20.4%	13.1%	20.6%	19.3%	26.1%	0.5%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22.2%	14.6%	19.1%	19.5%	24.0%	0.6%	100.0%	59.927*** (df=10)
	중학교	3,179	19.9%	14.0%	22.5%	17.2%	25.9%	0.5%	100.0%	
	고등학교	1,700	22.8%	17.1%	21.7%	14.2%	23.8%	0.4%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21.0%	14.1%	20.3%	18.9%	25.2%	0.5%	100.0%	99.639*** (df=5)
	군지역	1,941	27.1%	19.1%	19.5%	14.9%	19.0%	0.4%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감 토론회 확산 | ② 교직원단체·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 추진 | ③ 단체교섭 추진 및 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 존중 문화 정착 | ④ 교원·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 ⑤ 사·군 등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특색교육 활성화 | ⑥ 다양한 교육영역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⑦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조사대상	학생	-	-	-	-	-	-
	학부모	10,487	29.1%	4.9%	2.8%	33.5%	13.0%
	교직원	4,006	39.8%	7.1%	9.5%	22.2%	11.5%
성별	남자	2,311	37.6%	7.2%	7.7%	23.8%	13.1%
	여자	12,182	31.0%	5.2%	4.1%	31.7%	12.5%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30.4%	5.2%	4.2%	33.1%	12.0%
	중학교	3,179	34.8%	5.5%	4.9%	26.6%	13.5%
	고등학교	1,700	36.2%	7.4%	7.2%	22.2%	14.0%
지역별	시지역	12,552	31.7%	5.5%	4.5%	31.2%	12.0%
	군지역	1,941	34.5%	5.8%	6.2%	25.0%	16.4%

구분		⑥	⑦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649.060*** (df=6)
	학부모	16.4%	0.3%	100.0%	
	교직원	9.4%	0.5%	100.0%	
성별	남자	10.3%	0.3%	100.0%	166.781*** (df=6)
	여자	15.3%	0.2%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14.7%	0.4%	100.0%	155.317*** (df=12)
	중학교	14.7%	-	100.0%	
	고등학교	12.6%	0.4%	100.0%	
지역별	시지역	14.9%	0.2%	100.0%	76.203*** (df=6)
	군지역	11.7%	0.4%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가방안전덮개를 활용한 등하곳길 안전 관리 | ② 정밀점검을 통한 학교노후시설 관리 |
 ③ 우레탄 트랙 제거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 | ④ 미세먼지 측정 등 실내 교실환경 개선 |
 ⑤ 체험 중심 안전교육으로 학교안전문화 정착 | ⑥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	303.971*** (df=5)
	학부모	10,487	11.9%	23.7%	9.3%	16.6%	38.0%	0.5%	100.0%	
	교직원	4,006	7.3%	37.4%	8.2%	14.9%	31.5%	0.7%	100.0%	
성별	남자	2,311	10.2%	29.0%	6.7%	12.0%	41.7%	0.4%	100.0%	72.125*** (df=5)
	여자	12,182	10.7%	27.3%	9.5%	16.9%	35.2%	0.4%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2.4%	26.5%	10.0%	15.9%	34.6%	0.6%	100.0%	168.047*** (df=10)
	중학교	3,179	7.0%	27.7%	7.4%	17.1%	40.3%	0.5%	100.0%	
	고등학교	1,700	7.2%	32.8%	6.4%	15.9%	37.5%	0.2%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10.8%	27.2%	9.2%	16.7%	35.7%	0.4%	100.0%	34.501*** (df=5)
	군지역	1,941	9.3%	29.8%	8.0%	12.8%	39.7%	0.4%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경남의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 ② 교직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③ 학생의 정서조절과 소통을 통한 공감적인 학교운영 | ④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 |
 ⑤ 처벌 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교육방법 전환 | ⑥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	-	-	-	-	334.405*** (df=5)
	학부모	10,487	19.1%	14.0%	54.9%	6.6%	5.2%	0.2%	100.0%	
	교직원	4,006	20.1%	7.3%	50.7%	10.0%	10.7%	1.2%	100.0%	
성별	남자	2,311	24.4%	11.5%	44.1%	9.4%	9.8%	0.8%	100.0%	141.287*** (df=5)
	여자	12,182	18.4%	12.2%	55.6%	7.2%	6.1%	0.5%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19.4%	12.8%	53.4%	7.4%	6.4%	0.6%	100.0%	21.574* (df=10)
	중학교	3,179	19.0%	10.7%	55.1%	7.8%	6.9%	0.5%	100.0%	
	고등학교	1,700	20.3%	10.7%	53.2%	7.4%	8.0%	0.4%	100.0%	
지역별	시지역	12,552	19.7%	12.4%	53.4%	7.6%	6.4%	0.5%	100.0%	30.925*** (df=5)
	군지역	1,941	17.1%	10.0%	56.4%	7.2%	8.7%	0.6%	100.0%	

*p<0.05, **p<0.01, ***p<0.001

◎ 질문. 귀하는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보기

① 농·어촌 지역 진학지도 지원 |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 ③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④ 초·중·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 ⑤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 ⑥ 체육복·교복 및 수학여행비 무상 지원 |
 ⑦ 교직원 복지 지원 | ⑧ 기타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조사대상	학생	-	-	-	-	-	-	-
	학부모	10,487	7.7%	5.3%	10.9%	9.7%	33.1%	31.1%
	교직원	4,006	11.2%	5.1%	13.1%	6.8%	34.0%	6.3%
성별	남자	2,311	11.9%	4.6%	15.0%	7.1%	32.3%	13.5%
	여자	12,182	8.0%	5.4%	10.8%	9.2%	33.5%	26.3%
학교급별	초등학교	9,614	7.9%	6.2%	10.8%	11.2%	32.2%	24.7%
	중학교	3,179	9.9%	3.1%	12.1%	4.1%	35.0%	26.0%
	고등학교	1,700	10.6%	3.9%	14.4%	5.2%	36.5%	18.4%
지역별	시지역	12,552	6.3%	5.1%	12.0%	9.2%	33.8%	26.0%
	군지역	1,941	23.7%	6.6%	8.0%	6.8%	30.7%	13.1%

구분		⑦	⑧	전체	χ^2
조사대상	학생	-	-	-	2621.953*** (df=7)
	학부모	1.4%	0.8%	100.0%	
	교직원	22.6%	0.9%	100.0%	
성별	남자	15.1%	0.5%	100.0%	441.084*** (df=7)
	여자	5.8%	0.8%	1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6.2%	0.8%	100.0%	338.822*** (df=14)
	중학교	8.9%	0.9%	100.0%	
	고등학교	10.2%	0.8%	100.0%	
지역별	시지역	6.7%	0.9%	100.0%	789.849*** (df=7)
	군지역	10.7%	0.4%	100.0%	

*p<0.05, **p<0.01, ***p<0.001

연구총괄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기획 김진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장
박진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연구책임 석종득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장
공동연구 손성학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아실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주임연구원
문지원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연구원
박효경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연구원
성동하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연구원
박은주 세상모든소통연구소 연구원

2017 교육정책 수요조사 연구보고서

인 쇄 2017년 12월

발 행 2017년 12월

발행처 세상모든소통연구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94, 3F

☎(051) 515-5551 / 팩스(051) 554-5598

발행인 세상모든소통연구소장

※ 본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